파주시지 ②

파주역사

坡州

G&G PAJU

파주시지 2

파주역사 坡州

G&G PAJU

용미리석불입상, 보물 제93호

가월리 구석기유적 출토 주먹도끼(사진제공 : 연세대학교 박물관)

월롱 덕은리 고인돌, 사적 제148호

교하 다율리 · 당하리 고인돌, 경기도 기념물 제129호

감악산비, 파주시 향토유적 제8호

서곡리 고려벽화, 파주시 향토유적 제16호

율곡 이이 선생의 얼이 서린 화석정,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

방촌 황희 선생의 얼이 서린 반구정,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호

조선 16대 임금 인조와 인열왕후를 합장한 장릉, 사적 제203호

† 일러두기

- 제2권은 파주시의 역사를 선사시대, 삼국 ·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 등의 네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파주시와 관련된 특징적인 주제들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 내용 중 근현대 「파주의 의병운동」과 「8 · 15해방과 6 · 25전쟁」은 새롭게 알려진 학계의 연구성과가 없어 지난 1995년에 발간된 『파주군지』의 내용을 토대로 시지 편찬실에서 축약 · 재구성하여 수록하였다.

- 유적지를 소개할 때 앞에 붙는 '파주(시)' 는 모두 생략하였다(예 : 파주 금파리 유적 → 금파리 유적).

- 파주시 교하지역의 신도시 이름은 '교하신도시' 로 통일하였다. 다만 교하지역 신도시의 조성과정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옛이름인 '운정신도시' 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곡릉천' 은 지난 2008년 말 국토해양부 중앙하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두 '공릉천' 으로 통일하여 옛이름을 살렸다.

- 부록으로 「파주연표」를 실었다. 연표는 선사시대의 경우 현재까지 발굴된 고고학적 성과를 정리하였으며, 역사시대의 경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의 연대기자료와 신문, 잡지, 관보 등의 파주 관련 내용을 활용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의 경우는 파주시청과 파주교육청 등 파주지역의 각종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자료와 일간신문 기사자료를 썼다.

- 「파주연표」의 원고는 김재상(공주대 대학원 사학과)이 작성하였다.

선사시대

선사시대의 파주 3
임진강가의 선사시대 파주 • 3
파주 지역의 선사 유적 • 6
1. 구석기시대 유적 • 6
1) 금파리 유적 • 6
2) 주월리 · 가월리 유적 • 9
3) 교하 운정지구 유적 • 11
4) 문산읍 부근 유적 • 13
5) 장산리 유적 • 13
6) 동파리 유적 • 13
7) 장파리 유적 • 14
2. 신석기시대 유적 • 14
1) 당동리 유적 • 14
2) 옥석리 유적 • 16
3) 교하리 유적 • 16
4) 율포리 유적 • 17
3. 청동기시대 유적 • 18
[1] 집터
1) 옥석리 유적 • 18
2) 교하리 유적 • 19
3) 당하리 유적 • 20
4) 식현리 유적 • 22
5) 당동리 유적 • 22
[2] 무덤
1) 옥석리 유적 • 24
2) 교하리 유적 • 24
3) 당하리 유적 • 25
4) 다율리 유적 • 27
5) 초리 유적 • 27

6) 하포리 유적 • 28
7) 심학산 유적 • 28
선사시대 임진강가의 살림 • 29
1. 구석기시대의 임진강 사람들 • 29
2. 신석기시대의 임진강 사람들 • 31
3. 청동기시대의 임진강 사람들 • 34

삼국 · 고려시대

삼국사기가 전하는 파주 43
파주의 역사 지명에 대하여 • 44
칠중성과 그 주변의 싸움 기록에 대하여 • 46
파주의 역사 인물에 대하여 • 48

감악산과 몰자비沒字碑와 설인귀 55
감악산의 역사적 위상 • 55
감악산과 설인귀 • 57
몰자비에 대해 • 59
감악산 제의祭儀의 변화 • 60

삼국의 쟁투지 칠중성 65
칠중성의 지정학적 요건과 고고학적 특징 • 65
칠중성을 둘러싼 삼국의 쟁투 • 68
칠중성이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이유 • 81

고려사가 전하는 파주 83
파주목의 형성과 경기 • 83
파주의 사회적 양상 • 86

파주의 경제적 형편 • 89
파주 지역의 신앙 • 92
파주의 고려 인물 • 95

혜음원과 파주 97
혜음원지 주변 지형과 교통로 • 98
혜음원의 창건 배경 • 100
혜음원의 창건 과정과 변화 • 103
발굴 조사 결과 나타난 혜음원의 구조 • 109

파주의 호족 115
고려 정권의 성격과 토착세력 • 115
주요 호족세력 • 116
1. 파평 지역과 윤신달 • 116
2. 염형명과 파주 염씨 • 119
3. 노강필과 교하 노씨 • 123
4. 장단 한씨 • 125
호족세력의 성격 • 128

조선시대

왕실과 사족의 파주 경영 133
국가와 왕실의 파주 경영 • 133
1. 세종비 청송 심씨 집안의 파주 경영 • 134
2. 안평대군 장인 연일 정씨 집안의 파주 경영 • 136
3. 태종과 세종의 동서인 교하 노씨 집안의 파주 경영 • 139
4. 세조비 정희왕후 파평 윤씨 집안의 파주 경영 • 141
1) 윤승순의 연혼관계 • 143
2) 윤곤 후손의 연혼관계 • 144

3) 윤향의 가계 • 146
4) 윤승경 후손 • 147
5) 윤승례 후손 • 147
5. 예종비 · 성종비 청주 한씨 집안의 파주 경영 • 149
양반 사족의 파주 경영 • 153
1. 장수 황씨 황희 집안의 파주 경영 • 153
2. 창녕 성씨 성수침과 성혼 집안의 파주 경영 • 153
3. 덕수 이씨 율곡 이이 집안의 파주 경영 • 156

선조 · 광해군 대의 풍수사상과 교하천도론 159
풍수설의 도입과 교하천도론 • 159
선조조 명나라 풍수설의 도입과정 • 161
광해조 천도론과 신궐창건 • 168
선조 · 광해조 풍수설의 성격 • 170
교하천도론과 왕실 능원 선택의 변화를 보는 시각 • 175

연행과 능행 179
연행 • 179
1. 『조천기』 • 183
2. 『연도기행』 • 187
3. 『가재연행록』 • 193
4. 『연행기사』 • 196
5. 『연원직지』 • 199
능행 • 201
1. 능 행차 • 201
2. 어로 • 203
1) 제릉齊陵, 재풍덕在豊德 • 203
2) 후릉厚陵, 재풍덕在豊德 • 204
3) 공릉恭陵, 재파주在坡州 • 204
4) 순릉順陵, 재공릉동북강在恭陵東北岡 • 204

5) 장릉長陵, 재교하在交河 • 204
3. 영조의 능행과 파주 • 205

파주 사족과 서원 209
사대부 가거처可居處와 파주의 사족 • 209
파주 사족의 기지개 — 파주향약과 파산서원 • 213
추로지향 파주의 한 모습 — 합향론과 위차 논란 • 222
파주 사족의 분열 — 노 · 소론 대결장으로서의 자紫 · 파원坡院 • 231
파주 향촌사회의 구성과 변화 • 239
조선 중기 이전 파주 지역 향촌사회의 구성 • 239
1. 파주 사족의 형성 배경 • 239
2. 장남의 낙남과 차남을 통한 가계계승 • 241
3. 통혼을 통한 사족 간의 관계망 • 243
조선 후기 파주 사족의 분화 • 246
1. 저지대로의 진출과 교하 언송사건 • 246
2. 주요 성씨들의 교하 정착과정 • 248
3. 파주향약의 실행 • 250
4. 파주 향사당 운영과 향안 • 251
5. 당파와 문중을 통한 파주 사족의 조직화와 분화 • 252
6. 각종 잡역과 의무에 시달린 상민들 • 257
일제 이후의 변화 • 259

근현대

파주의 의병운동 263
파주 의병운동의 배경 • 263
파주 의병운동의 전개 양상 • 265
1. 의병운동의 발단기 • 265
2. 의병운동의 고양기 • 268

3. 의병운동의 퇴조기 • 273
파주 의병의 구성과 투쟁 양상 • 277
1. 의병 구성의 특징 • 277
2. 의병의 투쟁양상과 지향 • 280

일제강점시대의 파주 289
일제의 한국강점과 파주 • 289
1. 헌병경찰통치의 개시와 파주 지역민의 저항의식 • 289
2. 파주의 애국인사 • 291
3. 장명산 사건 • 294
4. 파주의 토지조사사업 • 294
3 · 1운동과 파주 • 296
1. 1910년대 항일운동과 민족교육 • 296
2. 경기도의 3 · 1운동 • 298
3. 파주 지역의 3 · 1운동 • 299
4. 파주 지역 민족운동의 성격 • 302
3 · 1운동 이후 파주의 민족운동과 지역민의 생활 • 303
1. 3 · 1운동 이후 파주의 민족운동 • 303
2. 파주 지역민의 생활 • 307

8 · 15해방과 6 · 25전쟁 315
8 · 15해방과 파주 사회 • 315
1. 해방공간과 파주 • 315
2. 농지개혁 • 317
6 · 25전쟁과 파주 • 318
1. 개전 당시 상황 • 318
2. 인민군 점령 하의 파주 • 319
1) 당과 행정기구의 조직 • 320
2) 토지개혁과 농업현물세제 실시 • 321
3) 의용군 및 전쟁지원사업 동원 • 322

4) 정치선전과 숙청 • 324
3. 유엔군의 파주 수복 • 326
1) 미 해병대의 파주 수복 • 326
2) 수복 후 부역자 처리 문제 및 민간인 학살 • 327
4. 중공군 개입에 따른 공방전 • 328
1) 중공군의 파주 점령 • 328
2) 유엔군의 파주 재탈환 • 330
3) 중공군의 4월 공세와 파주 재점령 • 330
4) 1951년 5월 파주 공방전 • 331
5. 전선의 교착과 휴전 • 333
1) 전선의 교착 • 333
2) 휴전 • 333
6. 6 · 25전쟁의 피해상 • 334

산업화 · 정보화 시대의 파주 337
전후 한국경제 50년과 파주 • 337
1960년대 파주의 '기지촌문화' • 338
통일로와 자유로 개통 • 340
흐르는 강물, 산업화 물결 • 343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개발 • 347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 350
미래의 지식기반형 도시, 파주 • 352
새로운 교육도시로 성장 • 356
미래 사회로 다가가는 교하 U-City • 358

부록

파주연표 363
찾아보기 411

축약 차례

제1권 파주이야기
- 한 권으로 읽는 파주

서문
파주역사
파주산하
파주사람
파주365일
파주24시
파주미래
좌담, 파주 100년을 말한다

제3권 파주생활

자연과 지리
- 자연 환경
- 자연 생태
- 파주의 풍수
- 파주 읍치의 변화
- 파주의 옛길
- 시장과 생활권

지역 사회
- 정치와 행정
- 경제와 산업
- 사회와 문화

마을과 민속
- 토지이용과 인구변화
- 농업
- 임진강 어로
- 유통과 상업
- 물질문화
- 마을 공동체 조직
- 문중과 제사
- 관혼상제
- 민간신앙
- 세시와 놀이
- 설화와 민요
- 구술 생애사

종교
- 불교
- 유교
- 기독교

지명유래
찾아보기

제4권 파주사람

역사인물
- 역사 속의 파주 사람들
- 파주에 뿌리 내린 사람들
- 파주를 지킨 사람들

기록과 사건 속의 파주 사람들

현재사람

자연마을 사람들
경의선 사람들
민통선 사람들
임진강 사람들
신도시 사람들
시장 사람들
LCD산업단지 사람들
출판도시 사람들
헤이리 사람들
파주에 사는 외국인들

4.장인 · 명인

관광체험

1.안보관광
2.휴식레저
3.자연생태
4.특산물
5.맛집멋집

미래도시

1.첨단산업
2.유비쿼터스 교하신도시
3.미래교육

제5권 파주자랑

문화유산

1.향교
2.서원
3.능원
4.전통사찰
5.고려유적
6.산성
7.선사유적
8.명현유적
9.조선분묘

문화예술

1.축제
2.문화시설
3.문화마을

제6권 문헌자료집

1. 연대기 자료
2. 읍지 자료
3. 시문 자료
4. 근현대 자료
5. 옛지도 자료
6. 금석문 자료
7. 영상 자료

제7권 인물자료집

1. 고려시대
2. 조선시대
3. 근 · 현대 인물

부록

제8권 현황자료집

1. 공공기관
2. 행정
3. 정치
4. 경제
5. 교육
6. 사회
7. 문화예술
8. 관광
9. 체육
10. 유교시설
11. 종교

제9권 사진자료집

2008, 파주

파주_ 과거와 현재

산하, 풍광

1.옛 산하, 풍광
2.과거와 현재
3.현재 모습

생활 모습

1.파주사람들의 옛 생활
2.그리운 얼굴들

파주_ 현재와 미래

1.사라져가는 풍경
2.새로 나타나는 풍경

발문

부록

- 사진제공자 명단
- 파주생활사 사진 목록

선사시대

선사시대의 파주

선사시대의 파주

하문식_세종대 사학과 교수

임진강가의 선사시대 파주

파주 지역은 한반도의 허리인 중서부에 자리하면서 경기도의 서북쪽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으로 선사시대부터 역사 ·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문화의 꽃을 활발하게 피워 왔다. 특히 파주 지역의 지리 · 지세 조건은 일찍부터 선진 지역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여 이를 새롭게 변화 · 발전시켜 보다 우수한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예부터 인류가 터전을 잡고 살림을 꾸리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선사시대의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으며, 북부와 남부를 이어주는 점이적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파주 지역의 지형 조건을 보면, 크게 임진강과 광주산맥 · 마식령산맥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임진강의 하류에 자리한 이 지역은 감악산 언저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은 구릉성 산지와 강줄기 옆의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에는 광주산맥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솟아 있고, 북쪽으로는 동서 방향으로 마식령산맥이 있다. 따라서 파주 지역은 동쪽이 비교적 높고 서북쪽이 낮은 분지

모양을 이루고 있다.

지질은 동쪽의 산지 부근과 임진강 북쪽이 경기변성암 복합체에 속하는 편마암 지역으로 오랫동안 풍화가 있어 왔고 또한 깎여나가 현재는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임진강 유역의 상류와 하류 지역에는 현무암 대지가 형성되어 있어 다른 지역과 좋은 비교가 된다. 약 60만 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현무암 대지는 하천을 따라 흐르면서 곳곳에 주상절리면을 만들고 물에 의하여 깎여나가 협곡을 형성하였다. 또한 이 현무암 대지의 곳곳에는 홍적세의 고인류가 살림을 꾸린 유적이 많이 찾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임진강은 파주 지역의 서북쪽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으며, 주요 샛강으로는 문산천과 사천이 있다. 이 밖에도 공릉천 · 문산천 · 늘노천 등이 이곳에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구석기시대 유적은 임진강의 언저리에서 대부분 찾아지고 있지만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큰 물줄기보다 샛강처럼 작은 물줄기 옆의 구릉지대에서 조사되어 당시 사람들의 터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주 지역은 이러한 지형과 지질 구조, 그리고 여러 물줄기가 자리하고 있는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상당히 이른 시기인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림살이를 하여 왔던 자취가 여러 곳에서 조사되었다.

먼저 구석기시대의 유적 분포는 파주 지역의 지질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지역의 마지막 지질 활동은 홍적세 중기에 있었던 화산 활동인데 당시 평강 이북에 자리한 압산鴨山에서 일어났던 용암의 분출로 인하여 파주 · 문산 지역의 임진강 언저리에까지 용암 대지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파주 금파리 유적을 비롯하여 파주 주월리 · 가월리 유적 · 연천 전곡리 유적 등은 이러한 용암 대지 위에서 발견되고 있어 그 시기와 유적의 형성 배경, 옛사람들의 활동 범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임진강과 한탄강 언저리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구석기시대의 뗀석기가 찾아지고 있어 한국 구석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구나 이곳의 강 언저리에는 홍적세의 퇴적층(고토양층)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고 있어 이동을 전제로 살림살이를 한 구석기시대 고인류

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파주 지역에서 최근까지 조사된 신석기 유적과 유물은 홍적세의 구석기 유적과는 다른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구석기 유적이 주로 강 언저리에 자리한 반면에 신석기의 관련 유적은 대부분 산기슭의 끝부분에 자리한 구릉지대나 낮은 산 능선에서 찾아졌다. 이 지역 신석기 유적의 이러한 입지 조건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약간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이렇게 물줄기를 중심으로 살림을 꾸려 왔던 신석기시대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는 강 언저리보다 약간 높은 지역인 구릉지대에 터전을 잡았다는 것은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생업경제生業經濟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파주 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발굴된 파주 당동리 유적을 비롯하여 옥석리 유적 · 교하리 유적이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대표적 유물의 하나인 빗살무늬토기가 찾아진 곳은 파주 율포리 유적을 비롯하여 주월리 유적 · 육계토성 · 선유리 유적 · 봉일천리 유적 등이 있다. 특히 당동리 유적에서는 평면 생김새가 모줄임 네모꼴인 집터와 야외 화덕자리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신석기시대의 집터와 화덕자리는 최근 경기 지역의 여러 구릉지대에서 발굴되고 있어 비교 검토가 필요하며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파주 지역의 여러 곳에서 제법 많이 조사되고 출토되었다. 유적의 입지 조건은 신석기 유적과 비슷한 구릉지대나 얕은 산 능선이며 당시 사람들의 집터와 무덤인 고인돌 · 움무덤이 발굴되었고 간석기와 민무늬토기가 찾아지는 유물 출토지가 파주의 전역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에는 이 지역에 상당히 넓게 터전을 잡고 살았던 것 같다. 또한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집터와 고인돌 유적은 1960년대 초에 발굴 조사가 실시되어 한국 선사고고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집터는 평면 생김새가 네모꼴이나 긴 네모꼴인 것으로 보아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고인돌 유적은 탁자식과 개석식이 섞여 있다. 발굴된 집터 유적은 파주 옥석리 유적과 교하리 유적 · 당하리 유적 · 식현리 유적 · 당동리 유적 등이 있고 고인돌 유적은 옥석리 유적과 교하리 유적 · 다율리 유적 · 당하리 유적 등이 있다. 또한 진동면 초리와 하포리, 심학산 기슭에서도 고인돌이

찾아졌다. 한편 당하리 유적에서 조사된 움무덤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이 지역의 초기 정치체의 성격과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파주 지역은 우리 역사의 첫 장인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았던 선사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임진강은 옛사람들의 젖줄 역할을 하였던 것 같다.

여기에서는 먼저 파주 지역의 중요한 여러 선사시대 유적에 관한 그 대개를 소개한 다음 임진강가의 선사시대 파주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파주 지역의 선사 유적

1. 구석기시대 유적

1) 금파리 유적

파평면 금파리에 위치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곳은 현무암으로 형성된 남북 방향의 긴 대지 끝에 자리하며, 유적의 서쪽으로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다. 유적 언저리는 현무암 대지보다 낮은 지형으로 주변을 흐르는 샘내와 늘노천에 의하여 많이 깎여나가 임진강 쪽의 제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곳곳에 늪지가 발달하였다고 한다.

금파리 유적 전경

발굴은 금파리 마을을 지나 '파평

양봉원'이 있는 소나무 숲이 우거진 구릉 뒤쪽의 A지점과 북쪽의 장파리 쪽인 B지점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금파리 유적의 지층 구성은 현무암층을 기반으로 하여 크게 5개 층위로 구분되며, 위에서부터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I층(표토층)	경작층으로 이용되어 유기물이 많이 포함됨.
II층(황갈색 찰흙층)	적갈색 찰흙층 위에 얇게 쌓인 층으로 높은 지점에서만 관찰된다. 표토층과는 토양의 색깔이 뚜렷이 구분되며, 토양쐐기 구조가 발달한 점이 특징이다. A · B지구 모두에서 웅덩이 모양으로 파인 구덩이가 여러 개 찾아졌으며, 이 구덩이 안에서 석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III층(적갈색 찰흙층)	황갈색 찰흙층이 없는 낮은 지점에서는 표토층 바로 아래에 이 층이 나타난다. 굵기가 일정한 찰흙이 쌓인 층으로 II층의 토양쐐기가 연결되고 있다. 두께는 1~2m쯤 되며 토양의 색깔은 변화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밝아지면서 모래가 많아진다. 이 층에서 관찰되는 쐐기 모양의 수직 땅 갈라짐은 5~20cm의 두께를 보이고 있다.
IV층(황색 모래층)	굵기가 비교적 고른 모래층이 지표 아래 2.2~2.4m 되는 곳에서 나타난다. 수평으로 층리가 발달하였고 가는 모래층이 얇은 켜를 이루면서 관찰된다. 아래쪽으로는 큰 강돌들이 깔려 있다.
V층(현무암반층)	한탄강가에 폭넓게 형성된 기반암으로 위쪽에는 큰 강돌들이 깔려있다. 지표 아래 5~6m 되는 지점에서 나타나며, 표면은 울퉁불퉁하면서 물에 의하여 침식된 흔적이 관찰된다.

금파리 유적에서 나타난 현무암반층의 연대에 관하여는 50~60만 년 전 또는 3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현무암반층 위에 쌓인 퇴적물은 13만 년 전의 것으로 여기면서 추운 기후의 영향으로 토양쐐기 구조가 발달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금파리 유적의 A지점에서는 시굴 구덩(3개)과 구덩이 유구(10개)가 조사되었

금파리 유적 발굴 모습

다. 구덩이는 적갈색 찰흙층에 오목한 접시 모양으로 퇴적된 모습이며 여기에서 뗀석기가 찾아졌다.

이 구덩이 유구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는 고인류의 활동에 의한 것, 물의 영향, 짐승이 만든 것, 나무뿌리의 퇴적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석은 제시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구덩이 안에서 찾아진 유물들이 서로 접합되는 석기이기 때문에 구석기시대에 연모의 제작 행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A지점에서는 지표 아래 40~60cm 되는 곳에서 주먹도끼 · 자르개 · 찍개 그리고 대형의 몸돌 등이 찾아졌다. 그런데 이곳의 석기들은 잔손질된 것이 적고 특히 커다란 격지를 이용하여 만든 긴 날을 가진 자르개는 제작 수법에 있어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B지점에서도 황갈색 찰흙층 아래에 구덩이 유구가 있었고 여기에서 격지와 몸돌이 출토되었다.

이곳에서는 지표 밑 20~30cm부터 석기가 출토되지만 본래의 퇴적층은 자연 지형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이 깎여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석기는 대형의 몸돌과 석기 제작에 이용된 모룻돌 등이 있지만 찍개와 긁개 · 몸돌 등 비교적 작은 석기들이 많다. 출토 유물과 부합되는 석기로 볼 때 이곳에서 석기 제작 행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한편 금파리 유적에서는 석기가 3개의 지층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그것을 문화층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A지점에는 2문화층과 3문화층이, B지점에는 1~3문화층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화층을 지층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문화층	IV층(황색 모래층), 금파리 석기공작 I
2문화층	III층(적갈색 찰흙층), 금파리 석기공작 II
3문화층	II층(황갈색 찰흙층), 금파리 석기공작 III

금파리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를 만드는 데 쓰인 암질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영이나 규암이다.

1문화층에서는 매우 적은 양의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발굴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로 격지가 찾아졌다. 2문화층에서는 찍개와 긁개 · 격지가 발굴되었다.

3문화층에서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석기가 조사되었다.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여러 면 석기 · 가로날 도끼 · 찌르개 · 뾰족끝 찍개 · 몸돌 · 망치돌 등이 찾아졌다. 또한 이 문화층에서는 서로 부합되는 유물이 여러 점 발굴되어 석기의 제작 수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금파리 유적 출토 주먹도끼

금파리 구석기 유적의 연대에 관해서는 현재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모두 유적의 형성 배경, 위치, 출토 유물 등을 고려하여 인근의 연천 전곡리 유적과 비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석기의 생김새와 만든 수법을 보면 정교하게 잔손질한 떼기를 베푼 것이 없고 제작 방법에서 발달한 수법이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기나 중기 구석기 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전곡리 유적보다 현무암반층 위의 퇴적물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쌓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약간 늦은 시기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2) 주월리 · 가월리 유적

이 유적은 적성면 주월리와 가월리 일대에 자리한다. 이곳은 임진강의 남쪽 언저리로 물줄기는 여기에 이르러 ∩모양으로 유적 주변을 감싸고 흐른다. 주월리 유적은 경지 정리가 이루어진 널따란 대지 위에 남아 있는 구릉지대로 현재는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으며, 가월리 유적은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 주변 지역이다.

주월리 · 가월리 유적 전경

이곳은 1988년 지표에서 잘 만들어진 주먹도끼 · 찍개 · 긁개 등의 뗀석기가 찾아지면서 학계에 보고되어 1993년 사적(제389호) 지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대 박물관에서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유적의 층위는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 발굴된 전곡리 · 남계리 · 금파리 구석기 유적과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맨 아래에 현무암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 위에는 강물에 의하여 자갈과 모래가 퇴적되고 그 바로 위에 찰흙 성분이 많은 퇴적물이 자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월리 · 가월리 유적이 위치한 적성 지역에 이르러 임진강은 굽이쳐 흐르는 사행운동의 정점에 있고 이곳의 용암 대지는 상류 지역과 다르게 강가의 언저리에서만 관찰되고 있어 홍적세에 있었던 강물의 흐름이나 용암 대지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주월리 · 가월리 유적 출토 주먹도끼

실제로 주월리 · 가월리 유적에서 밝혀진 기본적인 층위는 맨 아래쪽에 현무암층이 있고 그 위에 자갈층, 모래층, 뻘층, 찰흙층으로 이루어진다. 뗀석기는 대부분 토양쐐기 구조가 찾아진 찰흙층의 위쪽에 해당하는 I층과 II층에서 찾아졌다.

출토 유물 가운데 지표에서 수습된 뗀석기는 가로날 도끼 · 주먹도끼 · 대형 긁개 · 홈날 석기 · 찍개 · 몸돌 등 대부분 큰 것이지만 격지로 만든 작은 석기도 있다. 특히 규암을 재질로 이용하여 만든 주먹도끼는 자연면이 많이 남아 있으면서 떼기를 베푼 타격면이 상당히 큰 점이 특징이다. 또한 만든 방법을 보면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다른 유적에서 찾아진 것보다 간단하면서도 세련된 떼기 수법이 관찰되고 있어 주목된다.

발굴 조사에서는 위층인 I층에서 몸돌 · 망치돌 · 홈날 석기 · 격지

가 찾아졌고, II층에서는 긁개 · 몸돌 · 홈날 석기가 출토되었다.

주월리 · 가월리 유적의 연대에 대하여 발굴 조사자는 퇴적층의 쌓인 모습과 유적 부근의 임진강 언저리에 분포한 자료를 열형광 연대측정 결과 10~24만 년이 나온 것을 바탕으로 4~5만 년 전에 유적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교하 운정지구 유적

이 유적은 교하읍 야당리 · 와동리 · 동패리에 위치하며, 교하 신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20여 지점의 비탈진 구릉 기슭의 끝부분이나 낮은 지대에서 구석기 관련 유물이 출토되어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의 층위는 각 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위에서부터 표토층(경작층), 명갈색 찰흙층, 암갈색 찰흙층, 적갈색 찰흙층, 모래층,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기는 찰흙층에서 찾아지고 있지만 특히 토양쐐기가 발달한 암갈색 찰흙층이나 그 바로 아래쪽에서 대부분 출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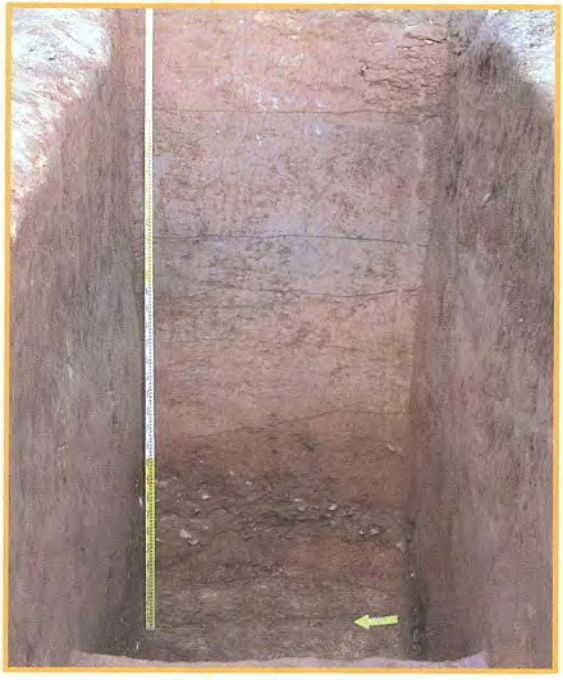
발굴된 석기는 몸돌 · 격지 · 망치돌 등 석기 제작 과정과 관련 있는 유물을 비롯하여 주먹도끼 · 주먹 찌르개 · 가로날 도끼 · 찍개 · 긁개 · 밀개 · 여러 면 석기 · 홈날 · 톱니날 석기 등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여러 석기 가운데 주먹도끼 · 가로날 도끼 · 찍개 등은 연천 전곡리 유적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의 구석기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와 비슷하여 이들 유적과 연대 문제, 석기 제작 수

교하 운정지구 유적 원경

법 등이 비교된다.

운정 택지개발지구에서 조사된 구석기 유적은 그동안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강 하류지역 구석기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교하 운정지구 12지점
층위



교하 운정지구 11 · 12지점
출토 뗀석기

교하 운정지구 16지점
출토 뗀석기

교하 운정지구 36지점
출토 뗀석기

4) 문산읍 부근 유적

일제강점기 때 일본학자 요코야마 쇼자부로[横山將三郎]가 파주 문산 부근에서 찾은 뗀석기에 '汶山'이라고 그 출토지를 기록하여 놓았지만 정확한 출토 지역은 알 수 없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横山資料(요코야마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뗀석기는 긁개와 자르개인데 주변에서 조사된 석기와 비교하여 볼 때 잘 만들어진 것으로 떼기를 베푼 모습이 아주 뚜렷하다.

이 유적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한국 구석기 연구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 장산리 유적

이 유적은 문산읍 장산1리에 위치하며 해발 100m쯤 되는 구릉지대에서 뗀석기가 찾아졌다. 유적 주변은 임진강의 하류 쪽으로 서해에 흘러들면서 강굽이가 있는 지역이며 곳곳에 자갈층이 확인되고 있다.

유물은 장산교회의 북동쪽에 있는 구릉에서 몸돌 · 찍개 · 여러 면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석기의 재질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규암과 입자가 굵은 석영을 이용하였다.

장산리 유적은 현재 지표에서 유물이 찾아졌기에 그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주변의 지형 조건이나 자갈층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임진강 유역의 중요한 구석기 유적 가운데 한 곳으로 이해된다.

6) 동파리 유적

진동면 동파리에 위치한 이 유적은 일월봉 기슭의 임진강 언저리에 자리한다. 강 옆의 밭에서 여러 점의 뗀석기가 찾아졌다.

뗀석기는 주먹도끼와 긁개이며 재질은 규암과 석영을 이용하였다. 주먹도끼는 임진강 유역의 여러 유적에서 찾아진 것과 비슷하며 떼기를 베풀어 만든 방법은 좀 조잡한 편이다. 긁개는 1차 떼기를 한 다음 잔손질한 흔적이 관찰되며, 홈날이 있는 긁개도 있다.

동파리 유적은 현재 군사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지만 계속 경작을 하고 있어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7) 장파리 유적

이 유적은 파평면 장파리에 자리한다. 유물은 리비교 부근의 임진강 옆에서 찾아졌다.

유적 주변은 용암 대지가 형성된 곳으로 임진강을 따라 뗀석기가 찾아진 유적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당시 사람들의 활동 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찾아진 유물은 격지와 긁개인데 긁개는 간단한 떼기를 베풀어 만들었으며 잔손질한 흔적은 찾아지지 않는다.

장파리 유적은 현재 지표에서 뗀석기가 수습되어 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보다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임진강 유역의 구석기 문화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신석기시대 유적

1) 당동리 유적

이 유적은 문산읍 당동리에 위치하며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문산 LCD지방산업단지 건설공사 때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신석기시대 집터와 야외의 화덕자리를 찾았다.

당동리 유적 전경

주변으로는 만우천과 문산천이 흐르고 있으며, 유적은 구릉의 경작지대(1지점)와 구릉 끝부분(7지점)에서 조사되었다.

1지점의 집터와 화덕자리는 초기 삼국시대의 경작층 아래에서 집터 1기와 화덕자리 3기가 발굴되었다.

집터는 평면 생김새가 모줄임 네모꼴로 크기는 703×660×30cm이다. 집터의 벽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바닥과 연결되며, 집터 안에서는 많은 기둥구멍과 화덕자리, 저장 구덩이 등이 찾아졌다. 출토 유물은 가로 방향으로 물고기 등뼈무늬가 베풀어진 빗살무늬토기가 있다. 야외 화덕자리는 평면 생김새가 둥근꼴이나 긴 타원형이며, 안에는 숯과 1.5~10cm 크기의 잘게 쪼개진 활석이 가득 차 있었다. 2호 화덕자리에서는 빗살무늬토기가 찾아졌다.

당동리 유적 1호 집터

7지점에서도 1지점처럼 집터와 야외 화덕자리가 조사되었다. 집터는 구릉의 끝 쪽에서 3기가 발굴되었는데 크기는 길이가 4m 안팎이고, 너비는 3.5~4.5m, 움의 깊이는 0.3m쯤 된다. 평면 생김새는 긴 네모꼴이며, 집터 안에서는 위석식 화덕자리와 기둥구멍이 조사되었다. 출토 유물은 가로 방향으로 물고기 등뼈무늬가 있는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있다.

당동리 유적 1호 집터 토기 출토 모습

야외 화덕자리는 해발 12~15m 되는 구릉의 기슭에서 5기가 발굴되었다. 크기는 길이가 80~110cm 쯤 되고 평면 생김새는 둥근꼴이며 안에는 불 먹은 활석과 숯조각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당동리 유적 야외 화덕자리

당동리 유적에서 조사된 집터와 야외 화덕자리는 파주 지역에서 처음 발굴된 신석기시대의 유구로 이 시기의 문화 전통과 그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임진강 유역에서 신석기시대의 유물은 많이 찾아졌지만, 이와 관련 있는 유구가 조사되지 않아 성격 규명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

로 좀 더 관련 자료가 많이 확보되면 한반도에서 점이적인 성격을 지니는 임진강 유역의 선사시대 문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옥석리 유적

월롱면 덕은리의 옥석마을에 자리하며, 고인돌 유적을 발굴하면서 빗살무늬토기와 간 화살촉이 찾아졌다.

탁자식 고인돌(A호)의 아래쪽에서 움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빗살무늬토기는 고인돌의 무덤방과 굄돌의 밑 부분에서 출토되어 축조 이전에 신석기 관련 유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빗살무늬토기의 바탕흙은 작은 모래가 섞인 찰흙질로 민무늬토기처럼 굵은 석영이 없어 서로 차이가 뚜렷하며, 색깔은 대부분 적갈색이지만 토기의 안쪽이 흑갈색인 것도 있다. 토기에 새겨진 무늬는 거의가 물고기 등뼈무늬인데 이것은 대부분 토기의 몸통 부분에 있고 손톱무늬, 점줄무늬, 그물무늬는 입술 부분의 토기 조각에서 찾아졌다. 토기의 생김새를 보면 밑바닥은 뾰족 밑인 조각들이 여러 점 조사되어 서해안의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살촉은 삼각형으로 많이 간 흔적이 관찰되며, 길이가 1.6cm로 상당히 작은 편이다. 이런 형태의 유물이 신석기 유적인 봉산 지탑리와 온천 궁산리 유적에서도 찾아져 서로 비교되며 서해안 지역 신석기시대의 석기 자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옥석리 유적에서 신석기시대의 뚜렷한 유구는 발굴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양의 빗살무늬토기와 간 화살촉이 조사되어 파주 지역의 신석기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3) 교하리 유적

교하읍 교하리의 장명산 동남쪽 기슭에 자리하며 옥석리 유적처럼 고인돌을 발굴하면서 찾아졌다.

고인돌('라'호)을 발굴하는 과정에 조사된 집터(II호)에서 민무늬토기와 함께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는데 그 모습은 집터의 바닥과 쌓임층에서 수습되었

다. 이곳에서 찾아진 빗살무늬토기는 옥석리 유적의 토기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고 시기도 늦은 것으로 이해된다.

교하리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의 바탕흙은 굵은 모래알이 많이 섞여 있어 민무늬토기와 큰 차이가 없고 다른 유적에서 조사된 것처럼 늦은 시기 빗살무늬토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색깔은 갈색이지만 안쪽은 대부분 흑갈색으로 옥석리 유적 출토 토기와 비슷하다. 무늬는 거의 물고기 등뼈무늬이고 몇 점은 점줄무늬가 새겨져 있다. 또한 토기의 두께는 1cm쯤 되어 빗살무늬토기로서는 상당히 두터운 편으로 바탕흙과 함께 늦은 시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토기의 생김새는 수습된 조각 가운데 밑바닥이 둥근 바닥에 가까운 것이 있어 주목된다.

이처럼 교하리 유적은 고인돌 밑에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가 찾아졌지만, 옥석리 유적과는 다르게 후기 신석기시대에 나타나는 토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파주 지역의 신석기 후기 문화 성격을 살펴보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4) 율포리 유적

적성면 율포리의 임진강 언저리 밭에 위치한다. 이곳은 임진강의 샛강인 작은 물줄기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으로 모래언덕이 형성되어 있다. 유물은 모래언덕의 밭에 설치된 물탱크 주변에서 수습되었다.

이곳에서 찾아진 유물은 빗살무늬토기 조각을 비롯하여 날 부분을 간 석기와 화살촉 등이 있다.

빗살무늬토기는 몸통 부분으로 바탕흙은 모래와 굵은 석영이 섞여 상당히 거칠며, 무늬는 손톱무늬와 빗금무늬, 물고기 등뼈무늬가 베풀어져 있다.

간석기는 돌칼로 쓰인 연모인데 점판암을 재질로 이용하였고 한쪽 부분을 갈아서 날을 만들었다.

율포리 유적은 발굴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지만 지표에서 상당히 많은 빗살무늬토기 조각과 간석기가 찾아져 임진강 유역에서 이룩된 신석기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적성면 주월리의 임진강 언저리에 있는 충적 대지와 육계토성에서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찾아졌다. 이러한 자료는 임진강 유역의 신석기 유적의 입지 조건과 문화상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된다.

3. 청동기시대 유적

① 집터

파주 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집터 유적은 다음과 같다.

1) 옥석리 유적

1965년 국립박물관에서 발굴한 이 유적은 월롱면 덕은리 옥석마을에 위치한다. 고인돌 유적을 발굴 조사하면서 찾게 된 이 집터는 문산천을 따라서 펼쳐진 해발 80m 안팎의 낮은 구릉지대의 능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BI호 고인돌 바로 밑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집터와 고인돌의 관계는 물론 집터의 연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발굴된 집터는 크기가 15.7×3.7m이며 움의 깊이는 40~90cm로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평면 생김새는 긴 네모꼴이며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모습이다. 조사 결과, 재층이 쌓여 있고 벽면에는 붉게 탄 흔적이 남아 있어 이 움집은 불에 탄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기둥구멍이 집 안에서 찾아지지 않았지만, 작은 기둥구멍은 매우 정연하게 가장자리의 벽선을 따라 돌아가면서 30cm 안팎으로 촘촘히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집터의 바닥은 대체로 편평하였으며 찰흙은 3~4cm쯤 얇게 깐 흔적이 남아 있었다. 화덕자리는 집터의 동쪽으로 치우쳐 2기가 조사되었는데 특별한 시설이 없이 지름 60cm 안팎의 타원형으로 바닥을 오목하게 파서 만들었다.

집터에서는 피홈이 있는 간돌검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화살촉 20여 점, 별도끼 · 돌도끼 · 돌가락바퀴 · 숫돌 · 갈판 등의 석기와 구멍무늬토기 · 바리모양 민무늬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간돌검은 사용하다가 부러진 것을 다시 갈아서 만든 것이며 숫돌은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집터의 북쪽 벽 가까이에서

크고 작은 것 5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간석기를 만드는 데 많이 이용되는 돌감인 슬레이트 조각이 집터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집 안에서 석기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옥석리 집터에서 찾아진 숯을 방사성탄소연대 측정한 결과 기원전 9세기쯤(2590±105 bp)으로 밝혀져 집터와 고인돌의 연대 그리고 간돌검의 조형祖型에 대한 연대는 물론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게 된 점에서 한국 고고학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간돌검이 출토된 이 집터의 연대는 종래 일본 학자들이 한국식동검을 모방하여 만들었다고 주장하던 간돌검의 조형 문제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는 데 중요한 것이다.

한편 고인돌과 집터 유적이 층위를 이루어 조사된 점은 고인돌의 기원과 전파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2) 교하리 유적

이 유적은 교하읍 교하리에 위치하며 1965년 국립박물관이 발굴하여 집터 2기와 고인돌을 조사하였다. 유적은 장명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있어 산 능선 위에 자리한다.

1호 집터는 6 · 25전쟁 때 군부대가 이곳에 주둔하기 위하여 터 닦기를 한 단면에서 그 흔적이 찾아져 조사를 하게 되었다. 크기는 950×320×35~70cm쯤 되며, 평면 생김새는 긴 네모꼴이다. 긴 방향은 서북쪽이고 풍화암반층을 파서 바닥을 만들었는데 움의 깊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집의 모서리는 직각으로 파서 반듯하게 만들었으며, 집 안에서 숯이 쌓인 채 찾아져 이 집은 불이 나 없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집터의 벽면에서는 지름 12~17cm, 깊이 7~15cm 되는 기둥구멍이 70~80cm 간격으로 찾아졌고, 한가운데 쪽에서도 같은 간격으로 4개(지름 17~18cm, 깊이 30cm쯤)의 기둥구멍이 조사되었다. 이렇게 조사된 기둥구멍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공간 활용의 문제를 고려하였던 것 같으며 우진각 지붕의 집을 지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화덕자리는 맨바닥을 10~15cm쯤 얕게 파서 만든 구덩식[竪穴式]이며 긴 방향

을 따라 두 군데 있었다. 또한 집터 바닥에서 너비가 12cm, 깊이가 6cm쯤 되는 얕은 홈이 발견되었는데 배수와 관련되는 시설로 해석된다.

집터에서 찾아진 유물은 구멍무늬토기와 민무늬토기 조각 · 돌도끼 · 대팻날 도끼 등이며 민무늬토기의 밑바닥에는 나뭇잎 흔적이 뚜렷이 찍혀 있다.

2호 집터는 '라'호 고인돌을 발굴하는 과정에 찾아져 조사가 이루어졌다.

집터의 크기는 780×440×30~40cm이며, 풍화암반층을 판 다음 만들었다. 화덕자리는 남쪽 부분에 구덩식으로 만든 것이 1기 조사되었다.

출토 유물은 빗살무늬와 민무늬토기 조각, 여러 가지의 돌화살촉 등이 발견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바탕흙이나 무늬로 볼 때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교하리 2호 집터는 빗살무늬토기 문화가 민무늬토기 문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축조된 것으로 해석되며 한강 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3) 당하리 유적

교하읍 당하리에 자리하며, 1993년 한양대 박물관에서 발굴하였다. 이곳은 한강과 임진강이 서로 합하는 두물자리 부근이다. 유적 바로 옆에는 한강의 샛강인 공릉천이 흐르고 옆으로 장명산에서 뻗어 나온 낮은 구릉과 들판이 펼쳐져 있다.

집터는 9호 고인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구릉 위에 위치한다. 풍화암반을 파고 만든 집터의 크기는 12.5×4×0.4~0.8m이며, 평면 생김새는 긴 네모꼴이다. 그리고 긴 방향은 남동쪽으로 구릉과 나란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집터의 바닥은 풍화암반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판 모습이다.

기둥구멍은 벽체 안쪽에서 집터의 긴 방향을 따라 25개가 찾아졌는데 크기는 지름 7~15cm, 깊이 10~15cm쯤 된다. 기둥구멍이 좁고 얕은 점으로 보아 서까래가 땅 위에 맞닿도록 하여 벽체를 지상에 따로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으며 전체적인 집의 모습은 맞배지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화덕자리는 불 먹은 자취와 숯이 집중적으로 찾아진 집터의 남서쪽에 있었던 것 같으며, 특별한 시설을 하

지 않고 맨바닥을 그대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집터의 남동쪽 벽 가운데에 1.2m 정도가 완만하게 형성되어 있고 다른 부분과는 달리 붉은색 찰흙이 바닥에 깔려 있는 점으로 보아 이곳이 나들이 문이었던 것 같다.

당하리 유적 집터

출토 유물은 집터 안에서 실생활에 사용하던 살림살이 연모가 많이 찾아졌다. 토기는 깊은 바리 모양 토기와 단지모양 토기 · 구멍무늬토기 · 골아가리무늬토기 등이 있고 석기는 반달돌칼 · 바퀴날도끼 · 가락바퀴 · 돌끌 · 숫돌 · 화살촉 등이 있다.

당하리 유적 출토 모습

당하리 집터는 이 시기에 찾아지는 다른 집터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편에 속하여 그 쓰임새를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집을 만든 방법이나 크기, 평면 생김새와 출토 유물 등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옥석리 집터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렇다면 장명산을 중심으로 공릉천 언저리에는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마을 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4년에는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앞의 집터가 자리한 서쪽 지역을 조사하여 5기를 발굴하였다.

이들 집터는 모두 구릉의 기슭에 자리하였으며, 평면 생김새는 긴 네모꼴과 네모꼴 그리고 세장방형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긴 방향은 산 흐름과 나란하다. 집터의 바닥은 1호만 찰흙을 깔아 다졌고 나머지는 모두 맨바닥이다.

집터 안에서는 화덕자리, 기둥구멍, 저장 구덩 등이 조사되었다. 화덕은 이 지역의 다른 유적에서 조사된 것처럼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대로 이용한 형태이다. 세장방형의 3호 집터에서는 2기의 화덕자리가 발견되었다. 5호 집터에서 찾아진 기둥구멍에는 안에 고운 모래를 깔았던 흔적이 찾아져 주목된다. 이것은 기둥으로 이용되는 나무가 부식되는 것을 막고 물빠짐이나 기둥 흔들림의 충격

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남강댐 수몰 지역의 진주 옥방 3지구 26~28호 집터에서도 발굴되어 서로 비교된다.

집터에서는 구멍무늬토기를 비롯하여 돌창, 여러 종류의 화살촉 · 돌끌 · 반달돌칼 · 돌도끼 등 다양한 석기가 찾아졌다.

4) 식현리 유적

적성면 식현리의 국사봉과 임진강 사이에 형성된 북쪽 능선에 자리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경사면을 ㄴ자 모양으로 파고 만든 집터의 크기는 3.5×3m이며, 움의 깊이는 20cm쯤 된다. 기둥구멍이 찾아지지 않았지만, 동쪽과 서쪽 벽 옆에 4개의 나무 기둥을 세워 경사진 지붕을 만든 반움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터 안에서는 기둥구멍이나 화덕자리가 조사되지 않았으며, 바닥은 가운데 쪽에 찰흙을 깔고 다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출토 유물은 구멍무늬가 있는 바리와 단지 모양의 민무늬토기, 피홈[血溝]이 있는 간돌검조각, 반달돌칼 · 가락바퀴 · 돌도끼 · 돌화살촉 등이 있다.

이 유적은 파주 지역의 교하리나 덕은리 집터와 비교할 때 크기가 작고 집터의 내부 시설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출토 유물을 보면 동북 지방과 서북 지방의 문화가 접촉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한반도 중부 지역 청동기문화의 전파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5) 당동리 유적

문산읍 당동리에 자리한 이 유적은 문산 LCD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조사가 실시되어 50여 기의 집터가 발굴되었다. 유적 주변으로는 북쪽에 만우천이, 동쪽으로는 문산천이 그리고 서쪽에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어 터전을 잡고 살림을 꾸리기에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집터는 얕은 야산의 기슭과 구릉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평면 생김새를 보면 긴 네모꼴이 대부분이고 둥근꼴과 세장방형, 네모꼴 등도 있어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집터의 긴 방향은 대부분 등고선과 나란한 모습이다. 집터 안에서 찾아진 시설로는 화덕자리와 기둥구멍, 저장 구덩, 벽쪽에 파여진 물

당동리 17호 집터

당동리 4호 집터

당동리 25호 집터 화살촉 출토 모습

당동리 5호 집터 토기 출토 모습

길[壁溝] 등이 있다. 그리고 출토 유물은 민무늬토기와 구멍무늬토기 · 돌칼 · 돌화살 · 돌창 · 달도끼 · 돌끌 · 갈판 · 숫돌 등의 석기가 있다.

당동리 유적의 청동기시대 집터는 대규모의 마을 유적으로 지금까지 파주 지역에서 조사된 이 시기의 유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된 자료가 분석되어 보고되면 임진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상文化相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무덤

파주 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의 무덤으로는 고인돌 유적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고인돌 유적과 움무덤을 소개한다.

1) 옥석리 유적

월롱면 덕은리 옥석마을에 자리하며, 1965년 조사하였다. 이곳은 문산천의 남쪽으로 야산 같은 구릉 위에 비교적 작은 탁자식 고인돌이 있다. 고인돌은 능선을 따라 2~3기씩 분포하며 서쪽 끝에서는 수십 기가 조사되었다. 이곳의 고인돌 덮개돌은 긴 방향이 구릉의 능선과 나란한 것으로 밝혀져 자연 지세와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발굴 조사는 동쪽 끝부분에서 1기(A호), 서쪽 구릉에서 5기(BI~BV호)를 하였다. A호 고인돌의 덮개돌은 길이가 약 100cm쯤 되며, 그 아래에 4매의 판석으로 만든 50×35cm 크기의 무덤방이 조사되었다. 이곳에서는 유물이 껴묻기 되지 않았다.

BI호의 덮개돌은 길이가 330cm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주변의 고인돌 가운데에서 가장 크며, 높다란 능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 같다. 무덤방은 A호처럼 4매의 판석으로 만들었으며 출토 유물은 민무늬토기 조각을 비롯하여 외날과 안팎날의 돌도끼 · 돌칼 · 숫돌 등이 있다.

옥석리 BII호 고인돌

옥석리 유적의 고인돌은 대체로 고임돌[支石]의 높이가 낮아 고인돌의 전체 크기와 무덤방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작은 편이다. 그리고 고인돌을 만든 방법을 보면 먼저 고임돌을 세우고 덮개돌을 얹은 다음, 무덤방 처리를 하고 막음돌로 마무리를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 교하리 유적

교하읍 교하리에 있는 장명산 기슭의 구릉에 자리하며, 1965년 국립박물관에서 발굴하였다. 이 유적은 인근의 옥석리 유적처럼 비교적 높은 구릉 위에 위치하며 탁자식 고인돌이 구릉의 능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교하리 유적 전경

교하리 가호 고인돌

발굴 조사된 4기의 고인돌 가운데 '라' 호만 무덤방이 조사되었고 나머지는 덮개돌만 남아 있었다. '라' 호 고인돌의 덮개돌은 330×190cm 크기이며 70~80×30~60cm 크기의 판석 2매가 풍화암반층 위에 놓여 있었다. 껴묻거리는 반달돌칼과 민무늬토기 조각 등이 찾아졌다.

3) 당하리 유적

이 유적은 교하읍 당하리에 위치하며, 1993년 한양대 박물관에서 9기의 고인돌을 발굴 조사하였다. 이곳은 한강과 임진강이 서로 만나는 두물자리 근처이며 유적 바로 옆으로는 한강의 샛강인 공릉천이 흐르고 있다. 발굴 조사가 실시된 유적 주변의 해발 40~45m 되는 낮은 야산과 구릉 곳곳에는 많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발굴이 된 고인돌은 낮은 야산의 꼭대기와 그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군부대의 훈련 시설과 참호를 만들 때 많이 파괴되었다. 무덤방이 조사된 고인돌은 5호와 7호뿐이었다.

5호는 덮개돌 밑에서 돌무지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무덤방은 막돌을 가지고 만든 돌덧널이었다. 7호는 풍화암반층을 10cm쯤 파고 그 둘레에 타원형으로 작은 돌을 쌓아 무덤방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들 고인돌의 무덤방은 인근의 옥석리나 교하리 고인돌과는 서로 다른 점이 주목되며 이 지역의 새로운 형태로 이해된다.

고인돌에서는 돌화살촉을 비롯하여 간돌검 조각 · 숫돌 등이 껴묻기 되었으며

당하리 1호 고인돌 무덤방

당하리 2호 고인돌 무덤방

주변에서 돌끌 · 숫돌 · 간돌검 조각이 찾아졌다.

그리고 한양대 박물관에서 조사한 당하리 유적의 서쪽 지역을 2004년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하여 고인돌의 무덤방 2기와 후기 청동기시대의 덧띠무늬토기와 관련 있는 움무덤 2기를 조사하였다.

고인돌의 무덤방은 조사 당시 이미 덮개돌이 파괴되어 없어진 상태이며, 1호는 상당히 작은 움을 파고 무덤방의 벽을 만든 다음 안에 돌을 쌓아서 주검을 묻었던 것 같다. 이러한 묻기[葬制]는 하남 광암동 2호 고인돌에서도 조사되어 서로 비교된다.

2호 무덤방은 움의 평면이 둥근꼴이고 가운데에 긴 네모꼴의 돌덧널이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7호 무덤방과 비교된다. 무덤방 안에서는 반달돌칼 · 화살촉 · 돌도끼 · 홈자귀 그리고 민무늬토기 조각들이 찾아졌다.

한편 움무덤은 구릉의 기슭에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여 조사되었다.

1호는 무덤방이 무너진 모습에서 나무관을 사용하였던 흔적이 조사되었으며 그 사이에는 막돌을 채웠던 것 같다. 2호도 1호처럼 막돌을 무덤방 가장자리의 빈 공간에 채웠던 것 같다. 또한 1호에서는 완전한 목 긴 검은 간토기와 원형의 덧띠무늬 토기가 주검의 발끝 쪽에서 찾아져 이 시기의 묻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움무덤은 최근 안성 반제리와 만정리 유적 · 화성 발안리 유적 · 수원 율전동 유적에서 조사되어 서로 비교된다.

청동기시대의 후기에 해당하는 움무덤이 조사되었다는 것은 파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초기 정치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4) 다율리 유적

교하읍 다율리에 자리하며, 1993년 한국선사문화연구소에서 8기의 고인돌을 발굴 조사하였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장명산에서 흘러내린 해발 60~70m 되는 낮은 산등성이로 군사시설 때문에 유적의 파괴가 심한 편이다.

다율리 8호 고인돌

발굴 결과, 대부분의 고인돌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옮겨졌거나 무덤방이 파괴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4호와 11호 고인돌은 무덤방이 남아 있었다.

11호의 무덤방은 넓적한 판자돌 2매를 남북 방향으로 세워 굄돌이 되게 하였으며, 북쪽과 남쪽에는 막음돌로 막은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탁자식인 이 고인돌의 굄돌은 그렇게 높지 않고 두께가 상당히 두터워 전체적으로는 웅장한 느낌을 주며, 다른 지역에서 조사된 것과 외형적인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무덤방의 바닥에는 강자갈과 판자돌을 깔고 묻힌 사람의 머리쪽인 북쪽에는 베갯돌을 놓아두었다.

껴묻거리는 4호 고인돌에서 반달돌칼 · 돌화살촉 · 돌끌 등이 찾아졌다.

5) 초리 유적

진동면 초리에 위치하며, 이곳은 임진강의 샛강인 새골천의 상류지역이다. 주변은 해발 140m 되는 구릉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두 갈래의 능선이 펼쳐져 있으며 곳곳에 들판이 자리하고 있다.

유적은 새골천 서쪽의 비포장도로를 따라 100여m 범위에 수십 기의 고인돌 덮개돌이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덮개돌의 재질은 화강암이고 긴 네모꼴로 일정하게 손질된 상태다. 주변에는 화강암의 큰 바위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옮겨 온 것으로 해석된다.

개석식으로 추정되는 이 고인돌의 덮개돌은 새골천의 흐름과 나란한 북서 방

향으로 놓여 있어 주목된다.

현재 이곳은 비무장지대의 지뢰 지역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파주 지역에서 조사된 대규모 고인돌 유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밀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지역이다.

6) 하포리 유적

이 고인돌은 진동면 하포리에 위치한다. 이곳은 일월봉(해발 191m)과 옆 산 사이에 형성된 넓은 계곡 지역으로 고인돌은 산기슭의 끝부분에 자리한다.

현재 고인돌은 쓰러진 굄돌 위에 덮개돌이 포개진 모습이며, 암질은 모두 화강편마암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250×185×45cm이고 긴 방향은 남북쪽이며, 옆면에는 채석 흔적이 남아 있다.

고인돌 바로 옆에서는 자기 조각이 많이 찾아지며 최근에 갖다 놓은 뼈 항아리도 있어, 이 고인돌은 후대에 큰돌 숭배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 심학산 유적

심학산 지역은 한강과 인접해 있고 주변의 교하읍 산남리와 서패리 · 동패리를 조망할 수 있기에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고인돌 유적을 비롯하여 유물 산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최근 실시된 정밀조사 결과 고인돌 12기와 고인돌로 추정되는 18기 등 모두 30여 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포리 고인돌

이 지역의 고인돌은 산기슭과 능선을 따라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산 능선에 자리한 고인돌은 현재의 등산로를 따라 배치되어 있다. 또한 한 곳에 여러 기가 집중되어 있지 않고 1~2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인돌의 형식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외형적인 형태로 볼 때 탁자식

과 개석식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인돌의 덮개돌은 대부분 길이가 2~3m이지만 11호는 길이가 7.3m나 되어 파주 지역은 물론 경기 지역에서도 가장 큰 고인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자료는 대형 고인돌을 축조한 당시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학산 고인돌

선사시대 임진강가의 살림

선사시대 파주 지역에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 임진강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임진강과 같은 강줄기를 따라 살림을 꾸리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이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옛사람들의 살림에 있어 물은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파주 지역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구석기시대~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을 보면 임진강이나 그 샛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지역의 선사문화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구석기시대의 임진강 사람들

홍적세洪積世에 해당하는 구석기시대는 빙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흔히 빙하시대라고도 한다. 구석기시대는 인류가 연모를 만들어 사용한 약 300만 년 전부터 빙하가 물러간 1만 년 전까지에 해당한다.

전기 구석기는 인류가 연모를 처음 만든 때부터 약 12만 년 전의 마지막 간빙기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다. 이 시기에는 초보적인 수준의 거친 연모제작 수법으로 뗀석기를 만들었으며 남쪽사람 원숭이는 주로 찍개를 썼다. 곧선사람이 출현하면서 보다 발달된 여러 가지의 쓰임새를 지닌 연모가 만들어졌다.

중기 구석기는 약 12만 년 전부터 3만 5,000년 전까지다. 앞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모의 제작 방법이 다양해진다. 이 시기의 주인공인 슬기사람은 빠른 속도로 문화를 발전 · 전파시켰으며 주변의 환경에 잘 적응하였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석기는 주먹도끼 · 자르개 · 찍개 · 긁개 · 톱니날석기 등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후기 구석기는 3만 5천 년 전부터 빙하가 물러간 1만 년 전까지다. 슬기슬기사람이 앞 시기보다 수준 높은 훌륭한 문화를 발달시켰으며 뛰어난 제작기술을 가지고 돌날몸돌 · 새기개 등을 만들었다. 또한 동굴벽화 · 비너스상 등 사실적인 표현 수법으로 예술 행위를 하였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한 곳에 터전을 잡고 살기보다 짐승을 잡고 열매를 채집하면서 먹을거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생활을 하였다. 이들이 머물던 곳은 물줄기 옆이나 동굴과 같은 비교적 조망이 좋은 곳이다.

언제부터 한반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였을까? 하는 문제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웃의 중국에서는 약 100만 년 전의 유적이 찾아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보다는 약간 늦은 시기에 구석기 사람들이 이곳에도 살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탄강이나 임진강 유역에서 조사된 구석기 유적은 한반도에 살기 시작한 초기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까지 한반도에서 구석기 전통을 지닌 뗀석기가 찾아진 곳은 350여 곳이나 되며 이 가운데 80여 곳이 발굴 조사되었다. 1933, 1934년 종성 동관진에서 구석기 유적이 처음 조사된 다음 광복 이후 웅기 굴포리 · 공주 석장리 · 상원 검은모루 · 제천 점말용굴 · 청원 두루봉 · 연천 전곡리 · 단양 수양개 · 양주 상무룡리 · 대전 용호동 · 밀양 고례리 유적 등이 발굴되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파주 문산에서 뗀석기가 조사된 다음 1960년대 화성과 안성에서 유물이 수습되었고, 1978년 연천 전곡리 유적이 발굴되었

다. 그 이후 파주 주월리 · 가월리, 파주 금파리 등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에서 많은 구석기 유적이 조사되었고 남한강 유역의 양평 병산리, 내륙 지역의 의정부 민락동 · 광주 삼리 · 남양주 호평 유적 등이 발굴되어 이제는 경기도 전역에서 유적과 유물이 찾아지고 있다.

파주 지역은 임진강 유역의 언저리에 고토양이 퇴적된 곳에서 거의 대부분 구석기 전통의 뗀석기가 발견되고 있어 한반도에서는 가장 밀집된 유적의 분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곳의 구석기 유적은 용암 대지의 형성과 임진강의 하천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어 홍적세의 지질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임진강 유역의 파주 지역에서 발굴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파주 금파리와 주월리 · 가월리 유적이 있다.

금파리 유적의 연대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곳에서 발굴된 웅덩이 모양의 구덩이와 이곳에서 출토된 접합 유물은 옛사람들의 중요한 문화행위인 석기 만들기와 인위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옛사람들이 이러한 구덩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곧 살림살이의 하나로 여겨지며, 현재 비교자료가 없어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목적과 의도는 사냥이나 주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이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는 잔손질된 것이 거의 없고, 제작 수법을 볼 때 연천 전곡리 유적과 비슷하여 임진강 유역은 물론 한국 구석기의 표준유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월리 · 가월리 유적에서 찾아진 잘 만들어진 주먹도끼는 한국 구석기를 대표하는 유물 가운데 하나이며, 떼기를 베푼 것이 다른 유물과 비교할 때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2. 신석기시대의 임진강 사람들

지금부터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가 물러가고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지금의 한반도 모습이 만들어졌다.

7,500~6,200년 전쯤의 기후 극상기 때에는 바닷물의 높이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지금보다 높았던 시기도 있었다. 바닷물의 높이 변화 증거는 밀물과 썰물에 의한 모래톱, 해식애, 해안단구, 늪지 등 바닷가 근처의 지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닷물의 높이 변화과정은 파주 옆의 일산 지역 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역의 부근인 일산은 해발 6m까지 옛 조간대 지층(대화리층)이 쌓여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의 바닷물 높이보다 3~4m쯤 높았던 시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시기의 식생환경은 이 지역의 토탄층 조사에서 자세히 밝혀졌다. 약 7,000년 전에는 참나무 · 오리나무 · 물푸레나무가 많고 오리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기후는 대체로 습하였다. 5,000년 전에는 바닷물의 상승으로 토탄층이 만들어지고 오리나무는 점차 줄면서 소나무가 많아진다. 3,200년 전에는 소나무가 적고 포자식물이 번성하면서 쑥속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300년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점차 내려가면서 조금씩 추워지고 소나무와 자작나무가 많아진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사냥이나 채집, 물고기잡이를 하면서도 농경과 짐승 기르기를 하여 살림을 꾸렸다. 농경은 자연환경의 변화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며, 이 시기의 곡식은 파주 옆의 일산 신도시 지역에서 볍씨, 옥천 대천 유적의 오곡, 봉산 지탑리 유적의 피 등이 조사되었다.

신석기시대에 만들어진 빗살무늬토기는 간석기와 함께 표지적인 유물이며, 흔히 신석기문화를 빗살무늬토기문화라고도 한다. 남해안과 동북 해안의 몇몇 유적에서는 빗살무늬토기가 찾아지는 아래층에서 덧무늬토기나 이른 민무늬토기가 출토되기도 한다. 토기는 음식물을 조리하고 담아두거나 곡식 열매를 저장하는 데 이용하였다. 토기의 무늬는 처음에 입술 쪽으로 덧띠무늬를 새기다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빗금무늬, 점줄무늬, 물고기 등뼈무늬를 새겼다. 석기는 뗀석기를 사용하였지만 붙박이 생활과 다양한 생산 활동을 하면서 기술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 간석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간석기는 날카로운 날을 얻을 수 있어 주로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데 이용하였다.

신석기시대의 집은 움집으로 한 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추위나

비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움집은 원뿔 모양으로 크기는 20~30㎡가 대부분이었다. 집 안의 가장자리에는 식량이나 연모를 넣어두는 저장 구덩이가 있고, 집 안의 온도를 높이고 음식을 만들기 위한 화덕 시설도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찾아진 곳은 230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대동강이나 한강의 언저리,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섬 지역, 동해안의 석호 주변이며 최근에는 내륙 지역에서도 이 시기의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임진강 유역의 파주 지역에서는 당동리 유적에서 집터와 야외 화덕자리가 발굴된 것을 비롯하여 옥석리 유적에서 움 유구가, 교하리 · 주월리 · 육계토성 · 선유리 · 다율리 등지에서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찾아졌다. 이런 몇 가지 점으로 볼 때 앞 시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 시기가 되면 파주 전역에 걸쳐 사람들이 터전을 잡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당동리 유적에서 조사된 집터는 평면 생김새가 모줄임 네모꼴로 다른 지역에서 흔히 발굴된 둥근꼴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시기상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임진강 언저리의 신석기시대 집터가 지닌 하나의 특징적인 속성일 가능성이 많아 앞으로 다른 자료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야외 화덕자리는 임진강 유역에서는 처음 조사된 것으로 다른 유적에서 발굴된 자료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러한 야외 화덕자리는 신석기시대의 문화 전통과 당시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옥석리와 교하리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 고인돌 아래층에서 신석기시대의 움과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찾아져 한 곳에 층위를 이룬 대표적인 유적으로 해석된다. 이 점은 앞으로 옛사람들이 터전을 선택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이 무엇이고 어떠한 입지 조건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이다.

또한 교하리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바탕흙이 민무늬토기와 비슷하고 토기의 두께도 두터운 것으로 보아 후기에 해당하지만 옥석리 유적의 토기는 바탕흙, 무늬, 생김새 등을 고려할 때 그렇게 늦은 시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임진강가의 파주 지역은 신석기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옛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살림살이를 하였다고 해석된다.

3. 청동기시대의 임진강 사람들

청동기시대는 청동을 이용하여 연모를 만들어 사용한 시기이며, 처음에는 구리에 다른 광물을 섞지 않은 순동을 그대로 두드려서 연모나 치레걸이를 만들다가 차츰 아연이나 주석 · 납 등을 섞어서 단단한 청동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청동기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광복 이후 우리 선사문화 연구에서 얻어진 값진 성과 가운데 하나이며, 파주 옥석리 유적의 발굴조사와 연구 결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사관植民史觀에 의하여 청동기시대가 없었고 석기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연모가 함께 쓰였다는 금석병용기金石併用期 또는 동석기시대銅石器時代의 문화 단계에 있었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런데 청동기시대를 민무늬토기시대[無文土器時代]라고도 하며 이것은 민무늬토기와 간석기, 청동기를 중심으로 이룩된 문화이기 때문이고 앞 시기의 신석기문화를 가리키는 빗살무늬토기문화와 구분된다.

청동기시대를 설명할 때에는 그 문화의 분포 지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청동기도 그것이 사용된 시점부터를 청동기시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청동기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시대의 개념에 따라서 그 시기와 범위가 달라진다. 청동기시대의 문화 분포 범위는 대체로 청동기의 표지유물標識遺物인 동검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동검의 전체 모습이 중국의 옛악기인 비파를 닮은 비파형(요령식, 고조선식) 동검이 많이 출토되는 고조선의 영역인 요령 지역을 포함하여 중국 동북 지방과 한반도를 그 범위로 정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시작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 성과로 볼 때 기원전 13세기 이전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청동기문화의 기원은 크게 보아 중국 은殷나라 청동기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과 시베리아 지역의 미누신스크, 스키트 청동기문화에 북방 오르도스 지역 청동기가 섞인 시베리아 청동기의 영향이 미쳤다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후자의 영향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합금술과 성분을 분석하면 중국과는 다르게 아연이 섞여 있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청동기시대는 앞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삶의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복잡하게 발전한다. 삶의 방식에 있어 농경이 사냥이나 채집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런 살림살이는 다른 여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경작지는 집터가 대부분 낮은 구릉지대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논농사와 밭농사가 함께 이루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점은 볍씨와 조 · 수수 · 기장 등의 잡곡이 한꺼번에 출토되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농경의 직접적인 자료가 되는 탄화된 쌀은 평양 남경 유적 · 여주 흔암리 유적 · 부여 송국리 유적 등에서 찾아졌으며 논농사의 흔적은 울산 야음동과 무거동 유적을 비롯하여 밀양 금천리 · 논산 마전리 유적 · 춘천 천전리 유적에서 조사되었다. 밭 유구는 진주 대평리 유적 · 대구 동천동 유적에서 발굴되었으며 특히 대평리 유적은 남강 옆의 충적대지에서 당시의 이랑과 고랑이 뚜렷한 밭터가 조사되어 주목된다. 낮은 구릉의 기슭에 있는 여주 흔암리 유적의 12호와 14호 집터에서는 화덕자리 옆과 토기 안에서 탄화된 쌀 · 콩 · 조 · 보리 · 수수 등이 함께 출토되어 여러 종류의 잡곡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곡물과 함께 반달돌칼 · 괭이 · 보습 · 갈판 등의 농기구가 발굴되어 그때의 농경 기술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반달돌칼은 곡식의 이삭을 따는 데 쓰인 것으로 파주 지역의 청동기시대 집터에서도 여러 점 찾아졌으며 곡식의 생태적인 면을 고려하여 만든 훌륭한 연모다. 그것은 벼나 조의 낟알이 잘 흩어지고 익는 과정이 불규칙하여 한꺼번에 딸 수 없으므로 줄기를 자르는 낫보다 이삭을 따는 칼이 훨씬 효율적이어서 많이 이용된 것 같다.

청동기시대의 집터는 거의 대부분 강 언저리나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낮은 구릉지대에 있으며 드물게는 창원 남산 유적이나 보령 교성리 유적처럼 산꼭대기에 있는 경우도 있다. 조사된 집터를 보면 앞 시기보다는 크고 10여 채 정도의 집이 한 곳에 모여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을 막아주는 작은 산을 뒤에 두고 살림에 필요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오늘날의 자연적인 마을과

비슷하다. 이 시기의 집은 작은 움집도 있지만 반지상가옥으로 발전하는 모습의 집터가 많이 찾아지고 있다. 집터의 평면 생김새는 크게 네모꼴과 둥근꼴로 나누어지며 둥근꼴은 집 안의 가운데를 긴 타원형으로 조금 판 다음 두 개의 기둥을 세웠으며 저장 구덩이가 있는 것이 많다. 이 시기 집의 구조를 보면 벽체와 지붕이 나뉘어 벽체가 밖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자 용마루와 도리 등 서까래를 걸 수 있는 천장시설이 필요하며, 천장과 벽이 높아져 집의 구조가 복잡하게 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집은 대부분 한 곳에 10~100여 채가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취락이 형성되고 생산이 활발하여 잉여 생산물이 있게 되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마을을 지키기 위한 시설로 환호와 목책 등이 설치되었다. 환호 시설은 울산 검단리 유적 · 안성 반제리 유적 · 화성 동학산 유적 등에서 조사되었고 지금까지 임진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찾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청동기시대의 무덤은 고인돌을 비롯하여 돌널무덤 · 움무덤 · 독무덤 등이 있으며 파주 지역에는 많은 고인돌 유적이 분포하고 있고 이 가운데 몇 곳은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그 대개의 문화 성격이 밝혀지고 있다.

임진강가의 파주 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의 유적 분포 관계를 보면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주 지역은 임진강과 한강이 서로 만나는 서남쪽에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동북쪽에도 임진강의 샛강인 늘노천이 있어 그 언저리 곳곳에 곡저 평야가 발달하여 있는데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이러한 자연적인 조건을 배경으로 파주 전역에 걸쳐 분포한다.

한편 옥석리 유적의 조사와 연구 결과는 한국 청동기시대와 문화를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유적의 연구 결과는 식민사관에 의하여 끊임없이 부정되어 왔던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설정 문제와 금석병용기의 잘못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설정되었던 식민사관은 우리의 청동기문화 그 자체를 부정하여 왔고 이러한 견해는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1965년 옥석리 유적이 발굴되면서 고인돌과 그 밑의 집터 유적

이 층위를 이루고 있는 층위 유적이라는 점, 집터에서 출토된 숯을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2590bp로 밝혀진 점은 집터에서 찾아진 간돌검[磨製石劍]의 조형에 대한 변화과정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다. 또한 옥석리 유적의 방사성탄소 연대측정값은 종래 일본 학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간돌검의 조형 문제까지도 허구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일본 학자들은 한반도의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간석기이면서 독특한 성격을 지닌 간돌검이 세형동검을 모방하여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여 왔지만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몇 가지 점에서 한국 청동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옥석리 유적이 갖는 학사적인 의미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임진강 유역의 파주 지역 청동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의미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문화의 전파 · 교류 관계이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허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를 이어주는 점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파주 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문화의 전파 문제이다. 최근까지 임진강 유역의 여러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와 유물을 보면 이 지역에서 동북 지역과 서북 지역의 청동기문화가 서로 만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식현리와 당동리 집터이고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두 지역의 특성을 지닌 것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임진강 유역에서 조사된 집터를 통하여 파주 지역 청동기문화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곳에서 발굴된 유적 가운데 집터와 고인돌 유적이 서로 복합되어 층위를 이룬 상태로 발굴된 것이 옥석리 유적 · 교하리 유적 · 당하리 유적 등이다. 이렇게 고인돌 밑에서 같은 청동기시대의 집터가 조사된 것은 서로의 시기 문제를 해석하는 데 기준이 되며 같은 문화의 전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자료들이다.

파주 지역에서 조사된 집터의 평면 생김새는 네모꼴과 긴 네모꼴 그리고 세장방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둥근꼴의 집터는 지금까지 발굴된 예가 없어 이 시기의 문화의 전통을 시사하는 것인지 아니

면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이다. 조사된 집터 가운데 옥석리와 교하리 유적에서는 민무늬토기 문화와 빗살무늬토기 문화가 서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교하리 유적의 집터에서 찾아진 빗살무늬토기 조각은 바탕흙, 무늬, 출토 상태 등을 보면 민무늬토기와 서로 연관이 있으며 앞으로 다른 지역의 이러한 문화 양상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집터의 내부 시설로는 화덕자리, 기둥구멍, 벽 쪽에 파인 물길, 저장 구덩 등이 조사되었다. 화덕자리는 이 시기의 다른 유적에서 흔히 발굴된 것처럼 맨땅을 조금 움푹하게 판 다음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이었고 당하리 유적의 3호 집터에서는 한 곳에 2기가 찾아지기도 하였다. 기둥구멍은 유적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옥석리 유적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아주 촘촘하게 찾아져 벽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당하리 유적의 5호에서는 드물게 기둥구멍 안에 고운 모래가 채워져 있어 당시 사람들의 뛰어난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기둥 나무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지며 진주 옥방 3지구의 집터 유적과 비교된다.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유적은 임진강이나 한강 유역의 다른 지역보다 파주에서 조사가 많이 되었으며 또한 상당히 집중된 분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고인돌 유적을 보면 이곳에는 탁자식과 개석식이 서로 섞여 있으며 바둑판식은 보고되지 않았다. 조사된 탁자식 고인돌에서 찾아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두툼한 덮개돌에 비하여 굄돌의 높이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이것은 임진강 유역의 파주 지역 고인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멀리는 요령성 소둔 유적이나 고창 강촌 고인돌 유적에서도 조사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다른 유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으로 해석하지만 파주의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문화 전파의 허리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당하리 7호 고인돌의 독특한 무덤방은 파주 지역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지역적인 특색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작은 돌을 쌓아 무덤방을 만든 것은 고인돌의 형식, 자리한 곳의 지반 문제 등이 고려되었던 것 같다.

당하리 유적에서 조사된 움무덤은 임진강 유역의 복합사회 발전 과정이나 정치체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움무덤이 현재 그

렇게 많이 조사되지 않아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운정지구에서 발견된 비파형동검이나 움무덤의 껴묻거리인 검은 간토기 등을 보면 앞 시기와는 분명히 다른 문화상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다.

여 백

삼국·고려시대

삼국사기가 전하는 파주

감악산과 몰자비沒字碑와 설인귀

삼국의 쟁투지 칠중성

고려사가 전하는 파주

혜음원과 파주

파주의 호족

여 백

삼국사기가 전하는 파주

염상균_역사탐방연구회 연구위원

『삼국사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요, 문화유산이다. 가야와 발해의 역사 등을 도외시한 흠은 보이지만 신라 · 고구려 · 백제의 역사를 세밀하게 다뤄서 그 시대를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책이다. 세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와 인물 그리고 각종 전쟁과 사건들까지 자세히 다루었다. 그뿐인가, 일식이며 지진, 혜성과 유성 등 천문지리와 폭설, 우박과 메뚜기 떼의 피해 등 자연재해도 놓치지 않았다. 연표와 지리지는 후대를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하여서 『세종실록』의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등의 성과로 드러났다. 또한 다리가 다섯 달린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다리 하나는 위로 향하였다는 기사부터 어미 소가 한 번에 송아지 셋을 낳았다는 특이 동물에 대한 내용도 보이니 사람에 대한 기사야 말할 것도 없다. 세쌍둥이나 네쌍둥이 얘기부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중요 인물에 대한 전기를 열전으로 담아냈으므로 그 시대 인물과 사회상이며 국가관도 엿보는 데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이는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고 편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는 감수국사 김부식金富軾(1075~1151)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관찬 사서이다. 김부식 외에도 최산보 · 이온문 · 허홍재 등 10명의 학자들이 집필과 편찬에 참여하였다. 편찬 체제를 보면 본기本紀 28권에는 신라 · 고구려 · 백제와

통일신라 때의 역사를 담았고, 연표年表 3권, 잡지雜志 9권, 열전列傳 10권 등 모두 50권으로 엮은 기전체紀傳體의 역사책이다.

『삼국사기』에 드러나는 파주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지리지 등에 나오는 지명이요, 둘은 칠중성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고, 셋은 인물이다.

파주의 역사 지명에 대하여

지리지에는 파주 지역의 이름이 변해온 것이 드러난다.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 구역의 변화가 드러나는데 우리는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고려 때까지의 지역 변화를 읽게 된다.

> 내소군은 원래 고구려의 매성현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바꾼 것이다. 지금의 견주이다. 이 군에 속한 현은 둘이다. 중성현은 원래 고구려의 칠중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꾸었다. 지금의 적성현이다. 파평현은 원래 고구려의 파해평리(사)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꾸었고 지금도 그대로 쓴다.
> 來蘇郡 本高句麗買省縣 景德王改名 今見州 領縣二 重城縣 本高句麗七重縣 景德王改名 今積城縣 波平縣 本高句麗波害平吏(史)縣 景德王改名 今因之.(권35)

지금이라는 것은 『삼국사기』를 발간할 당시를 뜻하고 견주는 오늘날의 양주시 지역을 의미한다. 파주와는 서로 경계를 마주하는 지역인데 적성현과 파평현이 고려 당시에는 견주에 속한 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본래는 고구려의 매성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내소군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다만 파평현은 책에 따라 파해평리현과 파해평사현 등 두 종류로 나오므로 병기하였다.

교하군은 원래 고구려의 천정구현이었던 것을 경덕왕 때 바꾸었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이 군에 속한 현은 둘이다. 봉성현은 원래 고구려의 술이홀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꾸었고 지금도 그대로 쓴다. 고봉현은 본래 고구려의 달을성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꾸었고 지금도 그대로 쓴다.
交河郡 本高句麗泉井口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峯城縣 本高句麗述尒忽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高烽縣 本高句麗達乙省縣 景德王改名 今因之.(권35)

우봉군은 원래 고구려의 우잠군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꾸었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이 군에 속한 현은 셋이다. 임강현은 고구려의 장항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뀌었고 지금도 그대로 쓴다. 장단현은 고구려의 장천성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뀌었으며 지금도 그대로 쓴다. 임단현은 본래 고구려의 마전천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바꾸었고 지금의 마전현이다.
牛峯郡 本高句麗牛岑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臨江縣 本高句麗獐項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長湍縣 本高句麗長淺城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臨端縣 本高句麗麻田淺縣 景德王改名 今麻田縣.(권35)

또한 이 지역이 고구려의 한산주에 소속되었으며,

매성군(마홀이라고도 한다), 칠중현(난은별이라고도 한다), 파해평사현(액봉이라고도 한다), 천정구현(어을매곶이라고도 한다), 술이홀현(수니홀이라고도 한다), 달을성현(한씨 미녀가 높은 산마루에서 봉화를 놓고 안장왕을 맞이한 곳이라 하여 후일에 고봉이라고 불렀다)
買省郡(一云 馬忽) 七重縣(一云 難隱別) 波害平史縣(一云 額) 泉井口縣(一云 於乙買串) 述尒忽縣(一云 首泥忽) 達乙省縣(漢氏美女 於高山頭 點烽火 迎安臧王之處 故後名高烽)(권37)

매성군은 지금의 양주를, 칠중현은 적성, 파해평사현과 술이홀현은 파주를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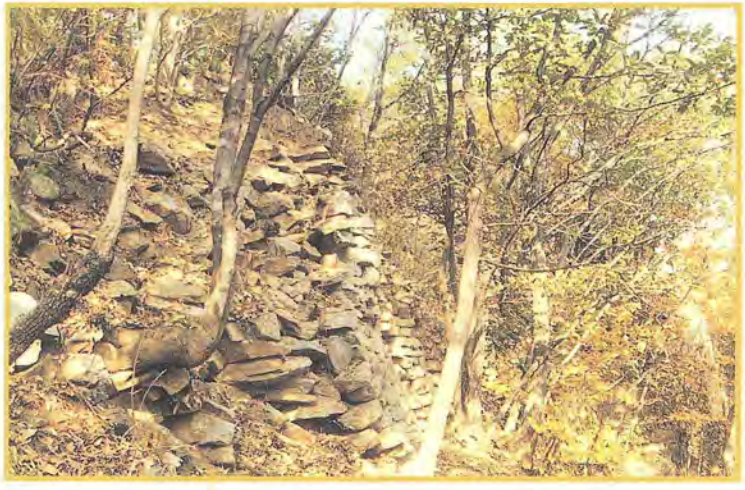
내고, 천정구현은 교하를 나타내며, 달을성현은 지금의 고양을 뜻하는데 행정구역이 변화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칠중성과 그 주변의 싸움 기록에 대하여

또 제사를 받들던 곳도 나오는데 칠중성七重城의 겸악鉗岳이 소사小祀를 받는 곳으로 표기되었다(권32). 대사大祀를 지내는 세 산은 내력산(경주) · 골화산(영천) · 혈례산(경주)이고, 중사中祀는 오악五嶽과 사진四鎭 · 사해四海 · 사독四瀆에 지냈는데 오악은 동쪽의 토함산, 남쪽의 지리산과 서쪽의 계룡산, 북쪽의 태백산, 중앙의 팔공산이고 소사는 겸악을 비롯하여 설악과 화악 · 부아악 등 24곳이다.

임진강의 하류를 칠중하七重河라고 묘사하거나 호로하瓠蘆河와 표하瓢河라고도 불렀다. 그래서 그 성들의 이름도 칠중성이요, 호로고루가 되었을 것인데 그 의미는 강의 굴곡이 많아서 붙은 이름일 것이다. 이 주변이 중요한 요새이므로 예로부터 많은 성을 쌓아 지키려고 하였다. 칠중성은 지표조사에서 시기를 달리하며 여러 차례 개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칠중성에서 북서쪽으로 3km 지점에는 육계토성이 자리를 잡았고, 칠중성의 남쪽 설마천 주변에는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가 있는데 이는 칠중성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전투를 벌였다는 증거이다. 또 인근의 아미성과 이잔미성(장좌리보루), 덕진산

칠중성 성벽



성과 호로고루, 당포성과 은대리성 등이 조사되었으므로 칠중성 또는 칠중하로 대변되는 이 지역이 오랜 세월 동안 주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칠중성과 호로고루가 주목되었을 때부터 존재한 성들도 있겠지만 이 지역의 중요성 때문에 나중에라도 추가하여 성을 더 쌓은 것으로도 보인다. 게다가 강 건너 연천의 학곡리에는 고인돌과 적석총 등의 옛 유적으로 보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다.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1년(백제 온조왕 18) 칠중하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 18년 겨울 10월, 말갈이 습격해왔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하에서 그들과 싸웠다. 추장 소모를 생포하여 마한에 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생매장하였다.(권23)

끔찍한 기록이지만 기원전 1년에는 이곳이 백제의 영토였으며 온조왕이 직접 와서 전투를 지휘한 것이다. 말갈의 추장을 사로잡아 마한에 보냈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백제 초기와 마한의 사이는 지금의 전라도 지역까지 일부 관장하였거나 최소한 협력관계에 놓였던 것을 알게 된다. 포로들을 모두 생매장한 것을 보면 말갈이 백제를 꽤나 괴롭힌 대상이었나 보다.

권5 「신라본기」와 권20 「고구려본기」에도 칠중성 전투가 나온다. 한 사건을 따로 기술한 것이어서 흥미롭다. 우선 「신라본기」를 보면,

> 7년(선덕여왕, 638) 봄 3월, 칠중성 남쪽에 있던 큰 돌이 저절로 35보 거리를 이동하였다. 가을 9월, 노랑색의 꽃비가 내렸다.
> 겨울 10월, 고구려가 북쪽 변경의 칠중성을 침범하였다. 백성들이 놀라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왕이 대장군 알천에게 명령하여 이들을 안심시켜 다시 모여 살도록 하였다.
> 11월, 알천이 고구려 군사와 칠중성 밖에서 싸워 승리하였다. 이 싸움에서 죽이거나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큰 돌이 저절로 움직였다는 것과 노랑색의 꽃비는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 태종무열왕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알천이 이곳에 와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놀랍다. 왜냐하면 알천은 진덕여왕이 죽은 다음 태종무열왕 김춘추보다 더 강력하게 왕으로 추대되던 인물이었고 그런 인물이 이곳 칠중성까지 와서 전투를 지휘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다음은 「고구려본기」에 나타난 같은 기사이다. 이때 이 지역은 신라의 영토였다. 고구려가 신라의 칠중성을 공격하려다가 알천에게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적은 것이다.

> 21년(영류왕, 638) 겨울 10월, 신라 북쪽 변경에 있는 칠중성을 침공하였다. 신라 장군 알천이 칠중성 밖에서 우리와 싸웠다. 우리 군사가 패배하였다.

파주의 역사 인물에 대하여

『삼국사기』의 「열전」에는 김유신 · 을지문덕 · 장보고 · 궁예 · 견훤 등 50명이 수록되었다.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삼국에서 중요한 인물을 가려 뽑아 간단한 전기를 기록한 것이다. 물론 김유신처럼 당대의 뛰어난 인물은 더욱 자세히 기록하였지만 칠중성에서 공을 세운 필부匹夫에 대한 기록은 그만큼 칠중성이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다음은 「열전」에 나오는 태종무열왕 때 현령 필부에 대한 기록이다. 필부는 그 이름만으로는 한 사람의 평범한 남자지만 「열전」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목숨을 바치면서 이곳 칠중성에서 투혼을 발휘했으므로 「열전」에 실리게 된 듯하다. 칠중성이 배출한 영웅 필부에 대한 찬사는 특히 대단하다. 필부가 중심이 되어 20여 일 동안이나 잘 싸웠으므로 고구려군은 후퇴를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간첩 같은 역적 비삽比歃이 성 안의 비밀 정보를 알려서 고구려는 한층

더 기세를 떨치게 된다. 비삽의 간첩 행위를 알게 된 필부는 비삽을 죽여 보복하지만 이미 전세는 고구려 쪽에 기운 다음이었고 필부는 그만 여러 부장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한다. 또한 이 싸움의 실패 원인을 현령인 필부에 넘기지 않고 배신자인 비삽에게 돌렸으며 이미 죽은 필부에게는 관직을 추증해준다. 백제와의 전투에서 힘을 소비한 신라가 고구려와 맞설 때의 상황이므로 긴박감도 동시에 느껴진다.

필부는 사량沙梁 사람이다. 아버지는 존대尊臺 아찬이다.

태종대왕은 백제와 고구려와 말갈이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입술과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 함께 우리나라를 침탈하고자 계획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충성스럽고 용맹한 인재로서 그들에 대한 방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구하던 나머지, 필부를 칠중성七重城 관하의 현령으로 삼았다.

그 이듬해 경신(660) 가을 7월에 왕이 당나라 군사와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러자 고구려가 우리를 미워해, 겨울 10월에 군사를 몰아와 칠중성을 에워쌌다. 필부는 한편 지키고 한편 나가 싸우기를 20여 일 동안이나 하였다. 적장은 우리 사졸들이 모두 열심히 싸워 자기 일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보고, 손쉽게 함락시킬 수 없겠다고 여겨 문득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고자 하였다. 이때 역적 대나마 비삽이 몰래 사람을 보내 적들에게 알리기를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힘이 다했으니 만약 공격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항복할 것이라 하니, 적들이 드디어 다시 공격하였다. 필부가 그 사실을 알고 칼을 빼서 비삽의 목을 베어 성 밖으로 던지고, 곧 군사들에게 포고해 말하였다.

"충신과 열사는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는 것이니 힘써 노력할 일이다. 우리 성의 존망이 이 한 번 싸움에 달렸다."

곧이어 주먹을 휘두르며 한 번 호통하니, 병든 이들까지 모두 일어나 앞을 다투어 성 위에 올라갔으나 사기가 꺾이고 다해 죽고 다친 이가 반절이 넘었다. 적들은 바람을 이용해 불을 지르고 성을 공격하면서 들이닥쳤다. 필부가 상간上干 본숙本宿 · 모지謀支 · 미제美齊 등과 함께 적을 향해 맞서 활

칠중성에서 바라본 임진강 전경

을 쏘았지만 날아오는 화살이 빗발 같아 온몸이 뚫리고 터졌으며, 피가 흘러 발꿈치까지 적시니 그만 쓰러져 죽었다. 대왕이 소식을 듣고 매우 비통하게 통곡했으며, 그에게 급찬의 관위를 추증해주었다.

문무왕 대에는 어느 왕대보다 칠중성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다. 662년(문무왕 2), 668년(문무왕 8, 고구려 보장왕 27), 또 671년(문무왕 11), 673년(문무왕 13), 675년(문무왕 15)에 이르도록 기사가 이어진다. 662년과 668년은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그 이후에 보이는 기사들은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전투 내용이다.

662년의 기록은 당나라와 연합 작전으로 고구려를 쳐들어가기 위해 칠중하를 건너는 장면이다. 극심한 추위에 강대국 당나라를 위해 군량미를 옮기는 약소국가 군대의 처절함이 묻어나 있다.

(봄 정월) 왕이 유신, 인문, 양도 등 아홉 장군에게 수레 2천여 채에 쌀 4천 석과 조租 2만 2천여 석을 싣고 평양으로 가서 당나라군을 돕도록 명령하였다. 18일, 풍수촌風樹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길이 얼어 미끄럽고 험하여 수레가 갈 수 없으므로 군량을 모두 소와 말에 실었다. 23일, 칠중하를 건너 산양에 이르렀다.(권6)

「열전」의 김유신 조에는 이때의 상황이 더욱 자세히 묘사되었다. 장군으로서의 김유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는지 모른다.

문무왕 2년 12월 10일, 부장군 인문, 진복, 양도 등 아홉 장군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양곡을 싣고 고구려 경계로 들어갔다. 정월 23일에 칠중하에 이르렀다. 군사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먼저 승선하려는 자가 없었다. 유신이 말하였다. "그대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왜 여기에 왔는가?" 유신이 마침내 스스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니 모든 장졸들이 그 뒤를 따라 강을 건넜다. 고구려 경내에 들어가서는 큰길에서 고구려 군에게 요격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험하고 좁은 길로 행군하여 산양에 도착하였다.(권42)

668년(문무왕 8)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671년(문무왕 11) 당나라와 신라의 싸움이 본격화되었다. 우선 대당총관 설인귀가 문무왕에게 편지를 보내온다. 신라를 위하여 중국의 군사를 일으키니 중국에 유익한 일은 적고 쓸데없는 일은 많았다고 하면서, 이는 선왕(태종무열왕)과의 신의를 저버릴까 두려워 중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강했던 적들이 이미 숙청되었고, 원수들은 나라를 잃었으며 그 병사와 말과 재물을 왕(문무왕)이 차지했다고 하면서 정신과 육체를 헛되이 쓰지 말고 병기를 녹이고 허욕을 버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문무왕은 평안한 국가의 기반을 버리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멀리는 중국 황제의 명령을 어기며 가까이는 부친(태종무열왕)의 말씀을 어기면서 전쟁에 힘쓴다고 나무랐다. 또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원칙으로 돌아가 당나라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때에 따라 제향을 받을 것이요, 왕통이 바뀌지 않고

이어질 것이니 이러한 행운을 선택하고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왕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협박까지 하였다.

문무왕은 역시 편지로 이를 반박한다. 아버지인 태종무열왕이 648년(진덕여왕 2)에 당나라 태종을 만나 조칙을 직접 받았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내가 지금 고구려를 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너희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끼여 매번 침해를 받아 편안한 날이 없음을 가련히 여겼기 때문이다. 산천도 토지도 내가 탐하는 것이 아니며 재물도 자녀도 모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 백제의 토지는 전부 너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토록 하려 한다." 이렇게 약속하였는데 너희 당나라가 왜 다른 욕심을 부리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기 한 해 전 칠중성에서 당나라가 어긴 맹약을 들었다. 660년 필부의 전사 이후로 칠중성은 고구려가 지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 건봉 2년(667)에 대총관 영국공이 요동을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한성주漢城州에 갔으며 그곳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국경에 집합하도록 하였다. 신라가 단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기에 먼저 3회에 걸쳐서 정탐을 보내고 배를 잇달아 보내 당나라 군사의 상황을 알아보았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결같이 "당나라 군사가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우선 고구려의 칠중성을 공격하여 길을 열어 놓고 당나라 군대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 성이 거의 함락되려 할 때 영공의 사자인 강심이 와서 "신라 군사가 반드시 성을 공격할 필요는 없으니 평양으로 조속히 군대를 파견하여 병기와 군량을 공급하라는 대총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명령을 내려 군대를 모아 행군해서 수곡성에 당도하자 당나라 군사가 이미 회군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어 신라 군사도 그곳을 즉시 빠져 나왔다.(권7)

668년 신라가 단독으로 선봉이 되어 먼저 큰 진을 격파하니 평양 성중의 기세가 꺾였다. 그 후 영공이 다시 신라의 정예 기병 500명을 선발하여 먼저 성문으

로 들어가 마침내 평양을 격파하는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영공이 "신라가 이전에 군사의 동원 기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며 "지금 신라에는 아무런 공이 없다"고 생떼를 쓴다. 약속은 자신들이 어겼고 공은 우리 신라가 세웠는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오죽했으면,

> 아아! 고구려와 백제가 평정되기 전에는 사냥개처럼 심부름을 시키더니 들짐승이 없어진 지금에는 도리어 삶아 먹히는 사냥개의 박해를 당하고 있도다.(권7)

라고 문무왕이 탄식을 했을까? 673년(문무왕 13) 윤 5월에는 당나라의 연산도총관대장군 이근행이 호로하에서 고구려 군사들을 격파하여 수천 명을 사로잡았으며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신라로 도주하게 된다. 그러나 당나라의 교활한 군대 운용 같은 뼈아픈 추억이 같은 해 9월의 대승으로 이어진다. 당나라 군사가 말갈, 거란 군사와 함께 와서 북쪽 변경을 침범한 것이다. 아홉 번의 전투에서 신라가 모두 승리하였고, 2,000명의 머리를 베었으며, 호로 · 왕봉 두 강에 빠져 죽은 당나라 군사가 이루 셀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패배를 설욕하려는 듯 675년(문무왕 15) 2월 당나라의 유인궤가 신라 군사를 칠중성에서 격파한다. 칠중성과 그 주변 임진강은 전장의 중심에 섰던 것이다.

칠중성과 호로하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칠중성에 오르면 남북 분단의 현장이 뼈저리게 느껴진다. 칠중성 건너에 북한 땅이 가까이 보이며 호로고루 건너에는 지금도 미군이 주둔한다. 또 이 일대는 6 · 25전쟁 때 인민군 전차부대가 도하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서울과 가장 가까우면서 강의 수심이 제일 낮은 곳이어서 선택되었고, 이는 또 인해전술의 중공군이 건너온 강이기도 하다. 그때 칠중성에는 영국군이 자리를 잡았다. 성 때문에 캐슬고지(일명 148고지)라고 명명하고 중공군과 한바탕 격전을 치렀던 곳이다. 백제 초기부터 전투를 벌였고, 신라와 고구려가 싸웠는가 하면, 신라와 당나라가 싸우고, 영국군과 중공군도 싸운 곳이고, 남과 북이 싸웠으며, 지금도 대치하는 중이다. 게다가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부터 신라의 알천이며 김유신 등 역사적인 인물들이 와서 전투에 참여

한 곳이기도 하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녀간 곳이요, 그 발자취를 『삼국사기』에 확실하게 남겼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의 땅과 강이 칠중성이요 임진강이다.

감악산과 몰자비沒字碑와 설인귀

정승모_지역문화연구소 소장

감악산의 역사적 위상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산으로 치악산雉岳山 · 백악산白岳山 등과 함께 감악산紺岳山(또는 紺嶽山)을 든다. 경기의 오악五嶽을 들 때도 송악松岳 · 운악雲岳 · 북악北岳 · 관악冠岳과 더불어 감악紺岳을 든다. 감악산에는 감악사紺岳寺 · 신암사神岩寺 · 운계사雲溪寺 등의 절이 있었다.

파주 · 양주 그리고 연천의 3개 군 경계에 걸쳐 있는 감악산과 그 일대는 굳이 별도의 방어 병력을 두지 않아도 접근이 힘든 곳이어서 역사 이래로 방어를 위한 천연 요새가 되었다. 감악산 정상에 서면 북으로 임진강을 굽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적성면 구읍리 중성산重城山에 칠중성七重城을 둔 것은 감악산보다 덜 험한 곳이고 그래서 침입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국경 분쟁이 극심하던 삼국시대에는 치열한 영토 싸움의 현장이었다. 이 중성산은 해발 150여 m도 채 안 되는 낮은 산이지만 임진강과 감악산 그리고 파평산과 송악산까지도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과거 이러한 명산들은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전쟁을 통해 그 중요성을 경험하면 할수록 산에 대한 경외심은 더 깊어지고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발전한다. 북방민족으로부터 시달려 온 고려와 그 이전 시기는 말할 것도 없다.

신라 이래로 나라에서는 감악산에서 소사小祀의 격으로 제를 지내왔다. 산 위에 사우祠宇가 있어 봄 가을로 향축香祝을 내렸다. 『삼국사기』(권32, 지志1 제사祭祀)에도 소사를 지내는 곳으로 검악鉗岳(감악의 옛이름)의 칠중성이 들어 있다.

신라인들은 당나라 장군 설인귀를 산신으로 모셔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를 사당과 같은 별도의 건물에 모셨는지는 불분명하다. 이 점이 분명해지는 시기는 1011년(현종 2)이다. 이때에 거란 병사들이 장단까지 쳐들어왔는데 감악산 신사의 모습이 기마병과 말들이 서있는 것처럼 보여 감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왕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신사神祠를 수리하라고 명을 내렸다. 이상의 내용은 『고려사』에 나온다. 어떤 기록에는 이때가 현종 원년, 즉 1009년이라고 나온다.

1287년(충렬왕 13)에는 원나라가 고려를 토벌하려 할 즈음에 감악산신, 즉 설인귀의 차남을 도만호都萬戶로 봉했는데, 설인귀 산신의 음덕을 바라기 위한 뜻에서라고 했다. 도만호는 충렬왕 때 설치되어 경찰업무를 관장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의 장관직이다. 이제는 산신이 설인귀 개인에서 가족 단위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증보문헌비고』(권21, 예고禮考8)에는 1277년(충렬왕 3)에 감악산 제사를 금지시켰는데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고려사절요』(권23)에는 충선왕 때인 1311년에 감악산에서 제사지내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때의 풍속이 귀신을 숭상하여 공경과 사대부와 서인이 모두 직접 감악산에 제사지냈는데, 지중문하사知中門下事 민유閔儒와 전 소윤少尹 김서지金瑞芝가 감악산에 제사지내려고 장단長湍 나루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항상 일시적이다. 그리고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비교적 외침이 덜 심했던 조선에 들어와서 감악산의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 한양 천도로 임진강 사수가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인 1393년(태조 2) 1월 21일 예조禮曹에서 전국 명산의 신에게 작위를 내렸는데, 이때 감악산은 삼각산, 백악의 산들과 더불어 호국백護國伯에 봉작되었다. 중기에 해당하는 1531년(중종 26) 5월 22일에는 경기 근방에서 영험이 있는 곳을 골라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동안 예조가 제를 지내 가장 영험이 있었다고 올린 곳이 개성부의 송악산, 장단의 오관산五冠山과 덕진德津, 양주楊州의 양진楊津 그리고 적성의 감악산이었다.

조선 세종 때 인물인 김반金泮은 『혜민당기惠民堂記』에, "서울에서 동북쪽으로 설마현雪馬峴을 넘어 수십 리 지점에 적성현이 있는데, 동쪽으로 감악 높은 산을 기댔고, 서쪽으로 장단부 큰 강을 눌렀다. 지역이 가장 궁벽하고 좁아서 백성의 삶이 가난하였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11 적성현)에 나온 기사다.

이상에서 보듯이 감악산은 오래전부터 국가가 주도하여 제의를 올리는 국전國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설인귀를 감악산신으로 모신 지도 오래다. 그리고 둘의 관계를 별 의심 없이 하나로 인식하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둘로 분리되는 시기도 있었다.

감악산과 설인귀

설인귀는 중국 당나라 장수로 강주絳州 용문龍門에서 출생하였다고 한다.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하진河津이다. 『자치통감』에서는 그에 대해 당나라 무장 설안도薛安都의 6세손으로 이름은 예禮라고 하였다. 그의 생몰년에 대해서도 613년에 태어나 682년에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정보는 다음의 고구려 관련 기사 말고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설인귀는 645년(보장왕 4)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군졸로 응모하여 안시성 전투에서 공을 세워 유격장군遊擊將軍으로 발탁되었다. 당나라 고종 때는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의 총독으로 659년에 고구려를 침공하였다가 횡산橫

山에서 고구려 장군 온사문溫沙門에게 패하여 돌아갔다.

666년에 당나라 고종은 이적 등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여 16개 성을 모두 함락시켰다. 668년에는 설인귀가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으로 추가되어 참전하고 신라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고구려를 쳐들어갔다. 나당연합군에게 왕이 나가 항복하니 이적이 왕과 왕자, 대신 등 20여만 명을 붙잡아서 돌아갔다. 이로써 고구려가 막을 내린다. 설인귀는 고구려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당나라에서는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설인귀를 도호사都護使로 삼아 유민을 진압하도록 하였다. 설인귀는 671년(신라 문무왕 11) 계림도행군총관鷄林道行軍總管으로 신라를 침입했으며, 675년에 신라의 천성泉城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이듬해 다시 침략했으나 소부리所夫里의 기벌포伎伐浦에서 패했다. 그는 681년 과주자사瓜州刺史, 대주도독代州都督으로 임명되었으며, 후에 본위대장군本衛大將軍으로 임명되고 평양군공平陽郡公에 봉해졌다.

설인귀는 우리 고대사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한 그가 앞서 언급한 대로, 그리고 다음의 기사나 자료에서 보듯 이후 감악산신으로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현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소정방蘇定方을 모신 사당이 있었듯이 예외적이지도 않다. 당시는 지금과는 달리 국가나 민족 개념이 없었거나 강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430년(세종 12) 8월 6일에 예조에서 각도 산천 단묘 순심 별감各道山川壇廟巡審別監이 보고한 내용에서 나오는 진흙 상[泥像]은 설인귀 소상塑像이다.

> 적성현積城縣 감악산紺岳山 신은 위판位版이 없고 니상泥像을 사용하고 있사온데, 주신主神 부처夫妻 양위兩位와 자신子神 부처夫妻를 아울러서 모두 6위이며, (후략) (『세종실록』 권49)

양촌 권근의 손자 권람權擥(1416~1465)은 1464년에 신병으로 감악산신 설인귀에 치성을 드릴 때, 비바람이 몰아치자 "당신(설인귀)과 나는 세력이 서로 같은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몰아치는가" 하고 호통쳤다고 한다. 그는 불교를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명신名神을 숭배하여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이 당시 설인귀는 이

미 감악산신으로 모셔지는 존재였다.

앞서 언급한 1430년(세종 12) 8월 6일 『세종실록』(권49) 기사 중에 예조에서 "감악산 · 의관령義館嶺 · 송악산의 신상神像은 철거하지 말고 그 근처에 적당한 땅을 택하여 따로 나라에서 제사를 행하는 사당을 세워 위판을 설치하게 하고, 그 은그릇은 타례他例에 의하여 놋그릇[鍮器]으로 대신하도록 하소서"라고 건의를 하는데, 이때 조선 정부의 방침대로 소상은 철거되고 별도의 설인귀 사당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높은 산 정상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별도의 사당을 지은 시기는 더 늦을 수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11 적성현) 사묘조에는 민간에서는 신라 때 당나라 장수 설인귀를 산신으로 모셨다고 전해지며, 조선에 들어와 명산이라고 하여 감악사에서 중사中祀를 지내게 하여 봄 가을로 향축을 내렸다고 하였다. 조선 초의 상황은 설인귀는 산신이고 감악산에서는 나라 제사인 중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비碑에 대한 언급은 없다.

몰자비에 대해

몰자비는 적성면 객현리 산25 감악산 정상에 세워져 있는 비로, 글자를 새긴 흔적은 있는 것 같으나 몰자沒字되어 한 글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붙은 이름이다. 당장唐將 설인귀를 위한 비라고도 하며 민간에서는 '빗돌대왕비', '삐뚤대왕비' 등으로 부른다.

재질은 화강암이며 신라 때의 순수비巡狩碑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순수비라면 진흥왕대(540~576)이거나 진평왕대(579~632)일 수 있다. 그 정체도 연대도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논의로만 공전하다가 일단 파주시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된 상태다.

비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이수(비 머리)	가로 92.5cm × 세로 37.5 cm × 높이 25cm
비신	높이 162cm
너비	상단 75.5cm, 중단 74cm, 하단 70cm
두께	상단 16cm, 중단 20cm, 하단 19cm
기단	가로 190cm × 세로 159cm로 3단이며, 3단의 높이 8cm

감악산 제의祭儀의 변화

소사든 중사든 감악산에서 행해졌던 제의의 주체는 국가였다. 1416년(태종 16) 5월 25일에 국무당國巫堂과 감악산 · 덕적산 · 목멱산 삼성三聖에 기양제祈禳祭를 행하였다고 하였는데 국무당이라는 존재를 통해 기양제가 국가가 주도한 제의임을 알 수 있다.

미수 허목許穆(1595~1682)이 남긴 문집 『기언記言』(권27)의 산천山川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 날이 밝자 감악산 정상 벼랑에 올랐다. 신정神井에서 물을 마시고 감악사紺嶽祠에 이르렀다. 어른 키 세 배되는 석단石壇이 있고 그 위에 산비山碑가 서 있었다. 너무 오래되어선 지 글자가 모두 지워졌다. 옆에는 설인귀사당薛仁貴祠堂이 있는데, 혹자는 왕신사王神祠라고 한다.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은 음사淫祠다. 그 신은 화복禍福을 일으키는 요상한 힘이 있다고 하여 민간에서 받들어 모신다.

이 기사를 보면 감악산에는 나라에서 중사의 격으로 제사를 지내는 감악사가 있고, 한편으로는 민간에서 설인귀를 모시기 위해 만든 사당이 별도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세종 때 내려진 조치가 이후 어느 때인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몰자비와 신정이라고 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우물도 확인된다.

감악산 몰자비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1742년에 신유한申維翰(1681~1752)이 감악사 봄제사[春享]를 지내기 위해 감악산에 등반하고 기록을 남겼는데, 1세기 전에 미수 허목이 본 것과 같다. 그가 본 산 정상에는 사祠와 단壇, 그리고 흙 돈대 위에 고비古碑가 있었고, 옛 설인귀 사당이 있었다고 했다. 그의 여정과 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술壬戌(1742) 2월 11일에 제향을 위해 하루 전날 일찍 새벽 무렵 대축大祝을 맡을 사람과 함께 적성현에 이르렀다. 산 정상에 오르니 사옥祠屋이 있고 위판位版이 모셔져 있었다. 사옥 아래에는 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방 10여 척이 되었다. 사경四更, 즉 새벽 한두 시경에 향례享禮를 올렸다.
>
> 사우 왼쪽으로 흙으로 만든 돈대가 있고 그 위에 고비古碑가 서 있다. 높이는 한 장丈, 즉 160여 cm가 넘고 돌 깎은 솜씨가 매우 가지런하였다. 얼마나 마모되었는지 한 글자도 보이지 않았다. 스님이 하도 오래되어 그런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말하기를 사우 동편으로 당나라 장수 설인귀묘薛仁貴廟가 있는데 지금은 총사叢祠(음사와 같은 뜻이다)가 되었다.

이상은 신유한의 문집인 『청천집靑泉集』(권4) 감악산기紺岳山記에 나온다.

당시 감악산 춘향제는 춘추春秋 중월仲月, 즉 음력 2월과 8월에 지냈다. 제사 때 놓은 제물은 다음과 같다.

- 반飯 : 도稻(찰벼), 서黍(기장)
- 희생[牲] : 수돼지[牡豕]
- 주과포 : 주酒, 과果, 포脯, 숙鱐(말린 물고기)
- 향축 : 향香, 축祝, 폐幣
- 제관 : 헌관獻官, 대축大祝 각 1원員

18세기 후반 이후의 상황을 전해주는 『증보문헌비고』(권21)나 『여지고』(9. 적성 감악산)의 기사도 위와 같다.

> 산 위 석봉石峯에 감악사紺嶽祠가 있는데 석단石壇의 높이는 3장丈이며 그 위에는 비碑가 있는데 오래되어 글자가 없어졌다. 곁에는 설인귀사薛仁貴祠가 있다.

19세기 중반경의 상황을 보여주는 『적성현지』(1842~1843)에 나오는 현 지도에는 감악산묘를 제당祭堂이라고 표기하였다. 이 책의 단묘조와 고적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단묘壇廟」

- 사직단社稷壇: 신실神室 1칸을 1787년 가을에 고쳐 지었다. 1809년 가을에 석축石築을 쌓고 기와를 갈았다.
- 여단厲壇: 관아 북쪽 2리 떨어진 곳에 있다.
- 성황단城隍壇: 관아 남쪽 2리 떨어진 곳에 있다.
- 감악산묘紺嶽山廟: 감악산 정상에 있다.
- 성황신실城隍神室: 객사客舍 북쪽에 있다.

「고적古蹟」

- 몰자비沒字碑: 감악산묘紺嶽山廟의 주변에 있다. 세속에서는 설인귀사적비薛仁貴事蹟碑라고 하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글자가 지워져 고증하기 힘들다.
- 현문상玄門像: 감악산 남쪽 암하巖罅(바위가 벌어진 곳)에 돌로 만든 작은 감실[石龕]을 두고 그 위에 편편한 돌 조각을 세운 다음 전면에 신인상神人像을 그렸는데, 아름다운 수염이 있는 부처 얼굴이다. 후면에는 다음과 같은 35자를 새겼다. "玄門獨立老聖君 守中抱一大道尊 作帝王山萬古存 木子閒基建等身 化戊子月在申玩" 이 시의 뜻은 노자를 가리키는 듯하나 자세히는 모르겠다.

이때의 기록은 이전 것과 조금 다른데, 우선 설인귀사薛仁貴祠 또는 설인귀묘에 해당하는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대신 고비古碑 또는 몰자비라고 하던 비를 설인귀사적비薛仁貴事蹟碑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설인귀를 모시는 사당이 없어지자 이를 대신하여 비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1871년에 작성된 『적성현지』의 내용도 이전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단지 이 읍지에는 감악산묘는 한 칸이고 음력 1월과 2월 그리고 8월에 나라에서 내려주는 향축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또한 성황신실에 대한 언급도 추가되었는데, 한 칸이며 기사년에 새로 세운 것이라고 하였다. 기사년은 1809년으로 추정된다.

성황신실과 성황단과의 관계나 그것과 사라진 설인귀사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이상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 아쉽다. 이후의 구전자료나 무가巫歌에서 보이는 내용에 근거해보면 감악산 위에는 더 이상 설인귀사당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고비가 설인귀를 모시는 신앙물로 변해간 것으로 보인다.

일제 때 무속 연구 자료들을 보면 경성京城의 12제차祭次 중에 세 번째 대목인 '산마누라' 중 "적성은 감박산에 천총대왕天聰大王 양마누라 아니시랴"라고 하

는 것과 창부타령 중 "감박산 천총대왕 뫼신 광대"라는 내용이 나온다.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와 아카마츠 지죠[赤松智城]는 『朝鮮巫俗の研究』(1937년)라는 책에서 "천총대왕은 세속에 비석대왕이라고 하며 무인武人의 신령으로, 적성 감악산 위에서 제사하며 특히 양주 방면에서는 제일 높은 신이다"라고 하였다. 무당의 본산이라고 하는 덕물산의 도당 좌측 벽에 감악산 천총대왕의 화상이 걸려 있는 것도 대왕신의 높은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감악산 주변에는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해온다. 그 중에는 지명과 관련한 설화도 있다. 마지리馬智里, 무건리武健里, 설마리雪馬里 같은 지명들이 그 예다. 특히 설마리는 설마치薛馬馳라고 하여 적성에서 태어난 설인귀가 무예를 닦던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설화는 의미가 있는 자료이지만 시대가 불분명하고 진위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믿고 인용할 만한 사료는 못 된다.

지금까지의 서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이래로 고려까지 소사 또는 중사의 대상으로서의 감악산신과 당나라 장수 출신이지만 감악산에 머물면서 전쟁 등 위기 때 영험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설화의 주인공 설인귀가 일치하였다. 즉 설인귀가 감악산신이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에 들어와 중사를 모시는 감악사 또는 감악산묘를 지음으로써 설인귀사는 관에서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음사로 몰렸고, 이것이 별개의 건물로서 존재해면서 18세기 후반까지 이어졌다. 18세기 말 또는 19세기에 들어와 설인귀사당이 없어졌다. 그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개축이나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민간에서는 후에 이를 대신하여 설인귀를 고비로 모시게 된 것이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의 쟁투지 칠중성

심광주_토지박물관 기획운영팀장

칠중성의 지정학적 요건과 고고학적 특징

적성에서 37번 국도를 타고 서북쪽으로 2km 정도 가면 고개 넘어 서편으로 적성향교 팻말이 보이는데 칠중성은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있다. 칠중성이 있는 중성산은 감악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으로 해발 147.7m의 소봉이지만 북쪽으로 임진강변에 이르기까지 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주월리와 가월리를 포함한 임진강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문산이나 파주에서 전곡과 연천으로 이어지는 37번 국도와 개성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349번 지방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특히 칠중성의 동북쪽 전방에 있는 임진강의 가여울 또는 술탄이라 불리는 지점은 특별한 도하 장비 없이도 말을 타거나 걸어서 도하할 수 있는 지점으로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의 서북 지방과 중부 지방을 이어주는 간선도로가 지나가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 지역이 백제의 영역에 속하였을 때에는 난은별難隱別이라고 하였으며, 고구려의 영토였을 때는 칠중현이라 불리었다.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한 이후에도

칠중성에서 본 임진강 일대

칠중현이라 불리다가 757년(경덕왕 16) 중성현으로 고쳤으며, 내소군(현 양주시 주내면 고읍리)의 관할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칠중성은 중성산 북쪽의 8부 능선을 휘돌아 남쪽으로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내려오다가 동쪽 부분에는 작은 계곡을 감싸 안고 있다. 성의 전체적인 형태는 북동-남서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에 가까운 포곡식의 석축산성이다. 성의 전체 둘레는 대략 700m 내외인데 이것은 조선시대 지지 자료에 기록된 2,256척을 영조척으로 환산한 길이인 704m와 거의 유사하다. 성은 서쪽 부분에 비해 동남쪽 진입로 부분이 가장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북동쪽이 가장 높다. 칠중성은 '칠중'이라는 명칭 때문에 성벽이 여러 겹으로 된 복곽성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조사 결과 성벽은 단일성벽으로 확인되었다. 칠중성이 구축되기 전인 1세기 대에 이미 칠중하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칠중성이라는 명칭은 이 지역을 지나는 임진강의 명칭인 칠중하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의 정상부는 군부대의 진지구축 등으로 상당 부분 삭토되어 많이 훼손되었지만 성벽의 흔적은 잘 남아 있다. 현재 성벽이 노출되어 있는 곳은 대략 10~15m 정도의 폭으로 무너진 성돌이 흩어져 있으며 성벽의 안쪽에는 5~6m의 회곽도가 조성되어 있다.

성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동남쪽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문지가 있었던 부분은 군사용 도로로 인하여 잘려나가 석축성벽의 단면이 노출되어 있으나 잡목이 우거지고 토사에 덮여 있어 정확한 구조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동문지의 안쪽에는 낮고 평탄한 곳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갈대가 많이 자라고 습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집수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벽의 안쪽에는 많은 군용 참호가 파여 있으며, 참호의 벽면에서 많은 양의 와편과 토기편이 출토되고 있다. 와편 중 수키와는 아미성이나 이성산성에서 출토되는 것과 같은 유형의 당초문기와가 특징적이며, 암키와편에는 사격자문, 집선문, 승석문 등의 다양한 문양이 발견되는데 문양이나 제작기법을 고려할 때 대체로 신라-통일신라 시기의 와편이 주류를 이룬다.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 때 수습된 유물을 보면 내부에 모골흔이 있고 적갈색을 띠는 고구려 와편의 특징을 보이는 것도 확인되었다. 성내에서는 다량의 토기편이 발견되고 있으나 대부분 단각고배나 완, 인화문합 등 신라토기류가 주종을 이룬다. 임진강 하류 지역의 성동리 고분군에서 6세기 중엽의 토기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6세기 중엽 한강 하류 지역을 확보한 신라는 몇 년 안에 칠중성 지역으로 진출하여 성곽을 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칠중성 성벽

반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칠중성에서는 백제계의 유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일대가 백제의 영역이었을 때에는 임진강에 접하여 구축되어 있는 육계토성

칠중성 출토 유물

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곳에는 방어시설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소규모의 보루나 목책 등이 구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지나 금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이곳이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였을 때에도 이곳에는 성곽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있더라도 정상부를 중심으로 보루 형태의 소규모 방어시설 정도였을 것이다. 현존하는 석축성은 성벽을 쌓는 방법이나 성벽 시설물 등을 고려할 때 신라가 이곳을 장악한 이후 구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지정학적인 요건이나 역사적인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칠중성은 삼국 중 신라에 의해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임진강이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을 이루고 있었던 120여 년 동안 칠중성은 임진강 수계를 방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입증하듯 『삼국사기』에는 칠중성을 둘러싼 고구려와 신라, 당나라와 신라 사이의 전투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

칠중성을 둘러싼 삼국의 쟁투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이름만 있고 어디인지 알 수 없는 261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위례성을 비롯하여 관미성 · 욱리하 · 살수 · 백암성 등 중요한 역사적 중심지의 상당수도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칠중성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지명 중 위치 비정에 이견이 없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고구려 · 백제 · 신라 삼국 중 이 지역을 처음 차지한 것은 백제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6년(온조왕 13)에 백제의 강역은 이미 북으로는 패하(예성강), 남으로는 웅천(안성천), 서쪽으로는 대해(서해), 동쪽으로는 주양(춘천)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국가세력의 확장과정이나 고고학적인 증거를 고려할 때 온조왕 대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지만 연천 일대에서 확인되는 무기단식 적석총의 존재 등으로 미루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백제가 이 지역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백제 초기 임진강 유역에는 말갈이나 낙랑의 침략이 빈번하였다. 이 시기 말갈로 지칭되는 동예족들은 원산만 지역을 근거지로 하였는데 추가령구조곡을 이용하여 형성된 고대 교통로를 따라 평강과 철원을 지나 임진강 · 한탄강 유역에 자주 등장하였다. 백제에서는 이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칠중하와 공목달 등 적성과 연천 일원과 남한강과 북한강 상류 쪽에 주로 목책이나 토성 위주의 성을 쌓았다. 또한 중국의 군현인 낙랑군과 대방군 역시 백제의 성장을 막기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하여 낙랑 스스로 침략하기도 하고, 말갈을 부추겨 백제를 공격하게 했다. 백제는 낙랑과 대방군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수성 · 병산책 · 독산책 · 구산책 등을 설치하였는데, 성을 쌓은 곳은 대체로 철원 · 연천 등 낙랑으로 통하는 길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에 칠중하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 겨울 10월 말갈이 갑자기 쳐들어왔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하에서 맞아 싸워 추장 소모를 사로잡아 마한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 적들은 모두 구덩이에 묻어버렸다.(『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18년)

임진강은 징파강 · 구연강 · 신지강 · 칠중하 · 호로하 등 위치에 따라 수십여 개의 이름이 있었는데 칠중하는 현재의 육계토성 부근의 임진강을 지칭한다. 칠중하 변에 있는 백제토성으로는 육계토성이 있다. 육계토성은 임진강에서 수심

이 낮아 주요 도하 지점의 하나였던 가여울과 서쪽의 두지나루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있었다.

육계토성은 임진강 남안의 낮은 구릉성 충적대지(해발 20m)에 축토된 토축성으로 내성과 이를 둘러싼 외성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평면 형태는 북동-남서 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타원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의 둘레는 약 1,945m이며 성 내부에서는 凸자형 주거지와 呂자형 주거지 등 백제 주거지에서 3~4세기 대를 중심으로 하는 다량의 백제 유물과 약간의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말갈의 침입을 백제가 칠중하에서 맞아 싸울 당시 육계토성이 있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기록의 내용이나 육계토성에 대한 발굴 결과로 볼 때 말갈의 침입이 있었던 기원 1년 전후는 아직 육계토성이 축성되기 이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백제는 고이왕 대에 이르러 경기도 지역의 대부분을 백제의 권역에 포함하게 되었으며, 근초고왕 대에는 황해도에서 경기 ·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확보하게 된다. 고구려의 남진으로 낙랑과 대방이 멸망함에 따라 4세기 대에 백제는 드디어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 백제가 고구려와 공방을 벌이는 주요 전투 지역은 치양성(황해도 배천) · 수곡성(황해도 신계) · 패하(예성강) 등 예성강 이북 지역의 황해도 일대이다. 심지어 백제는 평양성까지 진격하여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등의 전과를 올리기도 한다. 이것은 4세기 대에는 백제의 국경이 예성강 지역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은 이미 백제의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임진강 유역에서의 전투 기록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제가 예성강 이북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칠중하와 호로하의 여울목은 중요한 교통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한성-적성-치양, 수곡 등으로의 교통로가 개설된 이후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육계토성이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육계토성이 임진강 방어의 주기능을 담당할 당시 칠중성에는 이렇다 할 방어시설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는 장수왕 대에 이르러 북위와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남조와도

통교를 하는 등 안정된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427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고, 475년(장수왕 63)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는 등 본격적인 남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고구려는 아산만에서 영일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진출하였으며, 551년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하여 한강 유역에서 후퇴할 때까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지역이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였을 당시에도 칠중성은 구축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칠중성의 입지 및 기능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을 방어하기에는 유리하지만,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을 방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진강을 배후에 두고 감악산의 능선 말단부에다 배수진을 치고 성을 축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백제가 영역을 예성강 유역까지 확장한 이후부터 고구려의 남진 시기까지 칠중성은 아직 역사의 무대에 주역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칠중성이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임진강 유역의 지정학적인 특성이 그 빛을 발하게 되는 6세기 중엽 이후부터이다. 신라는 551년(진흥왕 12)에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10개 군을 빼앗고, 553년에 백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마저 급습하여 탈취한 뒤 그곳에 신주를 설치하였다. 신주는 새로 확보한 한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 일원을 경영하기 위함이었다.

한강 유역 진출 이후 신라는 파죽지세로 영토 확장을 계속하여, 서북쪽으로는 임진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북쪽으로는 558년 황초령 · 마운령 순수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함경도까지 진출하였고, 남으로는 대가야를 병합하면서 비약적인 영역 확장을 진행하였다.

한편 임진강 유역에서부터 한강 유역에 이르는 교통로 상에 집중적으로 보루를 구축하며 거점을 확보하였던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을 맞아 본격적인 저항을 할 겨를도 없이 임진강 유역까지 후퇴를 단행하였다. 고구려군이 신라와 백제의 공격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죽령 이북에서 임진강 이남 지역까지 500여 리의 땅을 손쉽게 내어주고 겨우 임진강 유역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구려의 대내외적인 여건과 임진강 유역의 자연지리적인 특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6세기 중엽 고구려는 귀족사회의 내분과 서북쪽 국

경 방면에 출현한 돌궐에 의한 압력 때문에 남쪽에까지 힘을 기울일 겨를이 없었으며, 임진강 이남 지역에 구축하였던 고구려 방어시설이 교통로 확보가 주목적이었던 보루 위주의 소규모 군사시설들이어서 방어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고구려는 신라의 한강 유역 전역에 대한 지배를 인정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진평왕 이후 고구려 멸망 시까지 120여 년 동안 서북 지역에서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선은 임진강으로 구분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가 임진강을 국경으로 삼은 것은 임진강이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적을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임진강 · 한탄강 유역에는 철원 · 평강 지역에서 폭발한 화산의 용암이 흐르면서 10~30m 두께에 달하는 용암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위에 강이 흐르면서 용암대지를 침식하게 되었다. 용암은 그 물리적 특성상 주상절리 현상 때문에 수직절벽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임진강과 한탄강 양안에는 수십 km 구간에 걸쳐 10~15m 높이의 절벽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천연의 성벽 기능을 하여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적의 침입을 능히 막아낼 수 있었다.

또한 임진강의 고랑포에서부터 하류 지역은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 감조 구간으로서 강심이 넓고 수량이 많아 쉽게 도강이 어려운 것도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런데 임진강에는 샛강이 흘러드는 구간마다 석벽 사이에 통로가 형성되고, 샛강이 운반해온 모래와 자갈이 쌓이면서 넓은 여울목이 형성되어 많은 인원이 짧은 시간에 강을 건널 수 있는 교통로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이러한 도강 지점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성곽들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성곽을 구축하여 국경방어를 강화하였다. 임진강의 남쪽에서부터 초평도가 있는 북쪽에 덕진산성이 구축되었으며, 두루봉보루, 호로탄과 술탄이 있는 곳에 호로고루, 상류로 올라가면서 당포성, 무등리1, 2보루 등을 구축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특히 호로고루와 무등리 2보루에서는 다량의 탄화곡물이 출토되어 이곳에 대규모 군량미 창고를 구축하여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비축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한탄강 북안에 구축된 은대리성이나 전곡리토성은 이 시기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도감포 상류 지점부터도 고구려의 국경선은 한탄강이 아니라

임진강을 중심으로 하여 재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호로고루의 경우에는 당초 목책이 구축되어 있었던 방어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하여 성 내부를 평탄하게 조성하고 지상구조물인 높이 10m에 길이 90m에 달하는 동벽을 쌓아 방어력을 보강하였다. 당시에 축성된 호로고루와 당포성의 동벽을 보면 성벽의 기저부와 중심부는 판축을 하고 성벽의 내외면은 석축을 하는 등 석축성벽과 토성의 장점을 결합한 고구려 특유의 발달된 축성기법이 확인되고 있다. 성 내부에는 창고와 병영을 구축하였는데 와당을 사용한 붉은색의 기와건물에 건물바닥에는 전돌까지 깔아놓은 수준 높은 건물이 확인되어 호로고루가 고구려 남쪽의 국경을 총괄하는 사령부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신라는 고구려군의 뒤를 따라 임진강 유역까지 진출하고, 임진강 이남 지역을 따라가며 고구려 성곽에 대응되는 지점에 새로운 성곽을 구축하였다. 임진강의 최하류 지역이자 한강과 임진강의 분기점에 해당되는 지점에는 아마도

고구려 남쪽 국경을 총괄하는 사령부 기능을 하였을 호로고루

백수성白水城 또는 천성泉城으로 불렸을 오두산성이 구축되었고, 연이어서 봉서산성 · 이잔미성 · 칠중성 · 옥계토성 · 대전리산성 등 둘레 1km 내외의 대형산성이 지형에 따라 약 5~10km 거리를 유지하며 구축되었고, 그 사이사이에 100~300m 내외의 보루를 설치하여 주요 교통로를 차단하는 등 서북쪽 국경방어 시스템을 완비해 나갔다.

이 시기에 쌓은 신라성들은 숙련된 기술자 집단에 의하여 구축된 것처럼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위치상으로 북쪽을 방어하기 유리한 주요 길목의 해발 100~200m 지점에 화강편마암계의 성돌로 정연하게 구축하였다. 체성벽에는 보축성벽이 확인되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하는 현문식懸門式의 성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진강변의 육계토성처럼 기존의 백제토성을 사용하지 않고, 한강변에 구축된 이성산성과 거의 같은 입지에 해당하는 칠중성에 새로 성곽을 구축할 정도로 임진강 이남 지역에 대한 영토적인 지배를 공고히 하였다.

신라와 백제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던 고구려가 어느 정도 내분을 수습하고 임진강 이남의 신라에 대하여 공격을 감행한 것은 임진강 유역으로 후퇴한 지 약 90년이 지나서이다.

> 7년(638)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 칠중성을 침범하니 백성이 놀라 혼란해져 산골로 들어갔다. 왕이 대장군 알천에게 명하여 그들을 안도케 하였다. 11월에 고구려 군사와 칠중성 밖에서 싸워서 이겼다.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7년)

> 21년(638) 겨울 10월에 신라의 북쪽 변경의 칠중성을 침략하였다. 신라의 장군 알천이 막으므로 칠중성 밖에서 싸웠는데 우리 군사가 졌다.(『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류왕 21년)

이 기록에 의하면 638년 고구려가 침입할 당시에는 이미 칠중성을 비롯하여 임진강 이남 지역에 대한 신라의 방어 시스템이 거의 완비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경 지역에 대한 주민 이주정책을 실시하여 유사시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어 시스템으로 인하여 칠중성에서 벌어진 고구려와의 전투는 신라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이후 30여 년 동안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갈등은 더욱 높아지고, 당나라 세력까지 한반도에 개입하면서 이후 40여 년간 삼국은 지루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다.

660년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을 공격하자 고구려는 신라의 배후에 해당하는 칠중성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당시 고구려의 공격에 대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짧게 기록되어 있다.

> (660년) 11월 1일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침공하여 군주 필부가 전사하였다.(『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삼국사기』 열전 필부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필부는 신라의 사량부 사람인데 아버지는 아찬 존대이다. 태종대왕이 백제 · 고구려 · 말갈이 서로 가까워져 침탈을 함께 꾀하자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인재로서 그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를 구하였는데 필부를 칠중성의 현령으로 삼았다. 이 해는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기 한 해 전인데 신라는 이미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침공은 나당연합군이 백제 수도를 공격한 3개월 후인 660년 10월에 감행되었다. 고구려군은 군사를 출동시켜 칠중성을 포위하였다. 이때 출동한 고구려군의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칠중성의 규모가 700m 정도이므로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고구려 군사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군이 칠중성을 포위하여 20여 일 정도 지났으나 성 안에서 굳세게 저항하자 고구려군은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철수하려고 할 즈음에 성내에서 반역이 일어났다. 대나마 비삽이 몰래 적에게 사람을 보내어 성내의 식량이 다하고 힘이 다하였으니 만약 공격하면 반드시 항복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고구려 군사가 다시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비삽이 적과 내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필부는 비삽의 머리를 베어 성 밖으로 던지면서 군사들에게 고하였다. "충신과 의로운 병사는 죽어도 굴하지 않는 것

이니 힘써 노력하라. 성의 존망이 이 한 판의 싸움에 달렸다." 이에 성을 지키던 군사들은 분연히 주먹을 쥐고 병든 사람까지 모두 일어나 다투어 먼저 성에 오르려 하였다. 그러나 병사들이 피로에 지쳐서 쓰러져 죽거나 부상한 자가 절반이 넘었다. 적이 바람을 타고 불을 지르고 갑자기 성을 공격하여 쳐들어오니 필부는 상간 본숙 · 모지 · 미제 등과 함께 적을 향하여 활을 쏘았으나 적의 화살이 빗발 같이 날아와서 팔다리와 몸이 찢어지고 잘리어 흐르는 피가 뒤꿈치를 적실 정도였다. 이에 필부 등이 쓰러져 죽으니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슬피 통곡하고 급찬의 관등을 추증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에서 고구려의 칠중성 공격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문맥상으로는 고구려군이 칠중성을 공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고구려군이 칠중성에 계속 주둔했을 가능성보다는 칠중성 함락 후 고구려군은 철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2년 후인 662년 김유신이 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 군대에 군량미를 전달하러 갈 때에 칠중성은 여전히 신라의 수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임술년(문무왕 2, 662) 정월 23일 칠중하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먼저 배에 오르지 않자 유신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이곳에 왔는가? 하고는 스스로 먼저 배에 올라 건너니 여러 장군과 병졸이 따라서 강을 건너 고구려 강역 안에 들어갔다. 고구려인이 큰 길에서 지킬 것을 염려하여 험하고 좁은 길로 행군하여 산양에 이르렀다.(『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662년(문무왕 2) 정월 김유신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에 원정온 당군에 군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레 2,000여 량에 식량을 싣고 평양으로 향했다. 정월 18일에는 풍수촌에 묵고 23일에는 칠중하를 지나 산양에 도착하였으며, 이현이란 곳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였다. 2월 1일에는 평양에서 3만 6,000여 보 떨어진 장새에 도달하였으며, 6일에는 양오라는 곳에 이르러 당군에게 군량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신라로 돌아올 때에는 추격해온 고구려군에게 호로하에서 공격당

하였다. 김유신 부대는 칠중하로부터 장새현을 거쳐 평양에 갔다가 호로하로 돌아왔음이 분명한데 칠중하와 장새현 사이의 예상 이동로는 칠중성에서 북쪽으로 임진강을 건너 황해북도 토산군 · 신계군 등의 산악지대를 경유하는 코스였을 것이다.

이 기록내용으로 보면 김유신은 경주를 출발하여 임진강 이남 지역까지는 별다른 무리 없이 이동하였는데 임진강을 건너면서 군사들의 동요가 일어났고, 김유신의 독려로 강을 건너 험한 지역을 택하여 평양까지 군량미를 전달하였다. 그런데 662년 이후 667년 사이 몇 년 동안 칠중성은 고구려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이는 「답설인귀서」에 수록된 다음의 내용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 건봉 2년(667)에 이르러 대총관 영국공이 요동을 정벌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한성주에 가서 군사를 국경으로 보내 모이게 하였습니다. 신라 군사가 단독으로 쳐들어가서는 안 되겠기에 먼저 정탐을 세 번이나 보내고 배를 계속해서 띄워 대군의 동정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정탐이 돌아와 모두 말하기를 대군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므로 우선 고구려 칠중성을 쳐서 길을 뚫고 대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을 막 깨뜨리려고 할 때 영공의 사인 강심이 와서 대총관의 처분을 받들어 신라 군사는 성을 공격할 필요 없이 빨리 평양으로 와 군량을 공급하고 와서 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행렬이 수곡성에 이르렀을 때 대군이 이미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신라 군사도 역시 곧 빠져나왔습니다.(『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이때까지만 해도 당과 신라의 공조체제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자 당초 패하(대동강) 이남 지역을 신라에 주겠다고 한 당은 신라와의 약속을 어기고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각각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두어 직접 지배하려 하였다. 심지어 당은 신라까지도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신라는 이에 대하여 670년(문무왕 10)부터 백제 고지를 신라 영토로 편입시키는 군사작전에 돌입하는 한편, 고구려 부흥운동을 후원하

면서 당과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신라는 당으로부터 한강 유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672년(문무왕 12) 당시 신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 4,360척에 달하는 주장성晝長城을 구축하고 성내에는 길이 54m, 너비 18m가 넘는 대규모 창고를 구축하여 수만 석에 달하는 군량미와 군수물자를 비축하였다. 당시 신라 주력군의 규모는 3~5만 정도였지만, 당나라의 군사는 20만 명이 동원될 정도였다. 따라서 신라군은 당군과의 전면전보다는 장기간의 농성이 가능한 성곽을 쌓아 장기전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주장성의 축성은 당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라도 국토를 사수하겠다고 하는 신라의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평양성을 함락하고 평양 지역에서부터 남하하기 시작한 당과 신라의 전투에서 예성강 이남 지역으로 후퇴하여 임진강 유역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이루어졌다. 항복하지 않은 고구려군 역시 임진강 유역에서 당나라와 접전을 벌였는데 대표적인 전투가 호로하 전투이다.

> 계유년(673) 여름 윤5월에 연산도 총관 대장군 이근행이 호로하에서 우리 나라 군사들을 깨뜨리고 수천 명을 사로잡으니 나머지 무리들은 모두 신라로 달아났다.

이때 전투가 벌어진 호로하는 적성 건너편 호로고루가 있는 부근의 임진강을 지칭하는데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은 이곳이 평양에서부터 한강 유역으로 가는 최단 간선도로 상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때 고구려군은 호로고루에 배수진을 치고 당군과 전투를 벌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호로고루는 남쪽에서 오는 적을 방어하기는 유리하지만 북쪽으로부터의 적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당나라 군대에 패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고구려 병사가 포로가 되고 나머지 병사들은 임진강을 건너 칠중성으로 도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675) 2월에 유인궤가 칠중성에서 우리 군사를 깨뜨렸다. 인궤의 군사는 돌아가고 조칙으로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로 삼아 경략케 하였다. 당나라 군

사가 거란 · 말갈 군사와 함께 와서 칠중성을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였는데 소수 유동이 전사하였다.

673년 호로고루를 공취하여 임진강 이북 지역을 장악한 당군은 2년 뒤인 675년 대대적으로 병력을 증원하여 신라의 공격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675년 2월 유인궤가 이끄는 당군이 칠중성을 공격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이어서 거란 · 말갈 군사까지 동원하여 다시 칠중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자 당군은 이근행으로 하여금 20만 대군을 이끌고 임진강의 상류 쪽으로 이동하여 매초성에 주둔하게 하였다.

당시 이근행의 20만 군이 주둔하였던 매초성의 위치에 대하여 양주 대모산성이라는 견해와 연천 대전리성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시 당군과 신라군의 주전선이 임진강 유역이었고, 임진강 이남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칠중성에 대한 공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군의 칠중성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상태에서 양주 지역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이다. 따라서 대모산성이 매초성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대전리산성 역시 북쪽에서 오는 적을 방어하기 유리한 지점이지 남쪽으로의 진격을 위한 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성이 협소하여 20만 군이 주둔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칠중성에서 막힌 당군이 새로운 공격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곡 쪽으로 우회하여 3번 국도를 따라 남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매초성의 위치는 전곡 부근의 한탄강 이북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곡 주변에는 현재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감싸고 있는 둘레 2km 정도 규모의 전곡리토성이 있는데 이 성이 매초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 당시 매초성에 주둔하고 있던 이근행의 20만 군대는 군량미와 군마의 보급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본국에서는 육로를 통한 긴 보급로 대신 해로를 통한 군수물자 보급에 나서게 되었다. 당시 보급 선단을 이끄는 수장은 설인귀였으며 길잡이로는 신라인 풍훈을 이용하였다.

(675) 가을 9월 설인귀가 숙위학생 풍훈의 아버지 김진주가 본국에서 처형당한 것을 이용하여 풍훈을 이끌어 길잡이로 삼아 천성泉城을 쳐들어왔다.

우리의 장군 문훈 등이 맞아 싸워 이겨서 1천 4백 명을 목베고 병선 40척을 빼앗았으며, 설인귀가 포위를 풀고 도망함에 전마 1천 필을 얻었다. 29일에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매초성에 주둔하였는데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쫓고 말 3만 380필을 얻었으며 그 밖의 병기도 이만큼 되었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당나라의 수도에서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이나 유학승들에 의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의 동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라군은 설인귀의 군대를 천성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여 궤멸시키는 전과를 거두게 되었다. 천성은 백수성이라고도 하는데 천성의 위치는 지금의 오두산성으로 추정된다. 통일동산 건설과 관련하여 오두산성에 대한 부분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통일신라기의 유물이며 그 중에는 천泉자 명 기와가 여러 점 출토되어 오두산성이 천성이었음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천성 전투에서 승리한 신라군은 곧바로 매초성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수만 명의 신라군의 공격 앞에 20만이나 되는 이근행의 당군은 변변한 저항도 못하고 3만 필의 말과 수많은 병장기를 버려두고 패주하였다. 이 매초성 전투에는 석문 전투에서 비겁하게 도망하여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김유신의 아들 원술랑도 참여하여 전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매초성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나당전쟁은 사실상 신라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오두산성에서 출토된 '泉' 자 명 기와

이 전쟁의 승리로 신라는 패강 이남 지역의 땅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는 임진강과 예성강 사이의 지역만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켰을 뿐, 그 이북 지역으로는 더 이상 진출하지 않았다. 당시 신라로서는 새로 영토로 편입된 백제 고지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임진강 이북 지역에 군현이 설치되는 것은 이보다 늦어져서 694년(효소왕 3)에야 비로소 송악(현 개성 일대)과 우봉(현 황해북도 금천군 현내리 일대)에

성을 쌓아 예성강까지의 군현적 지배가 이루어졌으며, 713년(성덕왕 12)에는 개성에 성을 쌓아 임진강과 예성강 하류에 대한 지배를 더욱 강화하였다.

신라의 서북쪽 영역이 예성강 유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임진강 · 한탄강 유역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경방어의 핵심적인 중심지였던 칠중성 지역은 안정적으로 확보된 신라 영토에 속하게 되면서 중성현의 치소로 자리 잡게 되었고, 내소군의 속현에 포함된 것은 이러한 상대적인 중요성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칠중성이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이유

임진강 중류의 남안에 위치한 적성 지역은 고대 이래 남과 북의 세력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요충지였다. 특히 고대에는 삼국간의 통일전쟁을 전후하여 이 지역에서 전투가 빈번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성곽의 분포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칠중성은 이 지역 전체의 방어거점으로서 대단히 중요시되었다. 칠중성은 한강 유역에서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인 여건상 임진강 이남 지역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성은 진산인 감악산에서 파평산으로 이어지는 북동-남서 방향의 산지가 400~600m 고도를 보이며 우뚝 솟아 이 지역의 배후산지를 형성하면서 북쪽의 임진강 본류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칠중성은 이 배후산지에서 임진강 방향으로 뻗고 있는 지맥에 구축되어 임진강 일대를 한눈에 조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점에 해당된다. 그뿐만 아니라 칠중성 북쪽 방향의 임진강 하도에는 가여울 · 호로탄 · 학여울 등의 여울이 형성되어 있어 대규모 병력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기에 칠중성을 거점으로 하는 적성 지역은 일찍이 고대부터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곳으로 부각되어 왔다.

특히 임진강이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 역할을 하였던 6세기 중엽부터 통일전쟁이 끝나는 7세기 후반까지 130여 년간 칠중성은 신라가 고구려나 당으로부터 임진강 이남 지역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군이 한반도의 지배를 위하여 남하할 당시 몇 차례에 걸친 칠중성 공격이 성공하였다면, 당군은 손쉽게 양주 지역이나 한강 유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칠중성에서의 승리는 이후 천성 전투와 매초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칠중성은 한반도를 외세로부터 지켜낼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유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려사가 전하는 파주

박경안_중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파주목의 형성과 경기

당초 파주坡州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에는 없었다. 파주는 1459년(세조 5) 10월 2일 원평도호부原平都護府가 정희왕후 윤씨의 내향內鄕이라는 이유로 목牧으로 승격되면서 조선시대에 나타난 이름이다. 『조선왕조실록』 및 『동국여지승람』 기록에 의하면, 파주는 파평坡平 · 서원瑞原 두 현縣의 합쳐진 이름이다. 오늘날의 파주는 대체로 본래의 파주와 교하交河, 적성積城 그리고 휴전선 이남의 옛 장단군長湍郡 관내로 구성된다. 기록을 참조하여 파주목의 형성과정 및 확대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1], [표2]와 같다.

파주坡州는 처음에 파주波州라고 했다. 물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다. 이를테면 문산汶山, 장단長湍이 그렇고 이웃 연천漣川이 그렇다. 몇 년 전 문산 지방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연이 아니었을 듯싶다. 당시의 뱃길은 오늘날 고속도로에 해당할 정도로 물류운송의 축을 이루었다. 이를테면 태조 왕건王建도 뱃길을 이용하여 바다와 강을 넘나들며 장사를 하면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세력이 될 수 있었다. 그가 활약하던 지역 가운

[표1] 파주목의 형성과정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북부	· 파해평사波害平史(액봉額逢, 액봉額逢)현縣	· 파평현坡平縣(내소군來蘇郡 영현領縣, 경덕왕景德王)	· 파평현坡平縣(현종 9년 장단군長湍郡 예속, 문종 16년 개성부開城府 예속. 예종조睿宗朝 감무監務 설치) · 영평鈴平이라고도 함	· 태조 2년 서원현瑞原縣 군郡으로 승격 · 서원군瑞原郡과 파평현坡平縣을 합하여 원평군原平郡(태조 7년) · 원평도호부原平都護府로 승격(태종 15년) · 파주목坡州牧(세조 5년)
남부	· 술미홀述彌忽(수니홀首泥忽)현縣	· 봉성현峰城縣(교하현交河縣 영현領縣, 경덕왕景德王)	· 봉성현峰城縣(현종 9년 양주楊州 예속, 명종明宗 2년 감무監務 설치) · 서원현瑞原縣(우왕 13년)으로	

데 하나가 임진강이다.

> 장단나루[長湍渡]가 있다.(강 양쪽 기슭에 푸른 바위가 벽처럼 솟아 있어서 수십리 밖에서 바라보면 마치 그림과 같다. 세간에 전하기를 태조가 이곳에 와서 놀고 간 일이 있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지금까지도 당시의 노래 곡조를 전한다.)

나중의 일이지만, 우왕禑王이 장단에서 전함을 사열하고자 했던 곳도 바로 임진강으로 당시엔 남강南江이라고도 하였다. 주변 경관도 수려하여 뱃놀이를 하기에 적당하였다. 무신들에 의해 수모를 당한 의종毅宗이 신료를 거느리고 유흥의 장소로 이용하였던 곳도 바로 여기였다. 배에는 여악女樂과 잡희雜戲를 싣고 다녔으며 수희水戲라는 것도 있었다. 이와 같은 유희의 뒤에는 백성들의 희생이 수반되었을 것이다.

> (의종 21년) 5월 초하루 무술일에 왕이 임진현에 가서 강변에 있는 중의 집에 유숙하였다. 이튿날 재추宰樞들인 김영윤金永胤 · 서공徐恭 · 이공승李公

[표2] 확대된 영역(교하, 적성 및 장단)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이후
교하 交河	· 천정구현泉井口縣(굴화군屈火郡, 어을매곶於乙買串)	· 교하군交河郡	· 교하군交河郡 (양주楊州 예속. 선성宣城, 유오도성有烏島城, 낙하도洛河渡 내속來屬, 현종 9년)	· 교하군交河郡 (태조 3년 감무監務설치, 심악深岳과 석천石淺 내속來屬. 태조 14년 석천은 원평부原平府로, 심악은 고양현高陽縣으로 보냄) · 교하현交河縣(석천, 심악을 복구, 태조 18년) · 파주坡州에 편입(숙종 13년)
적성 積城	· 칠중성七重城	· 중성重城(내소군령현來蘇郡領縣, 경덕왕景德王)	· 적성현積城縣 (현종 9년 장단현長湍縣 예속. 문종 16년 개성부開城府 예속. 예종 원년 감무監務 설치)	· 적성군積城郡(고종 32년) · 적성면積城面(1945년 연천군漣川郡에서, 1973년 파주군坡州郡으로)
장단 長湍	· 장천성長淺城(야이耶耶, 야이夜牙)	· 장단長湍(우봉군牛峰郡 영현領縣, 경덕왕景德王)	· 단주湍州로 승격(목종 4년) · 장단현長湍縣(현종 9년 상서도성尙書都省 관할. 문종 16년 개성부開城府 직예直隸)	· 장단군長湍郡(임강현臨江縣, 임진현臨津縣 병합, 세조 22년) · 남북분단으로 4개면(장단, 군내, 진서, 진동)이 파주에 속함, 1979)

升 · 최온崔溫 등과 승선들인 이담 · 허홍재許洪材 · 김돈중金敦中 등을 데리고 남강南江 중류에 배를 띄우고 오르내리면서 온종일 즐겁게 놀았다. 계축일에 왕이 장단현 응덕정應德亭에 가서 뱃놀이를 하였는데 배 안에 비단 장막을 치고 여악女樂과 잡희雜戲를 실어 강 중류에서 놀았다. 이때에 배 19척을 모두 비단으로 장식하였다. (중략) 거기서 2일간 체류하면서 수희水戲를 구경하였다.

당시 임진강 주변의 경관이 좋은 곳에는 정자라든가 귀족들의 별장도 늘어서 있었다. 임진현은 한때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수도 남경의 적지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임진강 유역은 물과의 인연이 깊은 곳으로 일찍부터 개경의 배후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였다.

『고려사』 기록을 보면, 1018년(현종 9)에 개성開城 현령縣令을 두어 정주貞州 · 덕수德水 · 강음江陰 등 3개 현을 관할하고 또한 장단長湍 현령이 송림松林 · 임진臨津 · 토산兎山 · 임강臨江 · 적성積城 · 파평坡平 · 마전麻田 등 7개 현을 관할케 하면서 모두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켰는바 이것을 경기京畿라고 하였으며, 1062년(문종 16)에는 지개성부사知開城府事를 복구하여 상서도성 관하 11개 현이 모두 이에 소속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1390년(공양왕 2)에는 경기를 좌 · 우로 나누어 장단 · 임강 · 토산 · 임진 · 송림 · 마전 · 적성 · 파평 등 현을 좌도로, 개성 · 강음 · 해풍海豊 · 덕수 · 우봉 등 현과 군을 우도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성 · 파평 등 북파주 지방은 오랫동안 황도 개경의 수도권적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파주의 사회적 양상

고려왕조는 집권화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호족연합정권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모든 권력은 개경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수립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주군현州郡縣 제도가 그것이었다. 정부는 수령을 파견하여 이들 지역을 관할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운망漕運網이요, 또 다른 하나가 도로망이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1480년(성종 11)에 수경가輸京價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중앙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뱃길의 위험도에 따라 운송료가 정해져 있었다. 조운은 수운과 연결되어 세곡稅穀 및 공물의 수송 따위를 담당하였다. 한편 도로망은 중앙으로부터의 정령의 전달, 군사적 연락, 물자의 수송 등을 담당하여 전국적으로 22역도驛道가 있었는데, 그 중 청교도靑郊道가 파주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청교도青郊道는 청교青郊[개성開城], 통파通波[임진臨津], 마산馬山[봉성峯城], 벽지碧池[고봉高峯], 영서迎曙[남경南京], 평리平理[덕수德水], 상림橡林·단조丹棗[적성積城], 청파淸波[남경南京], 노원蘆原[남경南京], 행주역幸州驛·종승從繩[수안守安], 금륜金輪[수주樹州], 중림重林[인주仁州], 녹양綠楊[견주見州]의 15개 역을 관장한다.

청교도는 개성을 출발하여 임진, 봉성, 적성을 비롯하여 남경(지금의 서울), 수주[富平], 인주[仁川], 견주[楊州]로 이어지는 간선이었다. 이들 지역은 임진강과 한강을 통과하는 만큼 해당 역은 업무가 적지 않았다. 1106년(예종 원년) 당시 파주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곳에서 유망流亡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역시 과중한 역부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장단현의 속현屬縣이라는 군현제적 불리함은 또 다른 배경이었다. 감무관을 두어 유망을 줄이고자 한다는 아래의 기사가 이를 말해준다.

(예종 원년 여름 4월) 경인일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중략) 지금 우봉牛峯, 토산兎山, 적성積城, 파평坡平, 사천沙川, 삭녕朔寧, 안협安峽, 승령僧嶺, 동음洞陰, 안주安州, 영강永康, 가화嘉禾, 청송靑松, 인의仁義, 금성金城, 제주堤州, 보령保寧, 여미餘尾, 당진唐津, 정안定安, 만항萬項, 부윤富潤, 양구楊口, 낭천狼川 등 군현 사람들이 또 유리 분산하는 상태에 있으니 유주儒州 등지의 전례에 준하여 감무관監務官을 두어 그들을 불러들이고 위로하도록 하라."

이처럼 개경에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은 주민들의 삶에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국가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제위보를 가동하여 죽을 쑤어 먹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주민들의 삶이 어떠하였나 하는 점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다.

(문종 18년) 4월에 또 왕이 명령하기를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임진

[현] 보통원臨津普通院에다 죽물과 소채를 준비해 두고 여행자들에게 베풀어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숙종 6년 4월에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백성들로서 가난하여 제 힘으로 살아 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제위보濟危寶로 하여금 보리가 익을 때까지를 기한으로 구제하도록 할 것이며 또 임진현의 보통원에다 먹을 것을 갖추어 두고 앞으로 3개월간 여행자들에게 베풀어 주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파주 지역은 국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그 영향을 받고 있었다. 각종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개경과 가까운 파주 지역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고 있었다. 직접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문종 10년) 2월 갑오일에 해당 기관에서 아뢰기를 "번인蕃人들에게 납치되어 갔던 염가칭廉可稱은 군기승 염위廉位의 아들이요, 삼한공신三韓功臣 사도司徒 염형명廉刑明의 후손으로서 경술 연간에 환위공자군環衛公子軍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거란군이 침입하여 서울이 소란하게 되자 부모를 모시고 자기 고향인 봉성현峯城縣(경기도 파주)으로 갔습니다. 도중에 적을 만나서 그들에게 납치되어 갔다가 청녕淸寧 원년 정월에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도망하여 왔사오니 그의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영업전永業田과 가택을 돌려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염가칭은 본래 파주 사람이었다. 공신 자손으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거란족이 쳐들어오는 난리통 속에서 뜻밖에 번인[女眞族]들로부터 납치당하는 불행을 당하였던 것이다. 1010년(경술년)에서 1055년(청녕 원년)까지의 무려 45년의 세월을 번인들에게 잡혀 있었던 것이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으며 끝내 아들 하나만 데리고 도망쳐 나왔던 것이다.

파주의 경제적 형편

『고려사』 권78 식화지 서序에 의하면 삼국 말기에는 경계經界가 정확하지 못하였고 부렴賦斂도 법도가 없었으므로 태조는 맨 먼저 토지제도를 개정하고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한도를 정하였다고 하였다. 토지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양전量田이었다. 그러나 토지의 상태가 늘 같은 것이 아니어서 변화된 조건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정종 7년 정월에 호부에서 보고하기를 "상주尙州 관내管內의 중모中牟현과 홍주洪州 관내의 세성군, 장단長湍현 관내의 임진臨津, 임강臨江 등 현에 있는 민전은 그 면적의 다소와 기름진 정도의 차이가 고르지 못하니(민전다과民田多寡 고척불균膏墝不均), 청컨대 사신을 보내 땅을 재고 백성들의 식량과 역役을 평균하게 하도록 합시다"라고 하였으므로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장단현 관내 임진현의 경우이다. 임진현은 지금의 진동 · 진서 · 군내 · 장단의 4개 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민전다과 고척불균'이라고 한 것은 면적과 품등品等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이며 당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토지정책의 방향이 균부均賦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균의 원인에 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 그러나 수 · 한해로 인한 토지의 유실, 퇴적 혹은 황폐 등을 들 수가 있겠다. 이럴 경우에 양전사를 파견하여 양전을 함으로써 불균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양전의 대상은 주로 민전民田으로 그 결과는 부세賦稅의 징수 혹은 수조권收租權의 징수로 연결된다. 관인층에게는 수조권의 일부가 부여되었으며 이 외에도 녹봉祿俸 그리고 시지柴地가 지급되었다. 시지는 연료채취 지역인데 사실상 개간을 통해 수조지收租地로 이용할 수가 있었다. 1076년(문종 30)에 경정된 양반전시과 중에서 시지의 범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시지柴地

1일정一日程: 개성開城 · 정주貞州 · 백주白州 · 염주塩州 · 행주幸州 · 강음江陰 · 면산免山 · 임강臨江 · 신은新恩 · 마전麻田 · 적성積城 · 파평坡平 · 창화昌化 · 견주見州 · 사천沙川 · 봉성峯城 · 임진臨津 · 장단長湍 · 교하交河 · 동성童城 · 고봉高峯 · 송림松林 · 통진通津 · 덕수德水;

2일정二日程: 안주安州 · 동주洞州 · 봉주鳳州 · 수주樹州 · 포주抱州 · 양주楊州 · 동주東州 · 수안遂安 · 토산土山 · 당성唐城 · 인주仁州 · 김포金浦(하략)

여기서 파주 지역인 적성 · 파평 · 봉성 · 임진 · 교하 등은 개성과 마찬가지로 일일정一日程 즉 하루거리에 속한 것을 보이고 있다. 좀 더 먼 지역은 이틀거리로 잡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수레에 나무를 싣고 개경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혹 가까운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개경 주변 지역은 오늘날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나무를 베는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통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이른바 풍수사상이었다. 여하튼 당시 겨울철 땔감을 마련하고 갈무리하는 일은 하나의 큰 일이었을 것으로 노비들의 주요 일과의 하나였을 것이다.

집권화정책의 결과 권력이 집중되게 마련이었다. 개경에 거주하는 귀족관료들은 녹봉 이외에 수조권을 받아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으나 이는 전부가 아니었다. 그들의 경제적 지배력의 밑바탕에는 민전이 있었다. 경기 지역은 이들 민전이 포진해 있었고 때로는 농장의 형태로 관리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의종 때에 왕이 귀족들과 노닐던 이담의 별장이라든가 여말 이색의 별장이 있었던 것도 바로 장단이었다. 그러다보니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염신약의 자는 공가公可이며 봉성군峰城郡 사람이다. (중략) 그의 토지[田]가 봉성峰城에 있었는데 정중부가 그 토지를 강탈하였다가 얼마 후에 돌려주었다. 염신약이 종을 보내 수확을 하게 하였더니 정중부 집 종[家奴]이 도중에서 노리고 있다가 강탈하려 하므로 서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정중부가

염신약의 종을 체포하여 가구소街衢所에 투옥 살해하고 중방重房을 시켜 염신약을 탄핵하게 하니 왕도 마지못해 그를 파면시켰다. 그러나 미구에 염신약을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임명하고 후에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삼았다.

정중부가 염신약의 토지를 강탈하려다 여의치 못하자 수확물을 가로채려 했지만 오히려 염신약이 피죄인으로 몰린 사건이다. 각각 노비는 주인을 대신하여 일을 벌이다 결국 피살되는 운명이 되기도 하였다. 무인정권 하에서의 일이었다. 위에서의 수확물은 아마도 쌀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당시의 농업생산은 논농사보다는 밭작물이 주가 되고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삼麻이었다. 흔히 옷감의 원료가 되는 삼은 삼베[布]라 하여 당시 섬유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삼베가 단순한 옷감소재일 뿐만 아니라 현물화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언공韓彦恭은 단주湍州 사람이니 부친 한총례韓聰禮는 광록소경光祿少卿이었다. 한언공은 성품이 명민하고 학문을 즐겼다. (중략) 목종이 즉위하자 내사시랑, 평장사로 임명하고 4년에 문하시중으로 임명하였다. 왕이 주, 군들을 순행하다가 장단현에 이르렀을 때 한언공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그대의 고향인데 그대의 공로를 생각하여 단주로 승격시키겠다"고 하였다. 당시는 전폐錢幣만을 유통시켰으며 추포麤布의 유통을 금지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자못 불편하였었다. 그래서 한언공이 상소하여 그 폐단을 논술하였더니 왕은 그 의견을 채납하였다. 후에 누차 승진되어 특히 개국후로 봉하고 식읍 1천 토와 감수국사 벼슬을 더 주고 그의 부친 총례에게 내사령 벼슬을 추증하였다.

장단현이 단주로 승격한 것은 바로 한언공의 공로라 하겠다. 그런데 이 무렵에는 대외결제의 수단으로서 주로 은이 쓰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서도 주로 금속화폐가 두루 쓰이고 있었다. 따라서 금속화폐를 주조하여 널리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언공은 특이하게도 물품화폐로서의 포의 사용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리고 목종도 이를 추종한 결과 다시금 추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어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듯하나 그 나름의 이유와 배경을 갖고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삼을 재배하고 있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부녀자들은 베틀에 앉아서 삼베를 짜서 옷감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다른 물건과 바꾸기도 하였다. 농업생산을 위주로 삼고 있는 당시로서는 현물화폐로서의 추포의 기능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파주 지역의 신앙

우리는 흔히 유불선儒佛仙이라고는 하지만, 유교는 정치사상으로서 기능하였고 고려인들의 내면세계를 지배한 것은 역시 불교 내지는 민간신앙이었다. 그 결과 고려인들은 부처님 이외에도 위로는 천령으로부터 산천신과 마을수호신 그리고 집 안의 잡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신을 믿고 의지하였다. 고려인들의 믿음은 전반적으로 기복적 성격이 강하며 더불어 음양설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적성에 있는 감악산에 관한 이야기이다.

> 적성현積城縣에는 감악紺嶽이 있는데, [신라 시기 이래 소사小祀로 되어 있다. 산마루에 사당이 있는데 매년 봄과 가을에 왕이 향과 축문을 보내 제사를 지낸다. 1011년(현종 2) 거란 침략군이 장단악長湍嶽 사당까지 이르니 군기와 군마들이 있는 듯이 보여서 거란병이 겁을 먹고 감히 더 침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왕이 이 사당을 복구하여 귀신의 보호에 보답케 하였다고 한다. 세간에서 전하기를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 장수 설인귀薛仁貴를 모셔서

산신으로 삼았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감악산은 신라의 소사에 분류되어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제사의식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봄 가을에 왕이 향과 축문을 보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감악산에 있는 산신이 효험을 발휘한 것은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때였다. 당시 산신이 마치 고려군의 군기와 군마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거란군으로 하여금 기세를 꺾게 만들어 결국 고려는 이들을 물리쳐 나라를 보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어떤 자연현상이 작용하였는지 모르지만 거란군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든 것은 사실이고 고려군 측에서는 이를 감악산신이 작용한 것으로 믿어버린 것이다. 이는 평소에 그러한 신통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고려인들의 심성에 바탕을 둔 결과였다. 감악산에 대한 평가는 이미 풍수적 관점에서도 이루어져 있었다. 『고려사』 권122, 김위제전金謂磾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또 신지비사神誌秘詞에 이르기를 (중략) 이것은 저울을 가지고 세 곳의 서울에 비유한 것입니다. 극기는 머리요 추는 꼬리이며 대는 저울 끈을 잡는 곳입니다. 즉 송악산을 부소라고 하여 대에 비유하였으며 서경을 백아강이라고 하여 저울 머리에 비유하고 삼각산의 남쪽을 오덕구라고 하여 추에 비유한 것입니다. 오덕五德이란 중앙에 면악面嶽이 있어서 원형으로 되었으니 토덕土德을 상징한 것이요, 북에 감악紺嶽이 있어서 곡형曲形으로 되었으니 수덕水德을 상징한 것이요, (중략) 이것도 도선의 삼경三京의 설과 합치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경과 서경은 있으나 남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각산 남쪽 목멱산 북쪽 평지에 도성都城을 건설하고 때를 맞추어 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위제는 남경을 설치하여 지덕으로서 나라를 보존해야 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여기서 남경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오덕구五德丘의 하나로서의 감악산을 들고 있다. 개경의 송악산이 저울대라면, 서경은 저울머리요 삼각산 남쪽은 오

덕구로서 저울의 추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고려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지닌 인격신이자 지역수호신으로서의 측면을 갖기도 하였다. 감악산신이 구국의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출전을 앞두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제를 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하지만 때로 높은 직함을 주어 신의 마음을 다잡으려는 경우도 있었다.

> (충렬왕 13년 5월) 임인일에 왕이 내안乃顔 대왕의 반란을 일으킨 소식을 듣고 장군 유비를 원나라에 보내어 "고려에서도 군대를 출정하여 역적 토벌을 원조하겠다"고 청하였다. (중략) 기묘일에 감악산紺嶽山 산신山神의 둘째 아들을 봉하여 도만호都萬戶로 임명하였는바 이것은 원정을 도와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하략)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유교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식자층 사이에서는 점차 고려의 전통적 풍속에 대한 회의적 생각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들은 감악산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 (충선왕) 3년 4월에 감악산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때에 귀신을 숭상하여 재상으로부터 모든 관리와 평민들이 감악산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장단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는 자도 있었으므로 어사대에서 글을 올려 이를 금지한 것이다.

이 무렵 주자성리학이 점차 고려 사회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며 그 결과 고려인들의 풍속을 미신의 차원에서 다루려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전통적 풍속에 젖어 있어서 이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여말선초 개혁의 과정이 필요했던 소이이기도 하다.

파주의 고려 인물

태조 왕건에게 후백제와의 전쟁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었다. 휘하의 여러 호족세력들을 다독이며, 때로는 중폐비사重幣卑辭로써, 다소의 잘못이 있어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게 되자 내부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통치의 기준을 호족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둔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934년(태조 17) 예산진 조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여름 5월 을사일에 왕이 예산진禮山鎭에 가서 조서를 내렸다. "(중략) 너희들 공경 장상公卿將相으로서 나라의 녹봉을 먹는 자들은 마땅히 백성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나의 뜻을 충분히 체득하고 자기의 녹읍祿邑 백성들을 사랑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만일 국가 사업에 뜻이 충실하고 시종 일관 허물이 없다면 살아서 영화와 녹봉을 누릴 것이요, 죽어서는 명문대가로 불리고 자손에게까지 국가에서 그들을 우대하여 표창과 상을 줄 것이다. 이것은 다만 현재뿐 아니라 천추 만대를 내려가면서 좋은 모범으로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잘 따라주면 누대에 걸쳐 복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지켜졌다. 호족세력은 중앙귀족으로 편입되었고, 이른바 '누대공신 재상지종累代功臣宰相之宗'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파평 윤씨도 그 중의 하나였다.

> 이제부터는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가문의 딸과 혼인할 것이며 재상들의 자손은 종실의 딸들과 결혼할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만일 집안이 한미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다. 신라新羅 왕손王孫 김혼金琿 일가一家는 역시 순경태후順敬太后의 숙부 백부되는 가문이다. 언양 김

씨彦陽金氏 일종一宗과 정안定安 임태후任太后의 일종一宗 그리고 경원慶源 이태후李太后, 안산安山 김태후金太后, 철원 최씨鐵原崔氏, 해주 최씨海州崔氏, 공암 허씨孔岩許氏, 평강 채씨平康蔡氏, 청주 이씨淸州李氏, 당성 홍씨唐城洪氏, 황려 민씨黃驪閔氏, 횡천 조씨橫川趙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평양 조씨平壤趙氏 등은 모두 누대공신, 재상의 친척으로서 대대로 혼인할 만하다.

이들 재상지종 중에 파평 윤씨는 경주 김씨 · 정안 임씨 · 경원 이씨 · 안산 김씨 · 철원 최씨 · 해주 최씨 · 공암 허씨 · 청주 이씨와 더불어 고려 전기 이래의 문벌귀족가문에 속하였다. 파평 윤씨 가문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바로 윤관이다.

윤관의 자는 동현同玄으로 그의 고조 신달莘達은 태조(왕건)를 보좌하고 삼한공신 칭호를 받았으며 아버지 집형執衡은 검교소부소감檢校少府少監 벼슬을 지냈다. 윤관은 문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습유拾遺 · 보궐補闕을 거쳐 1104년 추밀원사로서 동북면행영병마도통사東北面行營兵馬都統使가 되어 여진을 정벌하다가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 뒤 별무반別武班을 창설하여 군대를 양성, 9성을 쌓아 침범하는 여진을 평정하고 이듬해 봄에 개선하였다. 정세가 바뀌자 여진정벌의 실패로 모함을 받아 벼슬을 빼앗기고 공신호마저 삭탈되었으나, 예종의 비호로 1110년 수태보 · 문하시중 · 병부판사 · 상주국 · 감수국사가 되었다.

한편 파평 윤씨 이외에도 파주 사람으로는 앞서 소개한 염신약 · 한언공 등이 있다.

혜음원과 파주

서영일_한백문화재연구원 부원장

원院은 여행자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었다. 비슷한 시설로 역驛이 있었다. 역은 국가에서 공무로 여행하는 관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민간인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반면에 원은 국가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지만 민간에서도 설치하여 상인이나 민간 여행자들도 사용할 수 있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신라 때에 이미 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에 처음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대체로 삼국시대 지방제도가 정비되고 사람과 물자의 유통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후 원이 크게 늘어났던 것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 사이였다.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면서 국가의 공식적인 역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중요 사찰에 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설치된 원은 사찰 이름을 따서 지어졌기 때문에 원과 사찰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유명한 사찰에는 부속시설로 원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 중기 이후에는 국가나 왕실에서도 원을 창건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개경 주변의 원은 오늘날의 호텔과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여행객의 숙박은 물론 국왕이나 귀족들이 연회를 펼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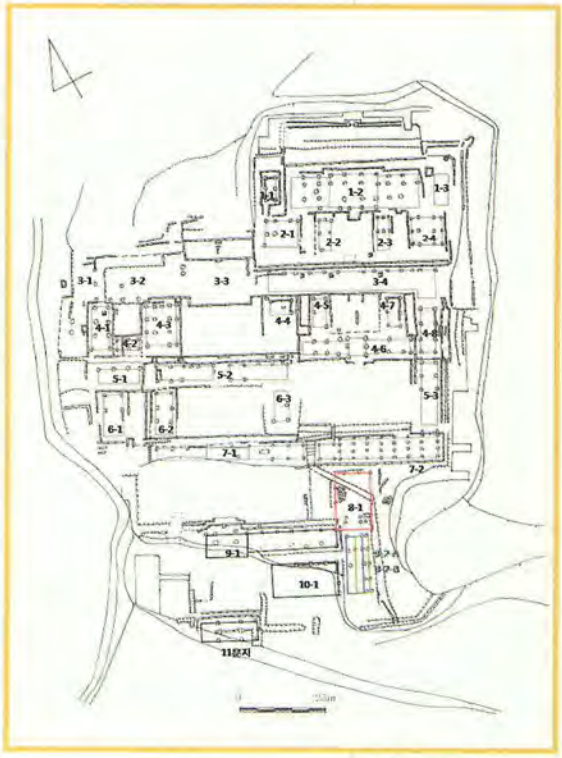
혜음원은 왕실의 주도로 현재의 파주시 용미리에 설치된 국립호텔이었다. 개경과 남경 사이에 교통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설치되었다. 특히 국왕의 남경 행차가 빈번해지자 행궁을 설치하여 일종의 국립호텔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혜음원과 관련된 기록과 발굴 조사 결과 출토된 유물과 유구를 통하여 고려시대 혜음원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혜음원지 주변 지형과 교통로

파주는 한강과 임진강 유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교통의 요지였다. 지형 여건상 파주의 동쪽과 남쪽은 고갯길이 발달하였고 북쪽은 도진이 발달하였다. 임진강의 하구는 한강 하구 및 서해 바다와 연결되면서 매우 넓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며 뻘이 넓게 발달하여 도강에 불리하다. 선착장이나 항구가 들어서기에도 좋은 환경이 아니다. 하지만 문산천과 합류하는 문산 부근에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급격히 강폭이 좁아지게 되며 강변의 뻘층도 사라지게 된다. 그 중 강 양안에 V자형의 통로가 형성되어 강으로 접근하기가 쉽고 배를 정박하기에 유리한 조건의 지형이 등장한다. 이런 지역이 나루로 활용된다. 그 중 가장 하류 쪽에 있는 것이 임진나루이다. 임진나루는 임진강이 서쪽으로 흐르다 임진나루 주변의 구릉에 막혀서 강이 북쪽으로 곡류하는 지점이다. 북쪽 장단 방향은 충적지가 발달하고 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임진나루 주변은 강에 의하여 침식된 단애를 이루지만 나루가 있는 곳은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하천에 의하여 침식되어 V자형의 통로가 형성되어 강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서울 방면에서 임진나루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혜음령이다. 혜음령은 창릉천과 공릉천에 의하여 형성된 계곡부를 연결하는 고갯길이다. 현재는 고양-광탄 간 도로가 통과하고 주변이 개발되었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는 인구밀도가 낮고 고갯길 양 방향에 형성된 계곡을 구불구불 지나서 통과하기 때문

에 교통이 불편한 오지였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고갯길을 중심으로 양쪽에 여행자들이 묵어 갈 수 있는 원을 세웠다. 혜음령 북쪽에 분수원 · 광탄원 · 혜음원 등이나 남쪽의 벽제관 등이 북쪽과 남쪽으로 여행하는 관리 · 사신행렬 · 상인 · 일반 여행자들의 유숙지가 되었다. 특히 벽제관은 서울로 들어가는 출입구 역할을 하였다.



혜음원지 현황도

이와 같이 임진나루와 혜음령을 연결하는 길은 조선시대까지 서울에서 개성으로 가는 대표적인 길이었다. 이 길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중기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 원래 고려 중기까지 개경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은 개경에서 적성을 지나 양주를 거쳐 현재 서울 광나루를 지나 광주로 가는 길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길은 고대부터 한반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 삼국시대 산성이나 보루 유적들도 이 길을 따라서 밀집되어 있다.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적성 지역이다. 적성 지역은 강폭이 좁고 여울이 발달하였으며 강 양안에 통로가 형성되어 배가 없이도 도강에 유리한 곳이었다. 적성 남쪽에 있는 감악산을 두고 동 · 서의 고갯길을 통과하면 양주 분지를 지나 서울까지 평탄한 지형이 연속되어 통행의 불편이 없었다. 삼국시대부터 백제의 북방교통로로 활용되었고 고구려의 남진로로도 사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도 황해도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교통로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고려 중기에 남경이 건설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개경에서 양주를 거치지 않고 파주를 거쳐서 남경(서울)으로 통하는 지름길이 주목되었다. 사람은 가능하다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도 빠른 길을 사용하려는 습성이 강하다. 지금의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고려의 남경으로 가는 여행자들은 양주로 우회하는 것보다 약간의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더 빠른 길인 혜음령을 통과하려고 하였다. 다만 이 길은 적성로에 비하여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고갯길과 산지가

많았다. 「혜음사신창기」의 기록에 의하면 노변의 숙박시설도 없고 민가도 드물어 통행이 불편하였다. 남경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경과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혜음령 길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필요한 사업이 노변에 여행자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고 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혜음원의 창건은 바로 고려 왕실의 이 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된다.

혜음원의 창건 배경

혜음원惠陰院(寺)*에 관련된 문헌자료로는 『동문선東文選』 권64 기記 「혜음사신창기惠陰寺新創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파주 고적 고혜음사古惠陰寺 및 혜음원조惠陰院條, 『여지도서輿地圖書』 파주목 사찰 고혜음사조古惠陰寺條 등이 있다. 「혜음사신창기」는 혜음원의 창건 배경 및 그 과정과 이에 공헌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대체로 『동문선』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내용을 간추려 축약하였고 약간의 차이도 있다. 『여지도서』에는 "옛 터만 있다"고 하여 간단히 폐사된 상태만 기록되어 있다. 결국 혜음원에 대한 여러 기록 중 『동문선』에 실려 있는 「혜음사신창기」가 가장 자세한 기록이다. 혜음원의 창건 배경과 관련하여 「혜음사신창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가) 봉성현에서 남쪽으로 20리쯤 되는 곳에 조그마한 절이 있었는데, 허물어진 지 벌써 오래였으나 지방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을 석사동이라 불렀다. 동남방에 있는 모든 고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위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모두들 이 길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깨가 서로 스치고, 말은 굽이 서로 닿아서 항상 복잡하고 인적이 끊어질 사이가

*『동문선』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혜음사惠陰寺, 혜음원惠陰院 등으로 기록되었지만,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명문기와에는 혜음원惠蔭院과 혜음사惠陰寺라고 표기되어 있다. 문헌에서는 모두 음陰으로 표현하였으나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기와에서는 막새기와의 경우 혜음원惠蔭院으로, 평기와는 혜음사惠陰寺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혜음원(사)에서 생겨난 지명으로 보이는 혜음령은 '惠陰嶺'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단 문헌을 좇아서 '陰'을 사용한다. 또한 혜음사의 축조 목적이 사찰보다는 원院을 만드는 데 있었고 혜음사惠陰寺라고 할 경우 원院으로서의 기능이 잘 표현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찰寺刹과 숙박시설로서의 원院이 결합된 사원寺院이란 의미로서 혜음원惠陰院이란 용어를 사용하겠다.

없었는데 산, 언덕이 깊숙하고 멀며, 초목이 무성하게 얽혀 있어서 호랑이가 떼로 몰려다니며, 안심하고 숨어 있을 곳으로 생각하여, 몰래 숨어서 옆으로 엿보고 있다가 때때로 나타나서 사람을 해친다. 이뿐 아니라 간혹 불한당들이 이 지역이 으슥하고 잠복하기가 쉬우며 다니는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여기에 와서 은신하면서 그들의 흉행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올라오는 사람이나 내려가는 사람이 주저하고 감히 전진하지 못하며, 반드시 서로 경계하여 많은 동행자가 생기고 무기를 휴대하여야만 지나갈 수 있는데도, 살해를 당하는 자가 1년이면 수백 명에 달하게 되었다.

(나) 선왕인 예종이 왕위에 오르신 지 15년인 기해년(1119) 가을 8월에 측근의 신하인 소천이 임금의 사명을 받들고 남쪽 지방에 갔다가 돌아왔다. 임금께서 "이번 길에 민간의 고통스런 상황을 들은 것이 있느냐" 물으시니, 곧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임금께서는 측은히 이를 딱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폐해를 제거하고 사람이 안심하게 할 수 있느냐" 하셨다. 아뢰기를, "전하께옵서 다행히 신의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신이 한 가지 계교가 있사온데, 국가의 재정도 축나지 아니하며 민간의 노력도 동원시키지 않고, 다만 중들을 모집하여 그 허물어진 집을 새로 건축하고 양민을 모아들여 그 옆에 가옥을 짓고 노는 백성들을 정착시키면, 짐승이나 도둑의 해가 없어질 것이며, 통행자의 난관이 해소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께서는, "좋다. 네가 그것을 마련해 보라" 하셨다.

위의 기록은 혜음원 창건 배경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 중 (가)는 혜음령의 지리적 위치와 혜음원이 세워지기 전의 교통 및 주변 상황을 기록하였다. 혜음령은 개경에서 남경(서울)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개경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지만 지형도 험하고 주변에 민가도 없어서 통행에 불편이 큰 오지였다. 산짐승과 도적이 자주 출몰하여 위

험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고 무기를 가지고서야 고갯길을 넘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다. 혜음원 이전에도 석사라는 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없어지고 그 이름만 남아 있었다.

더구나 1068년(문종 22) 남경에 신궁新宮이 세워지고 1099년(숙종 4)부터 남경 건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1101년(숙종 6)에 본격적으로 남경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1102년(숙종 7) 8월에는 왕이 남경을 순행하여 머물다 돌아오기도 하였다. 숙종의 남경 순행 길은 개성-장단-파주(봉성현)-혜음령-고양-서울을 지나는 길이 활용되었다. 예종 대에도 왕의 남경 순행은 계속되었고 역시 파주에서 혜음령을 거쳐 고양을 지나는 길이 이용되었다. 국왕의 행차가 빈번해지면서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사실 파주에서 서울 사이 길은 산지와 계곡을 통과하기 때문에 고갯길이 많고 인적도 드물었다. 군사를 동반한 왕이나 관리들의 통행에는 큰 위험 부담이 없지만 민간인이 통행하기에는 상당한 장애가 있었던 것이다. 국왕과 관리뿐만 아니라 민간의 통행이 자유로워야 교통로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군가 민간의 통행을 위해서는 이곳에 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통행자의 편리를 위한 시설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새로 만드는 데도 상당한 물자와 인력이 소요되지만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람이 바로 이소천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소천은 왕의 명령으로 남쪽 지역을 시찰하고 돌아오면서 혜음령 주변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국왕의 명을 받고 백성들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찰에 나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혜음령의 통행 불편이 백성들의 생활에 커다란 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국가에서 혜음령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위의 기록으로 보아 국가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나 보다. 결국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민간의 힘을 빌리기 위한 방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원의 창건은 사찰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물론 원을 건설한 이후에도 운영을 사찰에서 맡아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랑하는 백성들을 모아 주변에 마을을 만들어 정착시켜 치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실 고려시대에는 사찰에서 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개경과 주변 지역은 물론이고 지방의 교통의 요지나 고갯길을 중심으로 사찰의 부속시설로 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혜음원도 이러한 예를 따라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원은 단순한 숙박시설만이 아니라 물자와 정보가 교환되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사원이 창건되면 자연히 신도 · 상인 · 여행자 등이 몰려들어 마을도 형성되어 교통로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혜음원은 혜음령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 세워질 때에는 재정 형편상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소천은 이 문제를 불교 사원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혜음원의 창건 과정과 변화

혜음원의 창건 과정 역시 「혜음사신창기」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먼저 기록에 나타난 창건 과정을 살펴보자.

> (다) 이리하여 그는(이소천) 공무를 띠고 묘향산에 가서 대중 가운데서 이르기를, "아무 곳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나라에서는 차마 토목공사를 가지고 백성을 괴롭힐 수가 없다. 옛날 스님들은 곤란한 처지에 빠진 것을 보면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는 희생심을 발휘하였는데 여기서는 누가 나를 따라 저곳에 가서 일을 해보겠는가" 하였더니 절의 주지 혜관 스님이 기꺼이 그를 따랐으며, 그 무리 중에 따라 가려는 사람이 백 명이나 되었다. 혜관 스님은 늙어서 가지 못하고 부지런하며 진실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증여證如 등 16명을 선발하여 경비를 마련하여 보냈다. ㉡연장을 벼리고 목

재와 기와를 모아들여 경자년(1120) 봄 2월에 착공하여 임인년(1122) 봄 2월이 되어서는 일을 모두 마쳤다. ㉡절이 불당과 유숙하는 건물부터 주방, 창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소가 마련되었고, 또 생각하기를 ㉢"임금께서 남쪽으로 순수하신다면 행여 한 번이라도 이곳에 머무르실 일이 없지 않으리니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하여 드디어 따로 별원別院 한 개소를 지었는데, 이곳도 아름답고 화려하여 볼만하게 되었다. 지금 임금께서 즉위하시어 절 이름을 혜음사라고 내리셨다.

혜음원을 창건하기 위하여 이소천은 먼저 묘향산에 있는 절을 찾아갔는데 그 절이 어떤 절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개경 근처에도 절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멀리 떨어진 묘향산까지 갔는지 그 이유가 의문시된다. 아마도 먼 거리를 마다하고 묘향산까지 가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왕실과 절의 주지인 혜관 사이에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보인다. 아니면 이소천이나 그의 집안과 혜관 사이에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도 짐작하여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왕이 이소천에게 명하여 중 백여 명을 모집하여 그곳에 가서 초막을 지어 머물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소천이 혜관과 개인적인 친분보다 국왕의 명령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더구나 국가 재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소천 개인의 힘으로 일을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소천은 단지 국왕의 명령을 혜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국왕과 혜관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멀리 묘향산에 있었던 혜관에게 이소천을 보낸 것도 바로 국왕의 명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국왕의 바람대로 혜관은 혜음원의 창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혜관이 개입하면서 혜음원의 공사 준비 작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 승여 등 기술자 16명을 선발하여 보냈는데 이들이 모두 승려들로 혜음원의 설계와 시공을 담당한 핵심 세력이었다. 1119년 8월에 국왕에게 혜음원 창건을 건의하였는데, 불과 6개월이 지난 1120년 2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만 2년이 지난 1122년 2월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혜음원 창건의 일차적인 물자와 자금은 혜관이 마련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혜음원을 창건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다른 곳에서도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던 듯하다. (다) ㉡에 "목재와 기와를 모아들였다"는 것으로 보아, 우선 이소천 · 혜관 · 증여 등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국왕의 측근들도 동참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파주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지방 세력이나 신도들도 대거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비구 응제에게 명하여 그 일을 주관하도록 하고 제자 민청을 부책임으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감독한 것은 이소천이 아니었다. 응제나 민청 같은 승려들이었다. 또한 「혜음사신창기」에도 "응제는 일을 맡았다가 오래가지 못하고 민청이 이를 인계하여 끝까지 완성을 보았다. 그가 경비에 사용한 것은 위에서 내리신 것과 여러 신도들이 희사한 것이다. 그 이름과 목록을 갖추어 후면에 기록한 바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후면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참여한 사람들을 알 수 없다.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공사의 책임을 맡아서 혜음원을 완공한 인물이 민청이었다. 민청은 응제의 제자라고 하는데 출신을 짐작할 수 없다. 혜관이 보낸 16명의 승려들 중에 한 사람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증여도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지만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기록이 없다. 중간에 공사의 책임자가 교체되었던 것으로 보아 소요되는 자금과 물자의 조달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양한 곳에서 후원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처음 혜음원의 창건을 건의했던 이소천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가 혜음원의 창건을 계획하고 주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하급관리에 불과하였다. 왕의 측근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 왕실과 혜음원 공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후원 세력을 모집하고 그들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실제 공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혜음원의 공사는 승려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완성 후 운영하는 데는 이소천도 일정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혜음사신창기」에는 1140년경에도 여전히 이소천은 혜음원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혜음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다) ㉢의 기록에 의하면 법당을 비롯한 사찰 구역과 숙박과 취사 시설을 중심으로 한 원院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찰은 불당과 승려들이 거주하는 승방 및 주방 창고 등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은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방과 휴게 시설이 있었을 것이다. 사원寺院으로서 혜음원의 기본적인 시설들이 모두 갖추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행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의 행차에 대비하여 다시 별원을 축조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별원은 말 그대로 '별도의 원院(담장을 두른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혜음원 한 쪽에 국왕을 위한 별도의 행궁을 건축한 것을 말한다. 사실 숙종과 예종 시대에는 국왕이 수차에 걸쳐서 남경을 행차하였다. 국왕의 행렬이 혜음원을 지나기 때문에 행궁을 건설할 필요성이 제기된 듯하다. 이것은 처음 혜음원을 만들 때는 계획된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혜음원이 완공된 후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1122년 4월 인종이 새로 즉위하였는데 그 이후에 별원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지 인종이나 그 이후 고려의 왕들이 혜음원에 다녀갔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분명하지 않다.

혜음원이 완성된 후 혜음령의 통행은 아주 편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사정이 변하게 되었다. 「혜음사신창기」에는 혜음원이 완성된 후의 사정과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라) 아! 깊은 숲 속이 깨끗한 집으로 변하였고, 무섭던 길이 평탄한 대로가 되었으니, 그 이익이 또한 넓지 아니한가. 또한 미곡米穀을 갖추어 놓고 그 이익을 얻어서 죽을 쑤어서 여행자에게 공급하였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소천은 이것을 영원히 계속하려 하였더니 정성에 감동된 바 있어 희사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겼다. 임금께서 이를 들으시고 은혜로운 희사를 후히 하시었다. 왕비 임씨도 또한 들으시고 기뻐하여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곳에서 실시하는 일은 내가 담당하리라" 하시고 다 없어져가는 식량을 보태주시며 파손되어 못쓰게 된 기구를 보충하여 주셨다. 이리하여 모든 것이 다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게 되었다.

혜음원의 운영은 혜음사에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사찰에 딸린 원은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혜음원은 처음에 각지에서 후원자들이 기부한 쌀을 모아 놓았다가 죽을 쑤어서 여행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 일반인들이 쌀밥을 먹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또한 양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에 잡곡을 섞거나 푸성귀를 섞어서 죽을 쑤어서 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혜음사에서도 혜음원에 쉬러 온 여행자들에게 죽을 쑤어준 것이다. 그런데 점차 후원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김부식이 기문을 작성하였던 1144년 무렵에는 마침내 여행자들에게 죽을 쑤어 제공하는 일도 어렵게 되었다. 처음에 혜음원을 설립한 목적이 쇠퇴하게 되자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던 이소천이 다시 나서게 되었다. 「혜음사신창기」에 의하면 1144년경에 이소천은 벼슬에서 물러나 베옷을 입고 스스로 거사를 칭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이때 혜음원에 머물러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가 혜음원에서 행인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을 지속시키려 한 것으로 보아 혜음원의 사정을 전해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퇴하여 혜음원에 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이소천이 혜음원의 운영에 계속 간여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소천의 노력으로 여러 곳에서 후원이 다시 재개되어 원의 재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던 것 같다. 특히 인종과 인종비 임씨는 혜음원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자로 등장하여 혜음원은 일종의 왕실의 구호기관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 이 당시에는 혜음원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나 건물도 많이 쇠락해졌던 것 같다. 1144년은 왕실의 지원으로 혜음원이 다시 크게 보수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혜음사신창기」는 처음 완성된 1122년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보다 22년 늦은 1144년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1144년경에 혜음원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1144년경부터 왕실에서 혜음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지고 왕실에서 소용되는 집기도 새로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념하여 당대 최고의 문신인 김부식이 「혜음사신창기」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44년 이후 혜음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했는지 기록에는 자세하지 않다.

고려시대 각종 기록에도 혜음원에 대한 내용은 찾기가 어렵다. 혜음원에 대한 기록은 조선 초기의 기록에서 다시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혜음원(사)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1 파주 역원조와 고적조에 보이고 있다. 고적조에는 '고혜음사' 라 기록되어 사찰은 이미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역원조에는 혜음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절은 없어졌지만 원院의 기능은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에 숭유억불 정책이 펼쳐지면서 사찰에서 운영하던 원을 모두 국유화하였다. 원을 운영하던 승려들은 법의를 벗고 속세로 나와서 원주가 되었다. 원에서 소용되는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혜음원도 혜음사는 없어지고 원의 기능만 남아 국가 관리 하의 원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고혜음사' 는 "혜음령에 있다"고 하였고 다시 산천조에서 '혜음령' 은 "주 남쪽 35리 고양 경계에 있다"고 기록되었다. 이에 반하여 혜음원은 주 남쪽 26리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혜음원은 원래 고려시대의 혜음원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고혜음사지의 위치는 혜음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혜음령 북쪽 계곡에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혜음원의 위치는 고려시대 혜음원의 위치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조선시대 혜음원의 규모는 고려시대에 비하여 축소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혜음원 부근에 분수원(파주 남쪽 24리), 광탄원(파주 남쪽 10리) 등이 있었다. 특히 분수원은 파주에서 고양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혜음원과 지근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 권39 세가 39 공민왕 10년조에 의하면 공민왕이 홍건적을 피하여 남행할 때, 임진강을 건너서 도솔원－분수원－사평원 등을 거쳐서 광주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공민왕이 혜음원에 머물지 않고 주변에 있는 분수원에 머물렀던 것이다. 혜음원에 행궁이 있었다면 공민왕이 분수원에 머무르지 않고 혜음원에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혜음원은 이미 공민왕 10년 이전에 12세기의 모습을 상실하였고 분수원보다도 규모가 작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파주 역원 광탄원조에 부기된 권근의 기에는 광탄원이 양 서울의 사이에 있어서 행인들이 많이 머문다고 하였다. 이 같

은 기록으로 보아 고려 후기 이후 분수원이나 광탄원에 비하여 혜음원은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분수원과 광탄원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혜음원이 이들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발굴 조사 결과 나타난 혜음원의 구조

혜음원에 대한 발굴 조사는 2008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혜음원의 중심 지역은 대부분 조사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아직 주변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가 남아 있어서 정확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혜음원의 구조는 남한 지역에서는 출토된 예가 없는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다. 고려시대 중기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고려의 궁궐이었던 만월대와 입지나 구조가 비슷하여 주목된다.

혜음원은 크게 두 개의 건물군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를 편의상 원지 일곽과 행궁지 일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지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행궁(별원)을 만들었다는 「혜음사신창기」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에 의하면 혜음원은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쌓아서 모두 9단의 건물지를 마련하고 일직선으로 연결된 문지를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을 이루면서 건물을 축조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행궁지는 혜음원의 동남쪽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혜음원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해당된다. 사방이 높은 담으로 막혀 폐쇄된 공간이다. 동쪽 끝에 왕이 기거할 수 있는 정전이 있고 남쪽 끝에는 연회나 모임을 할 수 있는 큰 누각 건물이 있다. 정전에서 누각까지 문들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중심을 이룬다. 그 좌우로 동일한 형태와 규모를 가진 건물이 대칭을 이루고 배치되어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군데군데 연못이 있고 연못을 서로 잇는 수로를 마련하여 항시 물이 흐르도록 하였다. 남쪽 담장과 축대 아래에는 큰 수로를 조성하고 각종

혜음원 조사 지역 원경

조경시설을 마련하였다. 정전의 뒤에도 계단식으로 조성된 후원이 있고 후원 중앙에는 계단이 있고 계단 끝에는 작은 문을 마련하여 외부로 통할 수 있게 하였다. 이곳은 국왕이 행차시 국왕과 신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추정된다.

행궁지는 남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와 구조를 가진 건물들로 조선시대의 궁궐과도 차이가 있다. 각 건물은 기둥을 받치는 초석 아래에 초반이라고 부르는 잘 다듬은 돌을 놓아 격식 있게 지었다. 건물의 규모가 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도 넓어서 내부 공간이 일반 건물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 축대나 계단에 사용된 돌도 고급 화강암 자재를 잘 다듬은 것들이다. 특이한 것은 온돌을 시설하지 않았고 난방을 위해 벽난로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아마도 침대와 탁자 등을 놓고 입식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왕실과 귀족들은 온돌보다 입식 생활을 즐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전 주변에서는 용두 · 치미 · 취두 · 잡상 등 고급 건물에서 사용되었던 특수한 기와들이 출토되었다. 또

한 혜음원이라 새겨진 막새기와가 대량으로 출토되기도 하였다. 건물들은 대부분 불에 타서 무너져 내렸는데 무너진 부분의 처마선을 따라서 암막새와 수막새 기와들이 출토되었다. 건물이 불에 타서 무너진 방향도 알 수 있었다.

원지는 서쪽의 정문에서부터 가장 동쪽에 위치한 대형 건물지를 연결하는 선이 중심이다. 이 축선을 따라서 각 단마다 문을 설치하고 그 좌우로는 행궁과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원지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대형 건물지 뒤에는 사각형의 연못이 있고 연못 뒤에는 후원과 담장이 있다. 연못 중앙에 징검다리가 있어서 후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담장 모서리에는 외부에서 연못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수로를 마련하였다. 연못에 고인 물은 행궁지 축대를 따라 만들어진 수로를 통해 빠져나가 행궁지의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하였다. 원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앞에서 말한 동쪽 끝부분의 대형 건물지인데 이 건물지가 어떤 용도의 것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건물의 규모나 형태도 행궁지와 차이가 없고 기단은 청석을 깔아서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이 건물지 앞의 마당도 청석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행궁 정전을 제외하면 혜음원에서 가장 격식 있는 건물에 속한다. 건물지의 대부분이 경작지를 조성하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다만 남쪽의 일부 기단과 초석이 남아 있어서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지의 규모, 위치, 형태, 장식 수법 등으로 보아 불당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불당 뒤에 연못을 배치한 예가 없어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건물지 북쪽에서 출토된 건물지에서는 다량의 청자편이나 생활용구들이 출토되었다. 혜음원의 생활용 집기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건물이 「혜음사신창기」에 기록된 주방일 가능성이 있다. 그 북쪽은 작은 개울을 두고 축대와 담장을 쌓아 마감하였다. 담장 외부로 우물이 있는데 지금도 수량이 풍부하다. 원지의 건물들은 두 칸마다 벽난로와 비슷한 난방시설을 설치하였다. 두 칸이 하나의 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지도 행궁지와 마찬가지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수로를 조성하고 건물지 중간으로도 암거(숨겨진 수로)를 마련하여 상시 물이 흐르도록 하였다. 또한 수로 중간에 물을 이용한 조경시설을 만들어 방 안에서 물소리가 들리도록 하였다. 원지의 북쪽과 서쪽은 수해와 경작

지 조성으로 대부분 파괴되어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행궁지 대형 누각 건물지 서쪽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개축된 건물지가 출토되었다. 원래 건물지였던 곳을 연못과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헐고 그 서쪽에 지반을 높여서 다시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지에서는 조선시대 백자가 출토되었는데 가장 늦게까지 활용되었던 건물지로 추정된다. 혜음원의 주문지에서는 문확석과 문지방돌이 출토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였던 것을 보여주듯이 돌이 닳아 파여 있었다. 주문지 중문까지는 양 옆에 담장을 쌓은 흔적이 노출되었다. 남쪽 담장에 잇대어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누각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혜음원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수로가 모두 이 연못으로 모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모인 물은 다시 주문지 남쪽의 수로를 통하여 외부로 흘러나가도록 하였다. 주문지 외부에도 연못이나 출입과 관련된 도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굴 조사로 밝혀진 혜음원의 구조는 이곳이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평지의 궁궐이나 사원처럼 정연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혜음원이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건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물의 형태나 규모도 다른 데 비하여 크고 장엄하며 조경도 잘 이루어져 있었다. 국왕의 행궁에 걸맞게 아주 격식을 잘 갖추어 지은 건물이었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도 최고급품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왕실에서 직접 집기를 하사하였다는 「혜음사신창기」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혜음원은 개성의 고려 궁궐터 만월대와 더불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건물지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려 전성기 왕실과 귀족생활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발굴 조사 결과 혜음원은 화재에 의하여 전체 건물이 한 번에 없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혜음원지 전체에 걸쳐서 불타서 퇴적된 층이 약 20~30cm 정도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혜음원 전체가 일시에 화재로 사라졌던 것은 실수로 인한 것이기보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중기 이전의 건물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 등은 모두 고려 후기의 건물지이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건물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는 고려시대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대부분 불에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고려 중기 이전의 건물들은 몽골침략기에 대부분 불타 없어졌다. 혜음원도 몽골군의 진군로에 있었기 때문에 몽골군에 의하여 불타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1258년(고종 25) 몽골군이 개경에 주둔하면서 혜음원 주변 교하와 봉성 일대를 약탈하고 양과 말을 놓아 먹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당시 혜음원이 있었던 봉성현 일대는 몽골군의 약탈과 방화로 거의 폐허가 되었다. 이때 혜음원도 모두 소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혜음원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모두 대부분 13세기 이전의 것이라는 점을 보아도 몽골침략기에 혜음원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이 되었고 왕실의 재정도 약화되어 불에 탄 혜음원을 다시 재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기록에는 고려 후기나 조선 초에도 혜음원에 대한 기록이 보이고 있어서 이때까지는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굴 조사 결과 15세기경의 건물지 흔적은 행궁 정전 일대나 행궁 누각지 서쪽 등 일부 지역에서만 보이고 있다. 원래의 혜음원에 1/10도 안 될 정도로 축소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258년경에 불타 없어진 후 나중에 일부 건물만 보수되어 원으로 이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혜음원에 대한 발굴 조사는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조

"惠陰院(혜음원)" 명 암막새

사 결과는 향후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바뀔 수 있다. 아직 불당지와 원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현재 원지로 추정되는 곳에 불당과 승방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서쪽 부분에서도 또 다른 유적이 출토될 가능성이 있다. 혜음원 북쪽 능선으로 현재 군부대의 사격장이 있는 곳에서도 혜음원지에서 사용된 기와와 동일한 기와들이 다량 출토되고 있어서 여기에도 혜음원과 관련된 유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혜음원에 대한 의문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도 「혜음사신창기」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남한에서는 유일한 고려시대 행궁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도 분명하다. 향후 혜음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고려시대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의 호족

박경안_중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고려 정권의 성격과 토착세력

고려는 호족연합정권이라고도 한다. 태조 왕건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후삼국의 분열을 극복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낮춰 제 호족세력을 포용한 탁월한 정치지도력 때문이다. 나말여초의 호족은 흔히 그 출신으로 보아 토착촌주, 진골 내지는 6두품, 해상세력 혹은 군진세력 등으로 구분된다. 호족이라는 용어는 원래 중국사에서 차용된 것으로 혹자는 호부층豪富層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신라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난 독자적 정치세력을 뜻한다. 호족들 상호간에는 계서적階序的 지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계서적 지배질서가 통일 후 고려의 군현지배체제로 계승 발전하게 된다.

파주 지역을 통해 과거 호족으로서 두드러진 활동을 기록한 자료는 많지 않다. 그것도 고작 호족으로 추측되는 윤신달尹莘達이라든가 염형명廉刑明 혹은 노강필盧康弼에 관한 이야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읍지류에 남아 있는 선생안先生案도 조선조의 경우에 한정되고 있어 호족의 뿌리를 찾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고려사』를 통해서 파평현과 적성현은 장단현에, 봉성현과

교하현은 양주에 각각 예속된 속군屬郡·속현屬縣이었다는 점은 계서적 지배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그 원인은 후대적인 것일 수도 있겠으나 과거 토착세력의 존재형태와도 일정한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 점은 지금까지 별로 주목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호족 상호간의 지배관계를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예종조에 이르러 특히 이들 지역에 유망流亡이 많았다는 사실과 감무관監務官을 파견하여 위무하였더니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러한 정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주요 성씨를 중심으로 파주 지역의 호족세력의 존재와 그 성격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주요 호족세력

1. 파평 지역과 윤신달

『고려사』 열전 기록에 의하면, "윤관尹瓘(?~1111)의 자는 동현同玄이니 파평현 사람이다. 그의 고조 신달辛達(莘達)은 태조(왕건)를 보좌하고 삼한공신三韓功臣 칭호를 받았으며 아버지 집형執衡은 검교소부소감檢校少府少監 벼슬을 지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윤신달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와 『용연보감龍淵寶鑑』 등의 문헌에 의하면, 윤신달은 파평 윤씨의 시조로 파평산坡平山 기슭에 있는 용연지龍淵池 가운데 있던 옥함玉函 속에서 출생했다고 하며, 그가 옥함에서 나올 때 겨드랑이에 81개의 비늘과, 발에는 7개의 검은 점이 있었고, 손바닥에는 윤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성姓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문무가 출중하여 파평산 금강굴에서 용마를 얻은 후 파평산 치마대馳馬臺에서 무예를 닦았다고 한다. 태봉국에 출사하여 어느 해에 나라가 온통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자 궁예弓裔(?~918)가 문신에게 제문을 지어 올리도록 지시했다는데, 이때 윤신달이 "(하

늘이시여) 군신이 죄가 있으면 마땅히 재앙을 달게 받겠지만 어찌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초목을 마르고 타게 하나이까?"라는 제문을 지어 올리니 이것이 채택되어 기우제를 지내자 곧바로 비가 쏟아져 뭇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파평 윤씨 족보에 의하면, 태조의 역성혁명 당시 왕건을 추대했다고 했으며 통일 후 개국통합開國統合 삼한벽상三韓壁上 익찬공신翊贊功臣 2등에 봉해졌다고 한다. 파평 사저에서 송도로 말을 타고 조정에 입궐 당시 임진강을 매일 건넜는데 강을 건널 적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육지를 다니듯 하였다 하며 말이 물을 마신 나루[如飮津]를 여음 또는 음진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태조 왕건의 뒤를 이어 혜종이 왕위에 오르자 윤신달은 동경대도독부東京大都督府로 부임한 바 있으며 81세로 서거하니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로 추증하고 관내인 기계현 아치동(현 경북 영일군 기계면 종계동)에 장례를 지냈다 한다.

그런데 윤관 이전 선대의 신분을 알아볼 수 있는 직함은 묘지명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 이를테면 윤해尹垓 묘지명에는 선조인 신달은 삼한공신의 호를 받았는데 공신 선지先之를 낳았으며, 선지가 좌복야 금강金剛을 낳고, 금강이 우복야 집형을 낳고, 집형이 문숙공 윤관을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윤언이尹彦頤 묘지명에 의하면, 증조부[曾王父]인 선지가 증군기감贈軍器監, 조부[大王父]인 집형이 증태자태보贈太子太保의 벼슬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윤언민尹彦旼 묘지명에는 집형이 증상서우복야贈尙書右僕射로 되어 있다. 이처럼 선지 이하 자손들의 직명이 추증追贈의 형식을 띠고 있고 더군다나 윤신달은 삼한공신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사』 세가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파평 윤씨는 윤관이 출세하기 전까지는 비록 삼한공신의 후예라고는 해도 그렇게 유력한 가문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윤신달이 평소 말 타고 출퇴근하였다든가 용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태자를 가르쳤다든가 제문을 지어 올릴 정도로 문장력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문무에 출중하였다는 기록이 사실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고 더구나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을 추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공로가 있었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아들도 공신이었다는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윤신달은 아들 선지와 함께 파평의 토착세력으로 출발하여 궁예 정권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인정받고 결국

왕건의 추대 과정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결과 삼한공신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윤관은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이부상서 등을 거쳐 1104년 추밀원사로서 동북면행영병마도통사東北面行營兵馬都統使가 되어 여진을 정벌하다가 실패하였다. 그 뒤 별무반別武班을 창설하였으며 1107년(예종 2) 여진정벌군 원수로서 17만 대군을 이끌고 동북계에 출진하여 여진을 평정하고 이듬해 봄에 개선, 그 공으로 추충좌리평융척지진국공신推忠佐理平戎拓地鎭國功臣 · 문하시중 · 상서이부판사尙書吏部判事 · 군국중지사軍國重知事가 되었다. 그 뒤 조정은 9성을 지키기 어렵다 하여 여진에게 돌려주자, 여진 정벌의 실패로 모함을 받아 벼슬을 빼앗기고 공신호마저 삭탈되었으나, 예종의 비호로 1110년 수태보守太保 · 문하시중 · 병부판사兵部判事 · 상주국上柱國 · 감수국사監修國史가 되었다.

파평 윤씨 세계는 윤관에 이르기까지는 단계로 이어지다가, 윤관이 여섯 아들을 두어 그 아랫대로 내려가면서 수십 파로 갈라진다. 따라서 파평 윤씨들은 모두 윤관 장군의 후손들이다. 윤관의 여섯 아들은 언인彦仁 · 언순彦純 · 언암彦巖 · 언식彦植 · 언이彦頤 · 언민彦旼이다. 이중 언민을 제외한 후손들이 모두 번창하여 현달顯達했는데 특히 다섯째 아들인 윤언이의 후손이 대대로 고관 및 학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

문강공文康公 윤언이는 인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송나라에 다녀왔으며, 1135년 묘청妙淸의 난 때는 원수元帥 김부식金富軾의 막료로 출전하여 서경西京 함락 때 큰 공을 세워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었다. 그의 아들 삼형제 인첨鱗瞻 · 자고子固 · 돈신惇信은 모두 대과에 급제하였다. 윤인첨은 의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금나라에 다녀왔고 조위총趙位寵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원수元帥가 되어 이를 정벌, 문하시중이 된 인물이다.

윤인첨의 아들 3형제도 대과에 급제하여 양대兩代에 걸쳐 3형제씩 대과급제함으로써 이들 집안을 '삼제택양사택三第宅兩師宅'이라 불렀다. 또 이들 후손 중에 참판공參判公 윤민신尹民新이 있었는데 그의 다섯 아들이 모두 대과급제하였고 이 중 한 사람이 장원급제하였다. 이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참판공이 사는 마을을 '오자등과五子登科 터'라 불렀다고 한다. 이 밖에도 파평 윤씨 가문에는 급

제자가 많은 만큼 과거에 얽힌 수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2. 염형명과 파주 염씨

파평현의 남쪽에 있었던 봉성현과 관련하여서는 파주 염씨가 주목된다. 이 가문이 명문거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는 명종조의 재상이 된 염신약廉信若부터이다. 이후 가세가 번성하여 그 후손이 권문세족으로 발전하여 원의 간섭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선대에 형명邢明은 태조 왕건을 도와 삼국을 통일한 삼한공신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염신약에 이르기까지 파주 염씨의 세계를 『고려사』, 묘지명 및 족보를 참고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염형명廉邢明(삼한공신三韓功臣) – 위位(군기감軍器監) – 가칭可偁 …
– 현顯 – 한漢(상서尙書, 문종조文宗朝) – 덕방德方(대부소경大府少卿)
– 신약信若(정당문학政堂文學)

현재 파주 염씨는 형명을 시조로 하면서 제신悌臣을 중시조로 삼고 있으며 파주 단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파주 염씨의 세계는 유감스럽게도 그 계보가 확실치 않다.

이를테면 『삼국유사』에는 신라 선덕여왕 때에 국정에 참여했던 염종廉宗과, 진덕여왕 때 6공六公 가운데 1인으로 김유신과 함께 대신을 지낸 염장廉長을 비롯하여, 국보인 경복궁의 '염거화상탑廉居和尙塔'의 장본인 '염거' 등이 등장하여 이들이 파주 염씨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다. 중국에서 귀화한 성씨로 보는 견해도 있음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한편 『고려사절요』에는 918년(태조 원년) 8월 상湘에게 홍유洪儒 · 배현경裵玄慶 · 신숭겸申崇謙 · 복지겸卜智謙 등과 더불어 개국공신 2등을 내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는 이후에도 무장으로서 주로 북계 지역의 진수鎭戍 기지를 설치하는데 활약하였다.

(태조) 11년 2월에 대상大相 염상廉相과 경卿 능강能康 등을 안북부安北府에 보내 성을 쌓게 하고 원윤元尹 박권朴權으로 진두鎭頭를 삼아 개정군 7백 명을 거느리고 이곳에 주둔하여 지키게 하였다.

12년 3월에 대상大相 염상廉相을 보내 안정진安定鎭에 성을 쌓고 원윤元尹 언수고彦守考를 시켜 이곳을 수비하게 하였다.

(13년) 가을 8월에 대상 염상廉相을 마산馬山에 보내 성을 쌓고 안수진安水鎭이라 이름하였으며, 정조 흔행昕幸으로 진두를 삼았다.

17년에 대상 염상廉相을 통해진通海鎭에 보내 성을 쌓고 원보元甫 재훤才萱으로 진두를 삼았다.

염상은 왕건의 남방 경략에 자칫 방해가 될 수 있는 북방 지역의 안정에 절대적 기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943년(태조 26) 정유에 재신宰臣으로서 왕규王規 · 박수문朴水文과 함께 임종에 앞서 왕을 모셨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임이 매우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앞서의 형명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인물이 동일인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한다.

이 같은 파주 염씨의 세계에 대한 의혹 내지는 혼선은 여말 흥방興邦이 당시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이인임李仁任의 일파가 되어 문신들을 추방하고 권세를 전횡하다가 최영崔瑩 · 이성계李成桂에게 1388년 무진참화 때 거의 멸문지화를 당한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형명과 관련해서는 『고려사』에 나와 있는 아래의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볼 따름이다.

(문종 10년) 2월 갑오일에 해당 기관에서 아뢰기를 "번인蕃人들에게 납치되어 갔던 염가칭廉可稱은 군기승 염위廉位의 아들이요, 삼한공신三韓功臣 사도司徒 염형명廉刑明의 후손으로서 경술 연간에 환위공자군環衛公子軍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거란군이 침입하여 서울이 소란하게 되자 부모를 모시고 자기 고향인 봉성현峯城縣(경기도 파주)으로 갔습니다. 도중에 적을 만나서 그들에게 납치되어 갔다가 청녕淸寧(거란의 도종 연호) 원년 정월에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도망하여 왔사오니 그의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영업전

永業田과 가택을 돌려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왕이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가칭은 공신의 자손으로서 청장년 시기에 적에게 잡혀갔다가 번토蕃土에 있는 처자를 버린 채 다만 아들 한 명만을 데리고 백발이 되어 돌아왔으니 그 정상이 매우 가엽고 민망하다. 그의 세업으로 내려오던 토지와 주택을 주어라! "

염가칭은 본래 봉성현 사람이었다. 공신 자손으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거란족이 쳐들어오는 난리통 속에서 뜻밖에 번인(여진족女眞族)들로부터 납치당하는 불행을 당하였던 것이다. 1010년(경술년)에서 1055년(청녕 원년)까지의 무려 45년의 세월을 번인들에게 잡혀 있었던 것이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으나 끝내 아들 하나만 데리고 도망쳐 나왔다. 위와 같은 상황은 얼핏 이해하기 어려우나 당시의 주적主敵은 여진족이 아니라 거란이었다.

어쨌든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문종은 세업으로 전해오던 땅과 집을 가칭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에 따르면 선조 형명은 삼한공신으로 사도司徒의 직책에 있었다. 사도는 태부太溥 · 대위大尉 · 사도 삼공三公의 하나로 삼사三師와 함께 임금의 고문 구실을 하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이었다. 이는 형명이 공신으로서의 상당한 지위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는 환위공자군環衛公子軍에 편입시키는 한편 자자손손 물려받을 수 있는 영업전과 주택을 지급하여 사회경제적 뒷받침을 하였던 것이다.

가칭은 번인들에게 잡혀가기 전에는 부모와 함께 개경에 살고 있었다. 봉성현에 내려간 것은 난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곳에는 영업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경작하는 노비들을 위시하여 염씨 집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비록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붙잡혔으므로 이러한 배경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봉성현에는 선조 이래로 지배해오던 물적 · 사회적 토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후손인 염신약에 관한 『고려사』 권99, 열전의 기록이 참조될 듯하다.

염신약의 자는 공가公可이며 봉성군峰城郡 사람이다. 인종 때에 과거에 급

제하고 광주 장서기廣州掌書記로 조동되었는데 바른 도리로써 공직에 복무하였다. 명종이 즉위한 후 전일 잠저潛邸(왕위에 오르지 않은 때) 시의 은정 관계로 특별히 등용되어 국자제주 한림 시강 학사國子祭酒翰林侍講學士로 임명되었다가 판태부사判太府事로 전임되었다. 그가 과거 시험을 맡아보아서 많은 명사를 선발하였으므로 왕이 더욱 그의 재능을 사랑하였다. (중략) 염신약의 토지[田]가 봉성峰城에 있었는데 정중부가 그 토지를 강탈하였다가 얼마 후에 돌려주었다. 염신약이 종을 보내 수확을 하게 하였더니 정중부 집 종[家奴]이 도중에서 노리고 있다가 강탈하려 하므로 서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정중부가 염신약의 종을 체포하여 가구소街衢所에 투옥 살해하고 중방重房을 시켜 염신약을 탄핵하게 하니 왕도 마지못해 그를 파면시켰다. 그러나 미구에 염신약을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임명하고 후에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삼았다.

염신약 역시 앞서의 가칭과 마찬가지로 봉성현 사람이었다.(봉성현峯城縣은 나중에 서원현瑞原縣으로, 다시 서원군瑞原郡으로 승격되었으나 간혹 봉성군峯城郡으로도 불렸던 것 같다.) 인종조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주로 무신집권기인 명종조에 활동한 인물로 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염신약의 소유지가 봉성군에 있었으나 정중부가 그 땅을 탐하여 강탈하려다 실패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정중부와 염신약의 가노 사이에 수확물을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진 결과 결국 신약이 피죄인被罪人으로 몰려 한때 파면되기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이다.

염신약의 땅은 당대의 실력자인 정중부가 욕심을 낼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갈등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가노들은 수조노收租奴로 때로 토지를 관리하기도 했던 사람들로 생각되며, 그런 점에서 신약의 토지는 이를테면 민전형民田型의 농장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기반은 봉성군 일대의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명종이 잠저 시에 신약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후에 승익承益 · 제신悌臣 그리고 흥방興邦으로 이어지는 정치권력의 배후에는 파주 염씨 계열의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었다.

3. 노강필과 교하 노씨

교하 노씨는 고려 중기 이래 대표적인 권문척족權門戚族이다. 『교하노씨세보交河盧氏世譜』에 의하면, 도시조都始祖 수穗의 둘째 아들 오塢가 신라 말에 아버지를 따라 동래東來하여 교하백交河伯에 봉해졌으므로 시적始籍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塢의 후손 강필康弼이 신라 말에 기계杞溪에 세거世居하면서 학문이 현달하여 문명을 떨쳤고, 관향을 장산章山으로 이관移貫하였다가 태조太祖를 도와 고려 창업에 공을 세우고 통합삼한개국공신統合三韓開國功臣으로 태자태사太子太師에 올랐으며 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에 봉해져서 교하交河로 복관復貫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관향을 교하로 삼고, 강필을 일세조一世祖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오면서 명문의 기초를 다졌다. 가문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맥을 살펴보면 2세손 안맹安孟이 동서면병마사東西面兵馬使를 역임했고, 그의 아들 영순永醇은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를 지낸 후 감수국사에 올라 가문을 중흥시켰다. 『고려사』 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그의 행적을 싣고 있다.

> 노영순은 기계杞溪 사람이다. 의종 때에 내시로 들어가 합문지후閤門祗候로 되었다. 동북면병마사와 춘주도 안찰사가 보고하기를 "경기의 이천伊川, 안협安峽 지방과 동주東州의 평강平康, 동계東界의 영풍永豊, 의주宜州 및 서해西海의 곡주谷州 등 지방에 도적들이 횡행하고 있으니 체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왕이 노영순과 병부 낭중兵部郎中 김장金莊 등을 보내 도적의 괴수 이쌍異雙, 원의員衣, 박朴 등을 잡아 죽였다. 후에 벼슬이 승선承宣으로 올라갔다. 정중부의 난에 왕을 시종하던 관리들이 많이 살해되었으나 노영순은 본래 무관집 출신이었으며 또 무관들과 서로 친하였으므로 아무 일이 없었다. 후에 벼슬이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다. 아들은 노효돈盧孝敦인바 문음門蔭으로 벼슬자리를 얻어 증앙과 지방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여러 번 전공戰功을 세웠다. 그는 국가에 유익한 일이라면 아니 한 일이 없었다. 1208년(희종 4)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로 있다가 죽으니 나이 62세였으며 의정懿貞이라고 시호를 주었다.

영순에게는 3형제가 있었는데 탁유卓儒는 형부와 공부 상서를, 지유智儒는 신창군新昌郡에 봉해져 신창 노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효돈孝敦은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냈다. 사세는 계속되어 7세조인 연演이 은청광록대부 북계병마사를 거쳐 지제고를 역임하였고, 9세조인 영수穎秀는 이부상서를 제수받고 당대 최고 권력자의 한 사람인 평양 조씨의 사위가 되었다.

10세조인 책頤은 아버지가 조인규의 사위가 되면서부터 부원세력으로 성장하여 딸이 원元의 순제비順帝妃가 되었으며 왕실의 옹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여 이를 계기로 일약 권문이 되어 좌정승에 올랐다가 공민왕의 반원정책에 연루되어 기철奇轍 등과 함께 제거되었다. 교하 노씨는 책의 네 아들을 파조로 하는데, 제濟의 후손이 서원군파瑞原郡派, 진稹의 후손이 창성군파昌城郡派, 은訔의 후손이 경원군파慶原郡派이고 영渙의 후손이 신양군파新陽郡派로 나뉜다. 제는 정동행성 좌우낭중으로 있다가 공양왕대에 개혁파에 의해 주살되었으며, 진 역시 판밀직사사가 되었다가 아들 선瑄이 홍륜洪倫 등과 함께 공민왕의 시해에 참여하였으므로 다른 두 아들과 함께 주살되는 화를 입었다. 은 역시 원元에 벼슬하여 병부상서에 이르렀으나 1369년(공민왕 18) 북원北元의 사신으로 고려에 왔다가 무고하게 주살당하였다.

이처럼 교하 노씨는 고려 말 대원관계를 둘러싼 빈번한 정변에 연루된 자가 많아 가계의 부침이 심하였으나,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파주 염씨와는 달리 계속해서 벼슬길에 오름으로써 가문을 드높였다. 이를테면 진의 2세손 노한盧閈은 태종과 동서간으로 의정부 우의정 겸 판병조사에 올랐으며 단종조에 과거에 급제한 노사신盧思愼은 호조판서로서 대제학을 겸하였는데 1432년(세종 14)에 익대공신으로 좌찬성이 되었고 1487년(성종 18)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 · 영의정에 올랐다. 학문에도 뛰어나 『삼국사절요』, 『경국대전』 등 많은 책의 간행에 참여하였다. 이 같은 두 가문 사이의 기본적 차이점은 여말 선초 국내외 정치적 격변기의 처세와 관련하여 앞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장단 한씨

장단 한씨長湍韓氏는 청주 한씨淸州韓氏의 파본이다. 청주 한씨의 시조는 한란韓蘭으로 고려 태조 때 삼한통합에 공을 세워 삼중대광三重大匡 문하태위門下太尉,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에 서훈敍勳되었고 시호는 위양威襄이다.

『청주한씨세적연보世蹟年譜』에 보면, 난蘭은 청주의 방정리方井里 무농평務農坪을 개척, 큰 호족豪族이 되었는데 928년(고려 태조 11) 왕건이 후백제 견훤甄萱을 정벌키 위해 그곳에 당도하자 군량軍糧을 풀어 구원했고 일족을 거느리고 참전, 삼한 통합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하였다. 『한씨세보』에 의하면, 그는 기자箕子의 원손遠孫으로 준왕準王이 위만衛滿에게 쫓겨 마한馬韓을 세우고 스스로 한왕韓王이라 한 것과 위만에게 억류당한 그의 가족이 한씨라 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준왕 이전부터 한씨 성을 썼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난의 상계上系는 기자에까지 이르고 마한 말기 원왕元王의 둘째 아들로 신라 탈해왕조에 벼슬길에 올라 상당 한씨上黨韓氏로서 청주를 본관으로 삼았다는 한우량韓友諒으로부터 비롯되어 흔히 청주 한씨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로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1세 난 이래로 4대의 묘영墓塋이 충북 청원淸原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이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았다고 믿어진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장단長湍·양주楊州·파주坡州 등 경기 지역으로 옮겨가 살았던 것 같다. 그러나 청주 한씨가 장단에 뿌리를 내리게 된 시기 혹은 배경은 확실치 않다. 이를테면 목종조穆宗朝의 인물인 한언공韓彦恭(?~1004)의 경우를 보면, 그는 이미 장단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착세력이었다.

> 한언공은 단주湍州 사람이니 부친 한총례韓聰禮는 광록소경光祿少卿이었다. 한언공은 성품이 명민하고 학문을 즐겼다. (중략) 목종이 즉위하자 내사시랑, 평장사로 임명하고 4년에 문하시중으로 임명하였다. 왕이 주, 군들을 순행하다가 장단현에 이르렀을 때 한언공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그대의 고향인데 그대의 공로를 생각하여 단주로 승격시키겠다"고 하였다. 당시는 전폐錢幣만을 유통시켰으며 추포麤布의 유통을 금지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자못 불편하였었다. 그래서 한언공이 상소하여 그 폐단을 논술하였더니 왕은 그 의견을 채납하였다. 후에 누차 승진되어 특히 개국후로 봉하고 식읍 1천 호와 감수국사 벼슬을 더 주고 그의 부친 총례에게 내사령 벼슬을 추증하였다.

한언공은 당시 문하시중이 되어 목종을 모시고 주군을 순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장단현에 이르렀다. 이때 왕은 장단현이 바로 한언공의 고향이고 또한 그 공로를 생각해서 단주로 승격시키겠다고 했던 것이다. 장단현이 단주로 승격한 것은 바로 한언공의 공로라 하겠다. 이때부터 장단현은 속현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왕이 파견하는 수령의 직접적 관할을 받게 된 것이다. 비록 나중에 장단현으로 원상복구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장단현이 파평현이라든가 적성현과 같은 다른 속현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은 추포의 사용에 관한 부분이다. 당시의 농업생산은 논농사보다는 밭작물이 주가 되고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삼[麻]이었다. 삼은 삼베[布]라 하여 당시 섬유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이 삼베는 단순한 옷감 소재일 뿐만 아니라 현물화폐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 무렵에는 대외결제의 수단으로서 주로 은이 쓰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서도 주로 금속화폐가 두루 쓰이고 있었다. 따라서 금속화폐를 주조하여 널리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언공은 특이하게도 물품화폐로서의 포의 사용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리고 목종도 이를 추종한 결과 추포의 사용이 회복되었던 것이다.

농업 생산을 위주로 삼고 있는 당시로서는 현물화폐로서의 추포의 기능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한언공의 주장은 삼베가 자신의 고향인 장단현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주요 생산품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경제적 인식은 가까이는 당대인으로서의 현실적 판단이었을 것이지만, 멀리는 선조대 '무농평務農坪'의 개간에서 비롯되어 농사를 중시하는 집안의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청주 한씨는 한언공을 계기로 장단 한씨의 계파를 이루게 된다.

한편 장단의 한씨와 관련하여 흥미 있는 점은 '서곡리瑞谷里 고분벽화'에 관한 부분이다. 이곳은 원래 장단군으로서 개성과 인접하여 여말선초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으로 민통선 내에 있어 집중적인 조사가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런데 1970년부터 청주 한씨 문중에서는 선조의 묘소를 찾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문열공 한상질韓尙質(?~1400)의 묘라고 했다. 묘 안에는 사방 벽면에 12명의 인물상을 배치했고, 천장에는 별자리를 그린 성신도가 있는 전형적인 고려 말 무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연구소의 발굴과정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확인된 묘지석[誌石]에 의하면 증시창화권공묘명贈諡昌和權公墓銘으로 실제 묘 주인공은 한씨가 아니라 권씨였던 것이다. 판독 결과 묘지명의 주인공은 고려 충렬왕~충목왕 때의 문신 창화공 권준權準(1280~1352)이었다. 권준이 죽은 1352년 사위 홍언박洪彦博의 간청으로 당대 문인인 이인복李仁復이 지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상질'이라고 쓴 비석은 왜 서 있는 것일까. 기막힌 것은 묘지석의 주인공인 권준과 비석의 주인공인 한상질이 내외손內外孫 사이였다는 사실이다. 권준의 둘째 아들인 권적權適의 사위가 한상질의 아버지인 한수韓脩(1333~1384)였던 것이다. 혹자는 이것을 '공민왕시역사건'(1374년)을 통해 설명한다.

『고려사』 등을 보면 공민왕은 사랑하는 노국공주가 죽고, 신돈을 통한 개혁정치가 물거품이 되자 엽기적인 성행각을 벌인다. 이때 설치된 것이 자제위子弟衛라는 것이었다. 바로 남색男色이었다. 그런데 1374년 9월 1일, 왕은 내시 최만생崔萬生으로부터 익비益妃의 임신 사실과 그 씨가 홍륜洪倫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지만, 이를 알게 된 홍륜 일파는 술에 만취한 공민왕을 살해한다. 결국 친원파인 이인임李仁任 등이 홍륜과 이 사건에 연루된 자제위 권진權瑨과 한안韓安 등을 죽인다. 이때 죽은 권진이라는 인물은 권준의 증손자이다. 그 사건으로 멸문지화의 위기에서 권씨 집안이 뿔뿔이 흩어질 때 권준 할아버지의 제사를 내외손간인 청주 한씨 집안(한수)에 부탁했을 것이며, 청주 한씨 가문이 권준의 제사를 지내주다가 한수의 아들 한상질의 무덤으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두 문중 사이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싸움 끝에 이 무덤의 주인공은 '권준'이라는 '역사판결'을 내렸다. 권준의 묘지석이 발견되고, 유물 상

황이나 고려풍 벽화의 형태 등을 보아 틀림없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어느 정도 정황적 추측이 불가피하다. 그래도 권씨 집안에서 조상의 무덤을 한씨 집안에 부탁하고자 했다면, 이는 단순히 사돈간이라는 점 말고도 당시 장단 지역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장단 한씨 세력을 도외시하고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호족세력의 성격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호족세력들을 정리하면, 대체로 태조 왕건과의 인연으로 파주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하거나 혹은 점차 근거지로 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호족이라고 부르기에는 주저되는 점이 있다. 과연 독자적 정치세력으로서 존재했겠느냐 하는 점이다. 사실 파주 지역은 왕건의 앞마당이나 다름이 없었다. 당시 해군기지가 있었던 정주貞州는 임진강을 통해서 바로 이곳과 연결되었다.

> 궁예는 또 태조에게 명령하여 정주貞州(경기도 풍덕豊德)에서 전함들을 수리한 후 알찬 종희宗希 김언金言 등을 부장副將으로 하여 군사 2천 5백을 거느리고 광주 진도군珍島郡을 가서 치게 하여 이를 함락시켰다.

정주 포구貞州浦口는 임진강과 한강이 합쳐진 물이 바다로 이어지는 곳에 있었다. 왕건의 해군은 바로 이곳에서 전함을 수리하곤 하였다. 말하자면 내해에 다름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고려사』 기록을 보아도, 파주 지역과 관련하여 어떤 군사적 조처를 취한 사례도 나타나지 않는다. 왕건이 작전을 벌인 가장 가까운 곳이 광주廣州였다.

광화 3년 경신(900)에 궁예가 태조에게 명령하여 광주廣州, 충주忠州, 청주靑州 등 3개 주와 당성唐城(경기도 남양), 괴양槐壤(충청도 괴산) 등 군현을 정벌하게 하여 이를 다 평정하였다. 그 공으로 하여 태조에게 아찬阿粲 벼슬을 주었다.

이처럼 파주 지역은 왕건의 그늘 하에 있었다. 과거 선단을 이끌고 해상세력으로서 활동하던 지역도 바로 이 무대였다. 이런 배경으로 본다면 여타의 토착세력이 힘을 키워 독자적으로 성장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왕건의 세력이 아직 일정 수준으로 성장하기 이전까지는 나름의 힘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 세력들은 처음 토착세력으로서 성장해서 호족세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점차 왕건에게 흡수되어, 휘하의 장수로서 혹은 참모로서 혹은 후방 지원을 해주는 방식 등으로 태조에게 협력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들이 왕건의 절대적 신임을 얻게 된 계기는 아마도 궁예의 축출과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국 혹은 삼한공신의 칭호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 백

조선시대

왕실과 사족의 파주 경영

선조 · 광해군 대의
풍수사상과 교하천도론

연행과 능행

파주 사족과 서원

파주 향촌사회의
구성과 변화

여 백

왕실과 사족의 파주 경영

지두환_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파주는 고려시대 개성과 가까워 고려 왕실과 사족들의 근거지가 되었다. 이러한 파주는 조선의 수도가 한양으로 되면서 그대로 이어졌다. 게다가 중국으로 가는 통로에 위치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번성하면서 왕실과 사족의 근거지가 되었다. 사패지가 내려져서 왕실 친인척의 근거지가 되었고 순릉 · 공릉 · 소령원 · 수길원 등 왕실 묘역도 조성되었다.

국가와 왕실의 파주 경영

조선 전기 국가와 왕실의 파주 경영은 다섯 집안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세종의 외척이 되는 청송 심씨 집안이다. 두 번째가 안평대군의 처부인 연일 정씨 집안이다. 세 번째가 태종과 동서가 되면서 세종과도 동서가 되는 교하 노씨 집안이다. 네 번째가 세조비 정희왕후 집안인 파평 윤씨 집안이다. 다섯 번째가 예종비 장순왕후와 성종비 공혜왕후의 집안인 청주 한씨이다. 예종비와

성종비는 모두 한명회의 딸로 공릉 · 순릉이 있다.

1. 세종비 청송 심씨 집안의 파주 경영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은 청성백靑城伯 심덕부沈德符의 여섯째 아들로 태조 2녀인 경선궁주慶善宮主와 혼인하여 부마가 된 인물이다. 태종과는 처남 매부지간이 된다. 그의 바로 위의 형이 세종 왕비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의 아버지가 되는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沈溫이다. 세종에게는 처숙부가 된다.

심종은 경선궁주와의 사이에 1녀밖에 두지 않았다. 심종의 사위가 율곡의 5대조가 되는 덕수인德水人 이명신李明晨이다. 그래서 사위가 되는 덕수인 이명신 집안에서 그를 봉사奉祀하였으니 바로 외손봉사外孫奉祀이다.

심종과 경선공주慶善公主 묘역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에 위치한다.(『파주군지』) 심종의 아버지 심덕부의 묘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있는데, 심종의 묘가 파주에 있는 것은 아마도 이쪽에 사패지賜牌地를 받은 듯하다. 심종의 조부 심용沈龍의 묘는 안성시에 있고, 증조 심연深淵의 묘는 전북 익산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심종부터 파주에 거주한 듯하다.

심온의 부인은 안천보安天保의 딸인 순흥 안씨順興安氏로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에 봉해졌다. 슬하에 적실에서 3남 6녀, 측실에서 2남을 두었다. 심온의 1남은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심준沈濬(?~1448)이다. 민무휼閔無恤의 딸 여흥 민씨驪興閔氏와 혼인하였다. 민무휼은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와 남매지간이므로 심준은 원경왕후의 조카사위가 된다.

2남은 심회沈澮(1418~1493)이다. 1471년(성종 2) 좌리공신 2등에 올랐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청송부원군에 봉해졌다. 판중추 김연지金連枝의 딸 원주 김씨原州金氏와 혼인하였다. 3남은 보국숭록대부 영중추원사 심결沈決이다.

1녀는 세종비 소헌왕후 심씨이다. 2녀는 진주인晉州人 지돈령知敦寧 강석덕姜碩德(1395~1459)과 혼인하였다. 강석덕은 정당문학政堂文學 강회백姜淮伯의 아들이다. 강석덕의 아들이 인재仁齋 강희안姜希顔(1417~1465), 사숙재私淑齋 강희맹姜希

孟(1424~1483)이다. 이들은 세종의 이질姨姪이다. 3녀는 교하인交河人 동돈령同敦寧 노물재盧物載(1396~1446)와 혼인하였다. 노물재는 좌상左相 노한盧閈(1376~1443)의 아들이며 태종 국구國舅인 민제閔霽(1339~1408)의 외손자이다. 슬하의 노회신盧懷愼 · 노사신盧思愼(1427~1498) · 노호신盧好愼 · 노유신盧由愼 등이 모두 세종의 이질이 되었다. 4녀는 진주인 부지돈령副知敦寧 유자해柳子偕와 혼인하였다. 손자가 되는 유양柳壤의 아들 유순정柳順汀(1459~1521)은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박원종과 함께 중종반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공신이 된 인물이다. 5녀는 전의인全義人 지중추知中樞 이숭지李崇之와 혼인하였다.

심온의 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13-10에 있다. 심회의 묘는 파주 월롱면 영태리 구舊 회곡 내동에 있다. 처음에는 파주 우랑동에 있었는데, 연산군 갑자사화 때 폐비윤씨의 일로 추죄되어 이장하게 되었다.

심온의 둘째 아들인 심회의 후손에서 명종 왕비 인순왕후仁順王后가 나온다. 심회는 슬하에 세 아들을 두었다. 심회의 첫째 아들은 심인沈潾이다. 심인의 아들 심순로沈順路는 세종대왕 서6남 수춘군壽春君 이현李玹의 딸과 혼인하였다. 심순로의 딸이 성종 서12남 영산군寧山君 이전李佺과 혼인하였다. 심회의 셋째 아들인 심원沈湲의 후손에서 인순왕후가 나온다.

심원(1437~1467)은 이의구李義坵의 딸 전주 이씨와 혼인하였다. 심원은 1467년(세조 13)에 이시애李施愛의 난 때 순절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심원의 묘는 파주 우랑동에 있다고 하는데 의리장衣履葬 하였다고 한다.

청송 심씨 추석 묘제

심원의 셋째 아들 심순문沈順門(1465~1504)은 신영석申永錫의 딸 평산 신씨平山申氏와 혼인하였다. 슬하에 네 아들을 두었다. 심순문의 묘는 통진부 옹정리에 있다. 심순문의 1남 심연원沈連源(1491~1558)은 김당金瑭의 딸 경주 김씨와 혼인하였다. 심연원의 묘도 통진부 옹정리에 있다.

심연원의 1남 심강沈鋼(1514~1567)은 이대李薈의 딸 전주 이씨와 혼인하였다. 슬하에 8남 3녀를 두었다. 첫째 딸이 명종비 인순왕후 심씨(1532~1575)이다. 둘째 아들 심의겸沈義謙(1535~1587)은 심홍沈泓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심강의 묘는 통진부 웅정리에 있다.

심온의 증손인 심순문의 증손녀가 명종비가 된다. 그리고 명종비의 동생 심의겸이 있다. 심순문은 연산군 때 갑자사화를 당한다. 그리고 심의겸은 선조대 서인의 핵심이 되어 율곡과 함께 정계를 주도해간다. 심의겸의 묘는 파주 광탄면 시곡에 있다. 현재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68-58에 있다. 심온의 6대손이다.

심의겸의 양부는 심홍이다. 심홍의 부인은 한윤원韓胤源의 딸 청주 한씨淸州韓氏이다. 심홍의 묘는 파주 우랑동에 있다. 심홍의 증조부는 심한沈澣이다. 심한은 심회의 둘째 아들이므로 원래 심의겸에게는 종고조從高祖가 된다. 심한은 슬하에 자녀가 없어 동생 심원의 둘째 아들 심순경沈順徑(1462~?)을 양자로 들였다. 심순경이 심홍의 조부가 된다. 심한의 묘는 파주 우랑동에 있다고 한다. 심순경의 묘는 파주 광탄면 시곡에 있다.

심순경의 첫째 아들 심희원沈希源(1480~?)의 첫째 부인은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한확韓確의 후손인 한세보韓世俌의 딸 청주 한씨이다. 둘째 부인은 강적康績의 딸 재령 강씨載寧康氏이다. 심희원의 묘는 파주 광탄면 시곡에 있다.

2. 안평대군 장인 연일 정씨 집안의 파주 경영

세종대왕 3남인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1418~1453)의 처부가 되는 정연鄭淵의 묘는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다. 그 아버지 정홍鄭洪의 묘도 파주시 금촌동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부 이상 선대의 묘소는 파주가 아닌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정홍 때부터 파주에 세거한 듯하다.

정연(1389~1444)의 할아버지는 설곡雪谷 정사도鄭思道(1318~1379)이다. 1336년(충숙왕 복위 5)에 문과에 급제하여 광정대부匡靖大夫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와 정당문학을 지냈고, 지서연사知書筵事 춘추관사春秋館事를 지냈으며 오천군烏川君

에 봉해졌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첫째 할머니는 성산군부인星山郡夫人으로 배현보裵賢輔의 딸 성주 배씨星州裵氏이다. 둘째 할머니는 상당군부인上黨郡夫人으로 정포鄭誧의 딸 청주 정씨淸州鄭氏이다.

정연의 아버지 정홍(?~1420)은 1377년(우왕 3)에 제릉서령諸陵署令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조선에 들어와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지냈다. 시호는 공간恭簡이다. 어머니는 동복현부인同福縣夫人으로 삼사좌복야三司左僕射 오중화吳仲和(1345~1407)의 딸 동복 오씨同福吳氏이다. 오중화의 1남 오승吳陞(1364~1441)은 세종 후궁 신빈 김씨愼嬪金氏 소생으로 서3남인 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의 처외조부가 되는 인물이다.

정연의 형 정진鄭鎭은 숭록대부崇祿大夫 오천부원군烏川府院君에 추증되었다. 정연에게 형수가 되는 정진의 부인은 개국공신 조준趙浚(1346~1405)의 딸인 평양현부인平壤縣夫人 평양 조씨平壤趙氏이다.

정진의 첫째 아들 정효손鄭孝孫은 홍여방洪汝方(1381~1438)의 딸 남양 홍씨南陽洪氏와 혼인하였는데, 홍여방의 다른 딸은 한확韓確(1400~1456)과 혼인하였으니 정효손과 한확은 동서간이 되었다. 한확은 세종 서2남으로 신빈 김씨 소생인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의 처부이며, 덕종비 소혜왕후昭惠王后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이다. 한확의 첫째 딸이 이사후李師厚의 아들로 이직李稷의 손자가 되는 성주인星州人 이계녕李繼寧과 혼인하였는데, 정진의 여섯째 딸이 이직의 아들 이사순李師純과 혼인하였다. 이사순은 이사후의 동생이다.

정진의 셋째 아들 정효강鄭孝康은 안평대군의 지우知友이다. 막내 아들 정효전鄭孝全은 태종 서4녀로 신빈 신씨 소생인 숙정옹주淑貞翁主와 혼인하여 일성위日城尉에 봉해졌다. 정진의 둘째 딸은 소헌왕후 외조부 안천보에게 증손자가 되는 순흥인順興人 안호문安好問과 혼인하였다. 정진의 셋째 딸은 경주인 김종직과 혼인하였는데 1녀가 교하인 노호신과 혼인하여 낳은 딸이 세조 서2남으로 근빈 박씨 소생인 창원군과 혼인하였다. 노호신은 노물재의 아들이다. 2녀는 청송인 심안지沈安智와 혼인하였다. 심안지는 세종 부마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의 동생으로 심선沈璿의 아들이다. 3녀는 세조 서1남으로 근빈 박씨謹嬪朴氏 소생인 덕원군德源君과 혼인하였다. 정진의 막내 딸은 이직의 아들 성주인 이사순과 혼인

하였다.

정연은 충정공忠靖公 우현보禹玄寶(1333~1400)의 손녀로 우성범禹成範(?~1392)의 딸인 단양 우씨丹陽禹氏와 혼인하였다. 우성범은 고려 공양왕의 딸 정신궁주貞信宮主와 혼인하여 단양군丹陽君에 봉해졌으므로 정연의 부인은 공양왕의 외손녀이다. 슬하에 4남 3녀를 두었다.

1남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장예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 정자원鄭自源이다. 지돈령 김중렴金仲廉의 딸이며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대림趙大臨(1387~1430)의 외손녀인 안동 김씨와 혼인하였다. 김중렴의 누이가 문종 빈이 되었다가 폐빈이 된 휘빈 김씨徽嬪金氏이다. 2남은 통정대부 이조참의 정자양鄭自洋(1415~1492)이다. 현령 이항李頏의 딸 평창 이씨平昌李氏와 혼인하였다. 3남은 가선대부嘉善大夫 전주부윤 정자제鄭自濟이다. 첫째 부인은 최사의崔士儀의 손녀가 되는 판서 최후崔厚의 딸 전주 최씨이다. 최사의는 세종 후궁 명의궁주明懿宮主 최씨의 아버지이다. 둘째 부인은 위양공威襄公 이순몽李順蒙의 딸 영천 이씨永川李氏이다. 슬하에 5남 2녀를 두었는데 첫째 딸이 세종 서6남으로 혜빈 양씨惠嬪楊氏 소생인 수춘군 이현李玹(?~1455)과 혼인하였다. 4남은 정자숙鄭自淑이다.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이원李原의 손녀로 이대李臺의 딸인 고성 이씨固城李氏와 혼인하였다. 정자숙의 손자가 정유침鄭惟沈이다. 정유침의 아들이 바로 송강松江 정철鄭澈(1536~1593)이고, 딸이 인종의 후궁인 귀인 정씨貴人鄭氏(1520~1566)이다. 따라서 인종은 정철에게 매부가 되는 것이다.

정연 묘

1녀는 군수郡守 고령인高靈人 신중주申仲舟와 혼인하였는데, 신중주는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의 형이다. 2녀는 지돈령 안동인安東人 권담權聃과 혼인하였다. 권담의 첫째 부인은 박습朴習의 딸 함양 박씨이다. 박습은 강상인의 옥사에 연루되어 죽었기에 권담은 박씨 부인과 이혼

하고 정연의 딸을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권담은 태종 3녀로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 소생인 경안공주慶安公主와 혼인하여 길창군吉昌君에 봉해진 권규權跬(1393~1421)의 아들이며 양촌陽村 권근權近(1352~1409)의 손자이다. 3녀는 세종 3남 안평대군 이용과 혼인하였다. 안평대군은 태종의 4남 성녕대군誠寧大君이 후사 없이 일찍 졸하였기에 아버지 세종의 명으로 성녕대군의 후사가 되었다. 성녕대군은 성억成抑의 사위였다.

연일 정씨 정연의 집안은 그 아버지 정홍 때부터 파주에 입향한 듯하다. 그러나 파주에 세거한 기간이 그리 오래지 않은 듯하다. 왜냐하면 정자원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이 모두 고양 원당에 묘를 썼기 때문이다. 정자원의 아들인 정함鄭涵의 묘도 그 아버지 묘 근처인 파주 탄현 법흥리에 있고, 정함의 아들인 정구년鄭龜年의 묘도 그 아래에 있다고 하니, 파주에 세거하는 정연의 후손은 정자원 집안이 그 중심이 된다.

정연의 현손玄孫이 되는 연일 정씨 12세 송강 정철도 처음에는 고양 원당면에 묘소를 썼다가 후일 충북 진천으로 이장하였다. 특이한 점은 정자숙의 아들 정철에게 조부가 되는 정위鄭潙의 묘는 창평 서면 분토동에 있다고 하니, 현재의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는 지역이다.

3. 태종과 세종의 동서인 교하 노씨 집안의 파주 경영

교하 노씨 중에서 파주에 세거하게 되는 집안은 교하 노씨 11세인 노진盧稹의 후손들이다. 노진은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다. 1남은 노선盧瑄, 2남은 노숙盧璹, 3남은 노균盧鈞, 1녀는 공양왕비이다. 공양왕비가 되는 1녀는 공양왕 세자 석奭과 경화궁주敬和宮主를 낳았는데, 경화궁주는 진주인晉州人 강회계姜淮季(1364~1392)와 혼인하였다.

노균은 왕수王琇의 딸 개성 왕씨開城王氏와 혼인하였다. 노균의 묘는 개성부에 있고, 부인 왕씨의 묘는 처음 금천에 있다가 파주군 주내면 백석리로 이장하였다. 노균까지는 아마 개성에 거주한 듯하다. 그러나 이후 조선왕조가 개창한 후,

아들 노한盧閈부터는 파주에 거주한 듯하다.

노균의 아들인 노한은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1339~1408)의 딸 여흥 민씨와 혼인하였다. 부인 민씨는 태종 왕비 원경왕후元敬王后(1365~1420)의 동생이니, 노한과 태종은 서로 동서간이 된다. 묘는 어머니 왕씨 묘가 있는 파주 백석리에 있다.

노한의 아들 노물재(1396~1446)는 청천부원군 심온의 딸 청송 심씨와 혼인하였다. 부인 심씨가 세종 왕비 소헌왕후(1395~1446)의 동생이니, 노물재와 세종은 서로 동서간이 된다. 아버지 노한과 함께 대를 이어 임금과 동서간이 된 집안이다. 묘는 광주廣州 동면에 있다고 한다.

노물재의 1남 노회신盧懷愼의 묘는 원주에 있고, 2남 노유신의 묘는 금천에 있었는데 1967년 평택으로 이장하였다.

노물재의 3남 노사신盧思愼(1427~1498)은 경유근慶由謹의 딸 청주 경씨淸州慶氏와 혼인하였다. 자는 자반子胖, 호는 보진재葆眞齋 · 천은당天隱堂이며, 시호는 문광文匡이다. 1465년(세조 11) 4월 4일 호조판서에 제수되었고 1468년(예종 즉위년) 10월 28일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1495년(연산군 1) 3월 19일 영의정에 올랐고 1498년(연산군 4) 9월 6일 졸하였다. 노사신의 묘는 할아버지 노한의 묘가 있는 파주 백석리에 있다.

노사신의 아들 노공필盧公弼(1445~1516)의 자는 희량希亮, 호는 국일재菊逸齋이며, 시호는 공편恭褊이다. 1503년(연산군 9) 1월 4일 우찬성에 올랐으나, 1504년(연산군 10) 윤4월 5일 갑자사화에 연좌되어 무장茂長으로 장배杖配되었다. 중종반정 이후 1506년(중종 1) 10월 27일 우찬성이 되었고 1516년(중종 11) 11월 28일에 졸하였다.

교하 노씨 시제

노공필은 성종 서12남으로 숙용 심씨淑容沈氏 소생인 영산군寧山君 이전李恮(1490~1538)의 처외조부가 되었다.

노물재의 4남 노호신은 딸이 세조 서

2남으로 근빈 박씨謹嬪朴氏 소생인 창원군昌原君 이성李晟(1458~1484)과 혼인하여 노호신과 세조는 사돈이 되었다.

노물재의 5녀가 연일인延日人 정연의 손자 정부鄭溥와 혼인하였다. 정연은 안평대군의 처부가 되는 인물로 그 묘가 파주 탄현면 법흥리에 있다.

4. 세조비 정희왕후 파평 윤씨 집안의 파주 경영

파평현의 별호는 영평鈴平이라고 하고, 토성土姓으로는 '지智'와 '윤尹'이 있다고 하니, 파평 윤씨는 이주해온 성씨가 아니고 파주 지역에 토착해 살던 토성인 듯하다.

파평 윤씨는 5세 윤관尹瓘(?~1111)이 가문을 일으키면서 많은 자손을 두게 되었다. 윤관은 영평백鈴平伯에 봉해졌고, 후손들이 파평을 본관으로 삼았다. 묘는 파주 분수원에 있다. 현재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4-1이다.

윤관의 장자 윤언인尹彦仁의 후손에서 남원 윤씨南原尹氏와 함안 윤씨咸安尹氏가 나온다. 윤관의 5남 윤언식尹彦植의 후손에서 덕산 윤씨德山尹氏가 나온다. 윤관의 아들 중에서 윤언이尹彦頤(1149~1222)의 후손들이 가장 번창하였다. 조선 왕실과 혼인을 맺는 인물들은 모두 윤언이 계통으로 그 5세손이 되는 윤보尹珤의 후손들이다. 윤언인의 묘는 파주 분수원에 있다.

윤보의 아들 대인 12세에서 크게 분파가 이루어진다. 윤보의 2남 윤안적尹安適이 대언공파代言公派의 파조가 되었고, 3남 윤중조尹中祖가 봉록군파奉祿君派, 4남 윤안숙尹安淑이 양간공파良簡公派, 5남 윤암尹諳이 소부공파少府公派, 6남 윤안비尹安庇가 태위공파太尉公派를 이루었다. 그리고 윤안숙의 후손들에서 또다시 크게 분파가 이루어진다. 윤안적의 후손으로 태종의 부마가 되는 윤평尹泙을 제외하고 조선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는 인물들은 모두 윤안숙의 후손들이다.

윤안숙의 1남 윤이尹苡는 판서공파判書公派의 파조로 그 아들 윤혁尹赫은 충숙왕 부마로 야성군野城君에 봉해졌고, 그 후손들이 야성 윤씨野城尹氏가 되었다. 윤안숙의 2남은 윤척尹陟이다. 조선 전기 왕실과 혼인을 맺는 인물들 모두 윤척

의 후손이다. 윤척의 2남 윤승순尹承順의 아들 대에서 또 분파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 1남 윤곤尹坤은 소정공파昭靖公派로 성종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 세종 부마 윤사로尹師路, 성종 부마 윤내尹薳, 윤섭尹燮이 윤곤의 후손들이다. 3남 윤향尹向은 소도공파昭度公派로 그 아들 윤계동尹季童은 태종 부마가 되었다.

윤척의 3남 윤승경은 그 외손녀가 박강생朴剛生의 딸 세종 후궁 장의궁주莊懿宮主 박씨이다. 윤척의 4남 윤승례尹承禮는 판도공파版圖公派를 이루었다. 윤승례의 1남 윤규尹珪는 또 제학공파提學公派를 이루었고, 손녀가 문종 후궁 소용윤씨昭容尹氏이다. 2남 윤보로尹普老는 부윤공파府尹公派를 이루었고, 손자 두 명 윤우尹愚, 윤암尹巖이 태종 부마가 되었다. 4남 윤번尹璠은 정정공파貞靖公派를 이루면서 딸이 세조비 정희왕후貞熹王后가 되었고, 현손녀玄孫女가 중종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 5대 손녀가 장경왕후의 뒤를 이어 중종의 계비가 된 문정왕후文定王后이다. 윤번의 후손에서 세 명의 왕비가 배출되었다. 윤척의 묘는 장단 임강 동저가 십리에 있다고 한다.

윤척의 아버지는 윤안숙이고, 어머니는 노승서盧承緖의 둘째딸 교하 노씨이다. 노승서는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의 아버지 여흥부원군 민제의 사위 노한과 사촌형제가 된다. 노승서의 할아버지는 노진盧稹이다.

노진의 둘째 아들 노숙盧璹이 노승서의 아버지이고, 노진의 셋째 아들 노균盧鈞이 노한의 아버지이다. 노한은 민제의 사위가 되었으니 태종과 동서간이 된다. 노균의 손자로 노한의 1남인 노물재는 세종비 소헌왕후의 아버지 청천부원군 심온의 사위이며, 윤안숙의 부인인 교하 노씨와 6촌 남매간이 되는 사이이다. 이렇게 교하 노씨 노한과 노물재는 부자가 대를 이어 국왕과 동서간이 되었다.

윤척은 슬하에 5남 2녀를 두었다. 그 중에서 3남 윤승순尹承順, 4남 윤승경尹承慶, 5남 윤승례尹承禮의 후손들이 왕실과 직접적인 혼인관계를 맺었다.

우선 윤승순(?~1392)의 1남 윤곤尹坤, 3남 윤향尹向의 후손들과 조선 왕실과의 인척관계는 다음과 같다. 윤승순의 묘는 장단 저가 십리에 있고, 윤곤의 묘는 파주 용지동(현재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산81-1)에 있다.

윤관 장군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 여충사

1) 윤승순의 연혼관계

윤승순은 단양인丹陽人 이거경李居敬의 사위가 되었다. 이거경은 1350년(충정왕 2)에 좌대언左代言이 되었는데, 이때 윤승순의 아버지 윤척은 우부대언右副代言이 되었다. 이거경의 아들 이무李茂(?~1409)는 제1차 왕자의 난 때 태종을 도운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 제2차 왕자의 난에는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에 올라 단산부원군丹山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러나 1409년(태종 9)에 그는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 가서 죽었다.

윤승순의 1남인 윤곤尹坤(?~1422)의 첫째 부인은 유탁柳濯(1311~1371)의 딸 고흥유씨高興柳氏이다. 유탁은 고흥부원군高興府院君 유청신柳淸臣의 손자로 1353년(고려 공민왕 2)에 좌정승 고흥부원군에 봉해졌고, 조선 개국 후 보국고흥백輔國高興伯에 추증된 인물이다. 윤곤의 둘째 부인은 한상질韓尙質의 딸 청주 한씨이

다. 한상질은 조선 개국공신 한상경韓尙敬의 형으로 조선 개국 후 '조선朝鮮'이라는 국호國號를 주문사로서 주청하고 돌아온 인물이다. 그의 손자가 바로 한명회韓明澮이다.

윤곤의 1남 윤희이尹希夷는 한양인漢陽人 조온趙溫(1347~1417)의 사위가 되었다. 조온은 그 외조가 태조의 아버지 환조桓祖(이자춘李子春)이니 태조에게 조온은 생질이 되는 것이다. 조온은 제1차, 2차 왕자의 난 때 태종을 도와 정사공신 2등, 좌명공신 4등에 오른 인물이다. 2남 윤희제尹希齊는 홍잠洪潛의 사위가 되었고, 3남 윤삼산尹三山은 이원李原의 사위가 되었다. 이원은 고려 수문하시중 이암李嵒의 손자이며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이다. 이원도 조온과 함께 정사공신에 올라 철성군鐵城君에 봉해졌고, 세종 때 좌의정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이원의 매부가 양촌陽村 권근權近(1352~1409), 자신의 사위가 권근의 손자인 권람權擥이니, 두 집안은 겹사돈을 맺은 관계이다. 권람은 한명회와 아주 절친한 사이로, 한명회가 권람을 통해 수양대군을 만나게 되었다.

윤승순의 3남 윤향은 남양인南陽人 홍길민洪吉旼(1353~1407)의 사위가 되었다. 홍길민은 조선 개국공신 2등에 오른 인물로, 그 아들 홍여방은 한확(1403~1456)을 사위로 맞이하였다. 한확은 자신의 두 누이가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 되어 자신도 명나라 벼슬인 광록시소경光祿寺少卿에 임명되었고, 후일 자신의 딸이 성종의 어머니가 되는 덕종비 소혜왕후昭惠王后 한씨가 되었다.

윤승순의 외동딸은 청주인 한상환과 혼인하였는데, 한상환은 바로 한상질의 맏형이 되는 인물이며 사위가 민무질이니 민제와는 사돈이 되는 관계이다.

이렇게 윤승순 가문은 고려 말의 명문세족이라 할 수 있는 한양 조씨漢陽趙氏 조인벽趙仁璧 집안, 단양 이씨 이거경 집안, 고흥 유씨 유탁 집안, 청주 한씨 한상질 · 한상환 집안, 고성 이씨固城李氏 이원 집안, 남양 홍씨 홍길민 집안과 각각 혼인을 맺었고, 민제를 중심으로 하는 여흥 민씨 집안과는 한상환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

2) 윤곤 후손의 연혼관계

충간공忠簡公 윤승순의 1남 소정공昭靖公 윤곤尹坤의 후손에서는 세종 부마인

윤사로尹師路(1423~1463)와,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 성종의 부마 영원위鈴原尉 윤내尹㮨, 영평위鈴平尉 윤섭尹燮이 왕실과 직접적인 혼인관계를 맺은 인물들이다.

그리고 윤승순의 후손인 윤희제의 후손 중에서 세종비 소헌왕후 심씨의 아버지 청천부원군 심온의 외손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

윤곤의 2남 윤희제尹希齊(1380~1467)는 고려 충혜왕비 아버지 홍탁洪鐸의 증손녀인 홍잠洪潛의 딸 남양 홍씨와 혼인하였다.

윤희제의 1남은 윤경尹坰이다. 그의 장손 윤영尹英은 심온의 외손자인 노유신의 딸 교하 노씨와 혼인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윤영에게 7대조가 되는 윤안숙이 교하 노씨와 혼인하였고, 이때에 와서 또 인척관계를 맺었다. 윤사로와 사촌이 되는 윤필상尹弼商은 윤경의 아들로 성종 연간에 여진을 정벌하였고, 그의 증손자가 성종 부마 윤내尹㮨이다.

윤희제의 2남 윤은尹垠의 아들이 윤사로이다. 윤사로는 상침 송씨尙寢宋氏 소생인 세종 서1녀 정현옹주貞顯翁主와 혼인하여 세종의 부마가 된 인물이다. 윤사로는 1455년(세조 1) 9월 5일 사돈인 한명회, 신숙주 등과 함께 세조 좌익공신 1등에 정해져, 9월 20일 공신에 봉작되었다. 1456년(세조 2) 3월 18일에는 단종복위를 도모하다 죽은 금성대군 이유李瑜의 임진 우변臨津右邊 집과 전토를 하사받았다. 1457년 3월 23일에는 사육신 등의 전지를 하사받게 되는데, 윤사로는 박중림朴仲林, 박팽년朴彭年 집안의 신창新昌 전지와 박수朴遂의 광주廣州 전지를 하사받았다. 또 1458년 6월 29일에는 좌익 1등 공신에 책훈되는 교서를 받으면서 전지 150결과 노비 13구 등을 하사받았다.

윤사로의 1남 윤반尹磻은 한명회(1415~1487)의 딸 청주 한씨와 혼인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최측근으로 왕위 찬탈을 주도한 인물이다. 한명회는 같은 1등 공신인 신숙주와 사돈이 되었으니, 윤사로와 한명회, 신숙주는 서로 인척관계로 맺어져 있었다. 윤사로의 2남 윤인尹磷은 심온의 외손자인 유오柳塢의 딸 진주 유씨晉州柳氏와 혼인하였다. 윤인의 딸은 마찬가지로 심온의 외손자인 순천인 박중선朴仲善의 아들 박원종朴元宗과 혼인하였다. 윤인의 손자가 성종 부마 윤섭尹燮이다.

윤희제의 4남 윤배尹培는 그 아들 윤사은尹師殷이 운봉인雲峯人 박종우朴從愚의 사위가 되었다. 박종우는 태종 서1녀 정혜옹주貞惠翁主와 혼인하여 태종의 부마가 된 인물이다. 그의 형 박종지朴從智는 태종 서8남 익녕군益寧君의 처부가 되는 인물이다. 윤사은의 아들 윤탁尹倬은 고성인固城人 이원李原의 증손녀와 혼인하였는데, 그의 선대인 종증조從曾祖 윤삼산이 이원의 사위가 되었기에 두 집안은 겹사돈을 맺은 것이다. 윤희제의 5남 윤훈尹壎은 생육신의 한 명인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을 사위로 맞이하였다.

윤곤의 3남 윤삼산尹三山은 고성인 이원의 사위로 슬하의 1남 윤오尹塢가 태종 왕자 함녕군諴寧君 이인李裀(1403~1467)의 사위가 되었다. 함녕군의 어머니는 신빈 신씨로 그의 장녀인 정신옹주貞愼翁主는 윤삼산과 사촌형제인 윤계동尹季童과 혼인하여 태종 후궁 신빈 신씨가 윤씨 가문과 겹사돈을 맺게 되었다. 윤삼산의 2남 윤당尹塘은 황보인皇甫仁(?~1453)의 사위가 되었다. 황보인은 김종서金宗瑞와 함께 단종을 보위하던 인물로 수양대군이 주도하던 계유정난에 죽임을 당한 인물이다. 3남 윤호尹壕의 딸이 성종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이다. 정현왕후는 후일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晉城大君의 어머니로, 윤사로와는 6촌 남매 사이가 된다.

3) 윤향의 가계

윤승순의 3남 윤향尹向의 후손에서는 태종 부마 영평위鈴平尉 윤계동이 있다. 윤향은 남양군 홍길민洪吉旼의 사위가 되었다. 홍길민의 아들 홍여방洪汝方은 한확을 사위로 맞이하였고, 그 1남 홍원용洪元用이 윤향과 사촌형제 윤번尹璠의 사위가 됨으로써 파평 윤씨 가문과 겹사돈을 맺게 되었다. 윤번은 그의 7녀가 후일 세조비 정희왕후가 되었다.

한확은 성종의 어머니가 되는 덕종비 소혜왕후 한씨(인수대비仁粹大妃)의 아버지로 그 딸이 세종 서2남으로 신빈 김씨 소생인 계양군桂陽君과 혼인하였다. 계양군과 한확은 모두 수양대군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각각 좌익공신 1등에 오른 인물이다.

윤삼산과 사돈인 함녕군은 신빈 신씨 소생이며, 윤향의 아들로 윤삼산과 사촌

인 윤계동은 신빈 신씨 소생 정신옹주와 혼인하여 신빈 신씨와 겹사돈이다. 또 윤계동의 아들 윤삼원은 원주인原州人 변상동邊尙仝의 사위가 되었는데, 변상동은 또 그 아들 변효순邊孝順(1416~1457)이 태종 서녀 소선옹주昭善翁主(?~1456)와 혼인하여 유천위柔川尉에 봉해짐으로써 태종 부마가 되었다. 이 세 집안이 밀접한 혼인관계를 맺은 것을 알 수 있다.

윤희제의 묘는 적성에 있었다고 하나 실전失傳되었다. 윤사로의 묘는 장단부 장북면 대곡이다. 윤은의 묘는 신창 남도고산 둔내리이다. 아들 윤사로가 하사받은 전지가 신창이다.

윤삼산의 묘는 죽산 풍정리 (현재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산152)이다. 윤호의 묘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 2리 산132-1이다. 윤계동의 묘는 양주 무슬촌이다.

4) 윤승경 후손

윤승경은 윤척의 4남이다. 사위가 밀양인密陽人 박강생朴剛生이다. 윤승경에게 외손녀가 되는 박강생의 딸이 세종 후궁인 장의궁주莊懿宮主 박씨이다.

5) 윤승례 후손

윤척의 5남인 윤승례의 후손에서 조선 전기 왕실과 가장 많은 인척관계를 맺었다. 왕비 3명, 부마 2명, 후궁 1명이다.

우선 윤승례의 부인은 성여완成汝完(1309~1397)의 딸 창녕 성씨昌寧成氏이다. 성여완의 아들이 성석린成石璘 · 성석연成石珚이고, 성석연의 아들이 바로 성억成抑이다.

윤승례의 1남인 윤규尹珪의 손녀가 문종 후궁 소용 윤씨昭容尹氏이다. 윤승례의 2남 윤보로尹普老(1371~?)의 손자 두 명이 태종의 부마가 되었다. 윤보로의 적장손으로 윤수미尹須彌(1392~1441)의 아들 윤우尹愚가 태종 서7녀로 신빈 신씨 소생인 숙녕옹주淑寧翁主와 혼인하여 파성군坡城君에 봉해졌고, 윤보로의 2남 윤태산尹太山의 아들인 윤암尹巖은 태종 서9녀로 신빈 신씨 소생인 숙경옹주淑慶翁主와 혼인하여 파평군坡平君에 봉해졌다. 윤암은 세조 좌익 2등 공신에 봉해졌다.

1457년(세조 3)에는 사육신들과 함께 단종복위를 도모하다 죽은 김문기金文起의 옥천 전지를 하사받았다. 이듬해 1458년에는 좌익공신 교서를 받으면서 전지 100결과 노비 10구 등을 하사받았다.

윤승례의 4남 윤번尹璠(1384~1448)의 후손에서 3명의 왕비가 배출되었다. 우선 윤번의 7녀가 세조비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1418~1483)이다. 윤번의 부인은 이문화李文和(1358~1414)의 딸 인천 이씨仁川李氏이다.

윤번의 묘는 파주 교하 와초동, 현재 파주시 탄현면 당하리 산4-20에 있다. 윤번의 1남 윤사분尹士昐(1401~1471)은 1455년(세조 1) 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고, 1457년 2월 1일에 한명회 등과 함께 노비 30구를 하사받았는데 이 노비는 사육신 사건에 화를 당했던 자들의 것이었다. 3월 23일 윤사분은 영풍군永豊君 이전李铨과 임진성任進誠의 수원 전지를 하사받았다. 영풍군과 임진성도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어 화를 당한 사람들이다. 우의정에까지 올랐다.

윤번의 2남 윤사윤尹士昀(1409~?)의 증손녀가 중종 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이다. 윤사윤은 수양대군이 단종 보호 세력이던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한 계유정난에 참여하여 정난 2등 공신에 올라 전지 150결을 하사받았다.

윤사윤의 아들 윤보尹甫(?~1494)는 효령대군 이보李補의 손녀가 되는 영천군永川君 이정李定(1422~?)의 딸 전주 이씨와 혼인하였다. 윤보의 장남이 파원부원군坡原府院君 윤여필尹汝弼(1466~1555)이고, 윤여필의 부인은 박중선朴仲善(1435~1481)의 딸 순천 박씨順天朴氏이다. 윤여필의 장녀가 바로 중종 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1491~1515)이다. 1남은 대윤大尹으로 불리던 윤임尹任(1487~1545)이다.

윤번 묘

윤사윤 묘는 남양부 내 음덕리 곤원에 있다. 윤보의 묘는 파주 교하 와초동, 현재 윤번의 묘역 안에 있다. 윤여필의 묘도 파주 교하 와초동, 현재 윤번 묘역 안에 있다.

윤번의 3남 윤사흔尹士昕(1422~1485)의

현손녀가 중종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이다. 윤사흔은 1455년 세조 즉위 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1457년에는 설곡雪谷 정보鄭保의 적몰된 집을 하사받았다. 정보는 포은 정몽주의 손자이다.

윤사흔의 둘째 아들은 윤계겸尹繼謙(1442~1483)이다. 윤계겸의 1남 윤욱尹頊(1459~1485)은 정제鄭齊의 딸 연일 정씨(1460~1520)와 혼인하였다.

윤욱의 아들이 중종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아버지가 되는 파산부원군坡山府院君 윤지임尹之任(1475~1534)이다. 윤지임의 부인은 이덕숭李德崇의 딸 전의 이씨全義李氏로 전성부부인全城府夫人에 봉해졌다. 윤지임의 다섯째 아들이 윤원형尹元衡(?~1565)이다.

5. 예종비 · 성종비 청주 한씨 집안의 파주 경영

원조遠祖의 휘諱는 난蘭이니, 고려 태조를 보좌하여 삼한공신에 봉해졌다.

한명회의 큰할아버지는 한상환이다. 슬하에 딸 둘을 두었는데, 그 중 2녀가 여흥부원군 민제(1339~1408)의 2남 민무질과 혼인하였다. 민무질은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와 남매지간이다.

할아버지는 문열공文烈公 한상질(?~1400)이다. 고려 공양왕 때 예문관제학을 지냈고, 조선 태조 때 예문춘추관 대학사를 지냈다. 한명회에게 고모가 되는 한상질의 2녀가 파평군坡平君 윤곤尹坤(?~1422)과 혼인하였는데, 윤곤은 성종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의 증조부가 되는 인물이다.

한명회의 작은할아버지는 문간공文簡公 한상경韓尙敬(1360~1423)이다.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서원군西原君에 봉하여졌고 태종 때 영의정을 지냈다. 한상경의 손자인 한계미韓繼美의 부인은 세조비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언니가 되는 윤번尹璠의 딸 파평 윤씨이다. 그 후손에서 한기韓紀(1490~1558)가 나오는데, 그는 성종 후궁 귀인 정씨貴人鄭氏 소생인 정혜옹주靜惠翁主와 혼인하여 청명위淸明尉에 봉하여졌다.

한명회의 아버지는 한기韓起(1393~1429)이다. 어머니는 예문관대제학 이적李迹

한명회의 3녀이며 예종비 장순왕후 한씨의 능인 공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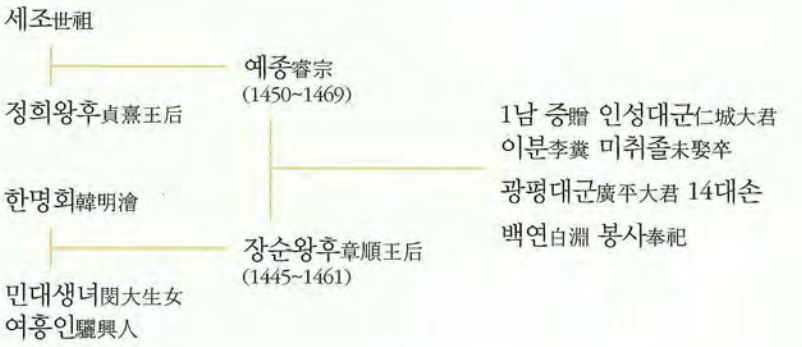
의 딸 여주 이씨驪州李氏이다.

한명회의 부인은 3명이다. 첫째 부인은 민대생閔大生(1372~ 1467)의 딸 여흥 민씨이다. 둘째 부인은 정종성鄭宗誠의 서녀 연일 정씨延日鄭氏이다. 정종성은 포은 정몽주의 1남이다. 셋째 부인은 이공조李功曹의 딸 전주 이씨이다. 슬하에 1남 4녀가 있다.

1남은 한보韓堡(1447~1522)이다. 1469년(예종 1) 낭성군琅城君에 봉해졌다. 1515년(중종 10)에 치사致仕하여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이훈李塤(1429~1481)의 딸 한산 이씨韓山李氏와 혼인하였다. 슬하에 6남 3녀를 두었는데, 1남 한경기韓景琦는 절의로 이름이 높은 남효온南孝溫 · 홍유손洪裕孫 등과 어울려 시를 읊었으며,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 할아버지 한명회의 행적을 수치스럽게 여겨 요직을 회피하고 한직에만 머물렀다. 3남 한경침韓景琛은 성종 후궁 귀인 엄씨貴人嚴氏 소생 공신옹주恭愼翁主와 혼인하여 청녕위淸寧尉에 봉하여졌다.

1녀는 고령군高靈君 신숙주(1417~1475)의 1남인 신주申澍(1435~1456)와 혼인하여 슬하에 세 아들을 두었다. 1남은 신종흡申從洽(1454~1505), 2남은 신종옥申從沃

(1455~1506), 3남은 삼괴당三魁堂 신종호申從濩(1456~1497)이다. 신종호의 아들은 신항申沆(1477~1507)으로 성종 후궁 숙의 홍씨淑儀洪氏 소생인 혜숙옹주惠淑翁主와 혼인하여 고원위高原尉에 봉하여졌다. 2녀는 영천위鈴川尉 윤사로尹師路(1423~1463)의 아들 윤반尹磻과 혼인하였다. 윤사로는 세종 서1녀 정현옹주貞顯翁主(?~1480)와 혼인하여 세종의 부마가 되었다. 3녀는 예종비 장순왕후章順王后(1445~1461)로 원손을 낳은 뒤 병으로 돌아갔다. 1남 인성대군仁城大君 이분李糞(1461~1463)을 두었는데 일찍 졸했다. 성종비 공혜왕후恭惠王后(1456~1474)의 언니가 된다. 능은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삼릉三陵에 있는 공릉恭陵이다.



한명회에게 모두 네 딸이 있었는데, 셋째와 넷째가 왕비가 되었다. 그러나 두 왕비 모두 일찍 졸하였고, 장순왕후는 1남 인성대군을 낳았으나 요절하였다.

4녀는 성종비 공혜왕후恭惠王后(1456~1474)이다. 슬하에 자녀가 없다. 한명회의 3녀와 4녀가 각각 예종비와 성종비가 되니 숙부와 조카 사이인 예종과 성종은 서로 동서간이 되고 한명회는 두 임금의 처부妻父가 되었다. 능은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삼릉에 있는 순릉順陵이다.

덕종德宗

성종成宗
(1457~1494)

소혜왕후昭惠王后

무사無嗣

한명회

공혜왕후恭惠王后
(1456~1474)

민대생녀

한명회의 4녀이며 성종비 공혜왕후 한씨의 능인 순릉

양반 사족의 파주 경영

1. 장수 황씨 황희 집안의 파주 경영

황희黃喜(1363~1452)의 조부 황균비黃均庇의 묘는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에 있다. 황희의 아버지 황군서黃君瑞의 묘는 장단에 있고, 어머니 용궁 김씨龍宮金氏의 묘는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있다.

황희의 첫째 부인은 최안崔安의 딸이고, 둘째 부인은 양천진楊天震의 딸 청주 양씨淸州楊氏이다. 슬하에 모두 4남 2녀를 두었다.

1남 황치신黃致身은 김기金淇의 딸 상주 김씨尙州金氏를 첫째 부인으로 맞이하였고, 둘째 부인은 황상黃象의 딸 평해 황씨平海黃氏이다. 황치신의 묘와 신도비神道碑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다. 첫째 부인의 묘는 파주 교하 금승리에 있다고 한다.

2남 황보신黃保身은 홍여강洪汝剛의 딸 남양 홍씨와 혼인하였다. 황보신의 묘는 상주에 있다고 하고, 후손들이 이로부터 상주에 세거하였다고 한다. 3남 황수신黃守身은 김준덕金俊德의 딸 일선 김씨一善金氏와 혼인하였다. 황수신의 묘는 파주 금승리에 있다.

황희는 개성부 가조리에서 태어났다. 황희가 졸하자 문종은 사방 십리의 땅을 사패하였다고 한다. 황희의 묘는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산1번지에 있다.

황희 선생 신도비

2. 창녕 성씨 성수침과 성혼 집안의 파주 경영

창녕 성씨昌寧成氏 5세 성여완成汝完(1309~1397)은 나천부羅天富의 딸 경안택주慶安宅主 금성 나씨錦城羅氏와 혼인하였다. 묘는 포천군 신북면 고일리 산24에 있다. 성여완의 첫째 아들 성석린成石

璘의 묘도 바로 옆에 있다.

성여완은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다. 1남은 성석린, 2남은 성석용成石瑢, 3남은 성석연成石珚, 4남은 성석번成石璠이며, 1녀는 파평 윤씨 윤승례와 혼인하였다.

1남 성석린은 안원승安元崇의 딸 순흥 안씨順興安氏와 혼인하였다.

2남 성석용은 김성리金成利의 딸 광산 김씨光山金氏와 혼인하였다. 묘는 미상이고 신단神壇이 파주 파평산에 있다고 한다. 성석용의 증손자가 사육신의 한 명인 성삼문이다.

3남 성석연은 유실柳實의 딸 서산 유씨瑞山柳氏와 혼인하였다. 묘는 과천 북면 문발산 아래에 있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산65에 있다. 성석연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1남 성엄의 후손에서 성봉조成奉祖와 성현成俔이 나온다. 2남 성억成抑의 후손에서는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과 우계牛溪 성혼成渾이 나온다.

성석연의 1남은 성엄成揜이다. 김약항金若恒의 딸 광산 김씨와 혼인하였다. 성엄의 둘째 아들이 성봉조이다. 성봉조는 윤번의 딸 파평 윤씨와 혼인하여 세조와 동서간이 되었다. 성엄의 묘는 과천 북면에 있었으나 1967년에 파주 문산읍 내포리로 이장하였다.

성석연의 2남은 성억成抑(1386~1448)이다. 성억의 첫째 부인은 안중로安仲老의 딸 죽산 안씨竹山安氏이고, 둘째 부인은 홍지洪智의 딸 남양 홍씨이다. 5대손이 우계 성혼이다. 성억의 묘는 고양시 대자동에 있다.

성석연의 3남 성급成扱은 한상질의 딸 청주 한씨와 혼인하였다. 한상질은 바로 한명회의 할아버지가 되는 인물이다.

창녕 성씨 중에서 성여완의 후손들이 주로 파주에 거주하게 되었다. 성여완과 그 1남 성석린의 묘는 포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까지는 포천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성여완의 2남인 성석용의 집안에서는 아들 성달생成達生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달생의 아들인 성승成勝과 성삼문은 홍주에 있는 것으로 보아 파주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승의 처부가 되는 박첨朴襜의 묘가 바로 홍주에 있고, 성승의 묘는 바로 그 옆에 있다고 하니, 성승은 처가가 있는 홍주에 거주하였던 듯하다.

성여완의 3남 성석연의 집안에서는 1남 성엄의 첫째 아들 성염조成念祖의 묘

가 파주 문산에 있고, 그의 아들들인 성임成任과 성현成俔의 묘도 문산에 있는 것으로 보아 성염조부터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엄의 묘는 처음에 과천에 있다가 1967년에 파주 문산읍으로 이장하였다.

성석연의 2남 성억의 묘는 고양 대자동에 있는데, 그의 사위가 되는 태종 4남 성녕대군의 묘도 바로 대자동에 있다.

성여완 집안은 파평 윤씨 윤번 집안과 겹사돈을 맺었다. 우선 성여완의 딸이 윤승례와 혼인하여 윤번을 낳았다. 그래서 성여완은 윤번의 외조外祖가 된다. 윤번은 또 성엄의 아들 성봉조를 사위로 맞이하였으니, 성봉조는 성여완의 증손자가 되는 인물이다. 대를 이어 파평 윤씨와 창녕 성씨가 사돈을 맺은 것이다. 윤번은 자신의 7녀가 세종 2남 수양대군(훗날의 세조)과 혼인하여 후일 정희왕후(1418~1483)가 되었기에 자신은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에 추증되었다.

성억의 아들 성득식成得識의 묘는 고양 원당면 왕릉동에 있다고 한다. 그 아들 성충달成忠達의 묘도 근처에 있다고 한다. 성충달의 넷째 아들 성세순成世純의 묘는 파주 칠정면七井面(현재 파주읍) 향양리向陽里에 있다고 하니, 아마 성세순 때부터 파주에 입향한 듯하다.

성세순은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다. 1남 성수근成守瑾은 이수李粹의 딸 전주 이씨와 혼인하였다.

2남 성수침成守琛은 윤사원尹士元의 딸 파평 윤씨와 혼인하였다. 윤사원은 윤삼산尹三山(1406~1457)의 손자로 아버지는 윤해尹垓이다. 윤해의 바로 위 형이 성종 계비 정현왕후의 아버지 영원부원군鈴原府院君 윤호尹壕(1424~1496)이다. 따라서 정현왕후와 윤해는 사촌남매간이 되니, 성수침은 정현왕후의 사촌조카사위가 되는 것이다. 성수침의 아들이 우계 성혼이다. 성수침의

우계 성혼을 모신 사당

묘는 아버지 성세순의 묘가 있는 향양리에 있다고 한다.

3남은 성수종成守琮, 4남은 성수영成守瑛이다. 1녀는 재령 이씨載寧李氏 이은우李殷雨와 혼인하였다.

청송 성수침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1남 성혼成渾은 신량申樑의 딸 고령 신씨高靈申氏와 혼인하였다. 묘는 아버지 성수침의 묘 뒤에 있다고 한다. 현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산8-1에 있다. 1녀는 여흥 민씨 민사도閔思道와 혼인하였다.

성혼은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1남은 성문준成文濬이며 2남은 성문잠成文潛이다. 1녀는 함열인咸悅人 남궁명南宮鶠과 혼인하였다. 2녀는 파평 윤씨 윤황尹煌(1571~1639)과 혼인하였다. 팔송八松 윤황은 바로 명재明齋 윤증尹拯(1629~1714)의 할아버지이니, 성혼 집안은 윤증의 진외가가 되는 것이다. 윤황과 그의 처조모가 되는 윤해의 딸 파평 윤씨는 둘 다 윤곤尹坤의 후손이다. 윤곤의 둘째 아들 윤희제尹希齊의 7대손이 윤황이고, 윤희제의 동생 윤삼산의 증손녀가 바로 성수침의 부인이자 윤황의 처조모이다.

윤황은 파평 윤씨 중에서도 이른바 충청도 노성현에 세거했던 '노종오방파魯宗五房派'에 속하는 집안이다. 윤황의 집안이 충청도 노성현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윤황의 조부가 되는 윤돈尹暾(1519~1577) 때부터였고, 윤황의 아버지 윤창세尹昌世는 충청도 광석과 서울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윤황이 성혼의 사위가 된 것은 아마도 윤창세가 서울에 거주할 당시 윤황이 태어나 성혼의 문인이 되었고, 성혼이 그를 매우 아꼈기 때문일 것이다.

3. 덕수 이씨 율곡 이이 집안의 파주 경영

덕수 이씨德水李氏는 고려 중랑장中郎將을 지낸 이돈수李敦守를 시조로 하고 있다. 시조인 이돈수와 2세인 이양준李陽俊의 묘는 실전失傳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3세인 이소李劭의 묘와 4세인 이윤운李允耘과 5세인 이천선李千善도 마찬가지로 개풍군開豐郡(현재 개성시 판문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신(1392~1459)의 조부가 되는 이인범李仁範의 묘는 실전되었고, 아버지 이양李揚의 묘는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명신의 묘는 원래 파주시 임진면 사목리에 있었으나, 1963년에 그의 처부 청원군 심종의 묘 아래에 이장하였다. 『청송심씨족보』에 의하면 사위 이명신의 묘가 바로 그 앞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종의 묘는 현재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에 위치하고 있다. 아마 이명신의 묘는 원래부터 처부인 심종의 묘 근처인 듯하고, 그 아버지 이양의 묘는 원래 파주가 아닌데, 이명신이 심종의 사위가 된 후 파주로 이장했을 수도 있다.

이명신의 처부는 심종(?~1418)이다. 심종은 심덕부의 여섯째 아들로 그의 바로 위 형이 세종 왕비 소헌왕후 심씨의 아버지가 되는 청천부원군 심온이다. 심종은 태조의 2녀인 경선궁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었고 청원군青原君에 봉해졌다. 심종은 슬하에 외동딸밖에 없었기에 사위 이명신의 후손들이 외손봉사하였다.

율곡 이이 선생 묘역 전경

이명신은 율곡 이이(1536~1584)의 5대조이다.

이명신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1남은 이추李抽(1417~1463)이다. 윤소종尹紹宗(1345~1393)의 손녀가 되는 대제학 윤회尹淮(1380~1436)의 딸 무송 윤씨茂松尹氏와 혼인하였다. 이추의 묘는 그 아버지 이명신의 묘 아래에 있다. 1녀는 언양 김씨彦陽金氏 김경장金慶長과 혼인하였다.

이추는 슬하에 7남 5녀를 두었는데, 그 중 둘째 아들인 이의석李義碩의 후손에서 율곡 이이가 나온다. 이의석(1440~1498)은 문헌공文憲公 최충崔冲(984~1068)의 후손인 최만리崔萬理(?~1445)의 딸 해주 최씨海州崔氏와 혼인하였다. 최만리는 세종 때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을 지낸 인물이다. 따라서 율곡 이이는 최만리의 외예外裔가 되는 것이다. 이의석의 묘는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에 있다.

이의석의 넷째 아들 이천李蕆(1483~1506)은 홍귀손洪貴孫의 딸 남양 홍씨와 혼인하여 이원수李元秀(1501~1561)를 낳았다. 이천의 묘는 파주 율곡리에 있다.

이원수가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명인 신명화申命和의 딸 사임당師任堂 평산 신씨平山申氏(1504~1551)와 혼인하여 슬하에 4남 3녀를 두었는데, 셋째 아들이 바로 율곡 이이다. 이원수의 묘는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자운산에 있다. 율곡 이이의 묘도 자운산에 있다. 현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이다.

선조 · 광해군 대의 풍수사상과 교하천도론

오석민_충청남도역사박물관 관장

풍수설의 도입과 교하천도론

최근 들어서 우리의 전통 지리사상인 풍수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풍수지리설은 지금까지도 일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풍수이론의 시대적 변화상에 대한 학술적 관심보다는 좋은 땅을 택하는 데에 더 관심이 큰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지금까지도 일반의 관심은 대부분 후손의 길흉화복을 위하여 묘역을 선택하는 선에서 그친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치적 변혁기에 풍수지리설이 미친 영향은 결코 간과하기 어렵다. 때로는 수도를 옮기는 천도론으로 비화하였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풍수의 논리가 등장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풍수이론 또한 여느 사상체계와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뀐다는 점이다. 풍수설의 태동지였던 중국에서도 동진東晋의 곽박郭璞 이후 후대에 크게 두 계파로 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계파는 복건 지방의 종묘지법宗廟之法으로서 성괘星卦를 중시하며, 송나라 때 왕급王伋에 이르러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강서江西 지방을 중심으로 하

는 강서지법江西之法에서는 형세形勢를 중요시하는데, 당나라의 양균송楊筠松과 증문천曾文辿에서 비롯되어 진희이陳希夷 · 뇌문준賴文俊 · 일행一行 등에 의하여 정교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가운데 현재 한국 풍수사에서는 조선왕조 개창 직후 호순신胡舜申의 풍수이론을 도입하면서 천도론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계룡산으로 천도하려던 계획은 하륜河崙(1347~1416)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당시 하륜은 계룡산 위치가 남쪽에 치우쳐 있고, 아울러 호순신의 풍수논리에 따르면 수파水破가 장생위長生位에 해당되어 쇠패衰敗가 닥치는 땅이라 하여 반대하였다. 이를 계기로 호순신의 『지리신서地理新書』가 간행 반포되었고, 아울러 하륜이 고려왕조의 서운관書雲觀에 저장된 비록문서秘錄文書를 모두 살피고, 또한 새로운 도읍지를 다시 살피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12월 11일 임오) 이와 같은 결정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풍수가들은 수파와 방위를 중요시한다. "고려조에는 수파를 따지지 않았는데, 송나라 호순신의 풍수설을 받아들이면서 수파를 논하게 되었다고 한다"는 『선조실록』(권127, 선조 33년 7월 26일 정묘)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지적처럼 호순신 이후 우리나라 풍수에서 방위를 중시하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명종 때의 풍수가 남사고南師古의 저술 또한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임진왜란 때 입국한 중국 병사를 통하여 소개된 풍수설에 비할 바는 아니다. 선조가 자문을 구하면서 시작된 논의에 대하여, 중국의 술사가 중국 송나라 장자미張子微가 저술한 풍수서 『옥수진경玉髓眞經』을 거론하였고, 광해군 때에 이르러 그 풍수설에 경도된 이의신 등의 술가는 교하로 천도할 계획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정치적 격변기에 현 파주시 지역이 새로운 수도로 지목되면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물론 천도론은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논의에서는 임진왜란과 함께 소개된 새로운 풍수설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광해조에 추진된 교하천도론의 제기 과정과 그

여파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조조 명나라 풍수설의 도입과정

퇴율退栗의 등장으로 특징지어지는 조선 선조조는 또한 풍수설과 관련해서도 격동의 시기였다. 그 계기는 선조 스스로 명나라 군사 출신의 술사들(유원외劉員外 · 섭정국葉靖國 · 이문통李文通)에게 풍수설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선조실록』을 보면, 이와 관련한 첫 기사는 1593년(선조 26) 정월 3일에 선조가 명나라 병사 유원외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8월에 국가의 도읍지와 나라 전체의 산세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더니, 마침내 공식적으로 명나라 군부대에 도읍지를 살펴서 정할 술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선조실록』 권41, 선조 26년 8월 8일 기축) 이에 이듬해 5월 윤근수尹根壽(1537~1616)는 중국인 술사 섭정국을 천거하였고, 선조를 만난 섭정국은 전의감典醫監 자리를 궁궐을 지을 장소로 지목하였다.(『선조실록』 권51, 선조 27년 5월 12일 기축, 5월 20일 정유, 6월 3일 경술) 며칠 후 선조는 다시 국도와 국가 전체, 아울러 평양의 지세를 묻고, 안주安州에서 인물들이 요절하는 까닭, 중국에서 호순신의 풍수설 채택 여부, 호순신의 수파설水破說과 장생설長生說을 따지는 여부 등을 물었다.(5월 23일 경자) 이후 섭정국은 더욱 활발한 활동상을 보였다. 이미 남대문 밖에 있는 관왕묘關王廟 외에 다른 관왕묘의 건립을 주장하여 성사시켰고(선조 31년 8월 16일 기사; 선조 32년 4월 29일 무인), 선조의 비妃 의인왕후懿仁王后의 능역陵域을 정하는 일에도 참여하였다.(선조 33년 7월 14일 을묘 이하) 그러나 같은 해 9월 섭정국이 명나라 군대를 따라 떠났다. 그리고 의인왕후의 능역 문제는 중국 당나라 때의 풍수가 이순풍李淳風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이문통이 맡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섭정국이 다시 입국하였고, 정구鄭逑 · 여우길呂祐吉 · 윤양尹暘 등이 이문통을 변호하면서 섭정국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문통과 관련하여 나경羅經이 소개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나경은 당나라의 이순풍과 일행一行 등에 의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풍수의 도구이다. 나경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도구는 윤도輪圖이다. (『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9월 21일 신유, 동 9월 23일 계해.)

선조는 다시 섭정국을 조정으로 불러들였다.(『선조실록』 권130, 선조 33년 10월 7일 정축, 10월 11일 신사, 10월 14일 갑신, 10월 15일 을유) 선조가 이렇게 섭정국을 비호하였던 탓인지, 도망한 중국 병사들이 대거 섭정국에게 기탁하였고, 스스로 조선군에게 진법陣法을 교습시키겠다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선조실록』 권130, 선조 33년 10월 11일 신사) 그러나 섭정국이 교습했던 진법의 허실이 드러난 것으로 기록되었고, 그는 단지 날씨나 점치는 술가術家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국 그를 중국으로 돌려보내라는 비변사의 건의에 따라 귀국하게 되었는데, 도중에 동료들에게 포박당하는 고초를 겪었다.(『선조실록』 권130, 선조 33년 10월 18일 무자, 10월 19일 기축, 권132, 12월 4일 계유, 권137, 선조 34년 5월 16일 계축)

결과적으로 섭정국의 풍수설을 둘러싼 논란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술가들이 기세를 떨치는 결과를 낳았으며, 나아가 광해조에는 일부 술가들이 천도론 및 신궐창건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천도론을 제기했던 이의신李懿信은 윤근수와 함께 섭정국의 풍수설을 들은 바가 있는데, 광해군이 바로 이의신을 중용하였던 것이다.(『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6일 정묘, 『광해군일기』 권59, 광해군 4년 11월 29일 기미, 권144, 11년 9월 1일 경진)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선조가 호순신의 수파장생설水破長生說을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수파장생설이란 바로 조선 개국 당시 계룡산 천도를 철회시킨 논리였다. 이에 대하여 해평부원군 윤근수가 3차에 걸쳐 올린 글에 그 요체가 잘 나타나 있다. 그가 세 번째 올린 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수파에 대한 설은 '호순신'에 가장 자세히 갖추어 있는데, 그 설에 '탐랑貪狼·무곡武曲은 길한 방위이므로, 물은 의당 이 방위로부터 와야 하고 이 방위로 빠져 수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녹존祿存·염정廉貞·문곡文曲은 흉한 방위이므로 물은 의당 이 방위로 빠져 수파가 되어야 하고 이 방위로부터 오는 것은 안 된다. 필弼·거巨·보輔 세 방위는 마치 왕명을 출납하는 신하와 같기 때문에 물이 오고 가는 것이 모두 좋고, 파군破軍은 흉한 방위이며

또 모든 물건을 거두어 쌓아두는 방위이기 때문에 물이 오고 가는 것이 모두 불길하다' 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호순신의 뜻은, 물은 마땅히 길한 방위로부터 와서 흉한 방위로 빠져 수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섭정국은 하사下砂의 산세가 수구를 잘 감싸서 돌면 물이 비록 탐랑 · 무곡의 길한 방위 또는 거두어 쌓아두는 파군의 방위로 빠져 수파가 되어도 길하게 되고, 만약 혈상穴上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이 바라보여 물줄기를 감싸 돌지 않으면 비록 녹존 · 염정 · 문곡 등의 흉한 방위로 물이 빠져 수파가 되더라도 불길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 하였다.(『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6일 정묘)

임금이 비망기에 친히 써서 답하기를, "… 이제 남은 것은 단지 이호민네 묘산인데, 그곳은 쌍분雙墳을 할 수 없고, '꽃이 피었다가 일찍 시드는 형국으로서 장사를 지낸 뒤에 국가의 재정이 마르고 백성들은 곤궁해진다' 는 설이 있다 하니, 역시 길지吉地는 아니다. 또 듣건대, 그 곁에 두 개의 혈이 있는데 민씨閔氏 집안의 산은 장생수파長生水破라서 우리나라에서 꺼리는 바이고, 봉성군鳳城君의 산은 이문통이 흉하다 하였다니, 훗날이라도 이 두 곳은 모두 쓰기가 어렵다. … 그러나 아쉬운 대로 이호민네 묘산으로 자리를 정해 여러 가지 일들을 속히 거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겠는가?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선조실록』 권130, 선조 33년 10월 11일 신사)

위의 기사들에서는 풍수설과 관련한 일련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우선 중국에서 호순신의 설, 특히 수파가 장생의 방위일 때 꺼리는 여부가 논의되었는데, 이 논의는 같은 해 7월 25일 병인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그러함에도 의인왕후의 산릉山陵은 장생수파를 피하여 결정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선조의 원래 의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조가 섭정국 등의 풍수설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면에는 명나라 천수산天壽山이나 고려조의 만수산萬壽山처럼 하나의 산을 정하여 여러 대에 걸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조선왕조 개창과 함께 공식적으로 채택된 호순신의

풍수설을 교체하려는 의도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중국 천수산의 장제葬制는 1595년(선조 28) 중국 사신이 제안한 것이었다.(『선조실록』 권64, 선조 28년 6월 24일 을축) 이에 따라 조정에서 논란이 가해졌는데 당시의 논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임금이 이르기를, "… 중국의 천수산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고 그 장제 또한 알 수 없으나, 역대 2백 년 동안 모두 이 산에 장례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수파가 비록 좋더라도 연운年運이 불길하면 쓰지 아니하므로, 각기 능을 차지하여 기내畿內에 널려 있다. … 내 생각에는 이번 산릉의 일을 계기로 하나의 큰 산을 얻는다면, 비록 천수산의 제도와는 같지 못하여 몇 대밖에 못 쓴다 하더라도 오히려 산릉을 각기 정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 하였다.
>
> 이항복이 아뢰기를, "사가에서는 윗대의 조상을 모처에 장례하면 그 자손은 길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그 곁에 장례하는데, 지관에게 문의하니, 선조가 만약 길지에 묻히면 자손은 그 남은 음덕을 입어 체백體魄도 안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장國葬은 반드시 정혈을 가려서 쓰는데, 이미 정혈을 하면 청룡·백호의 방위가 자연 분리되기 때문에 후에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제도는 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 대를 같은 산에 장례합니다" 하였다. 이헌국李憲國(1525~1602)은 아뢰기를, "중국뿐만 아니라 송경松京의 제도 또한 그러한데, 만월대滿月臺와 남대문 밖의 일정한 곳에 모두 장례하였습니다" 하였다. … 한준겸韓浚謙(1557~1627)은 아뢰기를, "한 산에 같이 쓰라고 하신 하교는 실로 우리나라가 평소 하고자 하면서도 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 여러 능을 두루 간심하여 쓸 만한 곳을 선택해서 국가에서 쓸 용도로 등록해 만세의 계책을 삼으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박상의朴尙毅는 아뢰기를, "이는 여염에서 일찍부터 강론하던 일입니다. 임금께서 천수산의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만약 한때의 논의로 그치고 말게 되면 후에 근거할 데가 없을 것이니, 글로 기록하여 후세로 하여금 준행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6일 정묘)

이후에도 논란은 거듭되었고, 결국 선조의 의지가 관철되어 의인왕후 박씨의 능역은 건원릉 서쪽 능선으로 결정되었다.(『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9일 기유) 이와 관련한 기록은 임금의 의견에 적극 동조했던 백사 이항복의 문집에 상세하다.

>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해당 관원 및 술관術官들과 함께 가서 건원릉의 새로 잡은 세 언덕을 살폈습니다. … 대체로 이 산의 모양새가 그리 높고 크지는 않으나, 지맥으로 나누어 갈라져서 각각 명당의 국면을 이루었는데, 언덕마다 편평하고 바르며, 면面마다 깊고 그윽하며, 조산朝山을 빙 둘러 에워쌌고 청룡과 백호는 공손하게 읍揖하는 형태를 갖추었으므로, 앉아서 이리저리 돌아보면 마치 겹겹이 둘러친 산중에 있는 것 같아서 사방 어디에도 텅 비고 뚝 꺼져 헤벌어진 땅이 없으니, 참으로 하늘이 만든 수산壽山이라 하겠습니다. 건국 초기 도읍을 정하던 처음에 명산을 두루 찾아서 누대에 걸쳐서 현궁玄宮으로 쓸 장소로 삼았던 그 뜻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세속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태조 3년에 태조가 신승神僧 무학無學을 데리고 친히 능침陵寢을 간심하여 누대를 쓸 수 있는 한 산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태종太宗 때의 신하 김경숙金敬叔이 쓴 『주관육익周官六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신들이 미처 이 글을 상고해 보지 못했으니, 비록 감히 믿을 만한 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소견으로 참작해 볼 때 낭설로 전한 말은 아닌 듯합니다. 지금 새로 잡은 세 언덕은 특히 날짜를 가림에 꺼릴 것이 없어서 금년과 명년에 쓸 만한 땅이니, 만일 후세까지도 날짜를 가리어 꺼릴 것이 없으면 쓸 만한 땅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중국 천수산千壽山의 예에 의거하여 누대에 전해 가면서 차례로 쓰려고 한다면 이곳 말고 다른 데서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신들의 소견을 아울러 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백사별집』 제2권 계사啓辭 16편 산릉심정계山陵審定啓)

이후 선조의 의도대로 한 국면에 여러 능역을 정하는 방식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장영훈은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2000)에서 "조선 왕조는 제11대 중

종 등극을 계기로 신하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 그런 상황에서도 제13대 명종까지는 당당한 적통성의 뿌리 때문에 왕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당당할 수 있었지만, 제14대 선조 때부터 방계 왕통 계승으로 이어지자 왕들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 서자 왕통인 제14대 선조 때부터는 신권들의 목소리에 밀려 왕릉들은 동구릉과 서오릉 · 서삼릉이라는 화소 지역 내에 자리매김질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현재 속칭 동구릉東九陵으로 불리는 능역에는 원래 있었던 건원릉 외에 문종이 모셔진 현릉이 있었을 뿐인데, 후에 여러 능원陵園이 들어서면서 속칭 동구릉으로 불리게 되었다. 서오릉西五陵 또한 덕종과 예종이 있었던 곳에 3위가 들어선 경우이다. 그러나 이는 선조의 의지와 그에 따른 풍수설에 대한 재검토의 결과이지, 결코 왕권의 약화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호순신의 풍수설을 혁파하였다는 선조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호순신의 풍수설이 폐기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선조가 호순신의 풍수설을 혁파하였다는 선언(『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9일 기유)은 파란을 일으켰다. 이수광李睟光(1563~1628)과 이정구李廷龜(1564~1635) 등의 문집에는 이와 관련한 글이 실려 있다. 스스로 한때 이의신에게 경도되었음을 자책하는 택당澤堂 이식李植(1584~1647)과 상촌象村 신흠申欽(1566~1628)의 지적은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해준다.

> 조종조祖宗朝에 고려시대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지리에 관한 서적들을 모조리 불태워 버리고는, 오직 청오靑烏와 금낭錦囊 등 10여 권의 책만을 남겨 관상감觀象監에서 학습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공사간에 모두 이것을 통용해 온 것이 거의 2백 년에 이르렀으니, 그 동안에는 세신거실世臣巨室에서도 모두 이를 성대히 떠받들며 서로들 이어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의신의 무리가 나오면서부터 중국 조정에서 방서들이 이루 셀 수도 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 방서들을 배우는 자들이 무더기로 나와 각자 명성을 드날리게 되었고, 사대부들 역시 이것을 학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모두들 새로운 방서에

만 의지하여 일을 행하였을 뿐, 관상감의 서책은 다시 찾지 않았으므로, 관상감의 관원은 감히 묘산墓山을 택하는 데에 참여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서울과 지방의 사서士庶들이 더욱 심하게 풍수를 맹신한 나머지, … 송사를 서로 일으켜 다투기에 이르렀다. … 나도 처음에 산을 정할 적에는 그 방서를 좋아하고 그 술사를 좋아하면서 지극히 경도되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와서 과거의 일을 떠올려 보건대, 그 술사나 그 방서가 잘못된 점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다.(『택당집澤堂集』 권11, 지志 계산지啓山志 풍수험응설風水驗應說)

우리나라는 지리에 대해 오로지 호순신의 법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전에 조종조의 실록을 보았는데, 태종 초년에 하륜이 정권을 잡아 국局을 세우고 관원을 두어 풍수에 관한 글들을 교정하면서 하륜 스스로 총 책임을 맡았다. 그리하여 다른 방술은 모두 버리고 호순신의 방술만 숭상하여 썼으므로 영구히 정해진 법제가 되어 지금까지 폐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간에 땅을 살피거나 생도들이 강론하고 익힐 때에 모두 이 책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또 『옥수진경』이란 책이 있는데 오행을 산의 형세에다 배정排定하여 길흉을 점치는 것이다. 세상에서 이 책은 채원정蔡元定이 지은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실은 그가 지은 것이 아니다. 그 법은 호순신의 것과 조금 다르나 워낙 방대하여 핵심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통한 자가 적다. 근래 수십 년 동안 사대부들 사이에 대부분 풍수설에 미혹되어 묘소를 옮기는 자들이 매우 많아졌다.

임진왜란 당시 섭정국 등에 의하여 소개된 풍수서 『옥수진경』 등이 미친 여파는 다만 일반 사대부에게 폐해를 낳는 선에 그치지 않았다. 광해조에 이르러 북인의 거두 내암來庵 정인홍鄭仁弘(1535~1623)이 풍수가 이의신 등을 비호하면서 천도론이 거론되는 등 파행적인 정국으로 가는 한 요인이 되었다.

광해조 천도론과 신궐창건

광해조의 천도론과 새로운 궁궐 창건과 관련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병도 박사의 선행 연구가 있다.(이병도, 1972) 여기에서 이병도 박사는 "이 시기 술가術家들이 말하는 왕기王氣(또는 旺氣)가 본래 천문점성가天文占星家의 용어이지만, 왕왕 지기地氣와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궁行宮을 지어서 때로 순행巡幸하겠다는 광해군의 의도가 고려시대 삼경순주三京巡駐·삼소순주三蘇巡駐와 같은 연기사상延基思想에 사로잡힌 것을 암시한다"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이병도 박사가 지적한 바처럼, 이의신의 천도론의 근거에는 한양의 지덕地德이 쇠했으므로 다른 곳으로 왕도를 옮겨야 한다는 연기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천도론이 기본적으로 혼란기에 흔히 나타나는 병폐라는 상식 수준의 지적에 머물렀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문제는 천도의 근거로 이용된 논리의 성격이다.

광해조 천도론은 이의신·시문룡施文龍·성지性智 등이 주도하였다. 이의신은 윤근수를 따라 섭정국의 풍수설을 듣고 임금에게 전한 인물로서, 중국인 시문룡과 함께 신궐 창건을 주도하였다. 『광해군일기』에 의하면, 시문룡은 도망한 중국의 병사로, 정인홍의 질녀와 혼인하고, 정인홍의 천거로 경복궁 내·외전內外殿의 좌향을 잡는 등의 일에 종사하고, 목릉穆陵·유릉裕陵·성릉成陵의 형세를 살폈으며, 인왕산 아래에 새로운 궁궐을 짓는 일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대동야승』 권64, 「혼정편록混定編錄」 7에 의하면 정인홍은 경상도 합천군의 사족 장함張涵의 딸을 시문룡과 혼인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성지는 단지 경상도의 승려라고 전해질 뿐, 더 이상의 기록이 없다.(『광해군일기』 권139, 광해군 11년 4월 25일 무인)

이의신의 논리는 도성의 왕기가 쇠하였으므로 교하현의 길지로 옮겨서 순행巡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제21권의 「폐주 광해군 고사본말廢主光海君故事本末」에는 『월사남궁록』을 인용하여 이의신이 "임진년 병

란과 역적의 변이 잇달아 일어나고 조정 신하들이 파가 나누어지고 사방의 산이 벌거숭이가 된 것들을 한양의 땅 기운이 쇠진한 이유라 하며 교하로 옮기기를 청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병도가 지적했던 대로 순행을 한다는 점은 고려 후기 삼소제三蘇制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특히 『연려실기술』 제21권의 「폐주 광해군 고사본말」 등의 기록처럼, 교하에 이궁離宮을 지으려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당시 양사兩司에서 "교하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배후에 높은 산이 없는 저습沮濕한 곳"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산골의 궁벽한 곳을 삼소로 지목한 고려조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의신 등에 의하여 제기된 천도론은 예조판서 월사月沙 이정구 등의 격렬한 비판에 부딪히면서 철회되었고, 이의신 또한 파직당하기까지 하였다.

『광해군일기』 권62, 광해군 5년 정월 3일의 기사를 보면 임금이 비변사에 현지를 답사하여 지도를 그려 올리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그 이후 기록을 살펴보아도 지도를 그려 올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결국 천도론을 주창했던 이의신 등이 교하 현지를 개인적으로 답사하였을 수는 있으나,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때문인지 교하 일원에서 이의신 등이 새로운 도읍으로 지목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도읍으로 지목됐던 장소를 확인할 길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 살펴보게 될 『두사총비결杜師聰秘訣』 등의 풍수 답사서에는 일부 교하현의 명당을 지목한 경우가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계열의 풍수 논리에 입각할 개연성도 크므로, 보다 상세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만 광해조 천도를 반대했던 중신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교하 지역은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저지대로, 최근까지도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는 고장이었으며, 이의신은 선조조에 이미 의인왕후의 능역을 범람 위험이 있는 곳으로 천거한 바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9월 18일 무오)

선조 · 광해조 풍수설의 성격

임진왜란 당시 등장한 풍수가들은 거의 공개적으로 선초 나라에서 채택한 호순신의 풍수설을 부정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해서 본고에서는 앞에서 이미 택당 이식과 상촌 신흠의 글을 살펴본 바가 있다. 그러나 왕조실록의 기록은 공식적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띤다. 우선 아래의 글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박자우朴子羽가 박상의朴尙義 · 이의신 및 술관術官들과 하루종일 논란하였으나, 결국 서로의 견해가 엇갈렸다. … 박상의는 '수파에 관한 설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그 설을 채용한다면 이 묏자리는 쓰기가 곤란할 듯하다' 하였고, 박자우의 주장도 대략 그와 같았습니다. 술관들은 '호순신의 법에서는 간혹 채용하지 않던 것을 오늘날에 와서는 쓰는 경우가 있으니, 임좌壬坐에 진방辰方으로 수파가 들었을 경우 으레 꺼리지 않는다' 하였고, 이의신은 '단지 그 산세의 향배向背만 따질 뿐 호순신의 수파에 대한 설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9월 1일 신축)
>
> 이의신이 답하기를 "『옥수진경』에 의하면, '이른바 백호란 지금 말하는 호虎가 아니라 곧 땅속에 있는 용신호두龍身虎頭의 위엄을 가진 무서운 신으로서 만약 그 자리를 침범하게 되면 문득 큰 화가 생긴다' …" 하였다.(『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2일 계해)

위의 기록을 보면 공식적인 논의의 자리에서조차 이미 호순신의 풍수설이 주도적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한 가운데 광해조를 대표하는 풍수가 이의신은 호순신의 수파에 관한 설을 적극 부정하였고, 『옥수진경』을 논리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위에서 이의신이 말한 '산세의 향배만 따질 뿐, 수파에는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선조조 중국인 풍수가 섭정국의 견해와 같다.(『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6일 정묘) 이의신은 오로지 『옥수진경』만

을 보았을 뿐, 다른 방서方書는 거의 보지 않았다는 기사도 있다.(『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6일 정묘) 결과적으로 광해조의 파란을 일으킨 이의신의 풍수설은 선조조 섭정국에 의하여 소개된 『옥수진경』의 논리인 셈이다.

『옥수진경』은 송나라 때 장자미張子微가 지은 책으로 『옥수경玉髓經』이라고도 한다. 현재 한국에는 서울대 규장각에 1627년 간행된 인쇄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널리 유포된 풍수서로 보기는 어렵다. 국내의 관찬 사료에서는 이의신 외에 『옥수진경』을 거론한 인물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옥수진경』은 명나라의 대표적인 풍수가 서선계徐善繼와 서선술徐善述 형제가 『인자수지人子須知』를 씀에 있어서 종종 인용할 정도로, 중국 풍수사에서는 비중이 높다. 예를 들자면, 『인자수지』의 혈성론穴星論은 장자미의 오성론五星論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스스로 밝힐 정도이다.(『인자수지』 권7, 논통서제신살지류論通書諸神煞之謬) 조선 후기 『인자수지』가 사대부에게 널리 읽혀졌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옥수진경』의 풍수설은 『인자수지』를 통하여 널리 유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광해조 이의신에 대한 임금의 신임은 각별하였다. 당시 광해군은 이의신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릉의 일을 늦출 정도였다.(『광해군일기』 권39, 광해군 3년 3월 16일 병진) 광해조 교하천도론에 이어서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었던 사건은 양궐 창건의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이첨의 사주에 따라 시문룡과 승려 성지性智가 인왕산 아래 두 곳과 새문동塞門洞 등 모두 세 곳에 새로운 궁궐을 창건하자는 논의를 제기하였고,(『광해군일기』 권101, 광해군 8년 3월 24일 갑오) 실제로 1616년(광해군 8) 봄에 영건도감營建都監을 설치하고 경덕慶德·자수慈壽·인경仁慶 등의 궁궐을 지었다. 그런데 『대동야승』에 수록된 「응천일록凝川日錄」에 의하면, 5월 16일 비망기에 "앞으로 궁궐을 영선할 일이 있으니, 이의신에게 군직軍職을 붙여 주어 관상감에 상시 출사케 하라"고 하고 있어서, 이의신에 대한 광해군의 신임이 결코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의신의 풍수 논리는 후대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의 『송자대전宋子大全』 제9권에는 1659년(현종 즉위년) 「판의금判義禁을 사직하고 겸하여 산릉山陵의 일에 대해 진달한 차자箚子」가 실려 있다. 이 글에서 우암은 건원릉을 추천하면서 "본조本朝의 지관으로 전에는 무학無學이 신안神眼으로 일컬어졌고

뒤에는 이의신과 박상의朴尙義가 그중에 가장 저명하였다"고 지목하고 있다.

사실 선조조는 풍수설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일대 격동의 시기였던 듯하다. 조정의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명나라 말엽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했던 풍수가와 그 계보를 잇는 저작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두사충杜師聰(또는 杜思忠)과 나학천羅鶴天이다. 몇몇 자료에는 중국인 술사 두사충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택당 이식의 「계산지啓山志」에 의하면, 택당이 부친의 묘를 백아곡白鴉谷으로 옮길 때, 이의신과 함께 항주인杭州人 두사충에게 지세를 물었고,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1627~1704)의 연보에는 중국인 두사충이 영해寧海를 지나다가 자줏빛 기운이 1장丈 높이로 솟는 것을 보고 이인異人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 「나학천변증설羅鶴天辨證說」에는 명나라 건주인建州人 나학천(羅學天으로 전해지기도 함)의 호가 봉안鳳眼인데, 난을 피하여 충청도 면천 고을에서 살면서 외삼촌인 두사충에게서 풍수술을 배웠고, 누구에게도 누설시키지 않은 채, 다만 같은 고을 박승선朴承先에게 전수하였으며, 박승선은 전에 평하였던 묘자리 500여 군데를 차례로 기록하여 난삼蘭三에게 전했는데, 난삼이 죽은 후 그 비법을 얻은 이가 널리 퍼뜨렸다고 하였다. 이 계열에 속하는 필사본 풍수서로는 『두사충비결』(서울대학교 규장각 奎12377), 『봉안비결鳳眼秘訣』(국립중앙도서관 古1493-35;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C09-0011), 『풍수록風水錄』(서울대학교 규장각 奎11636) 등이 전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정감록鄭鑑錄』류의 예언서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한편 필자는 2004년 『경기도사』에 수록한 「풍수도참사상과 경기도」라는 논고에서 오행五行을 방위에 배속하는 방식에서 풍수설의 계파마다 서로 차이가 있다고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앞의 인용문에는 각 계파마다 오행론의 차이가 있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백사별집』 제2권 계사 16편 산릉심정계)

> 다만 그 중 다섯째 등성이에 대해서는 박상의朴尙義가 말하기를, '세 등성이 가운데서 형세가 의당 제일이기는 하나, 유금酉金의 산에 수파水破가 을乙 방위의 땅에 있는데, 호순신의 풍수설로 본다면 을乙은 화火에 해당하므

*이하의 논의는 2007년 공주대학교 정신과학연구소에서 간행한 『풍수지리문화의 이해』에 실린 본인의 논고를 정리하였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좀고, 「풍수지리 고서의 분류와 해제」 참조.

로, 김여견金汝堅이 혹 사설邪說이 있는 듯하다고 논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전날 박자우朴子羽의 설과 같은 것이 있음을 염려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술관들은 모두 말하기를, '천지天地의 바른 방위로 말한다면 을乙은 원래 목木에 속하는데, 호순신만 유독 자子 다음의 방위로 하여 화火에 삼았는데, 그 형세가 왕성하지 못하여 유금酉金의 방위와는 저절로 서로 방해되지 않거니와, 더구나 호순신 또한 유금에 대해서는 을화乙火의 주기를 말하지 않았으니, 박자우의 논한 바가 유추類推의 설을 처음 만든 것일 뿐인데, 이것은 전에 이미 공파攻破하였으니, 결코 주기로 삼을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 답하기를, "호순신의 풍수법은 중국에서 이미 혁파했다고 하므로, 전일에 내가 이미 거론하지 말도록 하였으니,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 하였다.(『백사별집』 제2권 계사 16편 산릉심정계)

위 인용문에서 '천지天地의 바른 방위로 말한다면 을乙은 원래 목木에 속하는데, 호순신만 유독 자子 다음의 방위로 하여 화火에 삼았다' 는 지적은 풍수설의 오행론에서의 차이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사』의 논고에서 각 계파의 오행론을 정리하여 요약한 바가 있다.

[표1] 오행론 방위 비교

구분	胡舜申의 大五行	正五行	『名山論』(蔡成禹)의 五行
水	子寅甲辰巽申辛戌	子壬亥癸	子壬亥癸
火	乙丙午壬	丙午巳丁	丙午巳丁
木	艮卯巳	卯寅甲乙巽	卯寅甲乙
金	丁酉乾亥	申酉辛庚乾	申酉辛庚
土	未坤庚癸丑	辰戌未丑艮坤	辰戌未丑艮坤乾巽

未坤 : 음영색의 글씨는 오행 배속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임
* 대오행 : 『지리신서』 卷上 五山圖式
정오행 : 『인자수지』 第三十二 辨證諸家星卦之非 論宗廟水法之謬

정오행과 대오행의 논쟁은 풍수설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소위 '멸만경滅蠻經' 논쟁, 즉 당나라 일행선사一行禪師가 오랑캐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지어낸 논

리라는 주장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관심의 초점은 방위를 살피는 술법으로 활용되는 풍수설의 오행론이 유행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중국에서도 산악이 발달하여 산의 흐름으로 형세를 파악하는 형세파가 득세한 화북 지방과는 달리, 평지가 발달한 강남 지방에서는 천문학적인 성괘를 중시하고 오행 등에 입각하여 방위를 살피는 술법, 즉 종묘지법이 발달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조선 태종조 하륜에 의하여 호순신의 『지리신서』가 정론으로 채택된 이후, 이기론적 풍수설이 영향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기론적 풍수란 다름 아닌 종묘지법의 다른 이름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산악이 발달하였다고는 하나, 후대로 갈수록 해택海澤을 비롯한 저습지의 개간을 통하여 거주 지역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풍수설의 교체는 자연스러운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풍수설에 따라 저습지를 명당으로 지목하는 일도 당연한 추세라 판단된다.

그런데 선조 · 광해조에 새로운 풍수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위를 살피는 오행론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된 것이다.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장자미의 『옥수진경』이 호순신의 『지리신서』를 대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옥수진경』을 중시한 광해조의 이의신이 몰락하면서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후대까지도 우암 송시열이 거론할 정도로 이의신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 후기 명나라 서선계 형제의 『인자수지』가 애독되면서 『옥수진경』류의 오행론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듯하다. 특정 계파의 논리 내에서 견해가 갈림은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후 현재까지의 풍수설의 전개과정을 짚어보면 오행론은 더욱 정교해지는 추세를 보인다.

교하천도론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된다. 조선 후기 파주 지역에 조성된 인조의 장릉長陵과 그리고 순조의 인릉仁陵이 있었던 탄현면 갈현리 등의 능원陵園은 풍수설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다. 특히 탄현면에 있었던 인릉의 경우, 홍수 때 갈게가 능 위에 올라 구멍을 낼 수도 있는 범람 위험 지역에 능역을 정했다가 불과 22년 만에 능역을 옮겼다는 사실은 산 능선을 택하여 묘역을 정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넘는다.

교하천도론과 왕실 능원 선택의 변화를 보는 시각

경기만에 위치하여 한양으로 향하는 물길 초입에 위치한 교하 지역이 조선 광해조에 이르러 중앙 정치의 관심 지역으로 갑자기 부각되었다. 북인의 영수였던 정인홍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의신을 중심으로 하는 풍수가들이 교하를 새로운 도읍지로 지목하였기 때문이다. 도읍을 옮기려는 시도는 흔히 풍수설의 교체와 맞물려 있는데, 교하천도론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 계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선조조에 임금이 중국 출신의 술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촉발되었다. 1593년 나라의 새로운 도읍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다가, 급기야 명나라 군대에서 풍수가를 초청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윤근수에 의하여 섭정국이 천거되었고, 새로이 궁궐을 지을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후 섭정국은 1600년에 이르기까지 의인왕후의 능역을 정하는 데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가운데 풍수설의 동향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태종조 이래 풍수 정론으로 중시되었던 호순신의 『지리신서』에 대한 평가, 특히 그 가운데서도 선초 계룡산 천도론을 무산시켰던 '수파장생론水破長生論'에 대한 논란이었다.

왕조실록의 기사에 의하면, 이 당시 선조가 풍수에 관하여 자문을 구한 배경은 다른 곳에 있었다. 풍수설에 따라 능원을 정하는 관계로 적당한 지역을 고르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중국 천수산의 예에 따라 큰 산을 정하여 여러 대에 걸쳐 능역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었다. 이에 따라 능역을 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호순신의 수파장생에 검토가 있었고, 윤근수의 천거를 받은 중국인 섭정국이 『옥수진경』이라는 새로운 풍수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호순신의 풍수설이 임금에 의하여 폐기되는 등의 논란 끝에 풍수설의 공식적인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논란은 광해조로 이어져 북인의 영수 정인홍 등의 지원을 받은 이의신 등에 의하여 교하천도론이 제기되었다. 월사 이정구, 택당 이식, 백사 이항복 등의 반대로 천도론이 좌절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사대부들이 묘역을 옮기는 등 사회적 여파는 적지 않았다.

당시 풍수설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면, 호순신의 수파장생론의 적용 여부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수파를 논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오행론의 적용방식 자체가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순신 이후 이기론적 풍수설이 득세하기 시작하였던바, 이기론적 풍수라 함은 중국 종묘파의 풍수설의 계보에 속하는 풍수의 논리이다. 종묘파의 풍수설은 산악이 발달하여 산세를 살펴 명당을 찾는 화북 지방에서 발달한 형세파의 풍수설과는 달리, 평지가 넓게 발달한 강남 지방에서 방위를 통하여 명당을 찾는 술법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기 풍수론의 확산은 조선 후기 저지대로의 거주지 확산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하다.

선조 · 광해조 풍수설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섭정국에 의한 『옥수진경』의 도입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다. 앞에서 상촌 신흠의 인용문에서 밝혔듯이 '이의신의 무리가 나오면서부터 중국의 많은 방서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배운 풍수가들이 활동하면서 관상감의 풍수서가 쓸모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실제로 나학천-두사충으로 이어지는 충청도 면천 지역에서 활동했던 명나라 출신 풍수가의 계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 후기 사대부가에서는 명나라 서선계 형제가 저술한 『인자수지』 등의 풍수서가 많이 읽혔다. 이와 함께 공식적으로는 선조에 의하여 호순신의 풍수설이 폐기되었음도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광해조 이후 왕실 능원의 선택은 그 이전과는 다른 논리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교하천도론은 이러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던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덧붙여서 현 파주시 일원에 조성된 조선 후기 능원들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과제임을 지적해 두고 싶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박정현, 「응천일록凝川日錄」

송시열, 『송자대전』

신흠, 『상촌집』

안방준, 「혼정편록混定編錄」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이긍익, 『연려실기술』

이수광, 『지봉유설』

이식, 『택당집』

이정구, 『월사집』

이항복, 『백사별집』

– 풍수서 –

호순신, 『지리신서地理新書』

장자미, 『옥수진경玉髓眞經』

서선계, 『인자수지人子須知』

『천기대요天機大要』

『두사총비결杜師聰秘訣』(서울대학교 규장각 奎12377)

『봉안비결鳳眼秘訣』(국립중앙도서관 古1493-35;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C09-0011)

『풍수록風水錄』(서울대학교 규장각 奎11636)

– 연구논문 –

이병도, 「광해조의 천도론과 경내 양궐창건에 대하여 – 도참사상의 영향–」, 『진단학보』 33, 1972

장영훈,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사, 2000

졸고, 「풍수지리 고서의 분류와 해제」(공주대학교 정신과학연구소, 『풍수지리문화의 이해』, 2007)

졸고, 「풍수도참사상과 경기도」(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2004)

여 백

연행과 능행

정승모_지역문화연구소 소장

연행

연행燕行이란 연경, 즉 북경에 간다는 뜻이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꽤 많은 연행 기록을 남겼다. 반년 이상 걸리는 여정이다 보니 전별餞別의 절차도 간단치 않다. 돈의문敦義門, 즉 서대문을 나와 영은문迎恩門의 모화관慕華館을 지나 홍제원弘濟院에 이르도록 전별 의식은 끝나지 않는다.

한양에서 의주 용만관龍灣館까지는 1,050리 길이다. 걸어서 가면 대개 한나절에 40리, 하루에 80리, 약 36km를 걷는다. 도중에 딴 짓을 안 하고 부지런히 걷는다면 의주에 이르는 데만 12~13일이 걸린다. 연행의 구체적인 노정路程은 홍대용洪大容(1731~1783)의 문집 『담헌서湛軒書』(외집外集 10권) 연기燕記에 잘 나와 있다.

의주에서 책문柵門까지 120리, 책문에서 심양까지 453리, 심양부터 산해관까지 784리, 산해관부터 남관南館까지 680리로 모두 합치면 3,087리가 된다. 서울에서 의주까지 걸리는 거리의 두 배가 되므로 전체 연행 일정은 적어도 40일은 잡아야 한다. 그러나 도중에 여행 장비도 새로 갖추어야 하고 지인知人도 만나야

하므로 연행은 대개 가는 데만 60일 넘게 걸리는 대장정인 것이다.

예를 들면 『조천기朝天記』를 쓴 하곡 허봉은 1574년 5월 11일에 출발하여 그 해 11월 3일에 귀국하였으므로 약 170일이 걸렸다. 『연도기행燕途紀行』을 쓴 인평대군은 1656년(효종 7) 8월 3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동년 12월 16일에 귀가하여 모두 130여 일이 걸렸다. 노가재 김창업은 1712년(숙종 38) 11월 3일 서울을 떠나 26일 압록강을 건너 같은 해 12월 27일 북경에 도착해서 46일간 머물다가 다음해인 1713년 2월 15일에 회정回程하여, 3월 13일 압록강을 넘고 같은 달 30일 서울로 되돌아오기까지 왕복 다섯 달, 일수로 146일이 걸렸다.

이갑의 『연행기사燕行記事』에 나오는 사행 규모는 세 사신을 포함하여 인원이 총 338명, 마필馬匹이 총 223필이었고, 천은天銀이 9만 3,000냥이 들었으며, 기간은 1777년(정조 1) 10월 26일에 떠나서 다음 해 3월 29일에 돌아왔으므로, 147일이 걸렸고, 주행 거리는 왕복 합하여 약 6,252리나 되었다.

주행 거리 중 파주와 관련하여 보면, 한양부터 고양 벽제관碧蹄館까지 40리, 벽제관에서 파주 파평관坡平館까지 40리, 파평관에서 장단 임단관臨湍館까지 30리, 임단관에서 개성부 태평관太平館까지 40리다. 한양에서 점심 때 출발하면 벽제관에서 하루를 묵게 되고, 아침 일찍 출발하면 고양에서 점심을 먹고 파평관에 머물게 된다.

고대에서 고려까지는 장거리 이동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배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고려의 귀족들은 바다를 끼고 살았다. 그러나 조선에 들어와 남경이던 한양에 도읍을 정하면서 바다와 멀어진 데다가 중국 명나라가 해상교역을 봉쇄하는 해금정책을 쓰면서 서울에서 개경을 지나 육로로 의주에 이르는 의주로가 붐비게 되었다.

조선 역시 북행을 통해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였다. 조선 사족들은 한족의 명나라를 갈 때는 '조천朝天'이라고 하였고, 한족이 망한 이후 만주족의 청나라를 갈 때는 '연행燕行'이라고 표현에 차이를 두어 소중화小中華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러나 정작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것은 연행이었다.

사행使行의 목적은 단순한 사대적 외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거래를 동반한 무역이었다. 실제 조선의 상권은 사행로를 따라 번성하였다. 한양의 경상京商과

개성의 송상松商에 더하여 평양의 유상柳商, 의주의 만상灣商은 대청무역으로 상권을 강화하였다. 일본과 거래하던 내상萊商도 마찬가지다.

1645년(인조 23)부터 청나라를 왕래한 연행 기록은 1893년(고종 30)까지 249년간 정기 연 2회에 부정기 특별 행차까지 합하면 최소한 700여 차례나 된다. 이 중 확실한 연행 기록은 약 60여 종이다. 그 가운데서도 다음의 '연행록'을 대표적인 것으로 든다.

- 『가재연행록稼齋燕行錄』: 1712년(숙종 38) 김창업金昌業 저
- 『담헌연기湛軒燕記』: 1765년(영조 41) 홍대용洪大容 저
- 『열하일기熱河日記』: 1780년(정조 4) 박지원朴趾源 저
- 『연원직지燕軒直指』: 1832년(순조 32) 김경선金景善 저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던 의주로는 남북분단 이후 판문점, 즉 판적천교板積川橋가 있는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에서 멈춘다. 다른 대로에 비하면 의주대로는 수많은 사연들이 기록으로 전해온다. 그것은 특히 중국 연경을 오가던 조선과 중국의 사신들이 각종 연행록과 연행시가燕行詩歌로 그 모습을 담았기 때문이다.

휴전선 이남의 의주로는 행정구역으로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파주시 관내에 있다. 은평구와 고양시 관내의 의주로는 능행길로도 유명하다. 반면에 혜음령 너머 파주부터는 그렇지 못한데, 이 고개가 경계선을 만든 듯하다.

고양 벽제촌에서 혜음령를 넘으면 혜음석불惠陰石佛이라고 하여 키가 수십 척이나 되는 쌍미륵을 만난다. 과거 개경과 남경을 잇는 중간 지점인 혜음령 쌍미륵은 고려의 대표적인 외척세력이던 인주 이씨의 재력

용미리석불

과 힘을 보여준다.

쌍미륵을 지나면 1656년(효종 7) 8월에 의승義僧들이 돌을 캐고 장인匠人들을 모아 나무다리를 돌다리로 바꾼 광탄교廣灘橋를 건넌다. 그리고 곧 윤관 장군묘가 나오는데, 사대부들은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가 다투며 송사한 지 오래된 사실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는 마산역馬山驛 뒷고개를 넘어 저녁에 파주 파평관에 당도한다. 파주 관아의 청각루聽角樓와 관청 북쪽에 행궁行宮 등을 둘러보고 봉서당鳳棲堂에서 유숙한다.

다음날 파주를 이른 새벽에 출발하는데, 그럴수록 임진강을 건너기 전에 율곡 선생의 자취가 묻어 있는 화석정花石亭을 찾아 즐기는 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석정은 파주 북쪽 15리에 있다. 율곡의 5대조인 이명신李明晨이 지은 정자로 '일화일석여인一花一石與人'이라는 글귀에서 화석花石을 정명亭名으로 한 것이다.

임진강을 건넌 후 동파역東坡驛을 지나 샛길로 해서 장단부長湍府에 도착하면 오목관梧木館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수 있다. 여기서 초현招賢 파발을 지나면 판부천板浮川 나무다리와 천수원天壽院 돌다리를 건넌다. 사천 나무다리를 지나면 개성에 이른다.

다음은 시기별로 조천기朝天記와 연행록燕行錄 5책을 모아 보았다. 하곡 허봉의 『조천기朝天記』는 임란 전인 1574년(선조 7)의 기록이고, 인평대군의 『연도기행燕途紀行』 연행 시기는 1656년(숙종 7)이다. 김창업의 『가재연행록稼齋燕行錄』 연행 시기는 1712년(숙종 38)~1713년(숙종 39)이고, 이갑의 『연행기사燕行記事』의 연행 시기는 1777년(정조 1)~1778년(정조 2)이고, 김경선의 『연원직지燕轅直指』 연행 시기는 1832년(순조 32)~1833년(순조 33)이다. 시기마다 나타나는 지명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각자 느낀 점도 차이가 있어 보완이 된다.

1. 『조천기』

연행 시기 : 1574년(선조 7) 5월 11일~11월 3일

저자 : 허봉許篈

– 호는 하곡荷谷으로 명종과 선조년간 동인의 중심인물이던 초당草堂 허엽許曄의 둘째 아들로 허성許筬의 아우이고 허균許筠의 형이며 허난설헌許蘭雪軒의 오빠가 되는 허봉이다. 1588년(선조 21)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다가 38세 젊은 나이로 갑자기 죽었다.

책의 구성과 내용 :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었으며 『하곡집荷谷集』에 수록되었다.

– 하곡의 사행 목적은 표면상으로는 만력황제萬曆皇帝의 탄일誕日을 축하하기 위한 성절사행聖節使行이었고 내용적으로는 당시의 현안 문제였던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일을 주선하는 것이었다. 정사正使 즉 상사上使인 박희립朴希立과 서장관書狀官인 허봉과 질정관質正官인 조헌趙憲 등이 임명되었다. 1574년(선조 7) 5월 11일에 서울을 출발하였고 그 해 11월 3일에 귀국하였다.

파주와 관련한 주요 여정

– 1574년 5월 11일(갑신) 맑음.

나는 서장관으로서 성절사 박희립 공을 따라서 경사京師로 가게 되어, 먼동이 틀 때에 건천동乾川洞 집으로 가서 양친께 하직하고 이른 아침에 입궐하였다. 보루문報漏門 오른편에서 쉬고 있었더니, 주서注書 최운부崔雲溥, 검열檢閱 이순인李純仁, 수찬修撰 윤현尹晛, 저작著作 홍진洪進, 좌랑佐郎 홍익세洪翼世, 좌랑 이발李潑, 주서 허명許銘, 검열 김수金晬가 잇따라 찾아와서 소작小酌을 베풀었다. 질정관 조헌도 역시 와서 같이 이야기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여성군礪城君과 정랑正郎 김효원金孝元이 같이 와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진시辰時(오전 8시 전후)에 임금께 하직하였는데, 임금께서는 일행 인원人員에게 빈청賓廳에서 술을 내리도록 하명하였다. 백관百官이 배표례拜表禮, 즉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表文에 절하는 의식儀式을 끝내자 상사 박희립은 표각表閣(표문을 담은 집처럼 생긴 궤짝)을 따라서 근정전勤政殿 중문中門으로부터 나왔다. 나는 질정관 및 상통사上通事 송대춘宋大春과 같이 모두 뒤를 따랐다.

숭례문崇禮門을 거쳐서 모화관慕華館에 이르러 삼공三公과 서벽西壁에게 읍례揖禮를 행하고 나서 임시로 세운 막사[依幕]로 돌아왔다.

참의參議 정유일鄭惟一이 와서 보았고, 조금 있자니 좌랑 한준韓準이 상면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총총히 얘기를 하였다. 참판參判 심의겸沈義謙이 승문원承文院 막사幕舍에 있으면서 보기를 청하였으므로 나와 조헌이 가서 보았다. (중략)

사대査對가 끝나자 나는 물건 포장하는 것을 감독하여 끝내고, 사인舍人의 부름을 받았는데, 먼저 참판 이희검李希儉, 참의 이식李拭을 만나 본 다음, 사인의 막사로 갔다. 자리에 있는 이는 참판 이후백李後白, 우윤 윤근수尹根壽, 참의 홍천민洪天民, 참의 정유일鄭惟一 및 사인 정지연鄭芝衍이었는데 각기 술을 들고 파했다.

부정副正 성자항成子沆이 모화관 서쪽 모퉁이에서 내게 억지로 술 한 잔을 권해 왔으나 나는 사양하고 나왔다.

친구로서 소나무 숲에서 전별한 이는 정正 민충원閔忠元, 직장直長 김취려金就礪, 진사進士 황혁黃赫, 학유學諭 김경생金景生, 좌랑 한백후韓伯厚, 판관判官 최황崔滉, 좌랑 홍가신洪可臣, 좌랑 이발李潑, 자형姊兄 박순원朴舜元, 주부主簿 이즙李濈, 정랑 김효원金孝元, 정자正字 홍적洪迪이었다.

이때에 나는 이미 취하였으나 장인께서 사현沙峴 아래에서 나를 불렀으므로 나는 가서 인사를 하였다. 장인과 계부季父 봉사공奉事公과 우후虞候 성박成鎛과 별좌別坐 구영준具英俊과 판관 한의韓漪와 이보명李寶命이 같이 모두 술을 가지고 와서 나를 전별코자 하였으나, 나는 머리가 무겁고 눈이 어지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비스듬히 누워서 해가 저물도록 끝내 한 잔도 들지를 못하였으니, 한스러운 일이었다.

늦게야 비로소 일어나서 고개를 넘어 홍제원洪濟院에 이르렀는데, 변극성邊克成과 변극경邊克敬 형제, 재종형 참봉參奉 진禛, 종형宗兄 기箕, 참봉 이우인李友仁, 박언숭朴彦崇, 성윤박成潤博, 민호閔扈 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

자 해가 지기에 잠시 서로 만나보고 연서역延曙驛을 거쳐서 벽제에 이르렀는데, 날은 이미 저물었다. 사마시司馬試의 동년同年인 생원生員 이우李藕가 성산成山으로부터 와서 만났다.

– 1574년 5월 12일(을유) 맑음.

아침에 군수郡守 이충원李忠元과 찰방察訪 우천기禹天機를 만나 본 뒤에 파주로 향하였다. 근래 20여 일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혹심하여 먼지는 하늘 자욱이 일어나고 보리[牟]는 거의 메말라서 색깔이 누렇고 싹이 짤막하여, 논은 거북이 등 모양이 되었고 푸른 벼 싹은 바늘같이 꼬여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참혹하여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중략)

낮에 파주관에 이르러서 조금 쉬었는데, 옛 관인館人 신유량申有良이 찾아와서 보았다. 나는 편지 두 통을 썼는데, 하나는 아버님의 서선書扇을 동지同知 백인걸白仁傑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사간大司諫 숙헌叔獻 이이李珥에게 보내는 것인데, 두 분은 모두 답장을 보내 왔고, 이숙헌이 또한 따로 오언근체五言近體로 시 한 편을 나에게 주었던 것이다.

오후에는 상사上使(박희립을 말함)가 파주목사 유종선柳從善과 더불어 적취정滴翠亭에 앉아서 나와 조헌을 불렀다. 정자는 동쪽 채[東廂]의 왼편에 있어 북쪽으로 약간 치우쳤고 정자의 편액扁額은 천사天使 오희맹吳希孟이 쓴 것인데, 글자 획이 옹졸하였다. 게다가 가는 데마다 쓰지 않은 곳이 없으니, 정묘년에 검토檢討 허국許國이 이를 보고서 웃으며 이르기를, "오공吳公은 참으로 글씨 쓰기를 좋아한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 술이 몇 번 오가는데 헌납獻納 윤탁연尹卓然이 우봉현牛峯縣으로부터 부모를 뵈러 서울로 가는 길에 나를 만나 같이 앉게 되었으니, 헌납은 나의 종자형從姊兄이었다. 서로 만나 보매 기뻐서 술을 들었다. 나는 헌납에게 사행길의 일을 물었는데, 대개 헌납은 일찍이 지난해에 북경[帝都]에 갔다가 막 돌아온 터이기 때문이었다. 조금 있다가 헌납이 인사하고 떠났으므로 나 역시 사관에 돌아와서 양친의 편지를 보았다.

저녁에는 안정란安廷蘭을 불러서 시를 짓게 하였다.

임진강이 내려다보이는 화석정

– 1574년 5월 13일(병술) 맑음.

이른 아침에 파주를 떠나서 율곡栗谷에 다다라 이숙헌李叔獻을 방문하였다. 율곡은 파주 서쪽 16, 7리쯤에 있는데, 이숙헌은 병으로 아직 일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조카를 시켜서 나를 맞이하여 서실에 들어가 기다리게 했다. 오래 있다가 이숙헌이 나왔는데 그의 안색을 보니 전날과는 약간 달랐고 매우 피로하여 보였다. 그와 마주 앉아 먼저 시사時事에 미쳐 한탄을 하였고, (중략) 해가 이미 높아졌으므로 나는 묘소 참배가 박두하여 이숙헌과 작별을 하고 그 뒷산을 넘어서 이른바 화석정이라는 데로 올라갔다. 그 집은 새로 지었는데 아직 칸막이를 하지 않았다. 정자의 앞으로는 임진강이 띠같이 내려다보이고 멀리 서쪽 경계로는 여러 산을 손짓하는데, 비록 넓게 트인 것 같으나 형세는 지나치게 높고 가팔라서 오래 있기에는 견디기가 어려웠다. 대체로 이숙헌이 이곳에 온 것은 본래 전원田園을 넓게 열고 종족宗族을 모두 모아서 같이 살고자 생각했던 것인데, 일은 뜻과 같지 않았고 집 일이 궁핍하여 미음죽도 잇지를 못하였으니 참으로 연민할 만하였다. 지금 같은 때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에게 궁벽한 산곡 속에서 먹는 것조차 가난하게 하였으니 세도世道는 알 만하였다.

임진강을 건너 6, 7리를 가서 5대조 호군공護軍公 허추許樞의 묘소에 참배하였다. 부인 최씨도 같이 모셨는데 묘소 남쪽에는 조그만 비갈碑碣이 있었고 앞면에는 직함職銜을 썼으며 뒷면에는 역임한 관직의 천차遷次와 자손의 명호名號를 써 놓았다. 제사 지내기를 마쳤는데 얼족孼族 허수許鎩가 묘소 옆에 살고 있었으므로 와서 보았다.

동파역東坡驛(현 진동면 동파리)으로 돌아와서 조금 쉬었다가 조현리朝玄里를 향하여 떠났다. 시중侍中 문경공文敬公 허공許珙 묘소를 뵙고 또한 제사를 지냈다.

문경공은 고려조의 유명한 재상으로 공렬功烈은 모두 국사國史에 실렸으나 묘소 앞에는 비碑나 석마石馬가 없었으니 대개 연대가 오래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후손으로서 봉분이나 꾸밈을 못하니 이마에는 땀이 배었다. 늦게 개성부開城府에 들어갔는데 유수留守 유홍兪泓이 우리를 대청에서 맞이하였다. 상사와 질정관과 목청전穆淸殿(고려 태조를 제사 지내는 곳) 참봉 박명립朴名立 등과 함께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부府에는 조그만 아이가 있어 노래를 부르고 술잔을 권하게 하였다.

2. 『연도기행』

▸ **연행 시기** : 1656년(효종 7) 8월 3일 ~ 12월 16일

▸ **저자** : 인평대군麟坪大君 요濟(1622~1658)

– 호는 송계松溪, 자는 용함用涵으로 인조의 셋째 아들이며, 효종의 동생이다. 1630년(인조 8)에 인평대군에 봉해지고, 1636년에 병자호란을 당해서 부왕父王을 남한산성으로 호종扈從했으며, 1640년에는 인질人質로 심양瀋陽에 갔다가 이듬해에 돌아왔고, 1650년부터는 네 차례에 걸쳐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평생에 압록강을 열두 번이나 건넜다고 할 만큼 많은 연행을 하였고 이 기록 역시 사은사로 연경에 다녀오고 남긴 것이다. 저서에 『송계집松溪集』, 『연행록燕行錄』, 『산행록山行錄』 등이 있다.

▸ **책의 구성과 내용** : 상중하 3편으로 『송계집』 제5·6·7권에 수록되어 있다.

– 저자가 사신의 명을 받들고 서울을 출발하여 연경을 다녀온 기행문이다. 상권에는 서울에서 의주까지, 중권에는 의주에서 연경까지, 하권에는 연경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일기로 기록하였다. 매일 날씨부터 적은 후 점심을 먹은 곳, 쉰 곳, 지나는 길에서 보고 느낀 것, 지나온 거리와 비석이나 건물까지 기록하였다.

사행의 목적은 사대부들이 화를 입었다고 하여 이를 주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진주정사陳奏正使로 갔고 부사에는 호조참판 김남중金南重, 서장관에는 사헌부 장령 정인경鄭麟卿이었다. 12월에 돌아왔다.

파주와 관련한 주요 여정 1

– 1656년(효종 7) 8월 3일(무인) 맑음.

날이 밝은 뒤에 가묘家廟에 현알하고, 상차喪次에 곡을 한 다음 대궐에 들어가니 해가 반 발이나 올라왔다.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부사 이하와 함께 표문表文을 받들고 나왔다. 이때 풍악을 잡은 악사들은 앞에서 인도하고 백관들은 뒤에 따랐다.

숭례문을 나서서 반송盤松에 다다르니 못가에 크게 장막을 치고 공경公卿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이에 들어가 사대례査對禮에 참석하고 예가 끝난 다음 사차私次에 나와 쉬었다. 지신사知申事 신유申濡와 이조참판 김좌명金佐明, 공조참판 정치화鄭致和가 와서 보고 서로 회포를 풀었다. 이에 조복朝服을 벗고 역마驛馬에 올라 관사 뒤 소로를 좇아 길을 떠났는데, 이는 무과거武科擧를 방금 시행하기 때문이었다.

사현沙峴에서 말을 쉬니 이미 집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 홍제원에 당도하니, 종인宗人 밀산군密山君 이하 30여 명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앉아서 술을 들어 전송하였는데, 이는 곧 종풍宗風이다. 경평군慶平君도 역시 왔는데, 병자病者가 멀리 나온 것을 보니 참으로 감사했다. (중략)

해가 저물 무렵에 교자를 타고 길을 떠났다. 일행은, 곧 부사 호조참판 김남중, 서장관 사헌부 장령 정인경, 호행중사護行中使 가의嘉義 고예남高禮男과 비장裨將 5명에 병방兵房을 맡은 절충折衝 전 군수郡守 홍여한洪汝漢, 호방戶房을 맡은 절충 이민중李敏中, 예방禮房을 맡은 당하堂下 전 현감 이신李伸, 공방工房을 맡은 전 만호萬戶 김여준金汝俊, 마감馬監을 맡은 전 만호 최귀현崔貴賢과 역관 11명에 수역首譯 가의 장현張炫, 상통사上通事 가선嘉善 조동립趙東立, 전 정正 최진남崔振南, 여진학女眞學 가선 서효남徐孝南, 상사건량上使乾糧 통정通政 한지언韓之彦, 별헌영거別獻領去 통정 양효원梁孝元, 공사 장무公事掌務 전 첨정僉正 변승형卞承亨, 부사배행副使陪行 통정 박이절朴而崨, 건량乾糧 전 정正 신익해申益海, 행대배행行臺陪行 전 정正 방효민方孝敏, 압물청역押物淸譯 김흥익金興益과 대의大醫 2명에 어의御醫 전 주부 박군朴顚, 침의針醫 전 주부 안예安禮, 화원畵員 권열權悅, 외사의

원外司醫員 변이형卞爾珩, 사자관寫字官 유의립劉義立, 부사군관副使軍官 전 주부 이면李沔, 출신出身(과거를 보고 아직 임관되지 못한 자) 박두남朴斗南, 행대군관行臺軍官 습독관習讀官 정기창鄭祈昌이며, 또 대전별감大殿別監 남이극南爾極, 사헌부 서리 이의신李義信, 내국서원內局書員 염효익廉孝翼, 하인下人으로는 명남命男 등 5명과 을생乙生 등 8명이었다.

홍제원 돌다리를 지나 녹번현碌磻峴(지금의 녹번동 일대)을 넘어 양철평梁撤坪(지금의 녹번동 일대인 듯)에 이르니, 옛날 편비編裨로 있던 자들 중에 일찍이 깃대를 들던 자 이수창李壽昌 · 황도창黃道昌 · 박형朴泂 · 유성柳樫 · 이후한李後漢 등 다섯 사람이 와서 작별했다. 전석현磚石峴을 거쳐 창릉昌陵 파발을 지나서 덕수천德水川 돌다리를 건너서 여현礪峴을 넘어 신원新院 나무다리를 건넌 다음 개륜현介倫峴을 넘어 저녁 무렵에 고양군에 도착, 벽제관에 유숙했다. 여기에서는 군수郡守 유후성柳後聖이 지대支待했다. (중략)

이날 40리를 갔다.

– 1656년(효종 7) 8월 4일(기묘) 맑음.

새벽에 벽제관을 떠났다. 친구들을 작별하고 그 편에 집에 보내는 편지를 부쳤다.

쌍참雙 마차를 타고 길을 재촉, 혜음령惠陰嶺에 올라 쌍석불雙石佛을 거쳐 광탄廣灘 나무다리를 건너는데, 의승들이 돌을 캐고 장인들을 모아 바야흐로 돌다리를 만들고 있었다. 마산역 뒷고개를 넘어 오시에 파평관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었는데, 목사 민진량閔晉亮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쉬고 나서 몇 사람의 원역員役을 데리고 이천梨川(현 문산읍 배내리) 길로 해서 장릉長陵에 참배하러 갔다. 잔디를 손질하느라고 예조참의 채충원蔡忠元 등이 일꾼을 모아 잔디를 운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능소를 바라보면서 슬픔을 머금고 참배했다. 날이 저물어 파평관으로 돌아오니, 교하현감 오정주吳挺柱가 임소任所로부터 달려와서 종일토록 회포를 풀었다.

이날은 오전에 40리를 갔고, 오후에 갔다 온 길이 약 40리가 된다.

– 1656년(효종 7) 8월 5일(경진) 맑음.

새벽에 길을 떠나서 임진강을 배로 건넜다.

이 임진강의 근원은 북관北關 안변부安邊府에서 시작, 마전군麻田郡(지금은 연천군) 대탄大灘(속칭 한여울)과 합류하여 임단臨湍이 되고, 서쪽으로 40리를 내려가다가 교하현交河縣 조도성鳥島城 앞에서 한수漢水와 합류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임진강을 건넌 후 동파역을 지나 사잇길로 해서 장단부에 도착하여 오목관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부사府使 김체건金體乾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차원都差員인 파주목사 민진량은 장릉에 역사役事가 있기 때문에 뒤에 떨어지도록 했던 것이다.

오시에 떠나서 초현招賢 파발을 지나 판부천板浮川 나무다리와 천수원天壽院 돌다리를 건넜다. 다리 이름은 '취적吹笛'이라고 하는데, 송도松都 이서吏胥들이 와서 문안하였다. 사천沙川 나무다리를 지나서 황성荒城, 즉 개성 남쪽 언덕에 도착하니, 유수 최혜길崔惠吉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구문水口門 옛터로 해서 탁타교橐駝橋를 건넌 다음 남문南門 앞길을 거쳐 대평大平 돌다리를 건너서 별관別館에 유숙했는데, 이 별관은 대평관大平館 동쪽에 새로 지은 것으로서, 부성府城 서문西門 밖에 있다.

송경松京 옛 도읍은 성곽이 허물어지고 씩씩한 기운이 사라져 없어지고 있었으나, 다만 민가가 밀집하고 인구도 여전히 많았는데 대개 장사로 생업을 삼고 있었다. (중략)

이날 오전에 30리, 오후에 40리를 갔다.

파주와 관련한 주요 여정 2: 귀로歸路

– 1656년(효종 7) 12월 14일(정해) 맑음.

아침 일찍 떠났다.

저탄猪灘의 목교木橋를 건넜는데, 여울이 반쯤 얼었다. 오시에 금천관金川館에 이르렀다. 주쉬主倅 이정상李廷相이 나와서 기다렸다. 해주海州 원 김상金鎗 · 배천白川 원 정영한鄭榮漢이 모두 새로 임명되어 아직도 부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전과 백성만이 나와서 기다렸다.

미시에 떠나서 청석동靑石洞에 이르렀다. 기역차원畿驛差員 도원독우桃源督郵 황도광黃道光이 나와서 문안했으니, 척분戚分이 있기 때문이다. 영빈관迎賓館 터에 이르렀다. 기백畿伯 조형趙珩 · 유수 최혜길 · 경력經歷 이시함李時馣 · 도차원 풍덕부사豐德府使 조여수趙汝秀가 보정문普正門 터까지 영접을 나왔다. 장무掌務 박수원朴受源 · 배리陪吏 왕중익王中益 등이 서울로부터 와서 보이고 이어서 가신家信 및 저보邸報를 올렸다.

저물녘에 개성부에 이르러 동별관에 유숙했다. 복자卜者 허인신許仁信이 와서 뵈었다. 파발 편에 외사의원 변이형이 짐을 찾았다는 소식을 알려 왔다.

이날은 아침과 저녁에 모두 50리씩 갔다.

– 1656년(효종 7) 12월 15일(무자) 맑음.

새벽에 떠났다.

장단부에 들어가지 않고, 입비우立碑隅의 객점을 거치고 두 큰 고개를 넘었다. 정포鯉浦를 얼음 위로 건넜다. 파주목사 민진량이 와서 문안했다. 장릉 화소火巢 밖을 돌아 운천교雲川橋를 건너서 동구洞口로 들어갔다. 큰 연못가로 해서 곧장 홍문紅門 밖 유막帷幕에 이르러 관복冠服을 갖추고 전알展謁했다.

오시에 재실齋室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다. 일행 중의 수많은 역졸驛卒을 반도 공궤供饋하지 못했으므로 주쉬를 불러 꾸짖고 향소鄕所(향리鄕吏)에게 장杖을 때렸다.

미시에 떠났다. 이천로梨川路로 해서 파주를 지나서 곧장 벽제로 향했다. 해는 짧고 길은 멀어서 장단 · 파주 두 고을과 능소陵所에서 모두 말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밤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방백方伯(경기감사)에게 부탁해서 파주의 지응支應, 즉 필요한 물품을 대는 일을 능소陵所로 옮겨 하도록 했다.

두 고을을 그대로 지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광탄廣灘에 이르니 복녕군福寧君이 나왔다. 교자를 내려놓고 서로 만나니, 마치 꿈속 같았다. 혜임령을 넘었다. 지난날의 편비偏裨, 전 군수 신진익申晉翼 및 하인 등이 와서 현알했다.

저물녘에 고양군에 이르러 벽제관에 유숙했다. 군수 유후성柳後聖이 지대했

다. 이날 저녁 객관客館에 수고롭게 마중 온 자는 교관敎官 황로黃潞, 지난날의 비장 유정柳楨 · 김마룡金馬龍이다. 유정은 원임총병原任摠兵이요, 김마룡은 절충이다. 역관 변성길邊誠吉 등 10여 인은 모두 전에 연행했을 때 데리고 갔던 자들이다.

교하현감 오정주가 주과酒果를 가지고 와서 밤에 이야기했다. 군관 홍여한은 양주楊州에 신임新任하라는 교명敎命과 막내 아버지의 흉부凶訃가 일시에 이르러서 먼저 떠나기를 고했다. 어찌 슬픔과 기쁨이 이다지도 함께 이르는 것일까? 춘궁春宮 별감別監이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와서 행로行路의 안부를 물었다. 머리를 조아려 답배했다.

이날은 아침에 60리, 저녁에 65리를 갔다.

– 1656년(효종 7) 12월 16일(기축) 맑음.

아침에 떠났다.

개륜현介倫峴에 올랐다. 창릉昌陵을 지났는데, 노소老少 친구들이 길을 메웠다. 연서관延曙館 뒤에 이르니 좌윤左尹 구인기具仁壁 및 그 아들 도사都事 구일具鎰이 와서 위문했다. 녹번현을 넘으니 이조참판 오정일吳挺一, 춘방보덕春坊輔德 오정원吳挺垣이 와서 기다렸다. 정답게 회포를 풀었다. 홍제석교弘濟石橋를 건너니 관장하는 각 시寺의 하리下吏들이 마중하며 뵈었다. 홍제원에 들어가니 경평군慶平君을 비롯하여 여러 종친宗親이 모두 와서 정역征役을 위문했다. 잠시 앉아서 응대했다. 관할하는 여러 시寺의 낭관郎官이 일제히 와서 인사를 드렸다. 경영관사京營官舍에 이르러 관복을 정제하고 가니, 부사 · 서장관 및 각 부서의 원역員役들이 무리를 따라 나갔다. 돈의문으로 들어가, 종루를 지났다. 눈에 띄는 고향의 모습이 전이나 다름없었다. 지난해 8월에 작별하던 때의 회포를 돌이켜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솟는다. 대궐에 나가 입시하여 행정行程의 어려웠던 일과 사행의 전말을 진달했다. 복명復命을 끝마치고 낙동駱洞으로 돌아오니, 서쪽에 걸린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린 자식이 문에서 마중했다.

이날은 40리를 갔다.

3. 『가재연행록』

▸ **연행 시기** : 1712년(숙종 38) 11월 3일~1713년 3월 30일

▸ **저자** :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1658~1721)

– 김창업의 자는 대유大有, 호는 가재稼齋 또는 노가재老稼齋이고, 본관은 안동이다. 1658년(효종 9)에 안동 김씨 명문의 일원으로 태어났다.

▸ **책의 구성과 내용** : 책 권두 서명은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로 되어 있다. 분권分卷은 명확하지 않지만 9권 6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754면이다.

– 1712년(숙종 38)에 동지사겸사은사冬至使兼謝恩使 김창집金昌集이 임의로 추천한 자벽군관自辟軍官으로 사신 일행의 모든 기구를 감수하는 역할을 맡아 북경北京에 다녀온 아우 노가재 김창업의 연행 기록이다. 그가 55세 노령에도 백씨 시중을 든다는 명목으로 군관 행색으로 유람길에 오른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만류하였고 비방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행길에 오른 것은 오로지 평소 그가 중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파주와 관련한 주요 여정**

– 1712년(숙종 38) 11월 3일(임오)

눈보라가 치다. 홍제원에서 전송주를 마시고 40리를 가서 고양高陽에서 잤다.

새벽에 백씨伯氏(김창집)께서 대궐에 들어가고 나는 곧장 홍제원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양재 역졸이 이미 어제 저녁에 말을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아침에 심대心臺에서 옥동玉洞으로 가서 과수寡嫂를 뵙고 사당祠堂에 하직하였으며, 정승댁政丞宅(김창집)에 가서 사당에 하직을 고하고 맏형수를 뵈었다. 또 판서댁判書宅에 가서 사당에 하직하고 질부姪婦를 보았다. 다시 감찰집에 가서 사당에 하직한 후 귀가하였다.

아침밥을 먹고 가묘에 하직을 고한 다음 드디어 길을 떠나는데, 단검과 호리박, 가죽주머니를 챙겨서 안장에 걸었다. 호리박엔 술을 담고 가죽주머니엔 붓, 벼루와 요기할 음식을 넣었다. 종 귀동貴同과 마두馬頭 한 사람을 데리고 남첨지南僉知

댁과 하경夏敬의 백씨를 차례로 찾아뵙고 청람대靑嵐臺에 들러서 종수從嫂를 찾아뵈었다. 창의문彰義門을 나서니 눈보라가 얼굴을 때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홍제원에 이르니, 김언겸金彦謙과 김신겸金信謙 두 아들이 이정엽李廷燁 · 이정영李廷熲과 함께 길옆에서 기다렸는데, 홍제원에 들어간 뒤에 인가에 가서 술을 데우고 꿩고기를 구워서 내오기 위함이었다. 앉아 있노라니 이성징李聖徵 군이 별장別章(작별을 기념하여 쓴 글)을 갖고 동교東郊로부터 오고, 그의 사위 박순규朴舜揆도 함께 따라왔다. 술을 한 순배하고 곧 일어나 연서延曙로 달려가서 수찬 이광중李光仲을 만나 얼마쯤 이야기하고, 술 두 잔을 든 뒤에 다시 홍제원으로 돌아왔다.

배표拜表를 하고 모화관慕華館에서 돌아오니 홍제교弘濟橋 좌우에는 인마人馬가 구름처럼 모여 곳곳에 장막을 쳐 놓고 불을 피웠다. 모두 사행을 전송 나온 사람들이었다. 외형外兄인 영상領相 이공李公과 소재疏齋 이이명李頤命은 백씨와 같이 청에 앉아 있었다. 영상 형이 베푼 연이었다. 경력인 당형堂兄도 자리에 있었다. 술을 돌리고 나니 가인家人이 저녁밥을 가지고 왔다. 신상동辛相東과 그의 아우 신태동辛泰東, 경력 이몽상李夢相, 판관 조영복趙榮福, 참동 이신李藎, 당제堂弟인 감찰 김창열金昌說, 족손인 김민행金敏行과 그 아우 김신행金愼行은 서헌西軒에 앉았는데 이는 서로 인사하기 위함이었다. 드디어 그곳에 이르니 감찰과 이 경력은 함께 술항아리를 들고 와서 각기 한 잔씩 권하였다. 이 밖에 전송 나온 사람이 많아 다 기록할 수 없다. 동교東郊 동내의 하인들이 모두 와서 뵙고 갔다.

드디어 출발, 박석고개[礴石峴]를 넘으니 날이 저물었고 눈이 더욱 심하였다. 숫돌재[礪石峴]에 이르러 비로소 횃불을 들었는데, 거군炬軍(횃불을 드는 인부)은 잠깐 나타났다가 이내 흩어졌으며, 색리色吏 또한 간 데가 없고 다만 두어 횃불만이 앞에서 명멸할 뿐이었다.

초경에 고양高陽 객사에 이르렀는데, 다담茶啖이 말이 아니어서 나를 비롯하여 이하가 모두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 주수主守는 이관수李觀壽였다. 김언겸 · 김신겸 두 아들이 성전盛全과 먼저 와 있었다. 들으니 세 사신은 인견 때 선온宣醞을 받았으며, 아래로 역원에 이르기까지 하사물을 각각 차등 있게 내렸다 한다. 이것은 전례이다. 나에겐 특별히 납제臘劑의 하사가 있어 모두들 특이하게

여겼다. 여러 사람들이 따라와 여기에 이른 자는 역시 많이 겸손하였는데 홍제원에 도착했을 때 많이 돌려보냈는데 여기까지 따라온 자도 많았다.

– 1712년(숙종 38) 11월 4일(계미)

아침에 흐리고 늦게 갰다.

고양에서 40리를 가서 파주에서 잤다.

새벽밥을 먹고 먼저 떠났는데 날씨가 몹시 찼다. 혜음령을 넘어 서윤庶尹 조정이趙定而의 묘사墓舍에 도착하니, 숙씨叔氏 경명敬明이 벌써 전날 와서 조정이와 동숙同宿하고 있었다. 조정이는 자기 선공先公의 장지葬地를 보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김창엽金昌曄이 뒤미처 와서 함께 보았는데 미리 약속이 있었다. 조금 뒤에 행차行次가 이르러 드디어 떠났다. 조정이도 따라 나섰으므로 서로 나란히 갔다. 파주 객사에 이르러 얼마쯤 이야기하다가 작별하고 돌아갔는데, 백씨는 즉석에서 칠언율시 세 수를 지었고 나는 칠언절구 한 수를 화답하고 갔다.

저녁에 객사의 대청에서 주수를 만나 보았다. 주수는 바로 홍우정洪禹鼎이었는데, 참판이던 그의 숙부 수주受疇 공을 따라 연경에 간 적이 있었으므로 나의 이야기는 그의 유람한 일을 묻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대개 오룡정五龍亭이나 천주당天主堂 같은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보기 어려운 곳인데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다담과 저녁밥이 모두 깨끗하여 먹을 만하였으니 여간 다행이 아니었다. 족질 김시화金時和와 김중평金仲平 · 김민생金閔生 · 김계수金啓洙가 모두 작별하고 돌아갔다.

부사와 서장관이 정문으로 출입한다고 여러 비장裨將들이 그 불가함을 말하니, 부사와 서장관은 그것이 옳다고 변명하기를 "우리도 역시 왕명을 받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들은 별당別堂에 들었으며 별당이 없는 곳에서는 먼저 들어가고 뒤에 나옴으로써 가까스로 협문挾門을 면하였다.

– 1712년(숙종 38) 11월 5일(갑신)

추웠다. 아침엔 흐리고 눈발이 날렸다. 파주에서 30리를 가서 청대천靑黛川에 이르고 거기서 또 15리를 가서 장단부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으며, 다시 40리를

가서 송도에서 잤다.

새벽에 일어나서 경명敬明과 작별하고 먼저 나오니, 김언겸 · 김신겸 두 아들과 성전盛全도 따라 나섰다. 배로 임진강을 건넜다. 동파역에서 동북으로 10여 리를 가면 청대천靑黛川에 이르는데, 바로 죽은 딸의 묘가 있는 곳이다. 가지고 간 술과 과일을 내어서 진설하고 두어 줄의 글을 지어서 고하였다. 장단부에 가니 행차도 역시 이르렀다. 판서 윤세기尹世紀의 영구靈柩가 백학산白鶴山 밑에 있었으므로 백씨를 따라가서 조문하였다. 송도에 이르러 백씨는 태평관에 들고 나는 사우私寓(사사로 정한 하숙)에서 잤다. 고양 출신 박민도朴敏道와 강화 사람 전첨사前僉使 한계중韓啓重이 와서 뵙고, 이곳의 장기 잘 두는 사람인 이신건李信建의 아들이 술과 찬을 가지고 내알來謁하였다. 밤에 숙씨叔氏가 나에게 와서 삼운칠언고시三韻七言古詩 27수를 지어 떠나는 나에게 주었는데, 김언겸 · 김신겸 두 아들을 시켜 붓을 들고 번갈아 받아쓰게 했다. 밤이 깊어서야 돌아가 객관에 들었다. 유수가 내알하였고, 백씨는 교자를 타고 문에 이르렀으며, 김중화金中和는 병방군관兵房軍官으로서 수배隨陪를 감독하였다.

4. 『연행기사』

- **연행 시기** : 1777년(정조 1) 10월 26일~1778년 3월 29일
- **저자** : 이갑李坤(1737~1795)

– 이갑의 본관은 연안延安, 자字는 신경信卿이다. 1769년(영조 45)에 등과, 같은 해 10월 정언正言을 하였다. 1777년(정조 1) 1월에 연풍군延豐君, 정조 12년 12월 이조판서, 정조 13년 6월 예조판서, 같은 해 11월 공조판서, 정조 14년 1월에 병조판서, 정조 15년 6월에 형조판서, 정조 16년 윤4월에 한성부판윤, 같은 해 11월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지냈다. 1795년 6월 4일에 졸卒하였다.

- **책의 구성과 내용** : 상하권으로 된 책은 크게 기사, 잡기, 시로 나뉜다. 1777년 기사는 상으로, 1778년 기사는 하로 분류하고, '문견잡기' 역시 상하로 나누어 풍토 및 제도에 관한 것은 상에, 지리 및 민속에 관한 것은 하에 엮었다.

그리고 사행 때 지은 시는 맨 뒤에 붙였다.

– 1777년 7월에 하은군河恩君 이광李珖을 정사로, 이조판서 이갑을 부사로, 겸집의 이재학李在學을 서장관으로 뽑고, 동년 9월 20일 토역주문討逆奏文 전달 절차를 협의했다. 사절 명칭은 '진하사은진주겸동지사進賀謝恩陳奏兼冬至使'로 정하였다. '진하'는 당시 청 고종淸高宗의 모후인 황태후皇太后가 부묘祔廟된 데 대해 축하한다는 뜻이고, '사은'은 천자의 조서가 내려진 일 및 방물이준方物移准에 대해 사례한다는 뜻이며, '진주'는 토역討逆에 대해 주달奏達한다는 뜻이다. 서울에서 북경 조양문까지, 게다가 참소站所까지를 곁들여서 일목요연하게 밝힌 기행문이다.

파주와 관련한 주요 여정

– 1777년 10월 26일 흐렸다 개었다 함.

해가 높이 솟은 뒤에 대궐에 나가 정사 하은군 이광, 서장관 겸 집의 이재학과 함께 하직 숙배를 했다. 오전에 명령을 받고 희정당熙政堂에 입시하였더니 주상이 (중략) 중관中官에게 초피이엄貂皮耳掩 2부와 서피이엄鼠皮耳掩 1부를 가져오게 하여 각각 내렸다. 세 사신은 일어나서 공경히 받아 사모 위에 썼다. 이어서 정원政院으로 물러나오니, 별감別監이 나라에서 내려 준 납약臘藥 5종과 단목丹木, 백반白礬, 호초胡椒를 가지고 와서 전했다. 공경히 받은 뒤 여러 승지承旨와 작별하고 또 내국제조內局提調 구윤옥具允鈺, 부제조 홍국영洪國榮도 차례로 보았다.

오시에 오모烏帽, 오대烏帶, 백포白袍 차림으로 인정전仁政殿에서 배표拜表한 뒤 말을 타고 모화관慕華館에 이르러 사대査對를 하였는데, 좌상左相 정존겸鄭存謙, 예조판서 채제공蔡濟恭, 공조참판 김화진金華鎭, 병조참의 이경양李敬養, 형조참의 조영진趙英鎭이 함께 참여하였다. 사대를 마친 뒤에 채제공 · 김화진 · 이경양 · 조영진과 승지 임득호林得浩, 교리 이유경李儒慶, 교리 안성빈安聖彬, 승지 이양정李養鼎이 장막帳幕으로 와서 작별하였다. 가마를 타고 홍제원에 이르자 호조에서 또 작별연을 베풀었으니, 이는 곧 전례이다. 친척 및 막료들과 작별하고 포시晡時(오후 3시~5시)에 출발, 길에서 개성 유수 태감台鑑 유언호俞彦鎬를 만나 가마

를 쉬고 잠깐 이야기하였다.

40리를 가서 고양에 이르러 객사 동헌에 관사를 정하니 밤이 이미 2경更이었다.

군수 이지광李趾光이 들어와 뵈었다. 세폐차사원歲幣差使員 평구찰방 오윤검吳允儉, 방물차사원 겸 부마차사원夫馬差使員 도원찰방桃源察訪 조언빈趙彦彬, 도차사원都差使員 파주목사 박종익朴宗益도 따라왔다. 도사都事 한만유韓晩裕는 대궐에서부터 뒤에 떨어졌다. 본군에 사는 일가 이명우李命雨가 와서 보았다.

– 1777년 10월 27일 아침에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다가 비가 뿌렸다.

호조참판이 사직 상소를 현도縣道를 통해 봉진封進하였다. 원당리元堂里 증연성부원군贈延城府院君 묘소가 군에서 10여 리쯤 되는데, 길이 외돌아 평탄치 못하므로 가마 대신 남여를 타고 가서 성묘하였다. 이조승李祖承이 여기서 하직하고 돌아가니 마음에 맺히는 것을 이길 수가 없다.

40리 길 파주에 이르러 어목헌禦牧軒에 머물렀다. 파주목사 박종익이 들어와 뵈었다. 수역首譯 이담李湛의 병세가 졸지에 중하므로 뒤따라오게 하였다.

– 1777년 10월 28일 맑음.

이른 아침에 배로 임진강을 건넜다.

40리를 가서 장단에 이르러, 오정 때 임단관臨湍館에서 쉬었다. 장단부사 손상룡孫相龍이 병을 칭탁하고 공장公狀을 바치지 않으므로 좌수를 전참前站에 옮겨 가두었다. 그리고 삼공형三公兄이 정대整待하지 않으므로 호장戶長을 형신刑訊하였다.

40리를 가 송도에 이르러 청후당聽候堂에 유숙하였다. 유수 태감 유언호俞彦鎬는 조금 전에 상경하고 경력 김동연金東淵이 들어와 뵈었다. 송도 사람 맹산孟山 조유신趙有臣 부자, 찰방 이희복李熙福, 학생 노경복魯景福, 선달先達 이탁李倬의 종형제질 및 풍덕豐德 사람 학생 상광택尙光澤이 와서 뵈었다.

5. 『연원직지』

연행 시기 : 1832년(순조 32) 10월 20일~1833년 4월 2일

저자 : 김경선金景善(1788~1853)

– 본관은 청풍淸風으로, 문경공文敬公 김식金湜, 잠곡潛谷 김육金堉의 후손이다. 1830년(순조 30)에 정시庭試에 급제하였고 1832년 사헌부 집의로 있을 때 서장관으로 청에 다녀왔다. 사간원과 홍문관을 거쳐 성균관 대사성, 이조참의, 전라감사, 도승지, 대사헌, 홍문관, 예문관의 제학, 경연 일강관, 우참찬을 차례로 지냈다. 우참찬으로 있을 때인 1851년(철종 2)에 진주사陳奏使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이어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다.

책의 구성과 내용

– 이 책은 1832년에서 1833년 사이에 동지사 겸 사은사 서경보徐耕輔의 서장관으로 중국에 다녀온 김경선의 사행기록使行記錄이다. 서장관의 소임은 행대감찰行臺監察 임무 외에 사행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을 모두 기록하여 그 견문록見聞錄을 조정에 바치는 것이다. 이 책도 조정에 하직 인사한 날부터 시작하여 돌아온 날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파주와 관련한 주요 여정

– 1832년 10월 20일 맑음.

서울을 떠나 40리를 가서 고양에 이르러 잤다.

새벽에 일어나 대궐로 가서 사복시정司僕寺正의 새 임명을 숙배肅拜하고 이어 하직하고, 명을 받들어 흥정당興政堂으로 입시入侍하니, 약방藥房이 입진入診하는 데에 같이 입시하였다. 세 사신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하교下敎하기를, "무사히 다녀오라" 하였다. 신 등이 기복起伏하니, 이어 서피이엄 1벌, 부채[扇子] 3자루, 납약臘藥 5가지, 호초 3되, 단목丹木 10근, 백반白礬 1근을 반사頒賜하였다. 차례대로 물러나왔다가, 때가 되어 숭정전崇政殿 뜰에 늘어서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을 받든 이의 뒤를 따라, 숭례문으로 나와 모화관에 이르러, 정사와 부사 및 우참

찬, 공조참판, 예조참의와 모여 앉아 같이 사대査對를 끝내고 옷을 갈아입었다. 이어 여러 사람들과 작별하고 떠나 홍제원에 이르니, 또한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므로 하나하나 인사를 나누며 작별하였다.

경기감사 이희준李羲準이 우리를 위하여 전송하는 술자리를 차렸기에 조금 마시고 바로 출발하였는데, 종제 김득선金得善 3형제와 재종제 김이선金頤善 및 여러 손님들이 여기에서 작별하고 돌아갔다. 드디어 말을 버리고 수레를 탔다. 40리를 가 저물기 전에 고양에 이르러 사창司倉을 숙사宿舍로 정했는데, 주쉬 홍기주洪耆周가 나와 보았다.

고양은 본래부터 너무도 쇠잔하다는 곳인 데다가, 금년에는 재해가 심하여 조정에서 먼저 알고 연도沿道의 공궤供饋를 힘써 재감하도록 명령하였다. 일행이 모두 시장할 것을 걱정하였는데, 숙사에 당도해서 보니 공억供億이 퍽 온편穩便하고 간결하여, 자못 처음 생각과는 달랐다.

유구국琉球國(오키나와의 옛 이름) 사람 둘이 우리나라에 표류해 왔었는데, 이번 길에 데리고 가 북경에 넘기려 한다.

며칠 동안 춥더니 날씨가 따뜻하게 풀렸다. 역졸들의 말이, 표문을 모시고 가는 날 춥지 않기는 근년에 처음 본다고 한다.

– 1832년 10월 21일 맑음.

고양을 떠나 40리를 가 파주에 이르러 잤다.

아침에 주쉬를 보았다. 김익문金益文이 따라오다가 여기에서 작별하고 집안 종들도 또한 모두 작별하고 돌아가니, 이별하는 회포가 자못 암연黯然하였다.

늦게 떠나 포시 전에 파주에 닿아 이청吏廳에 숙사를 정하였다. 목사 오치훈吳致勛이 나와 보고, 박천군수 홍옥洪鋈이 동지전문차사원冬至箋文差使員으로 여기를 지나다가 또한 와서 보았다. 정사 및 부사와 서령徐令을 가 보았다. 서령은 곧 정사의 형의 아들인데, 정사를 전송하기 위하여 여기에 온 것이다. 정사는 온각溫閣, 부사는 동헌東軒에 처소를 정하였다. 고을은 비록 잔폐殘廢하였으나 관사官舍는 퍽 높고 트였으니, 행궁行宮이었기 때문이다. 전적典籍 임태준任泰濬이 고향에서 올라오는 길에 여기를 지나다 보러 왔기에, 그 편에 집에 보내는 편지를 부쳤다.

– 1832년 10월 22일 오후에 큰비가 왔다.

파주에서 떠나 40리를 가 장단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또 40리를 가 송도에 이르러 잤다. 이날 모두 80리를 갔다.

아침에 부마차사원 평구찰방 이춘영李春英이 보러 왔다가, 여기서 작별하고 돌아갔다. 밥을 먹고 길을 떠나 20리를 가 임진강을 건너고, 또 20리를 가 장단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는데, 주수 이제화李濟和가 보러 나왔다.

오후에 비가 크게 쏟아졌는데, 비를 무릅쓰고 40리를 가 저물어서야 송도에 당도하여 사창司倉에 숙사를 정하였다. 유수 이정신李鼎臣과 경력 이인승李仁承이 나와 보았다.

밤에 본부本府 사람 유생 황회연黃會淵과 김한익金漢益이 각각 상 하나씩을 차려 와 대접하였다. 밤이 깊은 뒤에야 비로소 비가 개었다.

능행

능행陵行 또는 능행陵幸이란 임금이 능陵에 거둥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 정조 임금의 잦은 화성華城 행행行幸으로 그 준비과정이나 절차가 각종 글과 그림으로 자세히 소개되었다. 여기서는 기왕에 소개된 자료 외에 파주와 관련한 능행 자료와 함께 어로御路에 관한 자료를 소개한다. 특히 장릉에 능행을 자주한 영조 임금의 사례를 통해 당시 파주의 상황을 알아본다.

1. 능 행차

능행 때 임금이 마상馬上에 오르면 일산日傘을 잘 받쳐 들고 편히 모신다. 이를 지휘 · 감독하는 직분이 마상봉도馬上奉導다. 봉도별감奉導別監이 먼저 "일산

우버 시위侍衛"라 부르면 여러 별감이 "일산 훠 우버 시위라 견마부牽馬夫 안가安駕뫼리"고 되뇌어 부른다.

임금이 가마를 타고 능에 가는 도중에 행궁行宮 또는 주정소晝停所가 가까워지면 임금에게 먼저 알리는 봉도奉導를 전로봉도前路奉導라고 한다. 화성 능행을 예로 들면 "전로前路요!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 전로요"라 한다.

임금이 능 앞의 홍살문에 들어가면 바로 안쪽에 있는 4각형의 돌판에 머문다. 이것을 배위拜位 또는 판위板位라고 하여 능행에 온 임금이 선대왕을 위해 절하는 장소다. 임금은 여기서 예를 갖추고 국궁사배鞠躬四拜를 한다.

임금은 배위에서 절을 하고 난 다음 참도參道의 오른쪽 낮은 길인 어도를 따라서 정자각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간다. 제향 절차가 끝나면 왼쪽 계단으로 내려간다. 선대왕의 혼령은 능침陵寢으로 올라간다고 믿는다.

어로 옆이나 능 부근의 마을 중에는 패牌 자가 들어있는 마을 명칭이 많다. 예를 들면 동구릉이 있는 현재 구리시는 과거 구지면龜旨面이었는데, 일패창리一牌昌里, 이패리, 삼패리, 사패리 등 4개 리로 이루어진 면이었다. 장릉이 있는 교하현에 동패리와 서패리라는 마을이 있는 것도 같은 예다.

이 '패牌'는 기수패旗手牌 또는 기패꾼旗牌軍이라고 하여 임금의 거둥 때나 왕실행사 때 깃발과 같은 의장儀仗, 즉 노부鹵簿를 담당하는 번番의 무리라는 뜻으로 이 일대 백성들에게 부과된 부역의 일면을 보여주는 단서다. 기패꾼 외에 악기를 다루는 악공樂工, 세악수細樂手, 취고수吹鼓手 등도 같은 부류로서 군액軍額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들 기패꾼의 우두머리는 패두牌頭라고 불렀고 이들을 관할하는 행정관을 기패관旗牌官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각종 왕실행사 때마다 집중적으로 동원되는 인력 조직인 것이다. 왕실행사 때마다 동원되던 지역 주민들은 평상시에는 왕실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인 능위토陵位土와 둔토屯土를 경작하며 살았다. 능 · 원 · 묘의 위토가 죽은 왕과 왕실을 위한 것이라면 둔토는 살아 있는 왕족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둔토로는 훈련도감 경비 마련을 위해 설립한 양향청糧餉廳의 둔토와 신하들의 공적을 관리하는 충훈부忠勳府의 둔토, 궁중에서 소용되는 꽃과 과일을 재배하는 기관인 장원서掌苑署의 둔토가 있다.

2. 어로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실학자인 여암旅庵 신경준申景濬(1712~1781)은 1770년(영조 46)에 4권 2책으로 된 『도로고道路考』를 편찬하였다. 그 중 1권에는 능원묘陵園墓에 행차할 때의 능행로와 의주 · 경흥 · 평해 · 동래 · 제주 · 강화 등에 이르는 6대로가 소개되어 있다. 이 중 파주를 지나는 능행을 현재 지명과 대비하여 소개한다.

1) 제릉齊陵, 재풍덕在豊德

제릉은 태조 이성계의 첫째 부인인 신의왕후神懿王后를 모신 능으로 현재의 개풍군 상도면 풍천리에 자리한다. 『도로고』에는 〈10리→ 홍제원弘濟院 10리→ 전석현磚石峴 5리→ 검암점黔岩店(주정소재점동삼리허晝停所在店東三里許) 5리→ 신원新院(주정소晝停所) 15리→ 고양군高陽郡 5리→ 벽제역碧蹄驛 10리→ 분수원分水院(주정소) 15리→ 광탄廣灘 15리→ 파주坡州(숙소宿所) 10리→ 임진臨津 10리→ 동파東坡 10리→ 장단부長湍府(주정소) 10리→ 견양암見樣岩 10리→ 판적교板積橋-발송리전평鉢松里前坪(주정소) 15리→ 취적교吹笛橋 10리→ 개성부삼절헌開城府三節軒(숙소) 15리→ 적현赤峴 5리→ 능하陵下 공190리共一百九十里〉로 제릉로가 기록되어 있다.

홍제원은 홍제동 131번지에 있었으며 1895년까지 사용되었다. 현재 홍제 중앙교회와 홍제원 현대아파트 사이에 해당한다. 박석고개는 갈현동(일신병원)에서 구파발(우체국)로 넘어가는 고개로, 서오릉의 결인結咽 목이 되어 낮으므로 산맥이 깎이지 않게 박석을 깔았다. 검암은 구파발에서 파주 · 문산으로 빠지는 1번 국도(통일로)와 일영으로 빠지는 349번 지방도, 그리고 서울시계(창릉천)가 삼각형을 이루는 지역에 위치한 마을이다.

신원은 고양시 덕양구 원신동 장뜰을 말한다. 새로 원이 생겼으므로 새원, 신원, 또는 시장이 있으므로 장들, 장뜰이라 한다. 고양군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읍내와 벽제관지(사적 144호) 일대를 가리킨다. 본래 고양군 사리대면 지역으로 고양읍내가 되므로 고양읍내 · 읍내리 · 읍내로 불렀으나 1914년 행정구역개편

시 고양리라 하여 벽제면에 편입되었다. 벽제역은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었다. 벽제동(리)은 벽제역이 있으므로 벽제, 벽지 또는 역말로 불렸다.

분수원은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분수원동을 말한다. 고려 때부터 분수원焚脩院이 있어 원골 또는 분수원이라고 하였다. 광탄천은 문산개, 문산천, 너분여울 등으로 불리는데, 분수원에서 파주읍으로 가다가 광탄천을 건너는 위치에 현재는 광탄교가 놓여 있다.

2) 후릉厚陵, 재풍덕在豊德

후릉은 정종과 그 비인 정안왕후定安王后를 모신 능으로 개풍군 흥교면 흥교리에 있다. 후릉로는 〈제릉齊陵 5리→ 장생우長柱隅 10리→ 풍덕부豊德府 15리→ 능하陵下 공220리共二百二十里〉이다.

3) 공릉恭陵, 재파주在坡州

공릉은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에 있으며 예종이 세자 때 세자빈이던 장순왕후章順王后를 모신 능이다. 장순왕후는 한명회의 셋째 딸이다. 공릉로는 〈신원新院(견제릉로見齊陵路) 5리→ 정송강묘현鄭松江墓峴 10리→ 휴류암점鵂鶹岩店 10리→ 능하陵下 공55리共五十五里〉를 따른다. 여기에서 휴류암은 봉바위[鵂岩]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봉바위는 고양시 덕양구 사리현동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자 마을 이름인데, 바위가 절벽에 있어서 산울림이 있고 부엉이가 많이 울었다고 한다.

4) 순릉順陵, 재공릉동북강在恭陵東北岡

공릉의 동북쪽에 있다. 성종왕비 공혜왕후恭惠王后를 모신 능이다. 그 아래 추존한 진종을 모신 영릉이 있는데 『도로고』에는 나와 있지 않다.

5) 장릉長陵, 재교하在交河

장릉은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위치한 인조의 능이다. 장릉으로 가는 능행로는 〈회석우灰石隅(자공릉自恭陵) 5리→ 수유현水踰縣 10리→ 야동사안冶洞沙岸 15리→ 능하陵下 공90리共九十里〉이다.

3. 영조의 능행과 파주

영조 임금은 파주와의 인연이 남달랐다. 영조는 파주에 많이 들렀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 묘인 소령원이 있고 후궁인 정빈 이씨의 수길원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랑했던 셋째딸 화평옹주의 무덤이 파주에 있기 때문이다. 영조는 화평옹주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옹주의 집에 행행하였으며 옹주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임금의 능행은 비용이 많이 들어 자제를 하는 편인데, 파주에는 인조의 능인 장릉이 있어 이를 계기로 나머지 원묘를 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영조의 장릉 행행 기록은 다음과 같다.

▶ 1731년(영조 7) 8월 17일(정미)

○ 상행행파주장릉천릉소上行幸坡州長陵遷陵所. 자일경지오경自一更至五更, 월훈月暈

소령원

1744년(영조 20) 7월 21일

○ 우이병조언계왈又以兵曹言啓曰, 신해장릉행행시辛亥長陵行幸時, 성문외병문파수城門外屛門把守, 대가행과후大駕行過後, 환입류도還入留都, 환궁시還宮時, 경위출거파수사정탈의更爲出去把守事定奪矣. 금역의차거행지의今亦依此擧行之意, 분부류도영급훈국어영청分付留都營及訓局御營廳, 하여何如? 전왈傳曰, 윤允.

1745년(영조 21) 8월 11일

○ 우이예조언계왈又以禮曹言啓曰, 금차장릉행행시今此長陵行幸時, 숙소여주정릉소공상다담등사宿所與晝停陵所供上茶啖等事, 의전례이경각사진배사依前例以京各司進排事, 분부分付, 하여何如? 전왈傳曰, 윤允

수길원

▸ 1745년(영조 21) 8월 21일

○ 상행행上行幸

▸ 1749년(영조 25) 2월 8일

○ 우이어영청언계왈又以御營廳言啓曰, 금차장릉행행시今此長陵行幸時,

○ 우이수어청언계왈又以守禦廳言啓曰, 금차장릉행행시今此長陵行幸時,

화평옹주 묘

▸ 1752년(영조 28) 1월 30일

○ 우이병조언계왈又以兵曹言啓曰, 신해년장릉행행시辛亥年長陵行幸時,

▸ 1753년(영조 29) 9월 10일

○ 우이병조언계왈又以兵曹言啓曰, 신해년장릉행행시辛亥年長陵行幸時,

위의 행행 기록 중 『실록』을 기초로 1749년 2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에 걸친 능행과정을 소개한다.

영조 25년인 1749년 2월 10일 4경更, 즉 새벽 3시가 되기 전에 임금이 융복戎服을 입고 궁을 나와 신원新院 주정소晝停所의 막차幕次에 들어가니 동이 아직 트지 않았다.

봉일천奉日川 막차에 주필駐蹕하였고 오시가 되기 전에 능소에 도착하였다. 임금이 익선관翼善冠 · 참포黲袍 · 오서대烏犀帶를 갖추고 사배례四拜禮를 행한 다음 능을 봉심奉審하였다. 임금이 동북쪽 한 기슭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 곳은 나를 위한 땅이니, 대신과 예조판서는 알아 두라" 하였다.

다음날 역시 4경, 즉 새벽 2시경에 임금이 익선관 · 참포 · 오서대를 갖추고 의식대로 제사를 지냈다. 제례를 마친 뒤 마산馬山을 거쳐 가니 이곳은 화평옹주의

묘였다.

화평옹주의 무덤은 파주읍 파주리에 소재한 부대 내에 자리 잡고 있다. 마산을 거쳤다는 것은 곧 이곳을 말한다. 화평옹주는 영조의 셋째 딸로 1727년(영조 3) 영빈 이씨暎嬪李氏에게서 태어났다. 조선 후기 문신인 박명원朴明源과 결혼하였으나 안타깝게도 1748년 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이곳에 예장되었다.

임금은 낮에 파주에서 머무른 뒤 해질 무렵 소령묘昭寧墓에 이르렀다. 이곳은 숙종 임금의 후궁 숙빈 최씨淑嬪崔氏의 묘소墓所다. 숙빈 최씨는 1670년(현종 11) 11월 6일 최효원崔孝元의 딸로 출생하여 숙종의 후궁이 되어 영조를 출산하였다. 49세로 별세하여 서울시 궁정동에 있는 칠궁七宮 안 육상궁毓祥宮에 위패位牌를 봉안하고 있다.

임금은 다음날인 12일에 환궁하였다. 도중에 임금은 주정소에서 경기감사와 각종의 임무를 띤 차사원差使員을 인견하고 농사를 권장하라고 칙유勅諭함과 아울러 수륙水陸의 봄철 조련操鍊을 정지시켜 농민을 쉬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파주 사족과 서원

정만조_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사대부 가거처可居處와 파주의 사족

선비 '사士' 란 글자는 여러 가지 뜻을 지녔다. 성년 남자를 통칭하여 '사' 라 부르기도 하고, 무사나 병사兵士처럼 병졸의 통솔자란 뜻과 문사文士에서 보듯 글하는 선비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 벼슬자리로서 대부大夫 아래의 벼슬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는 독서인 또는 지식인이란 의미이다.

그런데 중국의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서 모든 사람[民人]을 그 하는 일에 따라 사士 · 농農 · 공工 · 상商으로 구분하면서 글을 배워서 벼슬하는 자를 일러 '사' 라고 한다[學以居位曰士]고 한 이래, '사' 는 단순한 독서인만 아니라 '독서인 출신의 관인' 이란 뜻까지 갖게 되었다. 이렇게 '사' 와 '사대부士大夫' 가 큰 구별 없이 사용되면서 그들의 혈연과 혼인관계에 의한 족속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족' 이 나오게 된다. 원래는 종사하는 일의 구분에 불과하던 사의 직업이 자손에게 세습되는 과정에서 사족이란 신분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다른 여러 의미도 이쪽으로 모여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족과 관련된 세력이 등장하는 시기는 대개 고려 후기로 말해진다. 무인정권 하에서 문장과 행정사무에 능한[能文能吏] 문인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그 중 일부는 원나라에서 새로 도입되는 주자학으로 사상적 무장을 하여 구가세족舊家世族에 맞서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한다. 바로 이들을 역사는 새로이 일어난 사대부[新興士大夫]라 부르며, 조선이란 새로운 국가는 이성계란 무장을 앞세운 이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사대부가 조선 사회의 지배세력으로서 사족이란 사회신분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은 건국 후 근 1세기가 지난 16세기 중종 때쯤이었다고 말해진다.*

이렇게 본다면 양반과 사족의 차이는 무엇일까. 양반이 문 · 무반을 아우르거나 그 일족을 가리키는 의미라면, 사족은 위에서 독서인을 의미한다고 밝혔듯이 문관 내지 문인의 족속을 가리키는 한정된 신분개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는 벼슬하는 집안 사람이란 뜻으로, 흔히 양반사족 또는 사족양반으로 붙여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되었다.

그러면 파주 지역에 사족의 존재는 언제부터 드러나며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갔을까? 이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파주 지역이 과연 사족이 살기에 적합한 곳인지의 여부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조선 후기 『택리지擇里志』라는 우수한 인문지리서를 남긴 이중환李重煥(1690~1752)의 저술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사대부들이 살 만한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 제시하려는 데 있었다. 그에 의하면 사대부들이 살 만한 곳의 조건으로는 첫째 지리地理, 둘째 생리生利, 셋째 인심人心, 넷째 산수山水가 좋아야 한다는 네 가지를 꼽았다. 여기서 말하는 지리는 오늘날의 지리 개념과는 조금 다른 풍수적 의미까지 곁들인다. "지리를 논하려면 먼저 물 나가는 입구[水口]를 보고 다음 들판의 형세[野勢]를, 다음은 산의 모양[山形]을, 다음 흙빛[土色]을, 다음 물의 흐름[水利]를, 끝으로 앞쪽의 산과 물[朝山朝水]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무릇 수구가 이지러지고 넓기만 한 곳은 비록 좋은 밭 만 이랑과 넓은 천 칸짜리 집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저절로 흩어져 없어진다"고 하거나 "사방에 산이 멀리 있으면서 평탄하고 넓으며 산맥이 평지에 뻗어 내렸다가 물가에 그쳐서 들판 터를 만든 곳이 (최상은 아니나마) 그다음이 된다"(『택리지』,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복거총론, 지리, 산수)고 말한 부분은 파주의 지리와도 관련 있는 듯하므로, 조선의 사족들이 파주가 과연 가히 살 만한 곳인가를 따질 때 그 조건으로서 한번 고려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제시해 보았다.

파주를 타고 흐르는 하천은 열서너 곳 남짓하지만, 그 중 공릉천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길이가 대개 4~8km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파주의 지형이 변성암으로 구성되어서 풍화작용을 쉽게 받기에 하천이 대개 모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물은 바로 지하로 스며들어 버린다. 거기에다가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기운 침식된 골짜기에 따라 난 하천이므로 미처 하천물이 고이거나 천천히 흘러내릴 여유가 없었다. 수구조차 임진강을 향해 열려 있는 형세이다. 그래서 고려 말에 안목安牧이란 인물에 의해 크게 개간되었으나 『택리지』 말처럼 후손에게로 오래 전해지지 못했나보다.* 『택리지』에서 파주를 위시한 고양 · 적성 · 교하로 된 서교西郊가 모두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서 사대부로서 권세를 잃고 혹 교외로 나가 살게 되면 한두 세대를 내려가 품관이나 평민으로까지 몰락해 버린다고 하면서 사대부가 살 만한 곳이 못 된다고 한 것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다.

파주가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살 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할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였다. 다시 말해 생리가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했다. 『택리지』에 의하면 그것은 땅을 기름지게 하거나, 아니면 배와 수레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어서 서로 남고 부족한 물자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대체로 보아 조선의 사족들은 16세기 중반 이후 향약이나 사창제 등의 방식을 통해 향촌사회 운영을 주도하면서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위한 영농기술의 개량과 천방川防과 같은 수리시설의 확보에 주력하였다고 한다.**

파주 지역에도 여말선초 이래 세거하여온 향촌세력이 있었고, 또 16세기 이후 파주와의 연고를 찾아 서울에서 낙향한 사대부들에 의해 새로운 사족세력이 형성되며, 흔히 우율학파牛栗學派로 불리는 초창기 기호사림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 사족들이 서울의 서쪽 교외에 위치하여서 편리한 교통도 그렇지만 사대부의 정서 함양을 위한 임진강변의 뛰어난 경승까지 갖춰 사대부의

*안목은 고려 말의 인물로 문과에 급제, 충숙왕 때 판전교시사를 거쳐 1351년(공민왕 원년) 서연관을 지내고 1360년(공민왕 9) 죽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가 파주 지역을 개척한 것은 아마도 만년인 공민왕 때일 것이다. 그런데 이 안목은 문성공 안향의 손자이며 그 집안이 안향 때 개경에서 벼슬하기 시작했으므로 애초에 파주와는 별 관련이 없었고 안목 때 들어와 비로소 파주에 개간을 통해 농장을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족보의 항렬로 보아 파주 일대에 수만 경을 마련했다는 안준은 대체로 조선 초기의 안물로 추정된다. 이 안목의 후손 중에 중종 때 좌의정을 지내고 조광조를 변호하다가 파직된 안당安瑭과 그 종형으로 판서를 지낸 안침安琛이 있다. 그런데 안당과 그 아들들이 1521년(중종 16) 먼 친척뻘 되는 서얼 송사련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멸문의 화를 당하면서 그 집안의 재산도 적몰되었는데 이때 파주 지역의 농토가 다수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때 받은 타격 때문인지 순흥 안씨로 안향 후손들은 대개 선조 이후 현관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주내면 부곡동에 안씨의 후손이 살고 있다.

**염정섭, 『조선시대 농업발달연구』, 태학사, 2002

살 만한 곳이라 할 만한 파주를 땅이 메마르다는 생리 부족 때문에 젖혀 놓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리시설이 마련되고 개량된 농법이 도입되었을 것이다.

효종 초 인평대군 방房의 농장 개설*이나 19세기 말인 광무연간에, 땅이 메말라 잡초만 무성하던 교하의 낙하평洛河坪(현 탄현면 낙하리)과 갈현평葛峴坪(현 탄현면 갈현리)의 수십 리 버려진 들판을 길인수吉仁洙, 박창훈朴昌勳 같은 유력자가 중심이 되어 민인들과 함께 제방을 쌓고 저수지를 설치해 관개를 함으로써 기름진 옥답의 들판으로 바꾼 것**이 그 하나의 예가 된다. 후일 20세기 초에 새로 군지를 편찬하면서 "파주의 토지가 비옥해서 쌀과 콩 등을 경작하기에 알맞다[土地肥沃 米大斗等 耕作適宜]"고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척박한 토지를 힘써 개간하고 개량해 옥토로 만들었던 파주 사족과 농민의 각고의 결과였다.

뿐 아니라 강상江商을 위시한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평양을 거쳐 중국과 맞닿고 뱃길을 따라 국내 어디와도 연결되는 교통상의 요지에 위치한 파주의 생리가 크게 증가했을 터임은 말할 것도 없다.

18세기 이후에 파주가 한강, 임진강을 주된 유통망으로 하는 강상들의 주요거점으로서 상업지역으로 성장하고, 서울 사대부들에게 종전의 묘산墓山 정도로 인식되던 단계에서 벗어나 향제鄕第 · 별서別墅를 건립하여 가히 살 만한 배후 거주 지역으로 새삼 주목을 받았던 것과 함께, 서울 사대부와 직접적 관련을 갖지 않으면서도 주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다른 지역에서 흔히 신향新鄕이라고 불리고 있던 새로운 세력이 파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하는 사례 등이 이런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이 아닐까. 다음에서 파주 지역 사족의 이러한 성장과 활동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송준길, 『동춘집』 권1, 소차疏箚 응지경사집의소應旨兼辭執義疏 기축己丑 11월 – 이 상소에서는 대군방大君房의 농장 개설이 파주의 피폐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대군방의 농장임으로 인해 수리시설이 축조될 것이며 또 최신농법이 적용될 것임으로 인해 오히려 파주 지역의 개간과 농업생산력의 제고를 가져오게 하는 이점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파주군지』, 1923, 경기도 파주군

파주 사족의 기지개-파주향약과 파산서원

여말선초의 시기에 파주 지역의 향촌 사정을 알려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나마 찾아지는 것도, 예컨대 윤곤尹坤 · 윤번尹璠 등 파평 윤씨나, 성달생成達生의 창녕 성씨, 황희와 그 후손의 장수 황씨 등 현관顯官을 지낸 경중사대부京中士大夫의 묘소墓所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그러는 중에서도 파주와 관련된 사족의 움직임을 전해주는 자료로는 순흥 안씨 안목의 농지개간과 덕수 이씨 이명신李明晨의 화석정花石亭이 찾아진다.

성현의 『용재총화』에 보면 고려 말에 안목이 파주에 농토를 크게 개척했고 그 후손 대에 이르러 농지 수만 경에 노비 100여 호를 둘 정도로 크게 번창했으며 15세기 말쯤에는 후손 100여 명이 땅을 나누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안씨 집안의 이러한 재지적 기반은 16세기에 들어와 안씨 후손의 중앙정계 진출은 물론 경중사대부의 파주 입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이에 비해 화석정은 조금 다르다. 세종 연간 공주 · 홍주목사를 역임했던 이명신이 파주 율곡리에 별서를 마련하고 정자를 세웠는데 그 손자 이의석이 황폐된 정자를 중수하며 화석정이라 이름했다고 한다. 물론 이 화석정 근처에 약간의 전토田土도 장만해 놓고 집안의 노비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며 정자를 관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덕수 이씨 집안 사람들은 후일 이의석의 증손자가 되는 율곡 이이가 그랬던 것처럼, 벼슬에 나가기 전에는 몇 년간씩 여기서 머물며 학문적 온축을 쌓는가 하면, 벼슬하는 도중에도 틈을 내어 화석정을 찾고 혹 벼슬이 떨어져 불우해지면 이곳에 와서 만년을 보내는 장소로 활용하고는 하였다.

그러나 화석정이 있는 파주 율곡 일대에 위의 안씨 집안처럼 생활 기반 자체를 두고 세거世居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덕수 이씨 집안에 있어서 이곳은 집안의 별서가 있는 곳이며 경제京第를 떠나 잠시 머물 수 있는 휴식 겸 학문 연마의 장소인 향제鄕第였을 뿐이다. 아마도 위에서 든 파평 윤씨, 창녕 성씨, 장수

화석정

파산서원

용주서원

자운서원

황씨, 청송 심씨 등 묘산을 둔 경우도 이와 같다고 생각된다. 이런 사정은 이곳에 분묘를 가졌던 성현의 『용재총화』가 잘 전해주고 있다. 요컨대 15세기 내내 파주는 서울 근교로서 경중사대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다하였던 것이다.

물론 파주 지역에 세거하는 향촌세력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사족 신분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존재들은 아니었고 그래서 기록 자체가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파주 지역의 향촌사회에 변화가 온 것은 16세기에 들어와 성수침 · 백인걸 등의 인물들이 입향하여 자리를 잡게 되면서였다. 이들은 당시에 새로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대두하던 사림의 영수 조광조의 문인들이었다. 왕실과의 결탁을 통해 온갖 비리와 부정을 자행해 온 집권세력을 비판하며, 현실에서의 도학정치 구현을 목표로 사회 전반의 개혁을 주장하여 온 사림은 그러나 조광조

등 개혁 주체가 실각하고 죄를 입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에 머물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향리로 낙향하거나 연고지를 찾아 은둔하며 수기修己와 학문에 힘쓰게 된다. 서경덕 · 이황 · 조식 · 이항 등 조선 성리학을 수립한 대가들이 혹은 개성에서 또는 안동의 예안, 진주의 덕산, 전라도 태인을 근거로 하였던 것이 이를 말한다. 성수침과 백인걸이 파주를 찾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 중 성수침은 이미 그 선대에서부터 파주에 분산墳山을 두기도 하였지만 처妻(윤사원尹士元의 딸) 향鄕이 바로 파주읍 향양리의 우계牛溪여서 1541년(중종 36) 아예 서울 백악산白岳山 아래 청송당聽松堂의 살림을 거두어 이곳으로 옮기고 죽우당竹雨堂을 지어 정착하였다. 이후 조선 말까지 그 후손들은 이곳을 근거로 수백 년을 세거하게 된다.

한편 백인걸의 경우 그 어머니가 고려 말의 명신이던 우현보禹玄寶의 후손 우종은禹從殷의 딸로 교하 만우리萬隅里가 친정이었고, 또 후처後妻(순흥 안찬順興安璨의 딸)가 앞서 파주 · 교하 일대에 수만 경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안목 후손 집안 사람이어서 일찍부터 월롱산 아래에 우거寓居하여 왔다.

성수침과 백인걸의 파주 거주는 그동안 집권세력이던 훈척의 분산 · 별서 등으로서 서울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던 파주 향촌사회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당장은 사화의 여파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으나, 이 시기 사림의 향촌 활동을 특징짓는 향약이 이미 1560년(명종 15) 시행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훈도 하에 장차 선조 이후의 사림정치와 성리학을 이끌어 갈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일 파주 지방의 대표적 인물을 수록한 파주향선생안[鄕案]을 작성하면서 그 이전에 인물이 없지는 않았으련마는, 이 성수침 · 백인걸로서 첫머리로 삼았던 것은 파주의 사림 사회가 두 사람의 입향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조선시대에 사림 사이에는 영남 지방을 일러 흔히 추로지향鄒魯之鄕이라 하였다. 추로란 맹자와 공자가 태어난 지방을 이르는 곳인 만큼 정몽주 이하 이황 · 조식에 이르는 뛰어난 유학자를 배출한 영남이 조선 유학의 본고장이란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영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파주도 식자 간에 조선의 추로라고 불

리었다. 성혼의 문인으로 후일 임진왜란 때 왜군에 잡혀 일본에 압송되었다가 돌아와 『간양록看羊錄』이란 포로생활 당시의 기록을 남긴 강항姜沆이 광해군 연간에 지은 파산사현四賢서원(파산서원 재건 당시의 임시 명칭, 후술 참조)의 찰륜당察倫堂 상량문上樑文에서 "파산 한 고을은 마치 노나라처럼 어진 사람이 많았으니[坡山一邑 似魯國之多賢]"라고 하여 이미 파주를 공자 고향인 노나라에 비유했던 것이라든가, 1713년(숙종 39)에 파주 유학 조익주曺翊周 등이 올린 상소나 숙종 말에 학자로 이름 있던 후재厚齋 김간金幹의 글에서 "파주 고을은 평소에 우리나라의 추로라고 불리었다[坡州一邑 素號我東鄒魯]"고 한 말이 그 예가 된다.

추로라고 하려면 훌륭한 학자가 배출되었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성수침과 백인걸도 거론되지만 파주로 하여금 조선의 추로라는 이름을 얻게 한 학자는 바로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이었다. 두 사람은 살아서는 도학을 함께 논하고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동지였고 죽어서도 우율牛栗 또는 율우栗牛로 불리면서 문묘종사文廟從祀는 물론 훼예毁譽를 함께하는 동전同傳이었다. 퇴계 · 남명에 의해 영남학파가 형성되었다면 그에 맞서서 기호지방의 유학을 대변하는 기호학파는 바로 '이珥 · 혼渾', 또는 '율栗 · 우牛'로 별칭 되는 두 사람을 스승으로 하는 그 문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우율이 같은 시기에 함께 살았던 곳이었기에 파주를 조선의 추로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이와 파주의 인연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그 5대조 이명신이 마련하고 증조부인 이의석李宜碩이 재건한 화석정과 파평면 자운산 아래의 율곡리에 있는 세업世業(전토田土 · 노비奴婢 · 농사農舍)에서 맺어졌다. 강릉 외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6살 때 서울로 온 이이가 이미 8살 때 화석정 시를 지었다고 하므로 소년 시절부터 서울 본가와 파주 전사田舍를 왕래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49세로 서울에서 작고하여 자운산 기슭에 묻힐 때까지 율곡의 활동은 파주를 주된 근거로 하여 전개되었다. 물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선 이후는 서울에서 머물고, 또 35세 되던 해에 살림집을 처가인 해주 야두촌野豆村으로 옮기며 망형亡兄의 큰집 식솔까지 다 불러 모아 아예 생활 기반을 해주에 마련하였음으로 인해 율곡을 파주 사람이라고 하는 데는 혹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성숙과 저술이 이 파주에서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그의 아호인 율곡

이 바로 파주 자운산 아래의 전사가 있던 지명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 율곡을 파주 사람으로 간주하게 하는 유력한 근거이다. 사실에 있어서도 그는 금강산으로 입산했다가 돌아온 19세 이후, 때로 성친省親을 위해 서울과 강릉(외조모)을 찾는 외에는 과거에 급제한 29세 때까지 파주에 머물렀다. 여기서 평생의 지기였던 우계 성혼과 교의를 나누며, 특히 인근에 살던 성수침과 백인걸로부터 정암 조광조의 도학과 정치적 경륜을 듣고 배웠다. 기일원론적氣一元論的 성리철학과 경장론 위주의 율곡정치론은 바로 이 파주 율곡리의 전사에서 기초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율곡은 서울에서 벼슬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물러날 때에도 파주를 찾았다. 그의 연보에 보면 1576년(선조 9) 개혁에 소극적인 임금의 태도에 실망하여 은퇴를 결심하고 서울 살림을 정리하여 해주의 석담에 옮겨가 1년여를 머물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1584년(선조 17) 작고할 때까지, 벼슬에서 물러나면 으레 파주의 율곡 전사에서 병을 다스리고 휴식한 것으로 나온다. 1574년(선조 7)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으로 명을 다녀온 허봉의 사행일기인 『조천록朝天錄』에 보면 파주를 지나면서 율곡을 찾았는데 파리한 병색의 율곡이 마침 『성학집요』를 편찬하고 있어서 이를 놓고 함께 토론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성학집요』는 삼대의 지치를 이루기 위해 임금이 해야 할 수기修己와 치국治國의 방향을 조목조목 논한 제왕학의 대표적인 저술로 손꼽힌다. 이 『성학집요』뿐만 아니라 율곡 경장론을 담은 소장疏章이나 『격몽요결』, 「학교모범」, 「경연일기」와 같은 문자 역시 대개 이 파주에서 머무는 기간 구상되고 편찬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파주는 '율곡학'이라고 이름 불러도 좋을 율곡 학문의 산실이었다고 할 것이다.

율곡과 함께 파주를 대표하는 유학자는 성혼이었다. 성수침의 아들로 서울의 순화방順和坊에서 태어나 10살 때 부친을 따라 파주 향양리로 옮겨온 그는 율곡처럼 거주지 앞을 흐르는 개천 이름인 우계牛溪를 자신의 호로 삼았다. 그러나 율곡이 그 생활 기반을 해주 석담으로 옮겼던 것과 달리 64세로 작고할 때까지 파주의 우계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 후손들도 향리를 지키며 조선 말까지 세거하였다. 부친으로부터의 가정교육과 아예 백인걸의 문인으로 수학하였던 관계로

학통상으로 본다면 그는 율곡보다도 조광조로 대표되는 조선조 도학의 정통을 계승한 선상에 위치하였다. 그래서인지 서울과 인근 고양의 윤두수 · 근수, 정철, 심의겸 같은 인물이나 저 멀리 영남의 남명 조식의 제자인 최영경, 정인홍과 양홍주 같은 선비들까지 그의 집을 출입하는 등 일찍부터 명망을 얻고 있었다.

지명으로서 자운산 아래의 율곡과 명학산 자락의 우계의 거리는 두어 마장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율곡이 금강산에서 돌아와 성리학에 뜻을 두게 되는 19세 되던 해, 20세이던 우계와 서로 붕우朋友의 의리를 맺어 이후 생동지사동전生同志死同傳하는 학문과 인격의 결속체를 이루게 된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재분껏 한 사람은 궁리격치窮理格致하여 경세관료經世官僚의 길을, 또 다른 사람은 반궁실천反躬實踐하는 산림학자山林學者의 길을 걸었지만, 사단칠정인심도심설四端七情人心道心說의 논란을 통해 앞선 사람들 주장의 미심쩍은 부분을 밝혀 조선 성리학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당시 정국의 운영방향이라든가 현안 타개방법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수준 높은 사림정치론을 수립하였다. 양인의 학덕이 깊어지고 명망이 드러나면서 경향 각처로부터 문업問業하려는 선비들이 이들을 찾아 모이게 된다.

율곡이 서울서 벼슬하고 파주에서 학문을 닦으며 해주에 생활 터전을 두었기에 세 곳에 그 문인들이 분포했다면, 우계는 파주를 본거지로 움직이지 않아서 파주 한 곳에만 문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율곡이 실제로 서당을 열어 강학을 한 곳은 해주였다. 그래서 은병정사를 세우고 학규를 정했으며, 「사창계약속」, 「해주일향약속」 등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파주 지역과 관련된 이런 내용은 향약 서문을 지은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성혼은 자신을 찾아오는 학도를 가르치기 위해 자기 거처인 파주 우계에 서실書室을 열고 22조목으로 된 「서실의書室儀」를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율곡의 경우 세 곳에 문인들이 있었다 하나 그 학문적 기반을 파주에 두었던 관계로 서울과 해주의 문인까지 파주로 출입하였고, 우계와 동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개 그 문인들이 율곡 · 우계의 양문兩門을 같이 출입하였다. 바로 여기서 퇴계와 남명의 문인을 주축으로 하는 영남학파 내지 영남사림에 비견되는, 우 · 율 문인을 주력으로 하는 기호학파 내지 기호사림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 인물을 꼽아보자면 김장생 · 이귀 · 조헌 · 오윤겸 · 윤황 · 황신 · 신응구 · 정엽 · 김권 · 김집 · 김류 · 김상용 · 신흠 · 강항 · 이정구 · 김육 등 인조 이후 명인으로 드러나는 인물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물론 파주 출신은 아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 연산, 심지어는 전라도 능주(안방준)에까지 걸친다. 이렇게 먼 지방의 사림들까지도 우 · 율을 좇아 모였고 그 중심지는 파주였다. 더구나 1584년(선조 17) 율곡이 작고하고서는 우계만 남은 상태이고 그 우계가 파주에만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파주는, 특히 그 형성기에 있어서 기호사림의 본거지였다고 하겠다. 앞서 잠시 나왔지만 파주가 조선의 추로라고 불린 까닭은 이러한 데 있었다.

우 · 율의 학자적 명성과 파주에서의 강학활동 및 그 문도들의 결집으로 인한 기호학파의 형성은 후일 그 기반으로서 파주의 이름을 조선의 추로라고 불릴 정도로 널리 알리게 하였다. 따라서 파주 지역 사족의 분위기 또한 종래의 훈척적인 데서 사림적인 방향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1547년(명종 2) 파주 백성들이 벼슬이 갈리어 돌아가는 목사의 행렬을 가로 막고 그 행장을 빼앗은 일이 있었다. 백성은 굶어 죽는 판에 진휼은 하지 않고 관물官物을 싣고 어디로 가느냐는 항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단이었다. 조정은 이를 난민으로 보아 엄한 처벌을 내렸지만 한편으로는 유교적 교화를 통해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순치시켜야 하였다. 주자가 상부상조의 물질적 기초 위에서 유교 윤리에 의한 향촌질서 수립을 목적으로 제정한 향약은 여기에 합당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그리하여 퇴계의 예안향약처럼 뜻있는 유학자가 향촌별로 시행하는가 하면 국가는 수령들에게 이의 시행을 권유하였다. 그래서 파주에도 1560년(명종 15) 목사 변협이 관내 두세 명의 유덕자[長子]와 의논하여 향약의 내용을 실정에 맞게끔 제정하고 율곡에게 그 서문을 부탁하였던 것 같다. 현재 향약의 내용은 전하지 않으나 율곡이 지은 파주향약 서문은 남아 있다.

목사 변협은 몇 년 후 제주목사로 있으면서 문정왕후를 믿고 발호하다가 제주로 귀양 온 승려 보우를 매로 때려죽인 사림계 인물이었다. 그리고 율곡 서문에 보이는 두세 명의 어른도 아마 성수침 · 백인걸 · 성수종成守琮 같은 사림계 인사였다고 보인다. 불과 25세밖에 안 된 율곡이 서문을 쓴 것도 놀랍거니와 이를 통

해 율곡이 파주 지역의 유교윤리 보급과 교화에 앞장서고 있음과 다른 지역에 비해 파주에 사림적 향촌질서 수립 움직임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선구적으로 시도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우 · 율을 중심으로 한 파주 사족의 동향을 찾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파산서원의 건립이다. 퇴계 이황에 의해 도학 이념의 확립과 특히 사림양성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보급되기 시작한 서원은 명종 말까지만 하여도 전국의 10여 곳에 세워진 데 불과하였다. 이들 지역은 대개 사림계 인물의 활동이 활발하거나 사림세가 강한 곳이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서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 서원을 중심으로 사림세가 확산되고 그 지역이 사림적 분위기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는 의미를 지녔다. 이런 의미를 지닌 서원의 건립이 1567년(선조 원년) 이율곡의 주동에 의해 파주 지역에서 추진된다.

『청송집』에 실린 월사 이정구의 「파산서원 봉안제문奉安祭文」을 설명한 머리글에 의하면 1567년 율곡이 사림 간에 통문을 내어 청송을 제향하는 서원 건립을 발의하고 이어 영건에 들어갔으나 공사가 늦어져 미처 위판位板을 봉안하기도 전에 임진왜란을 만나서 병화에 불타 버렸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문이 『율곡문집』에 실려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서원 건립을 알리는 일반적인 통문의 예로 보아 대체로 '파주청송선생서원영건통사림문坡州聽松先生書院營建通士林文' 하는 정도의 제목으로 청송의 학덕學德을 들어 서원에 제향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고, 서원 건립에 따르는 물심양면의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정랑 벼슬에 있던 청강淸江 이제신李濟臣이 청송의 아들인 성혼에게 청송뿐만 아니라 절의로서 이름 높던 그 아우 성수종까지 함께 제향할 것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이 통문에 대한 관료를 포함한 사림들 간의 반향은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반향이 큰 데 비해서 물질적 지원은 여의치 못했던 것 같다. 임진왜란 발발이 1592년(선조 25)이니까 발의에서부터 25년이 지나도록 위판 봉안마저 못할 정도로 공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한다.

이렇게 청송서원의 건립이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서원 건립의 일반적인 예로 본다면 지방관의 인적 · 물적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서원 건립

과정이 지지부진했다는 것은 이때의 파주목사 역임자들이 서원에 관심이 적었거나, 지원할 만큼 파주의 재정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조 초에 생겨난 동인 · 서인의 붕당 명목에서 율곡과 우계가 수적으로 크게 열세인 서인 쪽에 속하였던 것도, 일반 관료의 보다 많은 지지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파주 지역의 사림세가 아직 향촌을 주도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데 있지 않았을까 한다. 비록 청송 · 휴암이 사림적 가치와 생활의 모범을 보였고 율곡과 우계가 목사와 협력하여 향약을 실시하며 학문 활동을 통하여 문인집단을 양성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원래 조선 초 이래 중앙관리의 분산墳山과 별서 등을 통하여 구축되어 온 훈척적 기반과 정서가 강하게 남아 있어, 파주 향촌의 분위기가 반드시 율곡 · 우계가 추구하는 사림적 질서와 방식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사림양성 기구인 서원 건립이 지지부진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파주 지역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선조 대에 들어와 사림이 비록 정권을 장악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완전치 못하였음으로 해서 향촌에까지 사림 집권의 효과가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퇴계를 위시한 학자들이 향약의 실시를 주장하고 서원의 보급에 앞장섰던 것이다. 율곡과 우계 등이 주동한 파주 청송서원 건립 추진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20여 년이 넘도록 서원 영건사업은 끝나지 않았고 위판 봉안마저 하지 못했다. 그것도 율곡 · 우계 등에 의해 주자학이 강론되고 성리학적 향촌 질서의 수립에서 다른 곳보다 선진적이라고 할 파주에서 말이다.

이것은 무려 반세기 이상 걸린 4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비로소 정권을 쥘 수 있었던 집권과정과 마찬가지로, 향촌사회의 사림화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파주 향촌사회의 사림화와 사족 활동의 활성화는 율곡 · 우계의 다음 세대가 활동하는 시기인 17세기를 기다려야 했다.

추로지향 파주의 한 모습–합향론과 위차 논란

임진왜란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백성이 유리하고 국토가 황폐화된 것은 물론 국가 지배체제마저 무너져 내렸다. 한 마디로 국가의 운명이 끝에까지 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조선은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자가 당면하였던 가장 큰 과제는 국가의 재건이었다. 그리고 그 임무는 임진왜란에서의 전란 극복과 의병활동을 통해 그 존재를 확고히 하면서 가장 유력한 사회세력이 된 사림과 그 모집단인 사족이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해법은 중앙에서 사림정치의 구현과 향촌에서의 지주제 · 자치제의 구축으로 전개되지만,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그들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그리하여 사림정치의 붕당적 구도 속에서도 상대당의 존재를 용인하고 정권에 함께 참여시키는 조제론調劑論이 힘을 얻었다. 일당의 독점지배를 추구하던 광해조의 북인정권이 연합된 사림의 힘에 의해 축출된 것이 그 예이다. 향촌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사족 간에 결속을 강화해주는 향안鄕案 · 향규鄕規나 사족과 향촌민 사이의 유대를 연결하는 향약 · 사창제社倉制 등이 조직되고 시행되었다.

이런 속에서 모든 활동의 주축인 사림을 양성하고, 그 결속과 활동에 기반을 제공하는 서원이 향촌 사족의 중심기구로 등장하게 됨은 당연하였다. 서울의 근교여서 중앙정치의 여파가 직접 미치는 특성을 갖기는 하지만 파주 지역이라고 하여 이런 추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개별적인 서원 건립이 추진되면서 동시에 사림 결속의 형태로서 서원 통합의 논의가 진행된다. 이런 까닭으로 17~18세기 파주의 사림 동향을 서원합향론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이이 · 성혼이 배출되었기에 조선의 추로지향으로 자부하는 만큼 그들의 학문을 계승하고 학풍을 유지하기 위한 서원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의 서원 건립은 금방 추진될 수 없었다. 왜란의 피해로 물력은 물론 인력마저 크게 부족하기도 했거니와 북인이 정국주도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율 · 우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고한 율곡도 그렇지만, 특히 우계는 정여립옥사를

뒤에서 조종한 원흉이며, 왜란 때 신하의 절의를 다하지 못한 데다가 일본과의 화의론을 주장했다 하여 간신으로 몰려 죄안罪案에 들어가 있었다.

상황은 광해군이 즉위하고서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도학적 기준이 당론을 공론으로 판정하는 요소가 강화되면서 각 당마다 자기 당의 도학적 정통성을 담보하는 유학자를 현양하는 경향이 이미 현저해진 상황이었다. 남인계의 이황이 포함된 5현의 문묘종사 요구에 대해 북인계 또한 그 학문계보인 남명 조식과 화담 서경덕의 문묘종사 추진과 곳곳에 서원 건립을 도모하고 있었다.

남인의 5현종사에 동조하던 서인계 역시 이에 대처해야 하였다. 1610년(광해 2) 5현종사가 실현된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 학적 연원인 율곡과 우계를 현양해야 한다는 소리는 이런 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1615년(광해 7) 율곡을 제향하는 서원이 파주 자운산의 율곡 묘소 아래(현 법원읍 동문리)에 먼저 세워지게 된다.

율곡 제향의 초기 자운서원 건립관계를 전하는 자료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나마 자운서원 관련 자료를 모았다는 『자운서원지』(1999년 간행)에는 처음 세운 위치를 후일 이전한 호명산虎鳴山 천참泉站(현 천현면 가야리)이라고 잘못 적고 있기까지 하다.

임진왜란 당시 외교문서 작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문장가로 이름 높았고, 후일 인조 때 율곡의 시장諡狀을 지었던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가 전하는 바(『월사집月沙集』 권35 답정시회엽答鄭時晦曄, 권36 여신자방응구겸시윤가회방與申子方應榘兼示尹可晦昉)에 의하면 자운서원은 1615년(광해 7) 모월 15일에 율곡 위판을 봉안하였다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참석자는 김류金瑬 등 관인 3명과 유생 몇 명이었고, 황해도에서 온 유생 수십 명에 파주 본읍의 유생 40명 정도, 그리고 윤도사尹都事, 조좌랑趙佐郎과 백발의 노인이 모두였다고 한다.

위판 봉안이란 경사가 있는 당일의 이런 쓸쓸한 모습을 전하면서, 이는 서울 사대부들이 사고가 많은 데다가 '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고는, 그러나 "한줄기 사문斯文을 부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흉한 무리에게까지 알려서 그들 마음대로 일을 망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一脈斯文 猶足扶持 不必使兇徒與聞而任其壞了也]" 하여, 불리한 정세 속에 율곡서원의 건립이 쉽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로 말하면 이때는 영창대군 추대설과 연관된 계축옥사의 여파로 많은 서인이 박해를 받고, 북인의 폐모론이 그 마각을 보이던 시점이었다.

벼슬하는 관인들이 눈치 보느라 봉안식에 참석을 꺼릴 정도였다면, 백면서생인 파주 사림이 받았을 유·무형의 압력이 어떠하였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이 간다. 그러나 그런 위협 속에서도 참석 유생이 40여 인이나 되었다는 데서, '기력'이 부족하다는 관인에 비해 파주 사림의 '용기'가 돋보이기도 하려니와, 그만큼 파주 지역 사림의 활동이 활성화되었다는 증거를 찾게 되는 것이다.

파주에 율곡서원이 세워졌다면 당연히 우계서원도 함께 건립되었어야 하였다. 아니 오히려 파주와의 연고를 고려하고 십몇 년을 더 살아서 그만큼 파주에 더 많은 문인을 두었던 사정을 생각한다면 율곡보다 우계서원이 먼저 세워져야 하였다. 사실 율곡서원이 세워지기 전인 1611년(광해 3)에 이미 우계를 제향하려는 서원 건립 움직임이 있었다.

파산서원 제향 모습(위)과 자운서원 제향 모습(아래)

우계 문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에서 포착되는 이런 움직임은 파산서원의 재건을 통해서였다. 선조 초 율곡의 주동으로 시작된 청송 제향의 파산서원은 결국 준공을 보지 못하고 전란을 만나 불타고 말았는데, 그 재건 논의가 우계 제향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다. 다만 이때의 논의는 청송·우계의 부자간만 아니라 휴암 백인걸과 율곡까지 포함하여 추로지향으로서의 파주를 대표하는 이른바 '파산4현坡山四賢'을 함께 제향하자는 방향이었다.

1618년(광해 10)에 죽은 우계 문인 강항姜沆이 지은 「파산사현서원찰륜당상량문坡山四賢書院察倫堂上樑文」이 그의 문집(『수은집睡隱集』 권2)에 실려 있고, 이식李植 역시 「파산서원상량문」(『택당별집擇堂別集』 권12)에서 "4현이 한 나

라의 우러러 보는 바 되고 끼친 큰 덕업이 향촌 간에 가깝지 않은 바 없도다"라고 하면서 청송 · 휴암 · 우계 · 율곡의 덕업을 차례로 거론한 것을 보면, 적어도 1618년(광해 10) 이전에 '파산4현서원'이란 임시 명칭으로 찰륜당과 같은 강당이 지어질 만큼 4현 제향을 목표로 한 파산서원 중건 작업이 구체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파주 고을이 추로지향임을 내외에 표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읍1원一邑一院'이라는 원칙도 지킬 수 있어서 당시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뒤따랐다. 우선 우계를 주화오국의 간신으로 매도하는 집권당의 편향된 시각 속에 우계 제향을 밀어붙일 수는 없었다. 중건을 알리는 회문回文의 머리글[頭辭]에 단지 청송 이름만 넣자는 궁여지책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것이 그런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용주서원 제향 모습

다음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서 청송 · 휴암 · 우계 3인과 율곡을 함께 제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거론되었다. 단순히 향현鄕賢을 봉안하는 사우祠宇가 아니고 사림을 양성하는 도학의 장소이니만큼 우계라면 몰라도 청송 · 휴암과는 서원에 함께 제향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함께 위패를 봉안한다 하더라도 위차位次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논란거리였다. 그저 쉽게 세대순으로 정하는 것은 이미 도학 위주의 서원으로 이름한 이상 명실이 어긋난다. 다만 우계는 청송과 부자간이고 휴암과는 사제간이니만큼 함께 봉안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끝에 결국 율곡을 위해 별도의 서원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정엽 등의 주장(『수몽집守夢集』 권8, 답신자방答申子方)이 힘을 얻게 된다. 율곡만을 제향하는 자운서원의 건립이 파산서원 중건 추진 세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김장생 중심의 율곡 직계 문인의 주동에 의해 파산서원의 중건보다 먼저 이루어진 사정은 이러한 데 있었다.

율곡서원의 독립으로 난제가 해소되고 그에 따라 우계의 서원 제향 또한 급해졌으나, 그렇다고 파산서원의 중건이 바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파산서원이 중건되어 우계의 위패가 봉안된 것은 10여 년 뒤인 1628년(인조 6)이었다. 인조반정

으로 서인이 집권함으로써 우계의 죄도 신원되고 더 이상의 제약이나 장애적 요소가 없어진 다음이었다. 그런데 중건된 파산서원에는 청송·우계 부자의 위패만 봉안되었지 휴암의 자리는 없었다. 율곡이 빠져 나감으로써 파주4현의 명분이 없어지기도 했거니와 우계 문인과 그 집안 후손 쪽으로 보아서는 율곡의 자운서원에 비견되는 우계의 독립적인 서원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때의 휴암 제향론은 파산서원 중건의 명분을 보강해 주는 선에서 일단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 논의는 후일 효종 말에 다시 제기되어 한때는 자운서원에 별사別祠를 두는 것으로 낙착되었다가 끝내는 파산서원으로 옮겨 봉안되고, 후일 성수종의 추향에 따른 위차 시비에 휘말려 그 후손 문파 간에 분기를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1649년(효종 원년) 국가의 사액을 받는 등 자운과 파산서원은 각기 그 제향 인물의 학통을 계승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일대에 생활 기반을 가진 후손과 문인을 주축으로 서원을 운영하며 우계 학맥을 지켜오는 파산 쪽과 달리 자운서원 쪽은 날로 피폐해짐을 면치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율곡에게 적사嫡嗣가 없기도 했으려니와 그나마 있는 후손마저 해주 석담에 거주하고 있어 서원을 관리할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서원 간의 이러한 차이는 같은 우·율 문인이라 하면서도 율곡의 적전임을 자처하면서, 우계 후손과는 다소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김장생과 그 문인들인 율곡 직계 사림들의 불만을 불러왔다. 송시열이 "파산 쪽은 그 후손이 번성해 돌보기 때문에 더 보탤 것이 없이 잘 갖추어 있으나, 자운 쪽은 무덤마저 황폐하여 처량하기 짝이 없다. 입만 열면 선생을 높인다고 하면서 이런 일은 나 몰라라 하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랴"고 탄식한 것(『송자대전宋子大全』 권44, 여홍원백중보與洪遠伯重普, 무신 10월 28일)이 그 좋은 예이다.

어떤 형태로든 자운서원과 율곡 묘소 쪽의 재건과 정비가 있어야 하였다. 아래에서 말하겠지만, 효종 말년 자운서원의 천참(현 천현면 가야리) 호명산 아래로의 이건移建을 통한 중수와 휴암 백인걸의 제향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청송·휴암·율곡·우계의 4현을 한 곳에 합향合享해야 한다는 의논이 다시 일어나고 그에 따라 파산서원까지 이곳 천참으로 옮겨야 한다는 서원통합론이 한창 논란

되다가 결국 성사되지 못하여 자운서원은 원위치하며 휴암 위패는 파산서원 쪽으로 옮겨지는 변화를 겪고, 그러는 속에서 자운서원 묘정비를 세움과 함께 율곡 후손後孫을 해주에서 이곳으로 옮겨 살게 해 관리를 맡게 하였다. 이삼십 년간에 걸쳐 파주에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이런 배경 위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의 중심에는 우암 송시열이 자리하고 있었다.

낡은 자운서원의 중수는 묘소 부근에서 천참의 호명산 아래로 이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겸하여 이건된 서원에는 쌍묘雙廟를 두어 율곡 이외에 휴암 백인걸도 제향하게 하였다. 그 시기는 대개 효종 말년경인 1658년 전후였고 파주목사 김광찬金光燦이 이 일을 주관하였다. 김광찬은 척화론으로 유명한 김상헌金尙憲의 아들이며 후일 숙종 때 영의정까지 지낸 김수흥 · 수항 형제의 부친이었다. 그러나 김광찬의 배경이 이러하고 또 현직의 파주목사였다 하더라도 자운서원의 이건과 휴암 제향이란 유림의 중대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과연 박세채가 송시열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보낸 편지(『송자대전』 권44, 답송우재별지答宋尤齋別紙)에 보면 송시열이 파주목사에게 이를 권유했음이 드러난다.

서원의 건립에는 막대한 물력과 사람의 힘이 들어간다. 그러나 뜻있는 수령이라면 다소 무리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수는 있다. 마침 백인걸 집안 쪽에서 그의 옛 자취가 남아 있는 월롱산의 휴암 아래 서원을 세우고자 모아 놓은 재물이 있었다. 우암으로서는 자운서원을 중수할 좋은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평소에 의리를 같이하며 절친하였던 김광찬이 파주목사가 되자 이를 밀어붙였다고 본다. 이때 천참에 세워진 자운서원에 대해서는 이경석이 「자운서원율곡선생이봉축문紫雲書院栗谷先生移奉祝文」(『백헌집白軒集』 권

자운서원 묘정비

34)을 남겼다. 여기 보면 "(전날의 서원은) 땅의 형세가 좁고 답답하며 쉽게 무너질 염려가 있었는데 이 천참은 가까우면서도 동네가 탁 트여 넓었다. 그래서 많은 선비들이 뜻을 같이해 재물을 모아 사우를 세우고 … 좋은 날을 골라서 위패를 옮겨 모신다. 또한 휴암도 서쪽 편에 모셨는데 평소의 관계를 고려해 따로 위패를 두게 한 것이다. 서원 이름은 옛 명칭대로 하되 규모를 늘리고 새로 수축하였다"고 되어 있다. 옮길 당시의 정경을 잘 전해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건하게 된 이유를 옛터가 좁아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이를 뒤에서 지휘한 송시열에게는 보다 큰 뜻이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앞서 광해 초에 시도하다가 중단된 청송 · 휴암 · 율곡 · 우계의 파주를 대표하는 4현을 합향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율 · 우의 문묘종사와 함께 명분상으로 조선의 추로지향으로서 파주의 위상을 확실히 드러나게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율곡을 홀로 제향하는 자운서원 건립에서 오는 운영상의 애로나 관리상의 문제점을 바로 해결해 주는 현실적 방안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백인걸 측의 불만이었던 휴암의 서원향사를 실현할 수 있어 향촌 명문 집안 간의 갈등해소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고, 1653년(효종 4) 충청감사 서필원徐必遠의 서원폐단소에서 비롯된 '한 고을 여러 서원[一邑多院]'에 대한 세간의 비난에서 벗어나며, '한 고을 한 서원[一邑一院]' 이란 국가 시책에 파주가 모범을 보인다는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자운서원의 천참 이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해도 결과마저 좋기는 어려운 법이다. 하물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실현마저 불투명해지게 마련이다. 바로 파주4현 합향 문제가 그러하였다. 합향은 파주에 있던 기존 서원인 자운과 파산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하였다. 자운서원이야 천현으로 옮기면서 휴암까지 받아들인 통합의 주체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터였다. 문제는 파산서원 쪽이었다. 청송의 파주 입향 이래 이미 3, 4대를 지나면서 친손은 물론이고 외손 · 외예外裔와 우계학파라 이름할 만한 문인 후손의 집단이 파주 전 지역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파산서원은 바로 이들의 구심체며 학문 및 향촌 활동의 기반이었다. 우계의 외손으로 충청도 노성魯城에 본가를 둔 윤선거가 파산서원에 머물

며 우계의 「서실의」를 걸어놓고 파주 사림들과 강학했다는 것은 작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파산서원이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선뜻 통합론에 그러자고 동의하고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통합론을 주도하던 송시열은 당시 파산 쪽의 실질적인 대표인 윤선거와 의논하였다. 윤선거도 통합의 원칙에는 동의하였다. 그러나 다음으로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4현의 위차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송시열 · 송준길 · 유계 · 이유태 · 윤선거의 이른바 호서5현湖西五賢은 물론 박세채 · 윤증 사이에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절충하는 말과 편지가 수없이 오갔다.

윤선거가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송준길에게 보낸 「여송명보론파산위차지의與宋明甫論坡山位次之議」(『노서유고魯西遺稿』 권11)에 의하면 논의는 모두 5가지였다. 첫째는 세대에 기준해 위차를 정하자는 안[世代序享]으로 김집의 주장이고, 둘째는 현재와 같은 3묘三廟, 즉 파산의 청송 · 우계 1묘와 자운서원의 율곡 1묘, 휴암 1묘로 두는 안이며, 셋째는 서원을 통합하되 쌍묘雙廟로 나누어 서묘西廟는 청송 · 휴암, 동묘東廟는 율곡 · 우계를 제향하자는 안으로 송시열이 지지하고 송준길은 유보적이었다. 네 번째는 합해서 1묘만 두고 동서로 나누어 서쪽에는 청송 · 휴암, 동쪽에는 율곡 · 우계를 배치하자는 파주 사림의 안이며, 다섯째는 3안, 4안을 약간 수정하여 정암 조광조와 퇴계 이황을 각기 가운데 주향으로 하고 정암 쪽에 그 문인인 청송 · 휴암을, 퇴계 쪽에는 율곡 · 우계를 배향하자는 고운孤雲회의에서 나온 주장인데 우암(송시열) · 동춘(송준길) · 초려(이유태)가 모두 불가하다고 했다 한다.

이 다섯 가지 안 중에서 윤선거 자신은 세 번째 합설쌍묘분향合設雙廟分享을 지지하나 다만 송준길이 동묘가 높다 하므로 그에 따라 동묘에 청송 · 휴암, 서묘에 율곡 · 우계의 위패를 봉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결국 송시열 · 송준길 · 윤선거의 의견은 자운과 파산의 두 서원을 합하여 4현을 각기 두 분씩 분향하는 쌍묘를 두되, 강당과 동서재 그리고 서원 소속의 토지나 노비를 모두 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면 서원 재정의 부족이나 관리의 부실과 같은 폐단을 막고 추로지향으로서 파주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율곡의 적통인

양송兩宋(송시열 · 송준길)이 주장하고 우계의 외손인 미촌美村(윤선거)이 적극적으로 동의한 만큼, 송시열의 처음 의도대로 천참에 옮겨 세워진 자운서원에 파산까지 옮겨와 하나의 서원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 방안도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다. 박세채가 조목조목 따져서 합설쌍묘분향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윤선거가 뒤로 물러나 버리고, 우계의 자손들 또한 파산서원은 청송 · 우계의 체취가 깊은 곳이니만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한 것이다. 박세채가 지적한 문제점은 ① 서원의 제향에는 반드시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쌍묘는 이를 둘로 나누므로 부적절하다. ② 국가가 자운서원에 사액할 때는 율곡을 보고 한 것인데 쌍묘에서는 휴암이 도리어 높은 자리에 가니 불가하다. ③ 서원은 도학이 위주인데 나이로 따져 율곡을 아래에 두니 불가하다. ④ 주사主祀를 율 · 우로 하자는 것이 공론인데 쌍묘는 여기에 어긋난다. ⑤ 서원을 도학 위주로 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 ⑥ 쌍묘를 합리화하기 위해 끌어온 퇴계의 영봉서원기迎鳳書院記나 송대宋代의 남강양사南康兩司의 예가 맞지 않는다는 6가지였다. 한 마디로 서원이 도학 강습을 위한 곳이니만큼 제향 인물도 도학을 우선해 율곡 · 우계 위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 사소한 편리를 위해 수십 년 잘 유지되어 온 파산서원을 옮겨 사림의 실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런 반론 끝에 박세채는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으로서, 자운서원은 옛날 있던 곳으로 다시 이건하고, 파산서원은 움직이지 말 것이며 휴암의 위패는 파산서원으로 옮기되 성수종(성수침의 동생)과 함께 우계의 위패 오른쪽에 봉안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세채의 논리적 반박과 수십 년 존속해 온 파산서원을 헐고 옮겨야 한다는 부담으로 파산 쪽이 거부해 4현합향과 서원통합론은 결국 한바탕의 헛된 논의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고 뒤이어 윤선거의 묘비문 문제로 송시열과 윤증 사이의 틈이 벌어지고 이것이 회니懷尼 시비로 확대되어 노론 · 소론 분립의 당론이 되며 파주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됨에 다시는 더 이상 거론되지 못하였다.

파주 사족의 분열-노·소론 대결장으로서의 자紫·파원坡院

송시열은 자신이 추진하던 4현합향론과 서원 통합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천참으로부터 율곡 묘하로 자운서원이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그 사전 정지작업을 다음으로 착수했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율곡신도비문」을 자운서원 묘정비로 삼아 서원 뜰에 세우는 것과 율곡 후손을 불러들여 묘소 일대와 서원 관리를 주재하게 하는 일이었다.

「율곡신도비문」은 앞서 김장생의 부탁으로 이항복이 찬술하였으나 율곡의 학덕을 잘 드러내지 못했고 이단異端의 문자가 들어가 있다 하여 그 문인들 사이에 개찬改撰의 말이 일찍부터 있어 왔는데, 이때 송시열이 다시 지으면서 명칭을 묘정비라고 한 것이다(『송자대전』 부록 권6 연보5 현종 13년, 66세). 1678년(숙종 4) 대신 벼슬에 있던 김수항 형제(앞서 파주목사로 있으면서 천참으로 자운서원을 이건했던 김광찬의 아들) 및 민정중 형제 등의 도움을 받아 (비석의 전액篆額은 김수항이, 글씨는 그 형인 김수증이 썼다) 비석에 새기고 1683년(숙종 9) 율곡 묘 아래 있는 옛 자운서원의 묘정에 세웠다. 그 뒤 3년 만인 1686년(숙종 12)에 천참으로부터 이곳으로 자운서원이 옮겨 온 것을 보면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묘소와 서원 관리를 위해서는 1673년(현종 14) 해주에 살고 있던 율곡의 종증손 이후지李厚址와 이원방李厚芳 등을 이주시켰다.

자운서원에 대한 천참 이전과 합향통합론의 추진, 그 후의 묘정비 건립과 서원의 묘하 재이건 및 율곡 후손의 이주정착 등 수십 년간에 걸친 송시열의 깊은 관여는 자연히 자운서원을 거점으로 하는 파주 사림에 대한 송시열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그 문인과 지지 세력이 형성된 것이다. 특히 숙종 때 들어가 성혼의 외증손인 윤증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노·소론으로 갈라서게 되면서, 파산서원이 윤증을 지지하는 소론적 색채를 지닌 것에 반하여 자운서원은 송시열의 노론

율곡 선생 신도비

을 지지하는 파주 사림의 여론을 모으는 거점으로 역할하게 된다.

그런데 윤증과 가까워 소론의 영수로 손꼽히던 박세채가 1687년(숙종 13) 광탄의 남계에 우거寓居하게 된다. 원래 장단에 선영이 있어 별서를 두고 왕래하던 그가, 파주에 만년의 거처를 정한 것은 아마도 율곡의 계승자임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젊은 나이에 학자로서의 명성을 쌓아 온 그는 율곡문집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편찬함을 통해, 율곡 학문의 완전한 이해자임과 함께 스스로 율곡 학맥의 정통이라고 자부해왔다. 그리고 산림으로 징소되어 벼슬자리에 나와서도 송시열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폈다. 훈척을 감싸는 송시열을 비판한 젊은 선비들을 지지하여 그 영수로 지목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특히 1684년(숙종 10)을 전후하여 남인에 대한 처리를 놓고 노 · 소론 간의 대립이 심화되자, 남인에 대한 강경책에 반대하고 그들을 정치에 일정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황극탕평설을 그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송시열의 군자소인론과는 상반되는 정치론이었고 노론측의 반발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그는 이 황극탕평설이 율곡의 조제보합론에 근거하였음을 주장하며 자신이 학문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율곡의 충실한 계승자임을 천명하였다.

박세채가 파주에 자리 잡던 1687년(숙종 13)은 바로 이러한 시점이었다. 송시열과 한창 대립각을 세우던 정치 상황에서, 송시열이 화양동을 택했던 것과는 달리 율곡의 묘소와 체취가 가득한 파주의 자운서원 부근에 자리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해 주기 때문이었다. 그는 남계에 서당을 짓고 문도를 양성하며 때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운서원을 찾아 파주 일대의 사림들에게 강학을 베풀었다. 이런 그의 활동은 자운서원에 대한 수십 년간 공력을 들인 송시열의 노력을 상쇄하면서 자운서원으로 하여금 순전히 송시열계의 노론서원만으로 되지는 못하게 하였다.

박세채의 문집인 『남계선생집』에는 자운서원의 학사와 제반운영사항을 규정한 원규가 있다. 참고로 모두 21개조로 된 이 원규를 요약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운서원원규 1693년(숙종 19) 제정, 『남계선생속집南溪先生續集』 권19, 자원원규紫院院規

1. **취사지법取士之法** – 신입원유를 선발하는 규정

   원유를 새로 받아들일 때는 서원의 원유가 모여 의논하여 결정한다. 모인 자가 10명이 되지 않으면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생원진사는 심의 없이 들어오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유는 서원에 출입하는 유생으로 원적院籍에 이름이 올라간다. 서원에서 독서 · 장수함은 물론 서원의 임원이 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 원유는 흔히 말하는 원생과는 다르다. 원생은 서원에 소속되어 군역을 면제받는 대신에 매년 일정한 양의 포나 쌀을 바치는 자를 말한다. 그 신분은 대개 상민이다. 국가에서는 영세한 서원 재정을 보조해 주는 방안으로 사액서원 30명, 미사액서원 20명씩 정원을 정하여 허용해 주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군역을 모면하려는 자들이 다투어 투탁하고 서원은 이를 통해 재정을 늘리려 해서 조선 후기에 가면 서원이 피역의 소굴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된다. 자운서원의 경우도 원생이 있었을 것이나 이 원규에는 언급이 없다. 이 원유의 신분이 사족임은 물론이다.

2. **조직** – 서원의 강학과 관리를 위한 인적 조직

   (원장院長 1인) –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사 · 장의 · 색장을 임명한다는 규정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당장堂長 1인 – 강학 등 학사 관련 책임자인데 서원 임원 중 노성인老成人을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유사有事 1인 – 서원의 재정 노비 등 운영을 맡는데 임원 중 연장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장의掌議 2인－서원에서의 제반 논의를 주관하는데 제생諸生 가운데서 원장이 임명한다.

색장色掌 2인－장의의 보조자인데 연소자 가운데서 원장이 임명한다.

원감院監 1인－재물의 출납과 유생에 대한 식사제공 등 말단사무의 집행을 맡는데 품관으로서 부지런하고 일을 잘 아는 자로 시킨다.

위의 조직규정은 다른 서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원장이 규정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는 기호 지역 특히 서울 근교의 유력한 서원의 경우 중앙의 고위 관리가 원장을 겸임하므로 규정 속에 넣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원감이란 칭호는 일반 서원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원이院貳라 하여 부원장 정도의 지위를 갖는다. 여기서는 서원의 하전下典들에 대한 감독의 일을 맡고 사족도 아닌 품관 중에서 부지런하고 일을 잘 아는 자[勤幹者]로 삼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3. 강학講學과 참배參拜－서원에서 머무는 원유의 일과

- 매월 삭망朔望에 제생은 정례적으로 묘사廟祠로 가서 중문中門을 열고 분향 재배함.
- 평일 아침에 묘정廟庭에서 재배하고 동 · 서재로 돌아와 독서 · 제술 · 의리를 강론하며 틈이 나면 밖에 나가 심신을 단련함.
- 사맹월四孟月(1 · 4 · 7 · 10월)에 장의가 제생을 불러 학규를 읽고 경서를 돌아가며 강론하고 질의함.
- 사표가 될 만한 인물을 서원에 초빙해서 스승의 예로 대우하고 은병정사학규隱屛精舍學規(율곡이 제정했음)대로 강의를 들음.
- 독서는 성현聖賢의 책(오경 · 사서 · 소학 · 가례 · 심경 · 근사록 · 주자절요 · 성학집요와 같은 종류)과 성리학에 관한 책(성리대전 · 정주程朱 및 아동선유我東先儒문집), 사서史書(강목 속강목) 등으로 국한하며 이단 및 잡서는 금함.
- 과거 공부는 다른 곳에서 하거나 부득이하면 서재 혹은 유사방에서 함.

이상의 강학 참배에 관한 규정 역시 다른 서원의 예와 다르지 않다. 다만 읽어야 할 성현의 책에 『성학집요』가 들어간 것이 눈에 띄는데 율곡서원이므로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중국 서원을 보면 대학자가 와서 서원에 머물며 수천 명의 수강생을 모아놓고 강회講會(Symposium)를 열어 자신의 학설을 강론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주자가 육상산陸象山을 불러 백운동서원에서 강연케 한 것이라든가, 왕양명王陽明의 용계龍溪서원 강회가 그것이다. 또 아호鵝湖서원에서 주자와 육상산 간에 주륙朱陸논변이 벌어진 것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강회는 찾아지지 않는다. 양송兩宋과 이유태, 윤선거 등의 호서사림 대표자가 황산黃山서원 등에서 회동한 적은 있으나 대개 명분과 의리에 관한 논의에 불과했을 뿐 학설논쟁이나 토론을 벌인 적은 없었다. 그 대신 서원에서 강독(lesson)은 기간을 정해 놓고 실시하였다. 위의 강학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서원 재정의 부족으로 유생의 거재居齋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이마저 제대로 시행하는 서원은 많지 않았다. 자운서원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4. **기타 규정** – 유생예절, 서원 운영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

- 유생의 서원에서의 일상생활 수칙(거재居齋예절 식무구포위심食無求飽爲心 등)
- 서부득출문書不得出門, 색부득입문色不得入門, 주부득양酒不得釀, 형부득용刑不得用 등의 금지사항
- 학규 어긴 자의 출좌黜座 출원出院 삭적削籍 등의 규정

이상이 박세채가 규정한 자운서원 원규로서 위에서 언급한 약간의 특성 외에 다른 서원의 그것과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자운서원 원규가 실제로 적용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자료, 예컨대 「고왕록考往錄」이나 「전여기傳輿記」·「도록都錄」 같은 자료가 아직까지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이런 자료가 발견된다면 자운서원의 운영상은 물론이고 파주 유림의 동향과 자운서원을 놓고 벌어진 노론·소론 간 대립의 구체적 실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기사환국 후 파주에 머물던 박세채는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앞서 쫓겨났던 민비가 복위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좌의정으로 조정에 복귀하였다. 그는 다시 황극탕평설을 제창하여 임금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송시열, 김수항 등의 영수를 잃고 약화된 노론을 지원하며, 남구만으로 대표되는 소론을 견제하고 윤증과도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죽었고 정수하鄭綏夏로 대표되는 파주 유생들의 상소와 조정의 허락으로 1695년(숙종 21) 5월에 자운서원에 합향된다. 그런데 그 합향의 형태가 율곡의 위패와 나란히 하는 병향竝享이었던 점이 훗날 분쟁을 불러오는 불씨가 된다.

이 시점에서 파주 사림의 성향을 구분해 본다면 파산서원의 경우 성혼이 소론 윤증의 외증조가 되므로 성혼 문인의 후손들과 윤증을 지지하는 소론세가 우세하였고, 자운서원은 송시열의 관여로 인해 노론계 인물인 이여李畬가 원장으로 있었고 그 지지 세력의 일부가 발을 붙이고 있기는 했으나, 박세채의 병향에서 보듯이 그 문인들이 서원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다. 적어도 파주의 경우 노론세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송시열이 수십 년 공을 들였고, 성혼이 소론계의 학연으로 분리되어 나간 상태에서 노론 학맥의 연원으로 받들어진 율곡의 자운서원을, 노론계가 박세채 문인들 손에 그대로 둘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박세채가 병향된 지 13년이 지난 1707년(숙종 33)에 감히 율곡과 병향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배향配享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가 노론계 유생 쪽에서 나왔다. 이에 박세채의 문인이던 김간金幹은 파주서원 원유에게 편지를 보내어 몇몇 유생의 선동으로 박세채의 병향이 흔들릴 수 없음을 말하고, 만약 위차를 옮기게 된다면 차라리 박세채를 제향하는 서원을 그가 강학하던 파주의 남계에 따로 세워 홀로 제향하겠다고까지 말하였다.

이런 강경한 반대에 부딪히자 노론계는 다시 김장생 추배론追配論을 들고 나왔다. 김장생이 율곡의 적전嫡傳이니만큼 율곡서원을 대표하는 자운서원에 합향함이 마땅하고, 그렇게 한다면 제자의 도리로 병향은 할 수 없고 배향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아득한 후생인 박세채를 율곡과 병향하는 자리에 두고 김장생은 배향하는 모양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율곡을 주향으

로 하고 김장생과 박세채를 좌우에 배향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박세채의 위차를 병향에서 배향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 노론의 주장이었다. 말은 그럴 듯하나 김장생 추배론의 목적이 박세채 강배降配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였음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박세채 문인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그에 따라 노론계 유생과의 사이에, 앞서 원장을 지냈던 이여가 이로 인해 서원이 유생의 싸움터가 되었다[學宮爲鬪鬨之場]고 할 정도로까지 갈등이 심하여져, 서로 원적院籍에 누른 종이를 붙여 이름을 가리는 부황付黃을 가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자운서원 문제로 파주 사림이 노론, 소론을 각기 지지하는 쪽으로 분열해 큰 분쟁으로까지 나간 것이다.

이에 파주 유학 조익주曺翊周 등 수십 명의 유생이 1713년(숙종 39) 4월 연명상소해서 김장생 추배와 박세채 강배를 요청하고 조정에서 이를 허락함으로써(『승정원일기』 숙종 39년 4월 20일)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한 달 후 이번에는 박세채 지지 세력인 역시 파주 유학 문후창文後昌 등 수십 명이 노론계가 박세채를 끌어 내리기 위해 자운서원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김장생을 끌어온 그간의 경위를 밝히고 박세채를 강배하라고 한 처분의 재고를 청하면서, 그것이 불가하다면 앞서 김간이 주장했던 대로 남계에다가 박세채 제향서원의 건립을 허용해 주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조정은 소론 우위에서 노론의 일당전제로 정국이 변환되던 시점이어서 조정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박세채 문인들이 갈라져서 그동안 노론의 강배론에 맞서 오던 김간 등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노론 쪽으로 전향하면서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그리하여 파주 지역은 영조 이후 노론계 사림의 본거로서 자운서원과, 소론계의 근거지로서 파산서원이 공존하는 형세를 보였다.

그런 공존 상태에서 또 하나의 충돌이 1790년(정조 14)의 파산서원 성수종 추배사追配事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성수종은 선조 때 파산서원을 세울 때부터 입향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는데 1740년(영조 16) 추배하도록 조정의 허락까지 받았지만 이듬해의 서원금령에 걸려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785년(정조 9) 파주 유학 조중길趙重吉 · 정재간鄭在簡 등 58명의 연명상소에 의해 추향이 허락되었는데 위차를 휴암 윗자리에 설치했다가 휴암 쪽의 반발로 논란이 일

어난 것이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휴암 쪽은 구차스럽게 우계 집안 서원에 있느니 차라리 독립하겠다고 하여 월롱산의 옛날 휴암서원을 세우려 했던 자리에 서원을 건립하도록 해 달라고 조정에 요구하였다. 이에 임금은 금령을 앞세워 신건新建을 허용치 않고 신건론을 주장한 수창 유생을 죄를 주도록 하며 위차는 옛날처럼 청송 · 휴암을 마주하게 하고 성수종의 위패는 청송 아래 두게 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자운과 파산서원의 위차를 둘러싼 논쟁은 이로써 종식되었다.

이 외에도 파주에는 풍계사우(박태보, 오두인, 이세화 제향), 신곡서원(윤선거 제향) 등의 서원이 있으나 파주 사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기에 생략한다.

파주 향촌사회의 구성과 변화

정승모_지역문화연구소 소장

조선 중기 이전 파주 지역 향촌사회의 구성

1. 파주 사족의 형성 배경

우리는 조선 전기의 정치사에서 훈구파와 사림파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훈구파는 고려 때부터 이어진 기득권 세력이고 사림파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훈구 세력과 대립하는 진보세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해당 인물의 출신지와 집안을 추적하여 그 구체적인 실상을 들여다보면 경기 지역 출신의 사림파는 대개 훈구파와 뿌리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파주 일대는 소위 '서교西郊'로 불리듯이 고려와 조선을 이어 근기近畿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지역이고, 오래전부터 이곳에 터를 잡은 토착세력들 또한 조선에 들어와서도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았던 집안들이다. 즉 이들 집안은 한편으로는 주요 사림들을 배출하여 정치적인 주도권을 이어간 것이다. 잘못된 역사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실상을 우리는 파주지역사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이곳을 본관으로 하는 파평 윤씨의 한 계문서 서문에는 이곳 파주를 송추지향松楸之鄕과 종족군거宗族羣居로 표현하였다. 송추란 곧 무덤을 말한다. 이곳을 고향 삼아 종족이 모여 산다는 것은 조상의 묘를 지키다가 결국은 파주를 떠나지 못하고 대를 이어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성해응成海應(1760~1839)은 문집인 「명오지名塢志」(『연경재전집외집硏經齋全集外集』 64)에서 전국 각 지역의 오래된 거주 세력들을 소개하였는데, 파주 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후한 점수를 주었다.

> 파주의 마산역촌馬山驛村은 읍 서쪽으로 4리 떨어져 있는데, 내[川]가 구불구불 흘러 농토가 비옥한 이름난 터로 (파평) 윤씨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한다. (중략)
>
> 화석정花石亭은 읍 북쪽으로 15리 떨어져 있는데, 율곡 이이의 5대조인 이명신李明晨이 살던 곳으로 땅이 비옥하다. (중략)
>
> 읍 북쪽에 우계牛溪라는 개울이 있는데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1493~1564)이 살던 곳으로 대천大川이 가로질러 흐르고 내를 따라 마을이 줄지어 형성된 아름다운 곳이다. 성수침은 우계 성혼의 아버지다.

교하와 장단 그리고 적성을 포함한 파주 일대의 주요 성씨들은 이미 그 뿌리를 조선 이전에 내린 성씨들이다. 대개는 고려 시절 개성에 머물면서 파주에 묘역을 두고 그 인연으로 거주하는 후손들이 생겨난 것이며, 조선에 들어와서도 전기까지 이러한 생거生居와 사거死居의 방식을 지속하였다. 경저京邸, 즉 서울 집을 두고 파주 집을 오가며 살다가 죽어서는 파주 선영에 묻히는 식이다. 그래서 파주에 기반을 둔 명문들 간의 혼인은 파주 내에서 자연스럽게 성사되었다. 그러다가 중기부터 이 중 일부가 서울 벼슬살이를 거친 후 파주로 귀향하지 않고 경기 이남에 새로운 터전을 잡는 소위 낙남落南 경향이 생겨났다.

2. 장남의 낙남과 차남을 통한 가계계승

특히 장남이 관직을 받아 서울로 나가는 경우 말년에 귀향하기보다는 타지로 분가하고 파주에서는 차남 또는 중자衆子가 대를 잇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파주의 주요 집안들 중에서도 조선 중기 이후에 입향한 집안보다 그 이전부터 세거해 온 집안들에서 볼 수 있는 매우 특징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장남에게 아들이 없어 차남의 장남이 양자로 들어가는 일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 역시 이러한 경향을 드러내는 데 일조한다.

월롱면 능산리 강릉 김씨의 경우 『한림공파대동보翰林公派大同譜』(1994년 간행)에 의하면 한림공翰林公 김굉金閎의 8세손인 19세 추錘의 묘가 장단 대덕산에 있고, 낭천 감무를 지낸 그의 아들 20세 감무공監務公 윤남允南의 묘가 파주 오리곶면 장포리에 있는데, 이곳이 강릉 김씨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는 국사봉 남록의 내포리와 능산리 일대이고 이들 문중을 감무공파라고 한다. 그런데 감무공의 대를 이은 아들은 21세 2남 의공義恭이고 그다음은 역시 22세 2남 상湘(1453년생)이다. 23세 사기士奇(1517년졸)는 창녕 성씨 성담수의 사위인데, 사육신 사건의 여파로 진사에 머물렀다. 그의 동생 사희士熙의 손자가 파주 사족의 핵심 인물의 하나인 장포공長浦公 김행金行(1532~1588)이다.

평산 신씨의 경우 『평산신씨사간공파보平山申氏思簡公派譜』(전4권, 1990년 간행)를 참조하면 파조가 되는 사간공思簡公 호浩는 장절공 신숭겸의 15세손으로 묘는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 있는데, 이곳은 임진강변으로 파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이후 중간에 묘가 실전되다가 19세 원援과 20세 차남 정미廷美와 21세 차남 암黯(1537~1607)이 대를 이어 서울에서 벼슬을 살다가 22세 화당化堂 신민일申敏一(1576~1650)이 파주 천현면 금곡리에 자리 잡은 이후 후손들이 누대를 살아왔다.

화당은 창녕 성씨 창랑滄浪 성문준成文濬의 사위이고 창랑은 함안 조씨 옥천玉川 조감趙堪(1530~1586)의 사위이며, 옥천은 휴암 백인걸의 사위다. 이러한 혼맥은 평산 신씨나 함안 조씨가 다시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된 중요한 배경이다. 화당의 아들 중에 파주를 지킨 이들은 2남 경憬, 6남 봉𨱇, 8남 강杭이고, 6남 봉의

후손 중 현재 금곡리를 지키고 있는 계열은 24세 명노命魯의 차남인 홍錂으로 내려온다.

단양 우씨 10세 정평공靖平公 우인열禹仁烈(1337~1403)을 분파시조로 하는 정평공파 후손들은 파조의 증손 우연禹埏 종손파로 34대째 파주 탄현을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파주 계보는 11세 때 고성군수를 지낸 장남이 아들이 없어 2남 양수良壽로 이어졌고 15세 때도 2남 현석玄錫으로 이어졌다. 16세 때도 장남이 무후无后하여 2남 봉서鳳瑞로 이어지고 18세 때 2남 익길益吉이, 19세 역시 2남 숭嵩이 대를 이었다.

파주의 대표적인 성씨인 파평 윤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의 경우는 『파평윤씨세보坡平尹氏世譜』(上下, 1959년 간행)를 참조한 약식 계보도를 통해 확인해 본다.

파평 윤씨의 시조는 고려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신달莘達이며 5세 현손 관瓘은 고려 중엽의 문무를 겸비한 명장으로 파평 윤씨의 중시조다. 아들 6형제를 두었으며 선사禪師인 언식彦植을 빼면 5형제가 아랫대로 내려가면서 수십 파로 분파되었다. 이들 중 장남 언인彦仁 후손은 남원과 함안에서 뿌리를 내렸다. 파평에는 5남 언이彦頤가 남았고, 그의 아들 중에는 7세 3남 돈신惇信이 남았다.

11세 보琺의 아들 중 12세 4남 안숙安淑 후손들이 번창하여 양간공파良簡公派를 이루었고 5남 암諳 후손들은 소부공파少府公派를 이루었다. 그런데 양간공파는 다음 대인 13세 때 파주에서 2남 척陟으로 이어지고 14세 때는 2남과 3남으로 이어지는데 14세 2남 승순承順이 충간공파를, 3남 승례承禮가 교하에 뿌리를 내려 번창한 판도공파를 이룬다. 승순의 아들 15세 소정공昭靖公 곤坤도 16세 2남 한성공 희제希齊로 이어지며 17세 경坰을 이어간 아들도 18세 2남 사은師殷(1439~1487)과 3남 필상弼商이다. 2남 사은의 후손들은 21세 2남 돈暾(1519~1577)이 충청도 노성으로 내려가 소위 노성파의 입향조가 된다.

11세 보의 5남 암은 소부공파少府公派의 파시조다. 파주에서는 이를 이어간 아들도 2남으로 13세 해侅(판서공判書公, 1367년생)다. 그의 현손인 17세 효조孝祖의 경우 장남인 18세 수壽는 용재 성현의 문인인데 인천으로 거주를 옮겼고, 파주에서 대를 이은 아들은 18세 2남 구耉다. 23세로 내려와서도 파주에서 22세 제濟

를 이은 아들은 23세 2남 징재徵再다.

파주의 또 다른 대표 성씨인 장수 황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조로부터 18세 석부石富를 중시조, 즉 1세로 할 때 황희黃喜(1363~1452) 정승은 3세 군서君瑞의 차남이다. 탄현면 금승리에는 황희 정승 장남인 5세 호안공胡安公 치신致身의 차남 사장事長의 후손들이 10여 호 살고 있고 광탄면에도 호안공파가 살고 있다. 6세 사장의 밑으로는 증손 9세 열悅의 차남인 10세 정욱廷彧 때 번창하였는데, 그를 이은 아들은 11세 차남 혁赫이다. 문산읍 사목沙鶩 1리에는 5세 차남 보신保身의 후손들이 60여 호 살고 있다. 그 밖의 다른 후손들은 남원, 진안, 상주, 문경 등에도 내려가 살고 있는데, 17세에서 19세의 3대에 걸쳐 집중적으로 분가하여 낙남하였다.

경기 이남이나 그 아래 특히 충남 내포 지역에 가면 파주에서 분가한 후 낙남한 성씨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위와 같은 현상이 가져온 결과다. 16세기를 전후로 사족들이 삼남, 즉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가 문중의 기반을 닦기 시작할 때 파주에서는 사족들을 삼남으로 보내는 공급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경기 이남의 어느 지역에서나 이러한 사례들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예를 들면 화성시 향남읍 일대의 창녕 성씨들은 주로 성삼문의 증조부인 회곡공檜谷公 성석용成石瑢(1352~1403)의 후손들인데, 파주에서 시작하여 벽제와 청계 등에 퍼져 있다가 낙향한 일족들이며, 매송면 숙곡리의 단양 우씨들은 파주가 본거지였으나 추연秋淵 우성전禹性傳(1542~1593)의 증조부인 우수禹樹 때 이곳에 묘를 씀으로써 인연을 맺었다가 추연 이후로 세거를 시작한 성씨들이다.

3. 통혼을 통한 사족 간의 관계망

교하, 장단 등을 포함한 파주 일대의 통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히 양주 관내의 남양 홍씨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파주 관내의 통혼만 해도 완전한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적어도 조선 전기에는 파주의 모

든 유력 성씨들이 혼맥으로 겹겹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사례들은 이러한 혼맥상을 잘 반영한다.

먼저 창녕 성씨, 순흥 안씨, 청송 심씨, 그리고 연일 정씨를 중심으로 한 혼맥을 보기로 한다.

초대 한성판윤을 지낸 창녕 성씨 독곡獨谷 성석린成石璘(1338~1423)은 고려 때 파주의 대표적인 호족인 순흥 안씨順興安氏 안원숭安元崇의 딸과 혼인하였다. 용재 성현의 조부가 성엄成濬인데, 장남 염조念祖, 즉 성현의 아버지는 안원숭의 손자인 종약從約의 사위가 되었고, 차남 봉조奉祖는 윤번尹璠의 딸 파평 윤씨와 혼인하여 세조와 동서간이 되었다. 세종의 장인인 청송 심씨 심온沈溫은 안천보安天保의 딸과 혼인하였다. 심온의 차남 회澮(1418~1493)의 셋째 아들이 심원沈源이고 그의 셋째가 심순문沈順門(1465~1504)인데 평산 신씨 신영석申永錫의 딸과 혼인하였고, 심순문의 장남 심연원沈連源(1491~1558)은 경주 김씨 김당金瑭의 딸과 혼인하였다. 동서분당의 주역인 심의겸沈義謙(1535~1587)의 양부養父는 심홍沈泓인데 심홍의 부인은 청주 한씨 한윤원韓胤源의 딸이다. 심온의 동생 심종沈淙의 외동딸은 덕수 이씨 율곡 이이의 5대조 이명신과 혼인하여 아들에게 아버지의 제사를 맡기는 외손봉사外孫奉祀를 하였다.

탄현면에 묘가 있는 연일 정씨 감무공파監務公派 파시조 정연鄭淵(1389~1444)은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1418~1453)의 장인이다. 정연은 단양 우씨丹陽禹氏 충정공忠靖公 우성범禹成範(?~1392)의 딸과 혼인하였다. 단양 우씨 정평공 우인열의 증손 우연禹埏은 사위로 영의정을 지낸 청주 한씨 한치형韓致亨(1434~1502)을 맞아들였다. 우연의 동생 우기禹圻에게는 청주 경씨淸州慶氏 경임慶任이 사위로 들어갔다. 정연의 형 정진鄭鎭의 장녀는 교하 노씨 노호신盧好愼의 부인이 되었다. 정진의 둘째 딸은 심온의 장인인 안천보에게 증손자가 되는 순흥인順興人 안호문安好問과 혼인하였다.

다음은 교하 노씨와 파평 윤씨를 중심에 놓고 본 혼맥이다.

노사신의 아버지 노물재盧物載(1396~1446)는 심온의 셋째 딸과 혼인하였고, 노물재의 2녀는 청송인 심안지沈安智와 혼인하였다. 노물재의 4남 노호신盧好愼은 딸이 세조世祖 근빈 박씨謹嬪朴氏 소생인 창원군昌原君 이성李晟(1458~1484)과 혼인

하여 왕실과 사돈이 되었다. 노물재의 5녀는 정연의 손자 정부鄭溥와 혼인하였다. 노사신盧思愼(1427~1498)은 청주 경씨 8세 경유근慶由謹의 딸과 혼인하였다. 청주 경씨 3세 사만斯萬의 사위는 한명회韓明會의 조부인 청주 한씨 한공의韓公義다. 청주 경씨 11세 경혼慶渾의 셋째 딸은 윤황尹煌(1572~1639)의 아버지인 파평 윤씨 윤창세尹昌世에게 시집갔다. 윤황은 우계 성혼成渾의 사위다.

노승서盧承緖의 둘째딸은 파평 윤씨 양간공파良簡公派 파시조 윤안숙尹安淑의 부인이다. 양간공 윤안숙의 현손이며 소정공昭靖公 윤곤尹坤의 2남이 한성공漢城公 윤희제尹希齊(1380~1467)다. 그의 증손 윤영尹英의 부인은 노유신盧由愼의 딸이다. 윤희제의 손자로 정현옹주貞顯翁主와 혼인하여 세종의 부마가 된 윤사로尹師路와 한명회 그리고 신숙주는 서로 인척관계로 맺어져 있었다. 윤사로의 장남 윤반尹磻은 한명회의 딸과 혼인하였고 차남 윤인尹磷은 진주 유씨 유오柳塢의 딸과 혼인하였다. 판도공파 파조인 윤승례尹承禮는 창녕 성씨 성여완成汝完(1309~1397)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후비로 안동 권씨 권항權恒의 딸을 맞이하여 윤번을 낳았다. 윤번의 딸은 성엄의 아들 성봉조와 혼인하여 두 집안은 겹사돈이 되었다. 강릉 김씨 23세 김사기金士奇는 창녕 성씨 회곡공파 성담수成聃壽의 사위가 되었다. 성담수는 성삼문成三問의 재종제로 생육신이어서 강릉 김씨 집안 역시 관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원 백씨 휴암 백인걸의 아버지는 왕자사부 백익견白益堅이고, 어머니는 단양 우씨丹陽禹氏로 여말선초의 문신 우현보禹玄寶(1333~1400)의 현손인 우종은禹從殷의 딸이다. 백인걸 선생의 계실인 순흥 안씨順興安氏는 초지 만호草芝萬戶 찬璨의 딸이고, 사위는 의금부경력義禁府經歷 함안 조씨 조감趙堪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조감의 사위는 우계 성혼 선생의 아들인 창랑 성문준成文濬이고, 창랑의 사위는 평산 신씨 화당 신민일申敏一이다.

조선 후기 파주 사족의 분화

조선 전기까지 파주에 거주하는 거성巨姓 사족들의 통혼은 상대를 가리지 않은 우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당시까지도 파주의 주요 거성 출신 인사들은 관직에 올라 서울 생활을 하는 중에도 파주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도 잠시 머무르기도 하였으며, 말년에는 귀향하여 살았고 사후 안식처도 파주 생거지 부근에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기 이후 새로운 거주지로 한강 이남을 선호하여 낙남 현상이 일어났고, 1453년의 계유정난과 3년 후의 사육신 사건 등으로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상호간의 우호관계 또한 지속되지 못하였다. 파평 윤씨나 창녕 성씨를 예로 들면 두 집안 모두 혼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위 사건으로 인한 파장은 더욱 컸다. 중앙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사건의 핵심 세력들은 대개가 파주에 터전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므로 중앙의 분위기는 바로 파주로 전달되었다. 심의겸이 주역의 하나인 동서분당도 파주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이로 인해 파주의 사족들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라 분화되어갔다.

1. 저지대로의 진출과 교하 언송사건

문산천과 임진강이 만나는 포구 일대는 의주대로와 가깝고 포구 교통의 이용이 가능하며 소규모 개간사업으로 경작지를 늘려나갈 수 있는 지역이다. 옛 파주목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북방 적성 경계나 동방 양주 경계 모두 고봉이 솟아있어서 그 지맥이 파주 안을 종횡하기 때문에 의주대로의 동쪽 일대의 땅은 모두 산악지라고 할 만하고 평지는 문산포의 서방에서 임진강으로 합쳐지는 하천 유역에 몰리게 된 것이다.

조선 전기 파주의 거성들이 이곳을 선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종실록지

리지』에 땅은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되고, 간전墾田이 5,325결이며 그 중 논이 2/5가 조금 모자란다고 하였고 호수戶數 494호에 구수口數가 1,316명이라고 하였다. 1789년(정조 13)에 작성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이곳의 인구가 원호元戶만 3,227호에 1만 154명으로 나와 300여 년 만에 7배 이상 늘어난다.

문산천 하구

이들의 거주지는 이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확대되었다. 이곳은 현재 행정구역으로 파주읍과 문산읍, 그리고 탄현면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는 내포리, 금승리, 능산리, 봉암리, 향양리, 당동리, 사목리, 율곡리 등이다. 그러나 이곳은 농지확장에 한계가 있고, 또한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준설과 제방 사업이 요구되는 단점을 안고 있다. 『호구총수』에 현재 위의 마을들이 속해 있는 월롱면에 해당하는 오리곶면의 인구는 원호가 143호에 483명인데 1871년 『경기읍지京畿邑誌』에는 142호에 518명으로 나와 변화가 거의 없다.

조선 중기 이후에 개간으로 주목받은 곳은 주로 저지대로 이루어진 교하 지역이다. 저지대의 공략은 그간에 이루어진 농사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이곳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호수가 590호에 인구가 1,629명이었다가 300여 년 후인 『호구총수』에 원호만 2,474호에 인구는 7,997명으로 나와 5배 가량 증가한다. 저지대로의 진출 경향을 증명이나 하듯 1584년(선조 17)에 언송사건堰訟事件이 일어났다.

사건은 창원 황씨 황유경黃有慶(1558년생)의 사노私奴 거인居仁과 곽사원郭嗣源 사이에 제방 쌓는 일로 빚어진 송사訟事였다. 거인 등이 소송한 제방은 교하 지역이다. 요는 이 사건에 중앙의 핵심 사대부들이 양쪽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황유경 쪽에는 구종具悰이 있고, 곽사원 쪽에는 그의 아들 건健의 장인인 송한필宋翰弼이 있다고 하였다. 구종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안되고 황

유경은 밀양 박씨 박숭원朴崇元(1532~1593)의 사위다. 탄현에 터전을 잡은 밀양 박씨는 공효공恭孝公 박중손朴仲孫의 후손들로 광해군 때 소북계열로 분류되었다.

송한필은 여산 송씨로 구봉龜峰 송익필의 동생이다. 그러므로 사건 해결이 거의 10년이나 지연되는 이유가 율곡 이이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황유경 측은 생각하였다. 곽사원 측은 퇴계의 문인으로 대사헌이며 동인에 속한 해평 윤씨 윤두수尹斗壽(1533~1601) 형제와 정언지 등이 거인 측을 두둔한다고 혐의를 두었다.

선조 임금의 비망기備忘記에, "교하 제방과 전답 송사에 사대부들이 그 사이에 관여되었다고 운운하는 말을 들었으나, 이렇게 많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고 하였다. 선조는 시비의 당사자들에게 전가사변全家徙邊, 즉 죄인과 그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는 죄를 내리고 황유경과 송한필에게도 벌을 내렸다. 이 제방사건은 동서분당이 이미 사대부의 이해관계에 반영되었음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새로운 개간 대상지가 된 파주의 교하가 직접 그 무대로 등장하였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같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교하를 포함한 파주는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당색의 구분과 분화로 향권鄕權의 통합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단지 당색과 그 내에서의 통혼으로 부분적인 결속을 보이는 정도였고, 중기 이후로는 새로운 사족 집안의 입향으로 더욱 분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파주에서는 고려 때부터 거성들이 거주해온 곳이지만 오히려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성씨를 선별하여 거론하기 힘든 것도 이러한 현상 때문이다.

2. 주요 성씨들의 교하 정착과정

교하 지역을 대표하는 성씨는 파평 윤씨 정정공파貞靖公派다. 장수 황씨나 여산 송씨도 일찍이 교하 지역에 터를 잡았다. 그러나 이들은 저지대를 적극 개척하여 터전을 마련한 것 같지는 않다.

본관지를 교하로 하는 노씨盧氏는 선대의 묘가 주로 개성에 있어 고려 때까지

는 개성에 머물다가 조선에 들어와 파주로 옮긴 듯하다. 12세 균均의 누이는 공양왕의 비妃다. 균의 부인은 개성 왕씨 왕징王徵의 딸이며 이곳 교하 노씨 공숙공파恭肅公派 파조가 되는 노한盧閈(1376~1443)의 어머니인데, 모자의 묘가 파주읍 백석리에 있다. 노한은 좌의정 민제閔霽의 사위로 부인이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의 동생이어서 태종과는 동서간이 된다. 노한의 손자 중 보진재葆眞齋 노사신盧思愼(1427~1498)이 있어 고려에 이어 조선 초기에도 융성했던 집안이다.

노사신의 첫째 형과 둘째 형은 각기 원주와 금천, 즉 시흥으로 옮겨갔고 노사신의 6세손인 20세 신걸信傑(1500~1550) 때 교하 송촌리 약산으로 이주하였다. 노신걸의 후손들이 최근까지 송촌리에서만 80호 이상이 살았다.

파주 염씨의 중시조인 염제신廉悌臣(1304~1382)의 묘는 장단군 강남면 대곡인데, 이는 개성에서 생활한 결과다. 그의 5세 중에 장남 순량順良의 묘는 경상도 상주에, 둘째 순공順恭은 풍덕에, 순공의 첫째는 보성에, 둘째는 나주에 있다. 염제신의 둘째 아들 흥방興邦은 여주로 가고, 흥방의 첫째 아들은 묘 위치를 알 수 없으나 손자 때, 즉 4세 각恪이 임실로 내려가 거주를 시작한다. 파주 염씨는 이후 전라도 임실, 남원, 나주 등지에 세거하여 나주의 충경서원에 제향될 정도로 후손을 많이 두었다. 그의 둘째 아들은 여주에 머물다가 그의 아들 대, 즉 4세 효달孝達이 연천 북면으로 간다. 이들은 모두 2세 흥방을 파시조로 하는 동정공파東亭公派다. 이중 임실에서 세거해온 첫째 계통에서 10세 4남 흥서興瑞가 교하로 올라온다. 그 시기는 대개 조선 중기 무렵으로 짐작된다.

행주 기씨幸州奇氏는 15세기경에 교하읍 송촌리 감골마을로 들어와 세거하였다. 입향조인 기정지奇廷芝(1461년생)의 묘는 교하면 다율리에 있다. 전의 이씨全義李氏는 이보다 조금 후인 16세기 초에 교하읍 송촌리에서 시작되었다. 입향조 이웅李熊(1472~1532)의 묘는 교하면 목동리에 있다. 교하읍 동패리의 진주 유씨晋州柳氏는 17세기 중반경 호은壺隱 유동량柳棟梁(1620~1687)의 입향 이후 정착 기반이 마련되었다. 유동량은 소북파 집안으로 인조반정 이후 벼슬길이 막혀 파주로 들어와 보막이 등 선진 농법의 시행을 통해 기반을 잡아나간 것 같다. 교하읍 신촌리에 거주하는 양천 허씨陽川許氏는 교위공파校尉公派로 교위공 허추許磪가 파시

조이며, 17세기 후반경에 율慄이 입향하였다. 율과 함께 칙 형제와 사촌형제 항, 장 등 4명이 김포에서 신촌리까지 배를 타고 왔다고 한다.

3. 파주향약의 실행

파주에서 향약이 제정된 것은 타 지역보다 비교적 빠른 시기인 1560년(명종 15)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향약이 실행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타의 지역처럼 향약은 문서로서만 존재해 오다가 분실과 복구의 과정을 겪었고, 해주향약을 토대로 새로 파주향약이 만들어지는 1693년(숙종 19) 이후에야 실제로 실시된 흔적을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향약을 복구하는 데 영향을 미친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1631~1695)에 대한 예우가 파주 내에서 극단적으로 갈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지고 운영되었는지 의문이다. 단일한 향약 하나로 이미 자체 분화 과정을 겪어온 파주 일대의 사족들을 결합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파주향약의 서문, 즉 「파주향약서坡州鄕約序」는 율곡 이이(1536~1584)가 25세 때 지은 것으로 당시에 변협邊協(1528~1590)이 목사로 부임하여 정부의 권장으로 창설하였다는 취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 서문 중에 "파주는 양경兩京의 사이에 위치하여 왕의 감화를 먼저 입는 곳이다. 따라서 경신년庚申年(1560)에 춘관春官(예조)에서 성지聖旨를 포고하고 각 군에 향약을 세울 것을 명하였다. 그해 겨울에 원성인原城人 변협이 본 군의 수령으로 부임하였다"고 하였고, "각 리里에는 약約이 있으나 주州에는 통합된 것이 없어 원망이 자자하다. 만약 향에서 리를 통합하고 리는 향에서 이어받고 또 공정하게 향의鄕儀를 장악할 것 같으면 약은 실행되어 막히지 않고 도중에 폐지되지 아니할 것이다"고 하여 향약 제정의 시기와 배경을 밝히고 있다.

파주향약과 향을 대표하는 향원鄕員들의 명단인 향안鄕案은 이후 분실과 복구의 과정을 반복한다. 향약의 약문約文과 향록鄕錄, 즉 향안이 병화로 인하여 분실된 것은 1636년 병자호란 때다. 향인 정문한鄭文翰이 향록소지鄕錄小識에서 밝혔

듯이 병자호란으로 유실된 향안은 1668년(현종 9) 4월에 복구되었다. 그는 난이 평정된 후 향중의 어른들이 듣고 본 바를 소책자에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간단하지만 어긋난 데는 없었다고 평하였다. 복구된 향안은 청송인靑松人 심최沈最 등 유사有司들이 책으로 내려는 뜻을 가졌으나 종이를 얻지 못하다가 향중 인물 민중로閔重魯가 남원부사로 가게 되어 그의 도움으로 책을 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궤에 간수하고 취급자 외에는 열람을 금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복구되었다는 향안의 내용이나 실체는 전해지지 않는다.

향약의 복구는 1693년에 있었고 그 내용은 현재까지 전해진다. 당시 향안유사鄕案有司를 맡았던 남궁현南宮鉉은 향약이 마멸되어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으므로 율곡 선생이 만년에 만든 해주향약을 토대로 파주향약을 복구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오래된 해주향약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여 향론을 모아 현석 박세채를 찾아가 파주 사정에 맞게 덜 것은 덜고 더할 것은 더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현석은 해주향약이 거의 완전하므로 그대로 따라도 무방할 것이라고 하여 결국 해주향약과 동일한 파주향약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같은 해인 1693년에 박세채가 쓴 「향약문소지鄕約文小識」에 나온다. 현석은 평소에 율곡 원집原集의 편찬 방식과 내용이 소략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1672년에 석담石潭에 있는 율곡의 구저舊邸, 즉 옛집으로 가서 문집 초본을 열람한 후 속집續集, 외집外集 및 별집別集을 편찬하고 간행한 바 있는 율곡 전문가여서 위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준다.

4. 파주 향사당 운영과 향안

향사당은 향회鄕會 때 향약 조목을 낭독하고 그 실행을 다짐하는 강신소講信所로서 파주향약의 제정과 동시에 건립된 이후 1803년(순조 3)과 1901년(고종 38) 두 차례에 걸친 중수重修가 있었다. 향사당은 향안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향안은 향원들의 성명, 연령, 본관 등을 기재한 제명첩題名帖인데, 1560년 향약 제정 당시 성수침成守琛(1493~1564)의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하였다고 한다.

1803년(순조 3) 9월에 이조판서 장주長洲 황승원黃昇源(1732~1807)이 쓴 향사당 중수기重修記에 의하면 자곡리紫谷里에 사는 사응섭史應燮, 사처흥史處興 등이 향사당 건물이 헐어 중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연히 일가친척을 권유하여 집집마다 몇 꾸러미의 돈을 내어 길일을 택하여 향사당을 중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중수할 당시 향사당은 서까래는 썩고 북쪽 벽이 무너져 향약과 향안을 넣어둔 작은 문이 풍우를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즉 향약을 운영하는 공간인 향사당의 상태를 볼 때 실제는 향약이 실행되지 않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 당파와 문중을 통한 파주 사족의 조직화와 분화

장남으로 대를 이어 제사를 받들게 하는 장기적인 실천방식인 종법宗法의 실행은 접빈객接賓客이라는 일상적인 실천과 함께 사족이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고 조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전기 파주에서는 조상 묘역에 분암墳庵 또는 분사墳寺라고 부르는 절을 두고 중에게 묘 관리와 묘제墓祭 운영을 맡기는 집

(좌) 파산향약 조직을 기록한 부약정 조관규의 묘비 옆면
(우) 일제 초에 파산향약으로 복구되면서 부약정을 지낸 조관규의 묘비 앞면

안 또는 문중들이 있었다. 파평 윤씨 문중 소유의 성재암聖在庵이 그 대표적인 예다. 파평면의 파평산坡平山에 소재한 미타사彌陀寺 역시 파평 윤씨의 오래된 분사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파평 윤씨 분암인 성재암 전경

이러한 전통은 당시로는 일부 성씨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성리학적 전통이 확립되기 이전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조선 중기에 입향하여 파주 노론의 위상을 높였던 함안 조씨도 묘역이 안치된 오봉산 아래 오봉사라는 분사를 두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과도기가 예상과 달리 길었음을 느끼게 된다.

사족들의 조직은 공적인 지역 사회에서는 서원, 사우 그리고 향교 등 지역 단위에서 결성된다. 그리고 그 조직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문중 조직인데, 이것은 집안마다 편차가 크다.(사족들의 지역적이고 공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원사 운영에 대해서는 본권의 '파주 사족과 서원' 참조.)

함안 조씨 분사인 오봉사 전경

청양군 심의겸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이는 우계 성혼이다. 그는 청양군이 세상을 떠나자 그리움을 시로 담았는데, 이를 허균許筠(1569~1618)이 문집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실었다. 즉 이 상황만 보면 당파의 갈림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율곡 이이가 중앙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파주는 이미 동인과 서인으로 갈렸고 이어 동인은 광해군 때 소북 집안이 있었지만 대개는 남인으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려 사색四色이 모두 공존하는 지역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파주 사족의 조직화에 매개가 된 인물은 휴암休庵 백인걸白仁傑, 율곡 이이, 우계 성혼成渾(1535~1598), 그리고 현석 박세채 등이다. 이 중 휴암의 제자가 되는 장포長浦 김행金行, 옥천玉川 조감趙堪, 낙금당樂琴堂 신제현愼齊賢, 당산堂山 백유함白惟咸 등이 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1551년(명종 6)에 왕세자가 태어나 대사령大赦令이 내려졌는데, 이때 휴암공이 유배에서 풀려나 파주 시골집에 거주하면서 위의 제자들을 만났다.

교하에서는 1683년(숙종 9) 노서魯西 윤선거尹宣擧(1610~1669)를 제향하는 신곡서원新谷書院이 옛 교하현 금성리 공릉천 언덕에 건립되고, 1695년에는 사액을 받아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당색이 갈등으로 진전된 대표적인 예는 자운서원에서 박세채를 병향幷享에서 배향配享으로 강향降享한 1713년(숙종 39)의 사건이다.

청송 심씨 집안으로 효종 때 영의정까지 지낸 심지원沈之源(1593~1662)은 1614년에 부친의 묘자리를 윤관 묘가 있다고 전해지는 파평 윤씨 묘역 위에 쓴 이후 두 성씨 간의 분쟁이 오래 지속되었다. 이러한 유력 성씨 간의 산송山訟의 예가 파주 일대에서 종종 발견되는데, 그 배경으로 당색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색과는 또 다른 갈등의 원인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문중 조직의 형성은 우선 입향 시기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문중 조직은 기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당내친堂內親 관계와는 달리 지속적이고 반영구적이다. 그래서 한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린 지 5대가 지나야 문중 조직의 기본 요건이 갖추어진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문중 조직이 형성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5대조 이상에 대한 세일제歲一祭, 즉 일 년에 한 번 묘역에서 갖는 묘사墓祀에 필요한 경비를 댈 공동재원의 마련이다. 흔히 이를 문중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문중 조직이다.

조선 중기까지 파주는 중앙의 정치변화가 직접 전달되던 곳이었다. 고려에 이어 조선에서도 정치적 위상을 지켜온 거성 사족들은 이곳의 인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서울로 진출하였고, 은퇴 이후에는 이곳에서 인맥과 경제력을 쌓으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재생산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중기 이후로 주요 사족들의 낙남이 진행되면서 이곳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송추지향, 즉 선조 무덤과의 인연

으로 제각기 문중 조직을 이루며 살아가는 고장이 되어갔다. 무덤과의 인연이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호산護山, 즉 선영을 관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위토位土 경영이다.

파주를 대표하는 성씨의 하나가 파평 윤씨인데, 그중에서도 대표 문중은 교하의 정정공파다. 정정공파는 파시조인 윤번이 교하 지역에 입향한 이후 선영과 후손들이 세거하는 터전이 함께 확대되었다. 이 집안에는 아직도 문중 운영방식과 그 성격을 일러주는 많은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그 중에는 묘역墓域 관리와 추수기秋收記 등 묘전墓田 경영에 관한 것도 있고, 문중의 부흥을 위한 자구책으로 작성된 계문서도 있다. 우선 1893년 8월에 작성된 「한성부완문漢城府完文」을 통해 묘역 관리의 내용을 알아본다.

「한성부완문」

양평공 윤사흔尹士昕과 그의 아들 공양공恭襄公 계겸繼謙 두 사람은 성종 때 좌리공신으로 사전賜田을 받고 묘소가 있는 교하 와동을 사산賜山 받았다. 이들의 장례 때 묘역 앞에 수언水堰을 조성하고 수구水口도 만들었는데, 이것은 산록山麓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형이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래 못 갈 것을 우려해 제언소를 두어 관개 몽리를 담당하게 하고 춘추로 예에 따라 관리에 따른 지원을 받아왔으나 축조한 지가 오래되어 드디어 폐언廢堰되었다. 올봄에 본손들이 수축修築하려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았고 자손들의 가세는 쇠락한 상태다. 그래서 다른 보潽의 예처럼 수세를 걷으려 하므로 이 완문을 작성하여 준행한다.

파시조인 정정공 윤번의 사패지에 관해서는 1918년에 후손이 작성한 진정서

「흥학계서」와 「흥학계좌목」

를 통해 그 일면을 볼 수 있다. 사패지는 파주군 와석면과 청석면에 걸친 175정町 규모의 큰 삼림이다. 산하에 거주하는 윤씨들은 70여 호인데 그 중 한 사람을 정해 순회감금巡廻監禁, 또는 2~3인이 순번순산順番巡山하여 왔으며, 매월 삭망朔望에는 종회를 열어 문제가 있으면 처리하고 제사공봉祭祀恭奉도 함께 한다고 하였다. 1900년경에는 국내局內 조여처阻迦處를 개간하여 위토로 나눈 일도 있었으며 군청에 목재를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문중에 귀속시킨 일도 있다고 하였다. 송충松蟲 피해 때는 윤씨들 100여 명이 제충작업으로 군청으로부터 포상 받은 일도 있었다.

위 문서에서 주목할 사항 중 하나는 19세기 말경 이 일대에 거주했던 윤씨가 70여 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 숫자가 정확한지는 의문이지만 사실이라면 현재의 상황과 비교할 때 너무 적은 호수로 차후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1805년에 작성된 「흥학계興學稧」의 서문을 통해 그나마 파주를 송추지향이라고 했던 교하 파평 윤씨 70여 호의 처지와 더불어 이들이 흥학계를 구성한 동기를 읽을 수 있다.

> 이곳은 송추지향으로 종족군거를 하다 보니 시서詩書도 모르고 배움이 짧게 되었다. 하호편맹下戶編氓, 즉 일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다가 흥학興學이라는 이름을 붙인 계를 결성하라는 충고를 받았다.

이들은 서문을 통해 조상을 모시다가 정작 자기발전을 가질 수 없었던 과거를 스스로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매월 삭망에 재궁齋宮에 모여 고강考講하기로 결의하였다. 계를 창설하였음을 알리는 「창계시통문명첩創契時通文名帖」에는 윤제우尹濟宇 외 43명의 이름을 실었다. 입의立議 다음의 「흥학계좌목興學稧座目」에는 이를 실천하는 방법과 규약을 담았다.

6. 각종 잡역과 의무에 시달린 상민들

파평 윤씨 흥학계의 설립 동기나 배경에서 보이듯이 이들의 대다수는 농사를 직접 짓고 사는 생산자로서 파주에 거주하는 일반 백성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막강한 문중 조직 속에 들어 있는 이들은 각종 부역과 군역을 면제받는 등의 특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렇지 못한 다른 상민들과는 구별되었다.

일반 백성들은 다른 지역의 백성들과 동일한 부역을 지는 것 외에도 사신 왕래 때는 기패꾼[旗牌軍]으로, 왕릉 조성 때는 조묘꾼[造墓軍]으로 징발되었다. 금산 수호도 이들이 져야 했던 의무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정한 1731년(영조 7)의 「파주금산수호절목坡州禁山守護節目」이 참조된다.

경강京江이 전국 해상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점차 한강과 임진강 하류에도 상업 중심지가 새로 생겨났고, 이로 인해 파주 백성들의 모습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서울 시전상인들은 파주까지 내려와 이들의 이권을 침해할 정도였다. 개항 이후인 1890년(고종 27)에는 화상華商이 침투하여 민간에 피해를 주었다는 파주목사의 첩보牒報도 있다. 파주의 문산포汶山浦, 교하의 방천포方川浦, 통진의 조강포祖江浦, 수원의 옹포瓮浦 등에서 주로 이런 일이 있었다.

마을에서의 상민들의 삶은 대개가 양반들과 함께하는 것이어서 여기에서도 각종 의무와 제재가 따랐다. 다음은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상하계上下契인 「청암동계靑巖洞稧」의 약법約法 서문이다.

> 나에게 선성(교하)의 청암은 재향梓鄕(고향)이다. 향속이 가볍고 서로 돈독하지 않아 향중 부로父老 2, 3인이 계를 만들기 위해 나에게 100민동緡銅을 주고 100문전文錢을 모아 일 년 이자를 놓아 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기록하여 약법約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충효忠孝, 제우悌友, 규잠規箴, 상벌賞罰 조목을 넣었다. 이는 단순한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널리 개인과 가정, 부녀들과 천인까지 교화하고 계몽하려는 목적이 들어있다. 그 효과는 일향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 서문은 1887년에 상계원인 민영달閔泳達이 썼다.

상계 좌목에는 16호가 들어 있는데, 그 중 여흥驪興 민閔과 전주全州 이李가 각기 4호, 기계杞溪 유兪가 2호 들어 있다. 하계 좌목에는 59호가 있어 하계원이 상계원의 세 배가 넘는다.

청암동은 면 단위로도 불리는 넓은 지역이다. 이곳은 석곶면石串面과 함께 명례궁明禮宮에서 관리하는 궁토宮土가 있으며 1892년(고종 29)에는 이생답泥生畓에 대한 양안量案도 만들었다. 왕실에서 개간한 논은 석곶에서는 연우평蓮隅坪이라 하였고 청암에서는 신촌新村, 송촌松村, 양철평梁鐵坪 등으로 불렀다. 규모는 88섬[石] 8마지기[斗落]다. 그 외에도 파주에서의 궁토 경영은 연령군방延齡君房이나 명온공주방明溫公主房의 예도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

관 소속 둔전屯田 경영이 활발했던 곳도 교하 지역이다. 1897년 10월 15일에 작성된 「탁지부보고문度支部報告文」은 교하 성동리에 총융청 소속 둔전이 있어 파산부원군 제수를 궁내부로 바뀐 내수사를 대신하여 내었음을 알려주는 문서다. 이를 통해 파산부원군방의 제사에 필요한 제수가미祭需價米를 환획둔조換劃屯租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 들어 교하에는 이러한 배경을 업고 왕실이나 내시 또는 서울 지주의

「청암동계안」

마름을 맡아 개간한 농토를 관리하며 부를 축적한 집안들이 적지 않았다. 마름을 통해 수확한 벼는 배를 이용하여 서울 지주 집으로 실어 날랐다. 청암동을 출입한 배의 경우 소작 벼를 나르지 않는 평소에는 마포에서 새우젓을 싣고 이곳으로 오고 돌아갈 때는 청암靑巖이라고 하는 돌을 실어갔는데, 이것은 석회나 청기와를 만드는 재료였다.

개간을 위해서는 인력을 동원하여 보洑나 방축을 쌓게 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매년 수혜자에게 수세水稅를 물려 회수한다. 그리고 무리한 수세는 수세저항收稅抵抗으로 이어진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9세기 후반경에 작성된 한 「경기도관찰사감결京畿道觀察使甘結」은 광탄면 방축리와 원당리의 보수세洑收稅 문제를 다룬 것인데, 파산서원坡山書院으로 귀속될 세금을 해당 마을 집강執綱들이 보를 옮겨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를 엄단하라고 조치한 것이다. 한마디에 이르러 특히 가뭄이나 임진강 범람 등의 재해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수세저항은 더욱 빈번히 일어났다.

일제 이후의 변화

파주에서는 일제 이후에도 주로 교하 지역을 중심으로 개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전의 조선 시기와 다른 점은 개간이 민간 차원에서 보다 큰 자본의 규모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개간의 주체가 왕실이나 양반 등과 같은 신분적 특권층을 벗어나 상민 출신도 이에 가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궁토나 부재지주의 땅을 관리하던 마름 출신이 많은 것도 한 특징이다.

이러한 배경을 업고 파주 지역에는 1920~30년경에 천석꾼이나 만석꾼으로 불리는 부농가가 출현한다. 교하읍 연다산리의 박필훈, 오도리의 이면호, 탄현면 갈현리의 최봉현, 만우리의 우인명, 조리읍 장곡리의 노의성 등이 그들이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은 박필훈朴弼勳(1872년생)으로 지금도 파주 출신 고령

교하읍 오도리에 있는 박필훈 기념비. 1932년 10월에 세운 것이다.

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대규모 개간사업은 주민들의 집단 이주로 이어지기도 한다. 교하강이라고도 부르는 공릉천에서는 일제강점 직후에 교하 마름 출신 육정만에 의해 대규모 개간사업이 시도되었는데, 송촌리를 돌아 구불구불 흐르던 강을 곧게 펴고 주위를 메워 논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개간사업은 당시에는 완성을 보지 못했고 이후 민판서의 청지기, 즉 재산관리자였던 박필훈 씨가 이 일을 넘겨받아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강을 메우고 새로운 강길을 내는 작업은 동원된 인부들의 일당을 지불해야 할 대자본의 투자를 기다려야 했다.

개간사업이 끝나니 갈현리, 송촌리, 법흥리 약산굴, 연다산리 등에 넓은 논이 많이 생겼고 이 논은 다 박필훈 가의 소유가 되었다. 이때 이 논을 소작하기 위해 송촌리에서 살던 교하 노씨들의 대다수는 약산굴로 이주하였다. 그들이 살던 동네 앞으로 새로운 강줄기가 생겨 논에 가려면 나룻배를 타야 했기 때문이다.

일제 후반기 이후 한강 상류에 댐이 설치되면서 자주 물에 잠기던 교하 강변 땅이 1960년경부터 침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자 땅임자들은 버려두었던 땅에 둑을 쌓고 논을 만들어 농토를 더 넓혀갔다. 1990년 이후로는 자유로의 도로가 자연스러운 제방 역할을 하게 되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더 늘어났다. 현재는 이곳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서 교하를 중심으로 한 파주의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근현대

파주의 의병운동

일제강점시대의 파주

8 · 15해방과 6 · 25전쟁

산업화 · 정보화 시대의 파주

여 백

파주의 의병운동

시지편찬실

파주 의병운동의 배경

한국사에 있어서 19세기 후반기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로서 일대 사회변동기였다. 전통주의 사회체제인 봉건적 양반지배체제의 해체와 제국주의적 외세침략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처하면서 대내적 모순의 극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였다.

의병운동은 이 시기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면서 더불어 낡은 봉건체제를 극복하려던 반일 반봉건 민족운동이었다. 이러한 반일 의병항쟁은 1895년 일제가 저지른 명성황후 시해와 갑오 친일정권의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봉건 유생 중심의 전기의병과 1905년 을사조약을 앞뒤로 일어난 후기의병으로 나눌 수 있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앞뒤한 시기는 일제가 우리 민족의 주도권을 빼앗고 사실상 조선을 통치하는 통감부를 설치한 뒤, 이를 바탕으로 '화폐정리' · '재정정리' 등의 여러 사업을 실시하여 조선사회를 식민지 구조로 재편해 간 침략의 절정기였다. 때문에 이 시기는 일제와의 민족 모순이 극에 이르렀다. 식민지 재

편의 과정에서 조선 후기 이래 쌓여 온 낡은 봉건적 관계들이 반봉건적 관계로 온존됨으로써 민족 내부에 봉건 지주세력과 소작 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민중 사이의 봉건적 모순 또한 깊어졌다.

1905년을 앞뒤한 이러한 주·객관적인 조건의 변화는 전기의병과는 달리 후기의병이 전 민족적인 반일 의병운동을 불러일으키도록 작용하였다.

경기 지역은 중앙의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으로 전기의병의 봉기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파주 지방의 의병운동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경향과 함께 파주 지역은 임진강을 끼고 있고 당시 서울에서 서북 지방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서, 일제가 조선을 침략한 이래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철도와 함께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 철도 등이 설치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곧 이 지역은 일제에게는 군사적 침략 경로의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이자 반대로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 침략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파주를 비롯하여 장단·적성·교하 등지를 중심으로 하는 임진강 유역 일대는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서북부 지방과 경원 가도의 관문인 양주를 중심으로 한 삭녕·철원 등의 동북부 지방과 함께 당시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려는 항일 의병운동의 주요한 격전지였다.

따라서 파주 지역, 즉 임진강 유역의 의병운동은 크게는 당시 전국에서 벌어지던 의병운동과 흐름을 같이하면서도, 이 지역의 특수한 정치적·지리적 조건 아래 의병항쟁이 이루어졌다. 또한 파주 의병운동은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뜻을 갖는 독자적인 의병운동이 아니라, 이 시기 경기 지방 의병운동의 한 부분이자 지역 운동의 전개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전기 의병의 경우 경기 지방에서는, 1896년 1, 2월에 걸쳐 광주·이천·여주·용인·시흥·과천·안산·수원·안성·죽산·포천·양근·지평·양주·연천 등지에서 의병항쟁을 벌인 기록이 있으나 파주 지역의 의병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파주 의병 활동의 주된 시기는 전국적 의병 활동이 본격화하는 시점인 1907년 군대 해산을 앞뒤로 한 후기 의병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파주 지역 의병운동의 주된 시기인 후기 의병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파주 의병운동의 전개 양상

1. 의병운동의 발단기

후기 의병은 1904년 원주에서 원용팔元容八이 의병을 일으킨 이래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계기로 전국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후기 의병의 초기에 지방에서는 곧바로 일제에 무력 항쟁하는 의병운동이 확산된 반면, 서울 · 경기 지방에서는 주로 계몽운동과 위정척사파 계열이 주도하는 항일 언론 활동, 상소 시위, 자결 등 반일 여론 형성이 주축을 이루었던 것 같다.

경기 지방의 의병운동이 사실상 본격화하는 시기는 1907년 8월 군대 해산 이후다.

8월 1일 서울에서 일제의 군대 해산을 반대하여 시위대 대장 박승환朴昇煥이 자결함으로써 불꽃이 된 서울 시위대와 그 뒤를 잇는 원주 · 홍천 · 충주 · 제천 · 여주 · 강화 등 지방 진위대의 봉기는, 1904년 이후 초기 양반 유생 의병장의 계급적 한계와 일제의 탄압으로 한때 소강 상태에 빠진 의병운동을 전 민족적 · 전국적 항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 ·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반일 분위기가 높아가고 의병 봉기가 각지에서 폭발하는 가운데, 8월 1일 서울 시위대와 5일 원주 진위대의 봉기에 이어 8월 9일 수원 진위대 강화 분견대에서도 군대 해산을 반대하는 조선 군인의 봉기가 일어났다.

강화 군인 봉기를 주도한 하사 유명규劉明奎 · 연기우延基羽 · 부교 지홍윤池弘允

등은 일시 강화도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11일, 대다수 봉기 군인은 강화를 탈출하여 지홍윤의 무리는 해서 쪽으로, 연기우의 무리는 장단으로 이동하였다. 그 뒤 이들은 경기 서북부 지방 의병운동의 주축을 이루었다.

강화 분견대의 봉기로 촉발된 경기 의병은 8, 9월에 접어들면서 경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세적 행동을 취하며 왕성하게 벌어졌다. 특히 경기 남부 지방의 의병운동은 원주 진위대에서 봉기한 민긍호閔肯鎬 부대가 이곳으로 진출하면서 크게 활기를 찾았다.

이렇게 하여 타오르기 시작한 경기 남부 지방의 의병운동과 함께 임진강 유역에서도 의병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임진강 유역을 무대로 강력한 활동을 벌인 의병 부대는 연기우 · 김수민金秀敏 · 허위許蔿 등의 의병 부대였다.

특히 초기 임진강 유역에서 대부대를 형성하여 맹활약한 것은 김수민 부대였다. 동학 농민군 출신인 김수민은 1907년 음력 8월 25일 장단군 북면 고랑포에서 그 부근의 농민과 보부상으로 2,000명의 대부대를 조직하였다. 그는 개성군 대흥산 창고에 있던 정부 소유의 대포 30문, 소포 150문을 탈취하여 무장을 강화한 뒤, 11월 개성 수비대를 습격하고 부호들의 재물을 빼앗는 등 여러 차례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그는 12월 이후 이은찬李殷瓚 부대와 합세하여 13도연합의병부대에 참여하였다.

또한 강화 분견대의 봉기를 주도하였던 연기우도 마전 · 장단 · 연천 · 삭녕 등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해 9월 적성에서 권준權俊이 의병을 일으켰고, 김진묵金溱默과 왕회종은 9월 11일에서 13일에 걸쳐 마전 · 삭녕에서 의병을 일으켜 안협 · 토산 · 양주 · 파주 등지로 활동 지역을 넓혔다.

이때 이곳의 의병 부대를 규합하여 활동을 고조시킨 의병장은 연천에서 의병을 일으킨 허위였다. 당시 연기우 등 50~60명의 부하를 이끌던 그는 1907년 음력 8월 철원군 보개산 부근으로 가서 김진묵 · 왕회종 · 김원묵 부대와 연합하였다. 이때 자신은 의병 300여 명을 인솔하는 총대장이 되어 연기우와 김진묵을 부장, 왕여(회)종을 재무관으로 하는 의병 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부대는 대광리 부근에서 일본군의 습격을 받고 14~15명의 사망자를 낸 뒤 퇴각하여 일시 흩어지게 되었다. 또한 경기 남부 지방에서 맹활약을 하였던 조인환 부대가 일본군

의 토벌을 피해 양주 · 파주 등지로 활동 무대를 옮기면서 임진강 유역의 의병항쟁은 더욱 고조되었다.

군대 해산을 계기로 경기 지방의 전 지역에서 의병항쟁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일제는 8월 말부터 의병 토벌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경기 지방의 경우 일제는 먼저 의병항쟁이 가장 치열하던 경기 남부 지방의 의병을 토벌한 뒤, 9월에는 양주 · 파주 방면인 경원과 경의가도 주변에 대한 토벌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일본군 제13사단장은 보병 제51연대의 반소대, 임시 산포 1소대, 공병 1분대를 양주 부근으로(다나베[田邊] 토벌대), 제2연대 제12중대(가마다[鎌田] 중대)를 파주 부근으로 집결시켜 의병을 토벌하고, 계속해서 9월 말 경성 보병 제50연대 제8중대를 동원하여 임진강 유역의 의병을 토벌하였다.

일본군의 이러한 토벌은 초기에는 경기 남부 지방의 의병항쟁을 일시 침체시켰을 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지리에 익숙지 못한 일본군의 약점을 충분히 이용하던 당시 의병 부대의 전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집중적인 토벌 공세가 10, 11월로 이어지면서 이 지역 의병운동은 초기에 비해 점차 약화되어 갔다.

한편 일제의 겨울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1907년 12월 양주에서는 1만여 명의 의병이 집결하여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이른바 '13도연합의병부대道聯合義兵部隊'가 결성되었다. 경기 지방에서 활동하던 대다수 의병 부대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경기 의병은 각지에서 모여든 의병들과 함께 13도 의병의 주력을 차지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13도 창의군은 1908년 1월 전술적 오류와 봉건 유생 중심의 계급성을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일본군의 선제 공격으로 서울 진공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일본군의 계속되는 토벌 공세와 13도 창의군의 패배는 초기 왕성한 활동을 벌였던 경기 의병운동을 일시 침체에 빠뜨렸다.

이와 같이 의병운동의 발단기에 파주 지방은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독자적인 의병 부대가 없었으나 장단 · 양주 · 파주 · 연천 등지를 잇는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의병 부대들이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항일 투쟁을 벌이던 주요 지역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의병운동의 고양기

파주 지역의 의병운동은 해를 바꾸어 1908년 봄이 되면서 새로운 고양기를 맞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1908년 1월 '서울 진공 계획'이 실패한 뒤 양주에 집결하였던 13도 창의군의 주력 부대가 원래의 봉기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종래 이곳에서 활동하던 의병 부대와 연합하여 주로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항일 운동을 벌인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08년 1월 13도 창의 대진소가 무너진 뒤 여기에 참여하였던 고재석 · 권중설 · 김규식 · 김진묵 · 왕회종 · 연기우 · 황순일 · 황재호 · 김수민 · 이종엽 · 이홍응 등은 임진강 유역으로 의병을 이끌고 와서 독자적으로 항일 투쟁을 벌여 나갔다.

그런 가운데 이 지역 출신의 유력한 명망 유생이자 13도 창의 대진소에서 군사장을 맡았던 허위와 관동창의대에서 활동하였던 이은찬 등은 1908년 3월 이래 임진강 유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병 부대의 연합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그해 3월 말에서 4월 사이 임진강 유역에서 결성된 연합 부대로 이른바 '관동창의원수부關東倡義元帥府'이다.

임진강 유역에서 활동하던 대다수 의병 부대를 포괄한 연합 조직인 관동창의원수부는 기본적으로 총대장 이하 각 대장과 부장들이 자신의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각기 독자적인 항일 투쟁을 벌였다. 필요한 경우 몇몇 부대가 연합 부대를 형성하여 작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연기우는 창의원수부에 편제되지는 않았지만 이들과 연계를 가지면서 활동하였다.

이와 함께 의병들은 다른 지역의 의병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무자비한 토벌에 대응하여 새로운 전술을 발전시킴으로써 1908년 이래 더욱 강화되는 일본군의 배치와 토벌을 이겨내고 이 지역의 의병운동의 고양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먼저 의병들은 일본군의 우세한 무력과 기동성에 대항하여 의병 부대를 가능한 한 소부대로 나누어 기동성을 강화한 '유격전식' 전술로 대응함으로써 효과적인 전술의 발전을 꾀하였다. 이러한 전술로 발전한 데에는 해산 군인의 참여

관동창의원수부 조직표

원수부 총대장
(허위許蔿 또는 김수민金秀敏)

원수부 중군장 (이은찬李殷瓚)	원수부 우군장 (윤인순尹仁淳)	원수부 좌군장 (정용대鄭用大)	원수부 선봉장 (김교성金敎盛)
선봉장: 김귀손金貴孫 (1908.피체) 강기동姜基東 (1909.01 이후) 부장: 이종엽李種燁 (1908.음2) 김준식金俊植 (1909.03) 참모:윤대구尹大邱 군량장:이계복李啓復	선봉장:김종운金鐘雲 참모장:홍원유洪元裕 부 장:노재훈盧在勳	전성서田聖瑞	

가 크게 기여하였지만, 그동안 최익현 부대나 13도창의대진소와 같이 대다수 명망 유생 의병장들이 일본군과 정면 대결하는 무모한 근거지 투쟁 방식의 전술적 오류에 대해 반성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경기 지방의 대다수 의병 부대는 적게는 10~20명으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일본군의 허를 찌르는 유격전을 벌였다.

이러한 활동은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지원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민중의 지지는 유격전의 절대적 요건이었으며 유격전은 과학적인 장비와 훈련을 갖춘 막강의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이었다. 또한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민족 안의 보편적인 반일 적개심 외에도 당시 의병운동이 초기와 달리 민중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전술적 발전 때문에 일본군조차도 이들의 전술전략에 몹시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유역 의병운동의 전반적인 발전 속에서 파주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개의 의병부대가 주요하게 활동하였다. 풍덕 · 교하 · 파주를 잇는 파주의 서남부 지역은 원수부 좌군장인 정용대 부대가, 파주를 중심으로 적성 · 양주 등지는 원수부 우군장인 윤인순 부대가, 장단 · 연천 · 마전 · 금천 등의 파주 동북부 지역은 김수민 부대가 때로는 인근 부대인 양주 지역의 이은찬, 장단 · 연천 지역의 연기우 부대와 연합하면서 활동하였다.

박도 두령으로 더 잘 알려진 윤인순은 참모장 홍원유, 선봉장 김종운을 비롯하여 부하 40여 명을 이끌고 양주를 근거지로 파주 · 적성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평소에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는데, 1908년 3월에는 20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파주읍을 공격하려고 천현면 둔방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1시간 가량 싸우다가 적성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그는 일본군과 계속 투쟁하면서 또한 1908년 10월 파주 등지의 일진회원들을 처단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1909년 2월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한인 순사와 헌병 보조원을 상대로 "왜적에 내응하여 매국의 행동을 자행하는 일진회의 무리와 다름없다"고 하는 '고시순검보조원告示巡檢補助員'의 격문을 띄워 그들을 적극적으로 회유하기도 하였다.

윤인순은 부족한 군수 물자를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일제의 경제 침탈을 저지하려고 친일 자산가를 습격하거나, 각 면 · 동에 세금을 정부에 납부치 말고 직접 의병에게 교부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어기는 면 · 이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였던 것으로 유명하였다.

윤인순은 때로는 이은찬 · 정용대 · 김교성 · 황재호 · 연기우 등과 연합하여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서 등을 직접 공격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1908년 9월에는 파주에서 황재호 부대와, 11월에는 적성군 남면에서 이은찬 · 연기우 부대와 연합하여 일본군과 싸웠다. 이듬해 1월에 윤인순은 이은찬 · 김교승金敎昇 부대와 연합하여 7일 양주군 헌병대를 습격한 뒤 적성을 거쳐 파주 읍내와 문산 부락을 습격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윤인순 부대의 활약이 눈부시자 1909년 3월 8일 일제는 헌병, 수비대 등 3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곳에 대토벌을 벌였다. 이 무렵 윤인순은 자신의 부대를 더욱 작은 부대로 편성하여 각지로 부하를 흩뜨림으로써 일제의

토벌을 미리 피하였다. 그러나 그는 3월 16일 삭녕 수비대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윤인순이 죽은 뒤 이은찬이 전의를 잃을 정도로 이 지역의 의병항쟁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원수부의 김수민 부대는 박종한朴宗漢 · 정용대 등의 인근 부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300여 명의 무리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유격전식 전술로 기동성을 높이려고 자신의 부대를 20~30여 명 정도의 병력으로 소부대화한 뒤, 4월 16일 구화장 헌병대를 기습하여 병기와 탄약을 빼앗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때 다갈색 복장을 한 그의 부대는 양총으로 무장하고 예비 식량과 화약을 준비하고 있는 등 상당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수민 부대는 장단 양합리, 풍덕을 중심으로 임진강의 좌우선에 연하여 강화도까지 세력을 뻗쳤다. 이에 일제는 장단 · 구화장 · 개성 · 풍덕 등지의 각 수비대를 동원하여 토벌전에 나섰지만 김수민이 숨긴 무기, 즉 조선식 구식대포(청동제) 10문과 장탄기(철제) 249개를 압수하는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 김수민을 추적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후 김수민 부대의 일부는 남쪽으로, 일부는 북쪽으로 활동지를 옮기면서 장단 · 금천 · 삭녕 · 연천 등지에서 항일 투쟁을 이어나갔다. 11월 추수기에는 김인성金仁成 등을 부장으로 삼아 다시 세력을 넓히는 한편, 연기우 · 박종한 부대와 호응하여 장단 · 마전 · 연천 일대에 방곡령을 실시하여 이곳의 통상을 한때 마비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특무정교 출신으로서 윤인순 부대의 서기로 있다가 원수부 결성 뒤 독립하여 원수부 좌군장이 된 정용대는 부하 수십 혹은 수백 명을 이끌고, 때로는 윤인순 · 이은찬 부대와 연합하면서 파주 · 양주 · 교하 · 풍덕 · 통진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08년 초기에는 주로 양주에서 이은찬과 연합하여 양주 지방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던 그는 점차 장단 · 풍덕 · 통진 · 교하 등지로 항일 투쟁을 넓혀 갔다.

이 밖에도 이 무렵 허위 · 연기우 · 박종한 · 하성묵河聖默 등의 크고 작은 부대가 장단 · 연천 등지를, 파주 옆 양주에서 주로 활동하던 이은찬 · 김교성 등의 부대들이 파주 · 적성 등지를 넘나들며 일본군을 위협하고 있었다. 일제조차도

창의원수부가 조직된 1908년 3, 4월 이후 임진강 유역의 의병 항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정도로 이 지역 의병운동은 고양기를 맞고 있었다.

> 경기도 북부의 폭도는 작년(1908) 3월 이래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적으면 20~30, 많으면 200~300명의 집단을 이루어 각처에 출몰 횡행하여 … 민심을 동요시켜 우리 관헌의 행동을 저해하려 할 뿐만 아니라 전신선을 절단하고 우편 체송인을 요격하고 심하게는 헌병 분견소 또는 수비대 분견소를 습격하는 등 … 동 지방은 이래 1년간 장구長久에 섭涉하여 불온의 성향을 정呈하였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폭도에 관한 편책編冊」 14

그러나 이 같은 원수부 산하의 의병 부대의 활약도 1909년 3월 이래 일제가 임진강 유역에 대한 대토벌을 계속하면서 점차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1909년 3월 일제는 양주 관내 헌병과 상비 수비대 그리고 용산 수비대 1대대를 포함하는 300여 명의 토벌군을 동원하여 양주 · 포천 · 적성 · 파주 등지의 임진강 유역에 대한 대토벌을 시작하였다. 일제가 집중적인 대토벌을 벌였지만 의병들은 이미 토벌의 예봉을 피한 뒤였다.

그러나 토벌 기간 동안 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윤인순이 전사하자 그 부대는 사방으로 흩어졌다. 같은 시기 정용대도 통진에서 토벌군과 한 차례 격전을 벌인 뒤 토벌을 피해 풍덕군으로 들어갔다. 그는 한동안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통진 · 김포 · 교하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때때로 윤인순과 연합하였던 양주의 이은찬도 근거지가 없어져 싸울 의욕을 잃고 경상도로 들어가 다시 의병을 일으킬 계획으로 서울을 지나가던 중 용산 정차장에서 체포되어 5월 19일 처형당하고 말았다.

3월 14일 김수민도 토벌을 피해 부하 100명을 인솔하고 풍덕을 출발하여 강화도로 들어갔다. 이후 그는 연천 지방에서 강원도 방면으로 활동을 옮긴 연기우와 형제의 약을 맺은 뒤 1909년 6월 부하를 고참자에게 맡기고 서울로 잠입하여 '경성구세군京城救世軍'에 가입하였다가, 8월 서울에서 체포되어 그해 12월 17일 처형되었다.

이와 같이 주요 의병장들이 체포되고 잠복하는 가운데 이후 임진강 유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부대는 대토벌 때 풍덕으로 일시 피했던 정용대 부대였다. 5월 무렵 풍덕군에 있던 정용대는 "이은찬과 윤인순 두 장군을 잃었으나 우리 의병은 좌절한 것은 아니다. 나라를 위하여 신명身命을 희생하여 일제의 압박을 제거하고 국권 회복을 꾀하여 그 뜻을 관철할 것이다"라 하며, 부대를 더욱 정예화하여 풍덕을 근거지로 삼아 양주 · 파주 · 포천 등지에서 항쟁의 불길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그는 9월 9일 적성군 남면 덕도리에서 적성 헌병대에 체포되고 말았다.

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진강 일대에서 활동하던 주요 의병장이 사라졌으나, 윤인순 의병 부대의 참모장이자 해산 군인 출신인 홍원유와 정용대의 부하 전성서가 10여 명의 부하를 규합하여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박태준朴泰俊 · 이한경李漢景과 같은 새로운 의병장들이 나타났지만, 의병운동은 침체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1908년 3월 이래 관동창의원수부의 결성과 전술적 발전을 계기로 고양되기 시작한 파주 지역을 중심한 임진강 유역의 의병운동은 일본군의 계속되는 집중 토벌 때문에 1909년 9월이 되면서 퇴조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어 9~10월 호남 의병을 대상으로 하는 '남한 대토벌 작전'을 마친 뒤 일제가 토벌의 칼날을 다시 경기 지방으로 돌리면서 이곳의 의병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3. 의병운동의 퇴조기

1909년 말이 되면서 일제는 식민지화의 마지막 작업으로 대대적인 의병 토벌을 단행하였다. 먼저 1909년 9월부터 한 달 가까이 일제가 호남 의병을 대상으로 벌인 '남한 대토벌'은, "남한 대토벌에 의하여 전라 남북 양도에 있는 폭도의 대소굴은 거의 소탕되었고, 기타 지방도 대략 정온 상태로 들어갔다"고 결론을 내릴 정도로 전체 의병운동에 치명적인 손실을 주었다. 더욱이 이후 일제가 분

산되었던 토벌대를 다른 지역의 의병 토벌에 집중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병운동의 객관적 조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의병 진영의 주체적 조건도 근 5년에 걸치는 장기적인 항전으로 상당히 악화되었다. 우선 수많은 의병장과 의병이 체포 또는 전사함으로써 의병 진영에 인적 자원이 고갈되고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경기도의 경우 고양기에 활동한 의병장 가운데 전사, 체포되거나 자수한 주요 의병장만 보더라도 다음 [표1]과 같이 적지 않은 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의병들에게 유·무형의 지원 세력이던 일반 주민의 상황도 변하였다. 이것은 백성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일제가 강제한 것이었다. 일찍부터 일제는 의병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지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한 마을을 완전히 불태우고 양민을 죽이는' 이른바 '초토화 작전'을 벌였고, 면장·동장·지방위원·일진회원 그리고 곳곳에 숨겨 놓은 밀정을 통하여 주민을 감시하였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예전처럼 의병들을 공공연히 지원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경기 지방의 의병운동이 퇴조기를 맞는 가운데 임진강 유역 일대에서는 살아남은 의병장과 새로이 생겨난 의병 부대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치열하게 마지막 항일 항전의 불꽃을 태웠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기존의 의병장들인 연기우·전성서·이한경·홍원유 등이 맹렬히 활동하는 가운데, 1909년 10월과 11월에 접어들면서 유진부柳振敷·이주부李周府·이은명李殷明·유포련柳逋連·김병두金秉斗·정윤규鄭允圭·김춘수金春洙 등이 새로이 의병장으로 등장하여 이미 체포되거나 자수한 의병장의 빈 자리를 메워 항일 투쟁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이때 등장한 의병장들은 새롭게 편성된 부대가 아니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기왕의 의병장이 체포, 자수 또는 부대를 해산하자 독자적으로 의병을 새로이 규합하여 활동을 벌인 인물이었다. 이주부는 연기우의 부하로, 이은명은 이은찬의 부하로, 이건칠은 김귀손의 부하로 활동하던 자였다.

[표1] 고양기(1908.1~1909.10)에 체포 · 전사 · 자수한 경기 의병장

성명	의병부대	비고	출전
김귀손金貴孫	윤인순부대	1908.11 체포	『편책 12』, 566쪽
김규식金奎植	허위부대	1908.04 체포	『매천야록』, 456쪽
김봉기金鳳基	강화의병	1908.10 체포	『편책 13』, 262~263쪽
김석복金錫復		1909.04 전사	『편책 14』, 17쪽
김석하金錫夏	박래병부대	1908.08 전사	『매천야록』, 470쪽
김성균金聖均		1909.05 체포	『매천야록』, 495쪽
김성삼金聖三	연기우부대	1908.11 체포	『편책 11』, 199쪽
김수민金秀敏	창의원수부	1909.08 체포	『편책 15』, 204쪽
김수순金洙順		1909.08 체포	『매천야록』, 505쪽
김준식金俊植	이은찬부대	1909.05 체포	『매천야록』, 495쪽
김정한金禎漢		1908.04 체포	『편책 11』, 5쪽
김현벽金賢壁		1909.02 귀순	『폭도사편집자료』, 509쪽
민창식閔昌植	김병규부대	1909.08 체포	『편책 15』, 205~206쪽
			『편책 19』, 640쪽
박래병朴來秉		1909.03 전사	『폭도사편집자료』, 510쪽
박순근朴順根		1909.05 전사	『편책 14』, 273쪽
박윤완朴允完	박순근부대	1908.04 체포	『편책 10』, 141쪽
박종한朴宗漢		1909.06 귀순	『편책 14』, 511쪽
변홍구邊洪九	전봉기부대	1908.12 귀순	『폭도사편집자료』, 508쪽
신태식申泰植		1908.12 체포	『편책 12』, 587쪽
유문재柳文在	김연성부대	1908.10 체포	『매천야록』, 476쪽
			『재판기록』, 50쪽
윤인순尹仁淳	창의원수부	1909.03 전사	『편책 13』, 519쪽
윤치장尹致章		1909.10 체포	『매천야록』, 513쪽
이기철李奇喆		1908.06 전사	『편책 11』, 198쪽
이능권李能權	강화의병	1908.12 체포	『편책 12』, 695쪽
이억근李億根	김춘수부대	1908.08 귀순	『편책 13』, 822쪽
이은찬李殷瓚	창의원수부	1909.04 체포	『편책 14』, 221쪽
이익삼李益三		1909.06 체포	『편책 14』, 507쪽
이주호李周鎬	이은찬부대	1909.07 체포	『매천야록』, 501쪽
			『재판기록』, 113쪽

성명	의병부대	비고	출전
이화남李華南		1909.08 체포	『편책 15』, 389쪽
임운명林雲明	박뢰심朴賴心부대	1908.08 체포	『편책 12』, 2쪽
장인선張仁善	강화의병	1908.07 체포	『편책 13』, 267쪽
전전유全○○		1909.04 체포	『편책 14』, 15쪽
정용대鄭容大	창의원수부	1909.09 체포	『편책 19』, 640쪽 『매천야록』, 507쪽
정주원鄭周源	서용범徐用凡부대	1908.07 체포	『편책 11』, 337쪽 『재판기록』, 54~55쪽
지홍일池洪一	강화의병	1909.01 체포	『편책 13』, 260쪽
최대평崔大平		1908.12 귀순	『폭도사편집자료』, 507쪽
하상태河相泰	연기우부대	1908.06 자결	『편책 14』, 512쪽 『재판기록』, 499쪽
한경옥韓璟玉		1908.04 귀순	『편책 11』, 3쪽
한성관韓聖寬		1908.07 귀순	『폭도사편집자료』, 508쪽
허 위許 蔿	13도의병진	1908.06 체포	『편책 11』, 196쪽 『매천야록』, 456쪽

[표2] 경기 의병 세력 대조표(1909년 11월 현재)

의병장	의병수	전월과의 증감	주요 활동 지역
유진부	19	증 19	장단
이한경	12	증 2	파주 · 양주 · 교하 · 풍덕
이주부	15	증 15	삭녕 · 마전 · 적성 · 장단
연기우	30	감 27	장단 · 마전 · 삭녕 · 연천 · 철원
이은명	8	증 8	양주 · 파주 · 적성 · 포천
이건칠	7	증 7	파주 · 양주 · 적성 · 고양
유보연	15	증 15	마전 · 연천 · 삭녕 · 철원
이래원	12	증 12	삭녕 · 마전 · 연천 · 적성
김병두	14	증 14	삭녕 · 마전 · 적성 · 연천
홍원유	15	감 1	적성 · 파주 · 양주 · 포천
이명호	8	증 8	적성 · 포천
전성서	15	증 7	적성 · 파주 · 양주

이 시기의 의병 투쟁은 그들의 불리해진 조건을 반영하듯 그 양상이 토벌대와 싸우거나 분견서 등의 습격 투쟁도 있었지만, 주로 당시 주민에게서 징세 임무를 맡고 있던 각 마을의 면 · 이장 또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운반하던 우편 체송인 등을 상대로 하는 군자금 확보 투쟁과 친일파 · 밀정 또는 배신자 등에 대한 처단 투쟁이 주종을 이루었다.

대토벌 이후에도 경기 지방에서 의병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자 일제는 다시 이곳에 대한 토벌을 강화하였다. 남한 대토벌 이후 한일합병의 선언에 자신감을 얻은 일제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 지방의 의병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일제는 양주 헌병대를 동원하여 강기동 · 전성서 · 홍원유 등의 부대를 토벌하려고 6월 2일부터 약 1개월에 걸쳐 일대 토벌을 단행하였다.

무려 1개월이라는 장시간에 걸친 일제의 토벌은 그나마 이어지던 의병운동의 숨통을 틀어막았다. 토벌의 결과 강기동 · 전성서 · 홍원유는 대토벌을 피하여 일시 집단을 해산하고 강기동은 광주군에, 전성서는 연천군에, 홍원유는 양주군에 잠복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1907년 8월 군대 해산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타올랐던 파주를 중심으로 한 임진강 유역 일대의 항일 항전은 3년여에 걸치는 격전 속에서 장엄한 항일 항전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파주 의병의 구성과 투쟁 양상

1. 의병 구성의 특징

1907년 8월 군대 해산을 계기로 본 후기 의병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해산 군인들의 의병 참여와 그에 따른 전술의 발전이었다. 이와 함께 이 시기 일어나는 의병 구성의 큰 변화도 후기 의병운동을 고양시킨 중요한 주체적 요인이었다.

군대 해산 이전은 최익현 · 민종식 · 이인영 등 지방의 명망 유생들이 의병운동을 주도하여 반일 항전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면, 군대 해산 뒤에는 이들 명망가들이 대체로 물러나고 그 빈 자리를 해산 군인, 평민, 몰락 양반 등이 메워 가면서 의병 항쟁을 전국적 · 민중적 항일 전쟁으로 이끌었다. 후기 의병의 이러한 일반적 경향은 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진강 유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파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의병장과 의병 대중의 신분 · 직업별 구성을 분석한 다음 표들의 특징에서 드러난다.

먼저 의병장의 직업 · 신분별 구성을 보면 해산 군인 출신이 18명 가운데 11명(61%)이며, 양반 · 유생이 4명(22.2%), 포군 · 상인 · 농민군(동학) 출신이 각각 1명(6%)이다. 전체적으로 양반 유생 의병장의 비율이 낮은 반면, 해산 군인 그 가운데서도 장교보다는 하사나 졸 출신이 그리고 평민 의병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3] 의병장의 직업 · 신분별 구성

직업 · 신분		수	비율
해산 군인	장교	5	27.7
	하사 · 졸	6	33.3
양반		4	22.
상인		1	6
포군		1	6
농민군(동학)		1	6
계		18	100

이와 같이 의병장 구성에서 해산 군인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곳이 군대 해산에 대한 저항이 가장 격렬하였던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과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배치된 조선 군인이 전체 군인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컨대 윤인순의 부하였던 김귀손이 이끌던 의병 7명 가운데 6명이 해산 군인 출신인 데서도 알 수 있다.

군대 해산 이후 일제가 이 지역의 의병운동에 대한 완전한 평정을 의심할 정

도로 파주를 중심으로 한 임진강 유역의 의병운동이 왕성한 고양기를 맞게 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해산 군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병장 구성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병의 직업 · 신분별 구성을 보면, 농민이 53명 가운데 35명(66%), 상인이 9명(17%), 고용인이 3명(5.6%), 해산 군인이 2명(3.8%), 목수 · 양반 유생 · 포군이 각각 1명(1.9%)씩이다. 전체적으로 의병 대중의 경우는 양반 1명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가 평민 출신이다. 양반 유생의 경우도 그의 직업이 농업인 것을 보면 몰락 양반으로서 농민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의병 대중의 경우 전체적으로 농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소 상인을 비롯한 하층 계급이 몰락하고 있던 현상의 반영이었다. 즉 일제의 식민지 침략으로 형성된 계급적 · 민족적 갈등이 이들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주목되는 계층은 상인인데 9명 가운데 술장사나 요리업, 즉 '주막업자'가 4명이나 된다. 이처럼 주막업자들이 의병이 된 것을 볼 때, 의병 활동에서 주막이 각종 정보의 수집이나 대중선전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상인의 경우 붓장수 · 소금장수 · 콩장수이듯이 이들의 폭넓은 활동 영역이 의병 활동에 이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상인의 침투에 의한 이들 계층의 몰락이 이들을 의병에 참여하게 하였던 것이다.

[표4] 의병의 직업 · 신분별 구성

직업 · 신분	수	비율(%)
농민(농업)	35	66
양반유생	1	1.9
해산군인	2	3.8
포군	1	1.9
상인	9	17
목수	1	1.9
고용인(날품)	3	5.6
제화업	1	1.9
계	53	100

이와 같이 의병장과 의병 대중의 구성을 볼 때, 해산 군인을 포함하여 평민층의 참여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양반 의병장과 활동이 두드러졌던 후기 의병 초기와는 다른 양상이다. 신분을 강조하던 양반 의병장과는 달리 평민이나 해산 군인 의병장의 등장은 그만큼 의병과 지역 민중과의 결합을 쉽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의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농민들이 해산 군인에게서 철편鐵片 · 자기황自起黃(화약류)을 가지고 탄약을 제조하는 법, 조총술 그리고 군사 훈련을 받음으로써 훌륭한 전사로 바뀌어 유격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바로 파주 지방의 의병 구성에서 보이는 민중적 그리고 군사적 특징이 일제가 끊임없이 토벌하는데도 이를 이겨내는 유격전이나 지속적 항일 투쟁을 가능하게 하였던 기본적 조건이었다. 이것은 전체 의병운동의 보편적인 특징이면서도 임진강 유역이라는 주 · 객관적인 조건에 기초한 파주 의병운동의 한 특징이기도 하였다.

2. 의병의 투쟁양상과 지향

의병운동의 민중적 성격의 강화로 특징지어지는 항일 투쟁의 강고성과 지속성 그리고 일제의 침탈과 봉건적 착취에 시달리던 다양한 계층의 의병 참여와 전술의 발전은 당시 더욱 깊어지던 사회적 모순의 반영이었다.

1907년 8월 일제가 강제한 군대 해산은 을사조약 뒤 분명해진 일제의 침략성과 사회의 모순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다. 군대 해산 전에는 일본군과 이들의 지휘를 받는 조선 군인이 토벌군의 주체였으나, 군대 해산 뒤 일본군이 토벌의 전면에 나섬으로써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략 의도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군이 벌이는 무자비한 '초토화 작전'은 지역 민중 사이에 반일 적개심을 더 높여 의병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강화시켰다. 그리하여 의병들은 지역 민중과 굳건하게 결합한 위에서 일본군의 월등한 화력을 견디면서 강고한 항일 항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의병운동의 이러한 흐름과 함께 해산 군인의 의병 참여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

지로 파주 지방의 의병운동에 투쟁 전술과 무장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우선 양총과 탄환으로 무장한 해산 군인의 합류는 의병의 무장력을 강화시켜 화승총 등이 주된 무기였던 이전과는 달리 의병이 일제에게 완강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당시 의병들이 일제의 월등한 화력에 맞서 유격 전술을 사용하였던 것도 이러한 무력을 바탕으로 가능하였다.

한편 유격전이라는 전술의 발전은 민중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 즉 항일 운동의 민중적 성격의 강화 속에서 가능하였다. 곧 의병들은 일제의 침략 아래 짓밟히고 있는 민중의 고통인 계급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투쟁 대상의 폭을 넓혔다. 그리하여 의병들은 일제와의 투쟁을 계속하면서도, 1908년 음력 9월 윤인순 부대가 파주군 파평면 장포리에서 일진회원 2명을 사살하듯이 우선 일진회원이나 밀정과 같은 친일 주구를 처단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일제의 재정 침탈과 일제에 기생하는 봉건 지주의 농민 침탈을 저지하는 반봉건투쟁도 의병들의 중요한 투쟁 대상이었다. 한 예로 1908년 8~9월 윤인순과 황재호가 파주 · 적성 · 포천 · 양주 지방을 넘나들면서 추수 납세 시기가 오면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지 말고 직접 의병에게 교부할 것을 명령하였듯이, 의병들은 일제의 재정 정리 사업 이후 조세 수탈이 곧 일제 침략의 한 방편이라는 인식 아래 조세를 탈취하여 의병 항쟁의 군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의병들은 지주의 추수곡을 탈취하는 데 투쟁을 집중함으로써 반봉건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1908년 11월경 적성에서 창의한 중앙장 김인수金寅洙가 적성 면장에게 "경성 부자의 전지田地를 보관하고 있는 작인은 지주에게 납부치 말고 본대에 지참하여 우리로 하여금 국권을 회복하도록 후원하라"고 하듯이, 추수곡은 조세 탈취와 마찬가지로 의병 활동의 중요한 물적 기반이자 민중적 지지의 기초였다.

의병들의 지주곡 탈취는 대개 방곡령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것은 지주들이 곡가의 등귀를 노려 더 비싼 지역으로 암매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농민적 입장에서 농촌 시장의 보호 · 가격 안정 · 미곡 구매층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 나아가 이 방곡령은 일시적이나마 이 지역의 통상마저 두절시켜 일본으로의 쌀 수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처럼 의병들은 일제와의 민족 대립을 해결하려는 항일 투쟁을 벌이면서 민중의 계급적 요구를 수렴한 반봉건 투쟁을 함께 함으로써 폭넓은 지역 민중의 지지 위에서 항일 투쟁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08년 3월 4일 30명의 의병이 파주 · 고양 부근에서 일본군을 공격한 뒤 교하 방면으로 사라졌지만 일본군은 한 명의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보고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파주 의병은 비록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과 사상을 명확한 강령으로 체계화하지는 못하였지만, 일제와 친일 매판 세력을 상대로 벌인 항일 투쟁 과정에서 그것을 드러내었다. 즉 그들이 투쟁 과정에서 내건 격문이나 투쟁의 대상에서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이나 투쟁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먼저 파주 의병운동은 기본적으로 일제가 친일 매판 세력을 앞세워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화하려는 침략 정책에 맞선 반일(반침략) 민족운동이었다. 또한 납세 거부, 봉건 지주에 대한 소작료 납세 거부, 방곡령의 실시 등과 같은 파주 의병의 투쟁은 소상품 생산자로서의 농민의 자립, 농촌 소상인과 농촌 시장의 보호 등 농민적 개혁을 지향하는 반봉건 운동이었다.

결국 이러한 반일 반봉건을 지향한 파주 의병운동은 궁극적으로는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 운동이었던 것이다.

파주를 중심으로 한 의병들의 이러한 지향은 결국 월등한 화력을 앞세운 일제의 무자비한 침략과 토벌 때문에 좌절하고 말았다. 일제는 이렇게 의병운동을 진압하고서야 비로소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한 지 5년만인 1910년 8월 한일병합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항일 구국 의병운동은 일제의 조선 식민지 정책을 그만큼 지체시켰다.

일제는 합방된 뒤에도 1910년 11월 마지막 항전을 불태우고 있던 경기도와 황해도를 잇는 지역을 무려 4개월에 걸쳐 다시 한 번 토벌하였다. 파주의 인근 지방과 황해도 등지에서는 1911년까지 채응언 · 연기우 · 강기동 등의 의병장과 잔존 세력들이 부분적으로 의병활동을 계속하였지만, 식민지화라는 바뀐 상황에서 더 이상 나라 안에서의 무장 항쟁은 불가능하였다.

일제에 끝까지 항전한 많은 의병장과 의병들은 체포 · 사살되거나 부대를 해

산하고 양민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많은 의병들이 활동 지역을 만주 등 해외로 이전하여 한일병합이라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파주 지역의 의병운동은 을사조약을 앞뒤로 더욱더 깊어진 일제와의 민족 모순을 배경으로, 통감정치 아래 진행된 조선 사회의 식민지화를 저지하려던 전체 의병운동의 한 부분이었다. 또한 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진강 일대는 경기 의병의 중심지로서, 의병 활동을 "죽어서 그칠 결심이다"라고 하던 김귀손이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누세에 욕을 당하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짐은 천추의 한이라" 여겼던 정용대 등과 같이 반일 민족주의로 충만한 의병장들이 활동하였던 항일 투쟁의 격전지였다.

<별표1> 파주 지방 주요 의병장의 직업 · 신분 · 부대규모 · 활동지역

이름	직업 · 신분	부대규모	활동지역
권 준權 俊			양주 · 파주 · 적성
김교성金敎盛	상인	30~80	영평 · 포천 · 가평 · 양주 · 광주 (*1908년 10월 대장이 됨)
김귀손金貴孫 (윤종潤宗)	순교	10~40	풍덕 · 양주 · 적성 · 파주 · 포천 · 영평 (*윤인순 · 이은찬 · 정용대와 연계)
김규식金奎植	육군부교	40~80	마전 · 삭녕 · 연천 · 양주 · 적성 · 안협 · 철원 (*1907.7 양주에서 현덕호玄德鎬와 거의擧義 →허위許蔿의 부하, 이인영 부대와도 합진)
김세경金世卿			마전 · 양주 · 적성
김수민金秀敏	무직	300	장단 · 연천 · 적성 · 강화 (*연기우와 연계, 장단군 북면 출신)
김연성金演性 (범일範一)	문학박사	40~50	포천 · 파주 · 양주 · 영평 · 적성 · 연천 (*황순일 권유로 투신, 1908년 봄 행불)
김주묵金湊默		300~400	양주·파주·적성·고랑포·평강·금성·토산
노재훈盧在勳		14	양주 · 파주 · 적성 · 교하

이름	직업 · 신분	부대규모	활동지역
박종환朴宗煥 (종한宗漢)	특무정교	10~50	양주 · 마전 · 장단 · 삭녕 · 풍덕
신명재申明在	유생	250	적성 · 양주 · 가평(*허위의 부하)
정기우廷基宇	육군하사	30~90	적성 · 영평 · 양주 · 포천 · 연천 · 장단 · 마전 · 삭녕(*김수민과 연계)
정기호廷基浩	육군장교	25	파주·적성·양주·장단·포천·가평·영평 (*윤인순 · 황재호와 연계)
왕회종王會鐘		300~400	양주 · 파주 · 적성(*김진묵과 연계)
윤인순尹仁淳	박도두령	20~200	파주·적성·양주·포천·교하·고양·장단 (*허위의 부장, 체포 뒤 독립, 이은찬 · 정용대 · 김교성 · 연기호 등과 연계)
이규태李圭泰		20	양주 · 적성
이근칠李根七 (건칠建七)	병사	7	파주 · 양주 · 적성 · 고양 (*윤인순의 부하)
이명호李明鎬 (윤명允明)		8~13	양주 · 적성 · 포천
이은명李殷明		8	양주 · 파주 · 적성 · 포천
이은찬李殷瓚	양반	50~300	양주 · 가평 · 영평 · 연천 · 포천 · 광주 (*윤인순 · 정용대 · 김교성과 연계)
이재학李在學		30	양주 · 적성 · 삭녕
이한경李漢景	장교	12	파주 · 양주 · 교하 · 포천
전성서田聖瑞		8~15	양주 · 파주 · 적성 (*정용대 부하, 강기동과 연계)
정용대鄭用大	육군조장	30~40	적성 · 통진 · 강화 · 풍덕 · 통진 · 교하 · 파주 · 김포 · 고양 · 양주(*이은찬과 연계, 1909년 9월 체포→적성군 남면 출신)
조인환曺仁煥		10	이천 · 여주 · 양근 · 파주 · 양주 · 적성
허 위許 蔿	참봉	50~500	포천 · 연천 · 양주
허 준許 俊	정위	60~65	포천 · 연천 · 양주
홍원유洪元有	병사	15~16	양주 · 파주 · 적성 · 포천 · 고양 · 마전 (*윤인순의 부하)

이름	직업 · 신분	부대규모	활동지역
황재호黃在浩	육군하사	30~80	양근 · 적성 · 영평 · 양주 · 파주 · 포천 · 연천(*김석하와 연계)

비고 : ① 이름 항목에 ( )는 별명.
② 활동 지역 항목에 *표시는 파주군 출신 또는 거주자, 다른 의병 부대와의 연계 등 기타 특징을 기록.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의병편 자료 10~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별집1 의병항쟁 재판기록』; 『독립운동사 자료집3-의병항쟁사 자료』; 원호처, 『독립운동사1-의병항쟁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민족전란사1-의병항쟁사』

<별표2> 파주 의병 대중의 직업 · 신분 · 활동지역 · 참여 의병부대

이름	나이	직업 · 신분	출신지역	의병장	활동지역
강대여姜大汝	37	농업	장단군 북창리	박종한	장단
강명선姜明善	30	농업	마전군 서면	박종한	장단
강봉상姜逢相	20	포군	통진군	정용대	?
고문성高文成	43	농업	마전군 강신면	박종한	장단 · 마전
구만성具萬成	26	농업	장단군 장현내면	박종한	장단 · 마전
권중삼權重三	28	농업	적성군	?	교하
김거복金巨福	23	농업	장단군 고랑포	김수민	장단 · 양근
김경록金京祿	29	농업	장단군 고랑포	윤인순	파주 · 적성 · 양주
김기서金基西	?	농업	장단군 강서면	유포련	장단
김순만金順萬	30	상업	양주군 이담면	황재호	적성 · 양주
김윤종金潤宗	43	농업	파주군 천현면	?	파주 · 양주
김은중金殷仲	23	농업	파주군 파평면	연기우	장단
김창식金昌植	39	?	고양군	이인영	파주 · 양주 · 포천
김치연金致淵	19	농업	마전군 서면	박종한	장단
김해용金海龍	29	농업	풍덕군 남면	윤인순	파주 · 적성 · 양주
박종한朴鍾漢	28	붓장수	마전군 강신면	김규식	장단
백영현白永賢	28	목수	파주군 천현면	윤인순	?
선경화宣景化	22	농업	장단군 강남면	홍원유	마전 · 양주 · 적성
성락희成樂喜	20	농업	장단군 북면	이래원	장단
송금종宋今宗	27	농업	파주군 대원리	허위	장단 · 마전

이름	나이	직업 · 신분	출신지역	의병장	활동지역
신관수申寬秀	25	농업	풍덕군 남면	정용대	통진 · 교하
신화선申化善	29	?	장단군 고랑포	?	적성 · 고양 · 파주
오상묵吳常默	53	농업	경성	노학범	교하
우덕원禹德元	39	농업	장단군 동도면	이래원	장단
우윤구禹潤九	27	농업	마전군 강서면	홍원유	마전 · 양주 · 적성
윤수정尹壽丁	?	?	경성	김규식	적성 · 마전 · 연천
윤인경尹仁景	46	술장수	장단군 장서면	?	장단
윤치대尹致大	35	?	파주군 천현면	윤인순	?
이구영李求榮	25	?	파주군 공릉장	한창렬	고양 · 파주 · 장단
이긍래李兢來	28	농업	양주군 이담면	정용대	양주 · 적성 · 포천
이대유李大儒	54	제화업	파주군 광탄면	김참호	갑산 · 함북
이덕준李德俊	31	농업 · 군인	고양군 송산면	유충렬	파주 · 장단 · 마전
이래원李來元	28	무직	장단군 강남면	연기우	장단
이문일李文一	26	농업	양주군 백석면	권준	적성 · 양주
이성서李聖瑞	54	미장이	경성 중부	정재학	적성
이성팔李聖八	26	?	장단군	김수민	장단
이용현李容鉉	22	담배장수	파주군 공릉장	박종한	교하 · 파주
이인식李仁植	43	농업	장단군 서도면	김수민	장단 · 마전 · 삭녕
이종근李宗根	40	농업	통진군 양릉면	정용대	교하
이준겸李俊兼	35	날품팔이	장단군 강서면	유포련	장단
이창근李昌根	33	농업	장단군 강란면	김수민	장단
이치근李致根	33	?	적성군	?	장단 · 마전 · 파주
이치옥李致玉	30	농업	용인군 천곡	정용대	고양 · 교하
이학선李學善	24	술장수	여주군	정용대	교하 · 풍덕 · 김포
임만성林萬成	42	농업 · 군인	경성 동서	김수민	장단
전목기全木基	28	농업	양주군 이담면	김인성	적성 · 양주
전복규全福奎	32	농업 · 유생	연천군 서면	김수민	연천 · 마전 · 장단
정치삼丁致三	20	?	이천군	정용대	풍덕 · 교하
정덕여鄭德汝	34	농업	장단군 대남면	연기우	철원 · 금천
정두환鄭斗煥	31	농업	양주군 이담면	정용대	적성 · 양주
정홍준鄭弘俊	33	농업	파주군 문산포	전성서	파주 · 양주 · 적성

이름	나이	직업 · 신분	출신지역	의병장	활동지역
최기서崔起西	24	소금장수	장단군 고랑포	김수민	장단 · 연천 · 마전
최병근崔炳根	27	술장수	장단군	?	장단
최지미崔志味	24	?	고양군	최재욱	파주 · 장단 · 고양
최춘식崔春植	22	농업	장단군 물한리	한창렬	교하 · 연천 · 마전
추삼만秋三萬	29	농업	양주군 이담면	황재호	양주 · 적성 · 삭녕
한인수韓仁秀	30	농업	양평군 북면	전성서	적성 · 연천 · 양주
한창열韓昌烈	27	콩장수	장단군 장서면	박종한	장단 · 파주
한청돌韓靑乭	30	농업	장단군 대남면	유포련	장단 · 마전
허평순許平順	22	고용인	경성 서부	박순근	고양 · 파주 · 양주
현영원玄永元	37	농업	연천군 북면	연기호	장단
현학용玄學用	29	요리업	장단군 대남면	연기우	연천

출전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별집 1 의병항쟁 재판기록.

* 이 글은 파주시지편찬실에서 1995년 발간 『파주군지』 상권, 역사편 제5장 중 의병운동(집필자 김순덕) 글을 축약 재정리한 것이다.

〈참고문헌〉

朝鮮駐箚軍司令部, 「朝鮮暴徒討伐誌」, 『獨立運動史資料集』

朝鮮總督府警務局, 「暴徒史編輯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旺山許蕙先生擧義事實大略』

黃 玹, 『梅泉野錄』

金河洛, 「金河洛陣中日記」, 『獨立運動史資料集』 제1권 義兵抗爭史

조동걸, 『의병들의 항쟁』, 민족문화협회, 1980

박성수, 「한국군의 해방과 저항」, 『독립운동사연구』, 창작과비평사, 1980

여 백

일제강점시대의 파주

이현희_성신여대 명예교수

일제의 한국강점과 파주

1. 헌병경찰통치의 개시와 파주 지역민의 저항의식

1910년 8월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종래의 주한일본공사관을 대신한 통감부에 이어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1945년까지 이 기구를 중심으로 35년간 무단통치(헌병경찰)를 강제하였다. 조선총독부 관제에 따르면 조선총독은 소위 '일본 천황'에 직접 예속되며 위임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조선의 방비를 맡는 동시에 제반 정무를 통괄함으로써 한국의 정권과 군사권을 한 손에 장악한 막강한 존재였다. 즉 모든 관리의 인사권, 군의 통솔권, 판검사의 임명권 등 행정·사법·입법의 3권을 장악하였다. 총독은 지위상으로는 높지 않았지만 군 고위 장성 출신이나 원로 정치가가 부임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독의 명령이 곧 강력한 법률로서 작용하였다. 총독은 "내가 곧 이 나라의 지배자다"라고 큰소리치고 다녔는데 보통 4~6명의 무장한 호위병이 앞뒤로 밀착 경호하였다.

초대총독으로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총독 아래 헌병사령관이 총독부 경무총감을 겸임하는 헌병경찰제도가 선포되어 폭력적인 무단통치가 개시되었다. 따라서 혁명적인 3·1운동 때까지는 헌병경찰시기라고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파주 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헌병경찰을 보면 개도 짖지 않았다고 파주 교하면에 살던 이헌우는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육군 2개 사단이 조선에 상주하고 진해와 영흥만에는 해군요새 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유사시에 즉각 출동해야 하는 사명을 받고 대기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총독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 고 할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1910년 12월 회사설립에 관한 허가, 정지, 금지, 폐쇄, 해산 등을 규정한 회사령을 공포하여 한국자본의 성장을 억누르는 한편 일본자본의 본격적인 식민지 침식을 쉽게 처리하기 위하여 철도, 도로, 항만, 통신망 등의 정비를 서둘렀다.

또한 통감부 시절부터 한국인의 자주적 교육을 탄압하고 일본화교육을 강제하였던 일제는 1911년 8월 제1차 교육령을 공포하여 교육의 목적을 일본천황에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각급 학교에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여 일본어를 국어로 강제하였으며, 한국의 역사와 지리 풍속 등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불온문서라 하여 압수 소각하였다. 의식을 개발하는 인문사회 과목은 멀리하게 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상식만 통하게 우민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인에 대한 교육과정은 일본어 보급을 기본으로 하는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의 3가지로 나누고 한국인의 대학교육은 금지하였다. 그리고 총독부는 관공립학교를 확대하고 식민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았다. 이에 관공립학교는 1912년 보통학교 300여 개, 고등보통학교 2개, 여자고등보통학교 1개, 실업학교 17개, 전문학교 1개교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1908년 공포한 사립학교령을 1911년 개정하여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였고, 1915년과 1919년에 다시 개정하여 식민지 지배에 따른 감독을 강화해 나갔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관공립학교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의 교과과정을 금지하고, 교과용 도서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것과 총독의 검정을 거친 것 외에는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식민지 교육은 한국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

여 우민화를 꾀하였고,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일부 한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신민으로서의 동화교육을 통하여 일제식민지배의 보조자로서의 임무를 맡도록 한 것이었다. 사립학교의 교육내용도 관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교육내용을 관공립학교와 같이 통제하였다. 또한 모든 한국인 관련 단체는 물론 친일 조직인 일진회조차 해산시켰으며, 모든 민족계 신문을 폐간하고 친일 어용신문인 매일신문, 경성일보만 존속케 하였다. 매일신문은 대한매일신보를 빼앗아 '대한' 이란 문자를 지우고 그냥 매일신문이라 하였는데, 오늘날 서울신문의 전신이다.

이후 데라우치 총독 대신 부임한 하세가와 요시미치 조선총독은 1919년 3 · 1 운동 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자는 두 번이나 조선총독을 지냈다)으로 교체될 때까지 헌병경찰 통치 하의 식민 지배를 강화해 나갔다. 그는 앞서 러일전쟁 당시부터 조선주차군 사령관으로 조선의 항일의병투쟁을 탄압한 군인으로 강력한 무단통치를 전개해 나갔다.

이처럼 일제강점 직후 한국인은 전국에 걸쳐서 무단식민통치 하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자주적인 기본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식민지인으로서 일제 지배에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당하였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기계적인 식민통치의 충량한 제국 신민으로서의 희생자가 양산된 것이었다.

2. 파주의 애국인사

일제에 의해 나라가 강탈당하자 전국 각지에서는 민족적 자존심에 호소하여 그 분함과 치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는 순국지사들이 속출하였고, 일제의 국권침탈에 분개하여 의병을 일으켜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먼저 고종 때 내시였던 승전색承傳色 반학영潘學榮(일명 하경夏慶)은 을사늑약에 충격을 받고 즉각 사직하고 파주 교하 심학산 언저리에 은둔하였다. 일제의 병탄 소식을 듣고 비분강개하여 삽교(삽다리)시장에서 입에 칼을 물고 자결하고 말았다(배를 갈라 자결하였다는 설도 있다). 이후 그의 죽음을 슬퍼하던 동료들

이 20년이 지난 후(1930년경) 묘소에 비를 세우고 비문을 새겼는데 그에 따르면 반학영의 인물 됨됨이를 잘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의 충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숭록대부 내시부사 반공 묘표崇祿大夫 內侍府事 潘公墓表

경술년(1910) 가을 8월 2일 대한국 숭록대부 지내시부사인 반학영 공이 충성스럽게 죽으니 그때에 나이가 70이다. 파주의 신촌을 택하여 곤좌에 장사하였다. 이제 20여 년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그의 덕을 추모하는 기록이 없었으므로 옛 동지들이 그의 큰 절개가 어둠에 묻혀서 나타나지 아니할 것을 두려워하고 서로 돈을 모아 돌에 그의 사적을 기록한다. 나와 공은 같은 조정에서 근무하면서 근무지가 서로 달라 서로 알지 못하였다. 광무 7년(1903) 효정왕후의 국장 때 공은 도설리가 되고 나는 제관이 되어 같이 모든 것을 주선하는 분주한 부서를 맡게 되자 비로소 서로 알게 된 지 3년이 되었다. 그의 죽음이 충성한 것임을 듣고 슬프다. 아픔이 오래되도록 잊혀지지 아니한다. 묘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어찌 묵묵히 참고 있으랴.

공은 영금인 한림학사 반서의 후손이다. 철종 8년 정사년(1857) 처음으로 입사하여 벼슬이 일품에 이르렀다. 대개 그 사람됨이 자서하고 신중하여 철종, 고종 양대에 걸쳐 항시 임금의 측근에서 근무하면서 일찍이 사소한 잘못도 없었다. 또 경개하고 정직하여 홍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권문에 드나들지 아니하며 만약 임금의 총애를 믿고 제 뜻을 흩뜨리는 자가 있으면 왕래를 끊고 말았다. 무릇 모든 이익을 취하는 일에는 한 번도 마음을 쓴 바 없고 다만 박봉으로 겨우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으므로 곤궁함을 면치 못하였으나 항상 마음은 편안하였다. 한평생을 학문의 이론만으로 하지

삽다리 주변의 최근 모습

않고 자신의 떳떳한 마음에 맞게 실행하였고, 또 행동의 돈독함이 제나라, 노나라의 대선비보다 못지 아니하였다.

한번 국론이 갈라지자 왕실이 다난해지고 내우외환으로 국가 대세가 판탕하여지자 공의 걱정은 불꽃같이 연연한 마음으로 국가를 보살폈다. 그러나 공이 벼슬을 그만두고 파주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국가는 망하여 봉작을 받고 입연을 선포하였다. 공은 비분 격앙하여 밤낮으로 통곡하고 음식을 끊기를 여러 날을 하다가 마침내 유서를 작성하여 충성스런 뜻을 밝히고 삽교시장에 나아가 드디어 길가에서 칼을 물고 엎어져서 그 충성된 뜻을 다하니 아, 장렬하도다. 보통 사람의 인정은 삶을 즐기지 아니함이 없고 죽음을 슬퍼한다. 죽음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태산보다 중한 것인즉 어찌 공 같은 분을 이르는 것이 아니리요. 나무가 푸른 것은 많은 열매를 맺음이요, 신하의 큰 덕이 되어 밝고 밝게 일월보다 빛나나니 이 족히 슬프지 않으리요. 회고하여 볼 때 전연하여 구차하게 살아가는 자 말라서 살이 빠진 목과 초라한 기름기 없는 누런 얼굴로 목석같이 살아가는 자 족히 즐겁다고 하리오, 이와 같이 말하고 보니 나는 오히려 죽은 목숨이요 공은 오히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겠는가. 감히 공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슬퍼하노라.

또한 의병들도 국내 각지에서 일어나 헌병 분소나 경찰주재소 등을 습격 파괴하거나 중국 동삼성, 등지로 망명하여 무장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의병을 체포하기 위하여 현상금을 내걸고 헌병특별수색대를 조직하여 체포, 총살, 교수형 등을 가하였다.

당시 파주에서는 송금종(1913년, 7년 징역), 김은중(1913년, 7년 선고), 윤치대(1913년, 5년 선고), 이용현(1913년, 7년 선고), 김윤종(1913년, 7년 선고), 이대유(1914년, 2년 5개월 선고), 정홍준(교수형) 등이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가혹한 옥고를 치르거나 교수형에 처해진 일이 있다.

3. 장명산 사건

특히 장명산 사건은 파주의 대표적인 항일운동이었다. 일제의 국권침탈로 반일감정이 극에 달해 있을 때 파주 교하군에 초대 군수가 발령되었다. 나라를 일제에 빼앗긴 지경에 관리로 부임했다면 친일분자임이 분명하였다. 이에 교하군민은 새로 부임하는 윤기섭 군수에 대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새 군수를 화형에 처하고자 하였다. 탁지부 주사로 있다가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된 후 야동리에 돌아와 있던 김사열은 10여 명의 동지와 함께 송헌섭의 집에 모여 신임 군수 윤기섭을 화형에 처할 것을 결의하고 "집집마다 1명씩 장작 한 개씩을 가지고 장명산으로 집합하라"는 사발통문을 돌렸다. 이에 수만 명의 교하군민이 장명산에 집결하여 각자 가지고 온 장작을 모아서 불을 피우고 그 뒤에 신임 군수를 화형에 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미리 탐지한 일경이 총격을 가하며 공격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이때 유용 등이 체포되어 대마도로 끌려간 뒤 심한 고초를 겪었다. 장명산 사건은 나라를 빼앗긴 울분에 가득 찬 당시 파주군민의 대대적인 항일봉기였던 것이다.

장명산의 반쪽이 깎여져 나간 모습

4. 파주의 토지조사사업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한 직후 실시한 소위 토지조사사업은 한국의 토지를 강탈할 수 있는 주요 경제정책의 하나였다. 즉 아직까지 토지경제가 기본적인 경제수단이었던 한국에서 1910년 3월부터 1918년 11월에 걸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을 확정하고 조선총독부 예산의 재원으로서 지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연고관계를 신고해야 했는데 충분한 홍보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에 대한 무지로 신고하지 못한 농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 경작하던 토지를 하루아침에 법적근거가 없다 하여 탈취당하고 그 토지는 소수의 한국인 지주와 일본인 지주, 또는 일제의 수탈기관인 동양척식회사의 소유가 되었다. 이에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은 비싼 소작료를 지주에게 수탈당하였고, 농촌을 이탈한 농민들을 흡수할 만한 산업이 아직 미흡했던 상황은 농민을 절대 빈곤으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점차 유랑민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은 이미 토지소유권은 한말에 확정되어 있었는데도 일본인이 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막대한 우리의 토지를 약탈할 흉계 하에 이런 망령된 허풍소식을 퍼트리고 토지를 약탈해 간 것이다.

이러한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일제의 토지수탈은 파주에서도 전개되었다. 파주에서의 토지신고는 1913년 초부터 접수되기 시작하였다. 민유지의 토지신고는 지주의 책임 하에 일괄적으로 작성되어 접수되었다. 국유지의 경우는 소관관청인 탁지부에서 국유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것을 토지신고서로 대신하였다. 이때 임야는 누구의 소유라고 할 것 없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유가 분명한 임야를 제외하고는 신고되지 않았고, 국가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 일괄 조사되어 국유지로 통지되었다. 이 외 토지신고 및 국유지통지에서 누락된 토지들은 무신고지 또는 무통지지로 분류되어 따로 소유자를 조사하였으나 그 토지는 거의 국유지로 귀속되었다. 당시 파주 지역은 국유지의 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에 달할 정도로 국유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일제로 흡수 수탈된 토지의 면적도 그만큼 컸다.

당시 파주에서 동양척식회사(동척)의 소유지가 된 토지는 동척 설립 당시 대한제국 정부의 토지출자분과 그 이후 동척이 매입한 토지로 구성되어 있다. 탄현면 성동리와 법흥리에 소재한 동척의 토지는 종래 경우 궁장토였다. 궁장토는 금산리, 만우리, 대동리, 성동리, 법흥리 등에 산재해 있었는데 그 중 일부가 동척의 소유로 이관된 것이다. 또 장단군에 소재한 동척 이관 토지는 조선시대에 수진궁장토가 형성된 곳이었는데 이는 원래 훈련도감 둔토였다가 수진궁으로 이속된 것이었다.

이처럼 파주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동척으로 이관되는 민유지나 국유지의 면적이 넓었으나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거나 동척으로 이관된 것은 아니며 분쟁지도 총 269필지로 이 중 24필지가 국가소유로 확정되었고 토지심사에 불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유화된 토지는 전체 필지에 대해 비율적으로 적은 필지이나 면적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국유화된 토지는 일제강점하에서 민유지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동척을 비롯한 일제 당국으로 수탈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살한 농민도 있었다고 교하면 문발리 거주하던 중소지주 출신 이순진(일명 이선; 1875~1949)은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의병이 파주 일대에 와서 군자금을 요청하자 쌀 광을 열어두고 슬쩍 자리를 떴다고 한다. 그동안 적당히 퍼가라는 신호로 알고 의병들이 그의 집(문발리 36)에 들어가 쌀을 퍼갔다고 한다. 일본 주재소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순진을 잡아 조사하였으나 집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들어가서 쌀을 탈취하였다 해서 의병을 도적으로 인정하여 주인 이순진은 무사하였다는 것이다. 그가 직접 의병에게 군자금을 조달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인하대학 학장을 역임한 최승만의 증언으로 확인된다. 마치 제2대 부통령을 역임한 애국지사요 민족지도자인 인촌 김성수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3 · 1운동과 파주

1. 1910년대 항일운동과 민족교육

1910년 국권피탈 직후의 민족운동은 의병투쟁과 함께 비밀결사에 의한 조직적인 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 비밀결사운동은 독립전쟁론에 기초하여 독립군을 조직하거나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1910년대 전반 의병활동은 황해도 · 평안도를 중심으로 채응언 등 극히 일부

세력만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파주 근처에서도 1913년까지 소수 의병부대의 활동이 계속되었다. 특히 채응언 의병장은 파주 교하 · 탄현 · 적성 등지에 출몰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여 일본수비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체포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 일경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온갖 만행을 저질렀는데 파주에서의 의병활동이나 비밀결사에 참가하여 일제에 의하여 모진 악행을 당한 이 지역 애국지사들 중 송금종(조리면 죽원리, 27세) · 김은중(파평면 마산리, 23세) · 윤치대(천현면, 35세) · 이용현(조리면 봉일천리, 22세) · 김윤종(천현면, 43세) 등은 1913년 의병활동으로 5~7년간 복역하였고, 정홍준(임진면 문산리, 33세)은 악질 친일 헌병보조원을 살해했다는 죄명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 외 정용대 · 윤기영 · 경현수 · 백영현 · 조인환 등이 각 면을 중심으로 항일투쟁에 앞장섰다.

한편 1910년대 실력양성론을 계승한 계몽운동으로 교육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한국인에게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식민통제 하에서 종교단체나 학교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활동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에 교육문화운동은 대개 민족교육을 강조하고 있던 사립학교나 서당, 야학 등을 통해 전개되었다. 이때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파주의 사립학교는 1924년 당시 1개교에 불과하나 역사, 지리, 창가, 체조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한편 민족교육의 심화를 위하여 한글, 한국역사, 애국적인 창가 민요 등을 가르쳤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과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개량서당' 이나 '야학' 에 입학하는 학생이 늘어났다. 파주 지역의 경우 당시 서당은 교하면 · 탄현면 · 적성면 등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개량서당은 한국역사 · 지리 · 공민 · 정치경제 등의 신식 민족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으며, 야학도 농민이나 노동자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자연 항일교육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1910년대 교육을 통한 민족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자주독립의식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고, 학교나 서당은 항일투쟁의 산실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육문화운동을 통해 민족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조직을 결성하여 민족독립운동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다.

또한 일제의 국권강탈 직후부터 식민지 수탈에 항거하는 항일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농민이나 영세상인 등은 소위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토지수탈, 각종 잡세의 신설과 증세 등에 강렬히 저항하였다. 이러한 조세저항투쟁은 1910년대 후반 각 고장의 주재소, 면사무소, 우편국 등 일제의 지배기구에 대한 습격의 양상으로 실행되어 격렬해졌다.

2. 경기도의 3 · 1운동

3 · 1운동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성숙되어 온 민족주의 구국운동이 자생적이고 전통적 자주이념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이러한 거족적 민족운동은 1910년 국권피탈 직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천도교를 비롯하여 기독교, 불교계 민족대표와 학생계층 등의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3 · 1운동은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드는 것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수많은 민중들이 가담함으로 독립만세 시위와 열기는 더욱 고조되어 3 · 1운동은 경기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로 확대 파급되었고, 동년 3월 10일 이후에는 중국 동삼성, 미주, 일본 등지의 해외 한국인 동포들에게까지 3 · 1민족정신이 계승되어 거국 거족적인 항일 만세시위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3월 3일 이후 21개 부 · 군 전역에서 만세시위운동이 어느 지역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중심부이며, 개항 이후 각종 철도와 도로가 통과함으로써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빨리 전달받아 다른 지방으로 전파하는 길목에 있다는 지리적 여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을사늑약 이후 의병항쟁의 중심지로서 항일투쟁의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경기 지방 의병총대장 허위 휘하 장단의 김수민, 포천과 양근의 이은찬 등의 의병부대가 항일투쟁을 전개하여 그 영향이 당시 파주 지역의 각 면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립학교와 서당을 중심으로 민족의식

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이에 영향을 받아 3 · 1운동 때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있었다.

경기 지역의 3 · 1운동은 초기에는 향촌 내의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된 민족운동의 상황을 경기 파주 등 각지에 전달하였고, 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제작 배포하여 선두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그러나 3월 하순 이후에는 이 지역 농민계층의 참여가 다수 증가하여 파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파급되어 항일투쟁의 주도세력이 지식인, 학생들로부터 농민층에 이르기까지 저변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농민계층 가운데서도 교하면 등의 서당과 야학 등 교육기관을 통해 민족교육을 받은 청년계층이 활발히 가담 활동하였고 상인, 노동자들의 참여도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리里 단위의 조직을 구성하여 선도세력에 따라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시위를 전개하였고, 때로는 횃불과 봉화를 올리며 만세를 부르거나 일경의 폭력적 탄압에 맞서 돌과 몽둥이를 들고 경찰서 등을 공격하는 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위하던 도중 사망자가 발생하고 일경에 체포되어 가거나 지역 군민들이 단체 보복학살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는 곧 파주 군내로 파급 확산되어 각 면의 민중들을 만세시위 현장으로 끌어들이게 된 것이다.

3. 파주 지역의 3 · 1운동

파주에서는 동년 3월 10일 와석면(현 교하읍)의 시위를 시작으로 항일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10년 이후 일제에 압박받던 파주 지역민이 합심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와석면에서는 이날 교하리 보통학교 운동장에 모인 학생 100여 명이 독립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여 실천에 옮겼다. 이때 주도적 임무를 담당한 인물은 당시 33세의 구세군 출신 임명애林明愛로, 3월 10일 오전 9시경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자 다른 학생들도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3월 25일 김수덕 · 김선명 등이 임명애의 집에서 "오는 28일 동리 산으로 모이라. 집합하지 않는 자의 집에는 방화하겠

다"라는 결연한 내용의 경고성 격문을 60여 장 인쇄하여 와동리 · 당하리 · 다율리 · 구당리 · 문발리 · 오도리 등지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교하리의 염규호 · 김창실 · 김수덕 등이 모여든 남녀노유 700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교하면사무소로 시위행진하여 면서기 박, 김 2명에게 직무를 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시위에 동참하라고 일방적으로 통고하였다. 이어 26일 오전 시위행렬이 주재소로 향하자 일제 헌병이 군중을 향하여 무차별 발포하여 참가자 중 가장 의기발랄한 28세의 최홍주崔鴻柱(1891~1919)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놀란 군중은 "와! 도망치자!" 하며 위기를 탈출하여 일단 해산하였다. 그러나 시위를 주동한 임명애(1886~1938), 구세군 염규호(1881~1941), 김창실, 김선명, 김수덕 등은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에서 1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임명애는 1982년에 애족장을, 염규호는 1983년에 애족장을 각기 추서받았다.

3월 26일에는 주내면, 임진면, 진남면에서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주내면과 임진면에서는 이학로 · 백기수 · 박우용 · 이영진 · 황학주 · 윤홍섭 등이 주도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진남면에서는 그날 밤 동장리에 사는 이욱영李昱永 · 강규수 · 한기동 · 백태산 · 조주행 · 이성구 · 양세환 · 정종락 등이 주도적으로 그곳 성화학교 뒤에 집결한 100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군중은 면사무소로 나아가 면장을 나오라고 외쳤으나 이미 면장은 도망가고 없자 면사무소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분통을 터뜨렸다.

청석면에서는 3월 27일 그곳에 있는 심학산에 모인 수백 명의 군중들이 면사무소를 향하여 시위행진을 하였다. 보통학교 학생들이 선두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자 많은 군중들이 뒤따르며 면사무소 건물을 공격하였다. 이에 면장은 시위를 무마하려다 뜻대로 안 되자 시위대와 함께 만세를 부르며 시위 해산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시위대는 계속하여 교하리 주재소로 향하였는데 교하리에서 일제 헌병의 발포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해산하였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이곳에서는 봉화와 만세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광탄면 발랑리에서도 수백 명의 군중들이 면사무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곳의 시위는 따로 주도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이 자연스럽게 결집되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한 것이었다. 시위는 다음날에도 계속되었는데, 군중들은 조리면 봉일천 외 조리 일대까지 시위 행진하여 봉일천 장날에 모인 군중 300명과 합세한 뒤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조리면 봉일천의 장날 만세시위는 심상각의 주도 아래 김응권 · 권중환 · 심의봉 · 이근영 · 이종구 · 유영 등이 중심이 되어 군내는 물론 이웃 고양군까지 포함하여 3월 28일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당일 광탄면 등지에서 수천 명의 군중이 봉일천 시장으로 몰려와 조리면의 2,000여 명의 군중과 합세하여 격렬한 대규모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때 군중들이 헌병주재소를 공격하자 일제 헌병들은 시위대를 향하여 무자비하게 발포하여 박원선 등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날 시위는 군내에서 전개되었던 3 · 1운동 가운데 가장 대규모적이고 격렬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발랑리에 사는 조무쇠 · 이인옥 · 남동민 · 정천화 · 정갑석 · 이기하 · 정봉화 · 강흥문 등은 일경에 체포되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광탄면 발랑리 면사무소 앞에 3 · 1운동을 기념한 3 · 1운동발상비가 세워져 있다.

천현면 법원리에서는 3월 30일 화유현 · 이문섭 · 윤두영 · 황병주 등이 주도하여 봉일천 시위에서 희생당한 김남산金南山(1894~1919)의 장례를 치른 후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군중은 문산 방면으로 행진하였으나 일본 군경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최소 2명 이상이 사망하는 격렬성을 노출하였다.

그 외 파주 출신 애국자로는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안원규(독립장) 등을 들 수 있다. 일반 항일로는 남동민 · 노동식 · 경구현 · 변석봉 · 박원선 · 윤학수 · 이기하 · 이인옥 · 이중혁 · 이차녕 · 정갑석 · 최창섭 · 황인수 · 황장연 등이 독립운동가로 정부의 공인을 받아 등재되어 있다. 이들은 거의가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층이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아직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자금 조달의 이순진과 일제 말 독서회 사건의 이상옥 등 수십 명이 미포상 독립유공자로 남

아 있다.

이처럼 파주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더 치열하게 3 · 1운동 정신을 계승한 독립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어 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4. 파주 지역 민족운동의 성격

파주에서 전개된 3 · 1운동은 몇 가지의 특징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만세운동 초기에는 가까운 서울에서의 각종 항일투쟁이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지역 지식인과 학생계층에 의해 항일투쟁이 선도되었으나 점차 농민계층 등 지역 주민 대부분이 전면에 나서 치열하게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와석면이나 청석면(지금의 교하읍, 1934년에 합병됨) 등의 경우에서 학생, 지식인들이 주도적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농민 등 지역민 전체가 그 뒤를 따랐고, 광탄면의 경우는 선도세력 없이 지역민 모두가 나서서 주도세력이 되어 주객이 없는 가운데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만세시위운동이 초반에는 태극기를 흔들고 학도가와 권면가 등을 부르면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평화적인 시위로 출발하였으나 일제의 무차별 공격과 사격에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자 흥분하여 일제히 공격을 가하였으며 일제기관에서 일하는 관리들의 친일적인 행태에 격분한 군중들이 일제 식민기관을 공격하는 적극적인 항일투쟁으로 비화하였다. 이에 면사무소나 주재소가 주요 공격대상이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파주에서의 공격적 만세시위 양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주에서는 장날 등 군중이 많이 모여드는 장소를 이용한 대규모의 조직적인 시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봉일천 만세시위의 경우처럼 다른 지역 시위대가 원정을 와서 시위대에 합세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당시 봉일천장은 파주뿐만 아니라 인근 고양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광탄면의 주도세력이 조직적인 사전계획을 하여 만세시위운동을 입체적으로 일으켰다. 이에 광탄면 주민 2,000여 명이 시위 행진하여 이곳으로 이동하였고, 장에 모인 군중들과 합세함으로써 시위군중은 3,000여 명

을 넘는 대규모 항일시위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위 형태는 당시 고립되거나 분산되어 연결되지 않았던 각 면, 리 마을의 시위를 연결시켜 파주 지역민의 힘을 결집시킴으로써 대규모 만세시위운동을 종과 횡으로 폭발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파주의 3 · 1운동은 구석구석에서 선도세력과 주민들에 의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일경에 체포되거나 희생당하는 주민들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확인된 사례만도 피검자 21명, 사망자가 10여 명에 이르렀다. 파주에서는 서울의 3 · 1운동 상황을 타 지역보다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었으나 중앙세력과 연계되거나 두드러지게 3 · 1운동을 이끄는 선도적 조직체가 없이도 지역민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3 · 1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교하 문발리 출신의 역사학자인 이상옥(1908~1981) 전 고려대 교수의 지적과 같이 개량서당 출신이며 신식 교육을 받은 준 개화양상을 띤 지식층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는 1960년대 이래 보훈처에서 발간한 20여 권의 독립운동사 중 경기도 경기 및 파주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전담하여 집필하였는데 그 서술에서 위와 같이 피력하였다.

3·1운동 이후 파주의 민족운동과 지역민의 생활

1. 3 · 1운동 이후 파주의 민족운동

일제는 3 · 1운동 직후 한국민의 거국 거족적 항쟁에 이간, 미행, 협박, 공갈, 위협, 예비구속, 주거제한 등을 전제로 한 고등경찰통치를 표방하는 등 식민통치정책을 외형적으로나마 전환하였다. 그것은 파주 지역민을 포함한 한민족의 승리인 3 · 1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강력한 민중의 힘이 그렇게 작용하게 한 것이다. 1919년 9월 남대문정거장(현 서울역 구내)에서 해외 독립운동단체 대한노인

일제시대 파주경찰서

단 강우규의사의 강력한 폭탄세례를 받아가며 조선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막연히 '문화통치'라고 두루뭉술하게 표방한 고등경찰통치로 한국인들의 항일투쟁 열기를 무마 회유하려 하였다. 일제는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로 바꾸고, 육해군 대장에 한하였던 총독의 자격을 문관 출신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도 일본인과 동등하게 교육의 균등을 기하고 언론 통제를 완화한다는 것을 선전하며 조선, 동아, 시대일보의 창간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1945년까지 8명의 조선총독 가운데 문관 출신은 한 명도 없었고, 교육만 보아도 한일 간의 차별이 극심했으며 통계표를 보면 각종 경찰 등 경비기관이나 그 예산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감옥은 증설되고 사상범은 날로 격증하였다. 일제가 민간신문의 발간을 허가한 것은 그 최대의 목적이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인의 독립운동 계보 파악과 내용을 규명함과 아울러 그들의 동태와 연락상황, 정보 등을 편리하게 파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중앙의 고등계 형사가 변복을 하고 파주 각 면을 순찰하면서 사전에 조사한 블랙 리스트를 중심으로 각 면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리하게 탐문 수사하였다. 수사관들은 겉으로는 웃는 낯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혹독한 검열, 압수, 삭제, 발매반포 금지, 정간, 폐간 등과 매월 5~6건의 검속건수가 보고되었다. 결국 이것들은 일제가 한민족의 근대적인 성장과 의식계발을 억제 말살시키고자 하는 교묘한 통치기술이었다. 최근에 나온 뉴라이트 진영의 『한국근현대사』에서 "식민지시기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서술한 것은 실정을 모르고 일제의 편향된 통계표에만 의존하여 평가하였기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파주에서도 이 시기에 근대화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제는 1923년 9월 국내뿐 아니라 멀리 일본에서도 무고한 한국인 약 6,500명을 죽이는 관동 대학살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3 · 1운동 이후 일제의 가혹하고 더욱 교묘해진 식민지배 하에서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파주의 애국지사들은 국내외에서 끈질기게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국권 회복운동에 동참하였다.

파주 교하면 출신인 최창섭은 1919년 대동단에 입단하여 활동하였다. 대동단은 1920년 전협 · 최익환 · 이신애 등이 조직한 단체로 각계각층에서 단원을 포섭하는 한편 비밀리에 대동신문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한말의 전 법부대신 김가진이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 임정으로 그 아들 의한과 같이 출발하고 의친왕이 상복으로 가장하여 상해로 가고자 안동까지 갔으나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일경에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많은 대동단원이 투옥되었다. 또 그는 1920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군자금 모금의 지령을 받고 2차에 걸쳐 군자금을 상해 임정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일경에 체포되어 10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주내면 파주리 출신의 박찬익은 1904년 관립상공학교에 재학하던 중 국권회복을 위하여 항일운동을 모의하다가 퇴학당하였다. 이후 1907년 신민회에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피탈을 당하자 중국 만주지역의 용정으로 망명하였다. 1912년 화룡현에 한인학교를 세워 애국사상을 고취하였으며 대종교에 입문하여 포교활동도 하였다. 1915년 중국 상해에서 동제사에 참여한 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의정원의원 등 임정의 요인으로 활동하였다. 그 뒤 1940년 중경으로 이동한 이후 임정의 국무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45년 광복직후에는 재중한인교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단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역시 이곳 출신인 박찬익의 아들인 박영준은 1935년 중국 절강성 가흥현 수주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친을 도와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유주 등지에서 청년단을 조직하여 선전공작을 하면서 임정과 함께 장사 · 기강 등지로 이동하는 중에도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후 1937년 10월 중앙군관학교 17기로 입교한 후 대위로 서남 운수관리 서강 분처 광복군 총사령부 총무처에서 근무하였다. 그리고 1942년 3월에는 중앙군 동남구 제3전구 제2반장으로 파견되어 일본군의 이동상황을 정찰하고 징모공작을 전개하였다. 동년 10월에는 광복군 총사령부에서 활동하였다. 1943년에는 절강 · 강소 · 남경 · 상해 등지로 파견되어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일본군으로 강제 징병된 학도병의 탈출을 도와 광복군에 입대시키는 공작을 전개하였다. 1944년에는 임정 재정부의 이재과장으로 선임되어 임정 내부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김원봉 등 좌익세력의 임정 파괴공작에 반대, 분쇄하는 작업에 동원되어 임시정부 수호에 진력하였다. 광복 직전인 1945년 3월 한국광복군 제3지대 제1구 대장 겸 3지대 훈련 총대장에 임명되어 군사훈련, 정보수집, 파괴공작, 교육훈련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광복 직후인 동년 8월 30일 개봉지구 군사특파단장에 임명되어 일본군에 있던 한적사병을 소집하여 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한편 한인교포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였다. 그는 한인교포들의 국내귀환 작전이 끝나자 다시 임정의 명령으로 임정주화대표단 동북변사처의 외무주임에 임명되어 동삼성의 한인교포들을 보호하는 활동에 주력하였다.

광탄면 신산리 출신인 심상각沈相恪(1882~1963)은 파주에서 3 · 1운동을 주도한 뒤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서 10여 년간 활동하였다. 그 후 귀국하여 후진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을 추진하였다. 1977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금촌읍 금능리 출신인 정태진은 교하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중학교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1927년 미국으로 건너가 우스타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원을 마친 수재였다. 이때 미국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우대하는 성의 표시로 교문을 먼저 통과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그 뒤 귀국하여 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41년 조선어학회의 한글사전편찬위원이 되었다. 1942년 일본어사용과 국어말살을 기도하던 일제에 의해 조선어학회 관련인사들이 대거 투옥된 조선어학회사건이 일어나자 그도 주동인물로 체포되어 함흥형무소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였다. 투옥 중 광복을 맞이하여 석방되었다. 이후 문교부장관으로 초빙되기도 하였으나 모두 거부하고 오직 양심적인 순수 학자로서 일생을 지킨다는 사명감에 따라 다시 한글학회에서 한글사전 편찬사업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1950년 6 · 25전쟁이 일어나 부산에서 계속 편찬사업을 하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와 사전교정 작업을 하던 중 식량난이 심해 고향인 파주로 갔으나 타고 가던 트럭이 전복되어 1952년 11월 2일 안타깝게 사망하였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저서로는 『조선고어방언

사전』, 『고어독본』, 『국어학개론』 등이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파주에서는 교하면 거주 이숭녕과 이상옥 등이 학자로서 학문생활을 하였다. 전자는 서울 경성제대에서 국어학을 연구하여 서울대에서 국어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저서로 후진을 양성하였고 후자는 도쿄에 유학하여 도요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경성제대 대학원에 다니면서 사학과 철학을 연구하고 나서 고등보통학교의 교사 이후 고려대 교수로 정년할 때까지 한국의 역사 13권을 저술하는 등 학술 사회단체에서 봉사한 바 있다. 이들은 광복 후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로 수많은 논저를 발표하여 숭앙받는 석학으로 손꼽히고 있다.

정태진 선생

이와 같이 3 · 1운동 이후 광복 때까지 파주 출신의 애국지사들이 일제의 탄압으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다양한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하였다.

2. 파주 지역민의 생활

3 · 1운동으로 표출된 한국민의 민족의식과 독립의지는 어떠한 폭력적 무단통치로도 더 이상 효과적인 식민지배가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한 일제는 발악적으로 식민지배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만적이고 교묘한 민족분열 통치정책인 소위 문화통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일제가 의도한 문화통치는 친일파 육성을 통한 한국민의 저열화와 분열을 유도하여 식민지배의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한국인 스스로 당파적 분열적인 상쟁의 모략중상이 근본적 체질인 듯 인식하게 하였다. 이는 한민족이 저열, 불량한 민족임을 스스로 인식하게 식민사관을 조장하려는 심층, 심리적 의도에서 출발한 민족분열 책동이었다.

이의 일환으로 일제는 1919년 8월 19일 지방제도 개정을 통해 면협의회, 부협의회 등을 설치하였다. 지방제도의 개정은 단순히 지방행정의 개정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민족운동에 대처하면서 친일세력의 육성과 타협세력을 포섭하여 식민지배 체제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파주에서도 지방제도의 개정이 시

일제시대 파주군청

행됨으로 조선총독부가 장악하고 있던 통치 권력의 일부를 군수가 나누어 맡게 되었다.

즉 파주 군수는 파주의 행정 · 경찰 · 재정 · 문교 · 토목 등 각 분야에 걸쳐 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파주에서는 군 지방자치회가 설치, 운영되었다. 이에는 지방유지로 불리던 일본인과 친일세력이 대거 참가하였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확충에 따라 관리채용이 있었는데 일부 자리에 한국인이 채용되어 친일파로 육성되었다. 이들은 경찰요원과 면의 하급관리로 일제 식민통치를 위한 수족이 되었다. 이들은 파주 지역민들에게 각종 명목의 지방세와 기부금 등을 가가호호마다 방문하면서 강제로 거두어들여 민중의 원한을 샀다.

한편 일제는 1920년대 소위 산미증식계획을 진행하면서 소작농민에 대한 수탈도 강화해 나갔다. 당시 파주는 전통적으로 쌀과 보리, 콩 등을 주로 생산하던 발전하는 농업지역이었으나 일제의 극악한 식민지배로 더욱 낙후된 농촌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인심도 더 흉흉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일부 지주들은 수리조합비를 소작농에게 떠넘겼으며 농사개량이라는 명목으로 비료문제 등 생산과정에 대한 간섭을 강화해 나갔다. 이에 파주 각 면의 농민들은 생산한 쌀을 다 팔아도 늘어나는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가 없었다. 더욱이 소작농들은 현금지대뿐 아니라 노동력지대도 바쳐야 했다. 농민들은 지주로부터 집세 또는 집을 빌

일제시대 장단군청

리거나 식량을 빌리고 그 대가로 지주의 요구에 따라 잡역에 나가는 막인 제도를 비롯하여 다른 소작농보다 유리한 소작지를 받거나 적은 소작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잡역을 하는 고역 등에 동원되었다. 그리고 지주의 토지에 대한 경작, 집안일, 건축과 수리 작업, 제방수리 등 온갖 잡일에 막대한 노동력을 착취당하였다. 소작농들은 지주의 고리대에 가혹한 수탈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지주들은 거의가 일본인이었다.

일제시대 파주군 농회 창고

따라서 당시 파주 지역 농민들의 생활은 거주하는 주택 외에는 가축사육 등은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농기구도 남에게 대여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리고 농민들은 보통 누더기를 걸치고 잡곡을 먹으며 오두막에 살면서 짚으로 하는 가내수공업이나 임금노동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궁핍한 생활에 다소간 보탬이 된다고 선전하며 일제는 농민들을 동원하여 도로공사 등 취로사업을 펼치기도 하였고, 재해방지공사에 관내 농민들을 동원하였으나 많은 농민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으로 작업 도중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다. 파주에서는 재해공사에 많은 농민들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1931년 만주침략(9 · 18사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륙침략에 나선 일제는 한국을 침략전쟁의 전진기지로 이용하며 인권을 무시하는 무자비한 탄압을 통한 말살정책을 전개하였다.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물리적 탄압을 위해 군과 경찰력을 확대, 동원하는 한편 식량자급과 부채정리를 명목으로 1932년부터 소위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이를 추진하면서 한국 농촌은 일제와 지주의 각종 수탈에 의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농민들이 게으르고 낭비하며 무식하다고 악선전하였다. 그리고 농민과 농촌지도를 명분으로 읍면, 경찰, 학교 등은 물론 금융조합 등을 총동원하여 농촌통제를 강화하였다. 일제는 이를 위해 1932년 자작농지 설정사업, 1933년 조선소작조정령, 1934년 조선농지령 등을 선포하여 파주 각 면마다 기만적인 토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자작농지

일제시대 문산 금융조합 전경

설정사업은 극소수의 소작 농민들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자작 농지를 구입케 하여 이를 선전함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하였고, 일제의 식민지배에 충실히 따르면 잘 살 수 있다는 정치적 선전을 노렸다. 그러나 파주의 자작농은 1933년 11호에 불과하였으나 일제는 자작농지 설정사업의 일환으로 23호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파주의 전체 농가의 수치에 있어서는 너무나 미미한 숫자로 기만적인 농촌선전정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작쟁의를 사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찰, 지방관리, 금융조합직원 등으로 구성된 부 · 군 · 도 소작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일제는 소작쟁의가 조직적으로 발생하여 농민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이 같은 일제의 농촌통제정책으로 궁핍화가 심화됨으로써 문산에서는 학교 후원 회비를 철폐하고 대신 나이 어린 소학교 학생들을 직접 농업노동에 내몰아 남학생은 벼농사에, 여학생은 양잠에 동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문산공립보통학교의 소년소녀노동에 대해 일제는 다각적인 영농법이 곤궁함에서 벗어나 자작농이 되는 시정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일제시대 문산공립보통학교 수업장면(가마니 짜기)

1930년대 이후에는 민족분열, 말살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1930년 3월

발표된 지방제도 개정방침은 대표적인 민족분열정책으로 이는 민족개량주의 세력을 이용하여 일제식민정책에 순응하는 어용자치를 추진하는 한편 자본가, 지주 등 유산층을 관제 자치기구에 끌어들여 식민지배정책의 동맹세력을 삼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어용농민, 친일적 노동자단체를 지원하거나 조종하여 친일협력세력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는데, 파주의 대표적인 단체로는 문산가정부인회와 문산번영회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농민세력도 식민지배체제 안으로 포섭하여 농촌통제정책을 강화하고자 한 회유정책인 것이었다.

1930년대 후반에 들어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 등을 공포하여 보다 강력한 민족말살통제정책을 행사하였다. 이어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독일 · 이탈리아와 3국동맹체제로 제2차 세계대전에 가담하였다. 침략전쟁을 확대한 일제는 한국을 대륙병참기지로 설정하고 한국의 모든 물적 인적자원을 수탈하여 침략전쟁에 동원하였다. 그리고 한국민을 보다 철저하게 통제 말살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증강하고 침략전쟁에 모든 한국 내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조직하였다. 경기도에도 이 같은 어용조직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도 · 부 · 군 · 읍 · 면 · 동 · 리까지 착취를 위한 지방연맹이 조직되었고, 직장에는 직장연맹이 설치되었으며 그 아래에는 10호를 단위로 애국반이 조직되었다.

일제시대 파주공립보통학교 수업장면(황국신민체조)

이러한 말살통제정책은 파주에도 예외가 없었는데 동아일보에 따르면 파주의 경우 14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와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여성으로 리부락里部落 연맹근로보국대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공출 물자에 관한 근로작업, 군사원호 근로 작업, 군사상 혹은 국가적으

신사가 설치된 산에 올라 산림해충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1937년)

로 필요한 토목건축 및 운반 작업, 방호에 관한 근로 작업, 물자증산에 관한 근로 작업, 도로교량의 건설 및 수리, 하천의 수리, 황무지 개척, 기타 향토개발에 관한 근로 작업, 근로인적자원의 보급, 기타 봉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작업 등에 참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일제는 파주 군민 등 한국민족을 보다 철저하게 말살하기 위하여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한국민에게 내선일체를 구호로 천황숭배사상을 강제 주입하고자 한 것으로 일본식 성명강요,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의 암송, 한국어 사용금지 등을 강요하였다. 산악지대에서 관솔 채취, 송진 공출 등을 통해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30대 이상의 장정을 군인으로 징집하여 침략전쟁의 희생물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1939년 국민징용령을 공포한 뒤 한국민을 강제 연행하여 공사장, 군수공장, 전쟁터로 동원하였

고, 심지어 여성들은 강제로 끌고 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강요하여 인권 유린 등 학대를 자행하였다.

당시 파주에서 공동 작업반을 결성하여 모든 군민을 식량증산에 동원하는 한편 이들 중 노동력 착취가 가능한 사람들을 골라 각 '리부락 연맹근로보국대'를 결성, 활용하였다. 이들 중에서는 다시 특별대를 조직하여 군수로부터 명령이 있을 때에는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세계 침략전쟁을 강행하면서 전쟁기지로 삼은 한국민에 대한 야만적인 약탈과 학살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찾으려는 파주 지역민을 비롯한 한국민은 일제의 가혹한 폭력적인 수탈 식민통치에도 굴하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히 한 민족임을 표방하고 민족운동자들을 돕거나 지원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이들 청년들이 직접 항일투쟁 대열에 동참하여 끊임없이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세계 침략전쟁의 종식과 함께 민족의 광복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서술 전 5권(1965~69)과 자료 제2권, 1985

————,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968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탐구당, 1962~73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3 · 1운동 편, 전3권, 197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2, 5, 6, 9, 10권, 1975~80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일본 하라 쇼보, 1967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2년, 1928

파주군사편찬위원회, 『파주군사』 상권 제4편, 1984

파주군지편찬위원회, 『파주군지』 상권-역사와 인물편, 1995

장단군지편찬위원회, 『장단군지』, 1980

문정창, 『군국일본조선강점35년사』 중, 박문당, 1978

이현희, 『한국의 역사』 전20권, 학원출판공사, 1988~99
———, 『한국근현대사의 쟁점』, 삼영, 1993
———, 『일제시대사 연구』, 삼진사, 1974
강재언, 『한국근대사』, 한울, 1992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지식산업사, 1982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1~17, 1986~2008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문, 조선일보

8 · 15해방과 6 · 25전쟁

시지편찬실

8 · 15해방과 파주 사회

1. 해방공간과 파주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에 따라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일제 유산의 청산과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건설의 과정은 복잡한 정세와 함께 얽히기 시작하였다.

8 · 15해방 직후의 정세는 애국진영에 유리하게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전국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치안유지회 등이 결성되고 지방인민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한 활동도 벌어졌다. 파주군 인민위원회의 대표적 인물은 정종석 · 최이한 · 윤병중 등으로 이들은 1945년 11월 개최된 전국인민위원회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1945년 11월에는 산업별 조직원칙에 입각하여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가 결성되었고, 12월에는 농민조직의 통합체인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이 조직되었다.

당시 파주군의 농민들도 우삼흥 · 유태섭 · 송영득 등이 중심이 되어 이에 적극 참가하였다.

또한 해방과 동시에 다양한 정당, 정치단체들이 속속 결성되는 등 정치정세가 활발해졌으며 다른 한편 미국은 일제시기 관료, 경찰들을 그대로 눌러 앉혀 이들을 공산주의의 방파제로 삼아 자국의 이익에 맞는 정체세력들을 육성하였다. 경제구조 역시 미국의 의도에 따라 재편되었다. 파주군 내에 있는 교하면 장안 석탄공장과 임진면 문산제작소 등을 포함한 막대한 국공유재산, 일본인 사유재산들이 미군정이 임명한 친일적, 친미적 인사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한편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내려진 뒤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싼 각 정치세력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었는데, 1946년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참가대표 조건문제로 결렬되자 이승만은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김규식, 안재홍 등 민족주의 세력은 여운형 등의 진보세력과 힘을 합쳐 좌우합작으로 분열을 극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이승만 세력의 방해와 공산당의 편협함으로 인해 거족적인 좌우합작은 실패로 돌아갔다. 미군정이 한편으로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자 조선공산당은 '신전술'이라는 강경한 투쟁전술을 채택함과 동시에 조선인민당과 남조선신민당의 합당, 남조선노동당의 재결성을 통해 역량 증가를 꾀했다. 남조선노동당은 파주군에도 파주군당을 두었으며 1947년 5월 이후 기로춘奇老春이 군당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일반 국민들은 각 정파의 정치적 대립과 경제상황의 악화 속에서 매우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식량문제 해결과 일제청산 등을 요구하며 1946년 폭발적으로 들고 일어났다. 당시 대중들의 가장 큰 표적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행세하는 친일 경찰들이었다. 1946년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부터 시작되어 발발한 9월 총파업과 전국적으로 벌어진 10월 폭동은 변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것이었다.

1947년 미소의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9월에 이르러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으로 이관시켰다. 당시 미국의 영향 하에 움직이고 있던 UN은 남한지역의 단독선거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에는 단독선거 반대투쟁이 일어났다.

파주에서는 1948년 4월 말 남로당 파주군당에서 파주경찰관지서 습격을 모의하였고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한 삐라가 남로당원들에 의해 탄현면, 월롱면 일대에 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파주군에서는 조선민족청년단의 상무이사였던 김웅권金雄權이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제헌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이윽고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정식 수립되었다.

2. 농지개혁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는 일차적으로 독립된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국가 수립과정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식민지배의 잔재를 일소하는 것으로서 토지개혁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1945년 말 남한 총경지면적의 63.4%인 147만 정보가 소작지였으며 70% 정도가 소작농 또는 소작지가 자작지보다 많은 자소작농이었다. 순수한 소작농가만 보더라도 약 100만 호에 달해 전체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945년 당시 국민 대다수는 농민이었으므로 결국 참된 해방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토지개혁을 통해서 지주제를 철폐하고 농민의 토지소유를 확립시켜 농민을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 올려놓는 일이었던 것이다.

남한정부에서는 정부수립 후 1949년 이른바 「농지개혁법」을 공포한 후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개혁대상의 토지를 농지에 한정하고 분배방법에서도 유상으로 매입하고 유상으로 분배하는 비교적 온건한 형태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60년 말 현재 농지개혁의 결과로서 파주군의 농지분배 상황을 보면 전체 분배농가는 1만 1,405가구에 총 분배농지는 7,301정보로 이 중 귀속농지歸屬農地(일제총독부 소유이거나 일본인 및 일본인 회사 소유였다가 미군 진주 후 미군정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던 토지로 농지개혁에 앞서 분배되었음)가 631정보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종류별로 보면 논이 귀속농지까지 합쳐 4,852정보이며 밭은 2,449정보이다. 논과 밭 이외의 토지, 예를 들면 과수원 같은 농지는 개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원래 파주군에는 일제시기인 1938년 현재 3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45명이었다. 이 중 지주가 일본인 및 일본회사 그리고 학교인 경우, 즉 귀속농지이거나 또 교육재단 소유의 토지로서 농지개혁 때 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제외하고도 파주군의 30정보 이상 지주는 40명이었다. 그러나 농지개혁에서 포함된 지주는 단지 4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200정보 이상의 대토지를 소유하고 소작인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이 넘는 대지주는 모두 개혁대상 명부에 오르지 않았다. 물론 개혁 후에도 대토지 소유가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니지만 농지개혁이 필연적이라는 당시의 지배적인 정세 하에서 대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농지개혁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소작민에게 강매하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개혁을 회피하는 또 다른 모순을 낳게 되었다.

6 · 25전쟁과 파주

1. 개전 당시 상황

동족상잔의 비극인 6 · 25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인민군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 6월 24일 1사단 사령부는 직할대, 제11연대, 제6야전포병대대와 함께 수색에 주둔하였다. 제12연대는 좌전방인 청단-개성-대원리 간 38도 분계선의 경계를, 제13연대는 문산 · 고랑포 일대의 경계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1사단 정면에서는 인민군의 활동이 거의 관측되지 않았으며, 공격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으므로 사단에서는 6월 24일에 병력의 약 1/3을 휴가 보내고, 나머지 병력의 1/3 범위 내에서 외출 · 외박을 실시하였다. 더구나 장비

의 대부분을 후방으로 보낸 상태였고 사단장이 6월 14일부터 시흥보병학교 고급지휘관 과정에 입교 중이어서 제11연대장이 대리근무를 하고 있었다.

개전 후 1사단은 비교적 선전하였다. 그렇지만 전선에서의 주도권은 이미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1사단 역시 26일 오전 임진강 방어선을 포기하고 위전리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인민군은 문산리와 법원리를 거쳐 27일 오전 10시에는 전차를 앞세우고 국군의 위전리 방어선까지 공격을 해왔다. 그러나 1사단은 교전 끝에 인민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전반적인 전황은 매우 불리하였다. 특히 1사단의 우측인 포천 · 동두천 · 의정부 전선에서의 인민군 진격속도는 매우 빨랐다. 개전 다음날인 26일에 의정부가 인민군 점령 하에 들어갔으며 27일에는 서울의 창동 방어선도 무너졌고 28일 새벽에는 미아리 전선도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개전 3일만에 서울이 인민군들에 의해 점령되고 말았다.

따라서 서울 서북 측에 위치한 파주 일대를 선방하던 1사단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1사단은 28일 한강을 도하하여 철수하였으며 이 같은 사태에 직면한 장병들은 자제력을 잃고 대혼란에 빠졌다. 많은 병력이 낙오하였으며 이들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개별적으로 피신하였다. 서울에 잠입하기도 하고, 파주가 고향인 장병들은 일단 고향으로 피신하였다가 감악산에 들어가 유격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2. 인민군 점령 하의 파주

개전 3일 만인 1950년 6월 28일 파주 전역이 인민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았다. 개전 직후 인민군을 피하여 남쪽으로 피난한 주민도 있었으나 인민군의 진격 속도가 그들을 앞질렀기에 귀향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지하에 잠복해 있던 파주 지방의 좌익들은 인민군이 진주하자 인공기를 게양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후 10월 1일 미 해병대가 파주를 진격해올 때까지 96일간 파주는 인민군의 점령 하에 있었다.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은 1946년 3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20개 정강이 그 골간이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일제 잔재의 청산, 우익정당 및 인사의 정치활동 금지, 인민위원회 구성, 새로운 법률제도의 확립, 운수 · 은행 · 광산 등 대기업의 국유화, 무상몰수 · 무상분배 원칙에 기초한 토지개혁의 실시, 의무교육의 실시, 8시간 노동제 실시 및 단일 세금제도의 실시 등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기초하여 북한은 파주를 포함한 남한의 점령 지역에서 노동당 및 각종 단체를 조직하고 정책집행기관으로서 인민위원회를 조직, 토지개혁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전선지원사업과 의용군의 모집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작업과 소위 반동분자에 대한 숙청을 감행하였다.

1) 당과 행정기구의 조직

북한당국이 파주를 점령한 뒤 추진한 일은 노동당과 당의 각종 조직들을 우선적으로 복구 · 조직하는 일이었다. 주로 남로당 출신의 당원들을 선발하여 각종 간부학교와 양성소에서 교육을 시켜 남한에서의 당 조직활동에 참여시켰다.

서울에 조직된 서울지도부가 남한 점령지역의 당사업을 총괄하였는데 당시 파주군당 위원장은 정종석鄭宗奭이 선출되었다.

북한은 또 파주를 점령한 뒤 노동당의 조직과 더불어 군 · 면 · 리 단위까지의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인민위원회는 행정을 담당하고,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식 인민위원회 선거는 1950년 7월 14일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공포한 정령에 기초하여 실시되었다.

파주군 인민위원회 선거 결과 군위원장에는 기로춘이 선출되었으며, 각급 인민위원회위원으로 선출된 인물들은 파주 지역민으로 대부분이 전쟁 전 좌익으로 활동한 사람, 투옥 경력이 있는 사람, 머슴 출신, 소작농 등이었다. 그 전형적인 경우가 맥금리 인민위원장에 선출된 정학균이다. 그는 소작농으로 전쟁 전 남로당원으로 활동하다가 검거되어 약 2년간 복역한 경력이 있었다. 이렇게 조직된 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 · 선전활동 · 의용군 모집 · 전선원호사업 등 전반

적인 점령정책을 집행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북한당국은 노동당과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사회단체를 조직하였다. 이 중 북한이 가장 중시하였고 활동이 활발했던 것은 '민청'이라 약칭되던 민주청년동맹이었다. 당시 북한은 민청을 조직하여 청년학생들을 집단화하는 데 전력하였다.

파주에서의 민청은 인민군 점령 직후 소집된 파주 지역 학생회의에서 조직되었으며, 군 단위와 일부 지역에서는 면 단위까지 조직이 구성되었다. 지식 청년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으며 가입한 학생들에게는 부서가 배당되었다. 선전부에 배치된 학생들은 교육을 받은 후, 각 마을을 다니면서 선전활동에 종사하였다. 선전내용은 당시 인민군의 전승내용戰勝內容, 북의 토지개혁과 남의 농지개혁 비교, 북의 단일세제 등이었다.

또한 파주에서 민주여성동맹원도 조직되었다. 이들은 노동력의 동원을 통한 전쟁지원사업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 외에도 토지개혁을 수행할 농촌위원회(군위원장 안경만安慶萬)와 전선지원사업을 담당할 조국보전위원회(군위원장 이복응李福應)도 조직하였다. 한편 점령지의 안정을 위하여 남한정부 하에서 조직된 각종 기구 중 필요한 조직은 그대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점령 초기에 북한의 재정 관련자가 금촌, 문산금융조합원들의 출근을 명하고 근무를 요구한 것이 그 예이다.

2) 토지개혁과 농업현물세제 실시

북한은 개전 직후인 1950년 7월 4일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조선 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정령의 골자는 경작자 소유원칙, 무상몰수 · 무상분배원칙이 그 골간을 이루었으며 북한당국은 이러한 토지개혁을 주관할 토지개혁 지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파주에서의 토지개혁도 군 · 면 단위 토지개혁 실행위원회와 리 농촌위원회가 조직된 후 농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농촌위원회 위원은 머슴 출신들이 많았다. 농촌위원회는 우선 국유지 및 지주토지,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던 토지 등 무상몰수 대상토지를 조사하고, 이를 무상으로 분배받을 고용농민

과 토지가 적은 농민들을 조사하여 토지분배안을 작성, 분배하였다. 당시 토지를 몰수당한 한 지주는 그때의 상황에 대해 "인민군 점령 후 토지는 통보 없이 몰수되었고, 그 토지는 전쟁 전 머슴으로 있던 사람에게 분배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파주군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확인되었다. 당시 토지개혁은 '땅 많은 사람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어려운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며, 이것이 북한 정책에 대한 지지층을 끌어내기도 하였다. 이는 토지개혁으로 토지를 분배받은 자 중에 의용군 지원자가 많은 데서도 확인된다.

북한당국은 토지개혁을 실시함과 동시에 지세를 비롯한 일체의 세금과 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물세제를 도입하였다. 파주에서는 농작물의 수확량을 판정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균 수확이 이루어진 한 곳을 선정하여 조 · 벼 등의 낟알을 한 알씩 세고 과일 수를 헤아려 현물세를 부과하였다.

3) 의용군 및 전쟁지원사업 동원

북한은 전선에서 손상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의용군을 모집하기로 하고,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 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관하여」라는 정령을 발표하였다. 이 정령에 의하여 1914년부터 1932년 사이에 출생한 18세부터 36세까지의 전체 주민이 의용군 모집 대상이 되었다.

파주에서 의용군 모집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단체는 민청이다. 민청은 거의 매일 밤 공회당 또는 정미소 등지에서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 내용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의용군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점령 초기 의용군 모집은 지원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독자보다는 형제가 많은 집안의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권유되었다. 그리고 맥금리에서 지원한 3명 모두가 머슴 출신이었으며, 독일유학생 출신 김재중이 지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머슴 출신이나 지식인들이 다수 의용군에 지원하였다.

그런데 전선에서의 인민군 병력 손상이 증대되자, 강압적으로 의용군을 모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제성은 더해 갔으며, 각 행정기관과

학교 및 사회단체에 의용군 수가 할당되기도 하였다.

파주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지원형식이었으나, 거절하면 반동으로 몰리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의용군 모집을 피하기 위하여 피신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 물론 토지개혁으로 토지를 분배받은 사람 가운데 의용군에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인민위원회 등지에서는 할당된 의용군 모집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남한정부 하에서 면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청년에게 전력前歷을 문제 삼은 후 강제로 지원시키기도 하였다. 이 같은 모집 때문에 도중에서 탈출하는 사람도 많이 발생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많은 사람들이 의용군에 모집되어 갔으며, 어떤 마을은 60여 명의 청년 중 10여 명이 의용군에 나갔다. 이들은 문산을 거쳐 개성에 집결하여 부대에 배치되었다.

6월 2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포된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에서는 전쟁에 전체 주민의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모든 주민과 기관들은 군사위원회의 결정에 절대 복종할 것을 지시하였다.

북한당국은 남한의 물자와 노동력 동원을 위해 인민위원회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인민군 원호대책위원회 등 각종 명칭의 기구를 행정단위별로 설치하여 이 조직들로 하여금 남한 주민들을 동원하여 전선원호사업을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북한당국은 남한 주민들을 동원하여 파괴된 교량이나 도로를 복구하였고, 전선에 무기와 탄약 및 식량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운반토록 하였으며 부상당한 인민군들을 치료하도록 하였다. 경기도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파괴된 교량 · 도로 · 철도 등의 복구에 동원되었는데, 장단군에서는 3,000명이 동원되었다. 파주에서도 인민위원회 주도로 집회를 가진 후, 복구사업에 동원되었으며 임진강 등으로 가서 군수품을 운반하기도 하였다.

남한의 전체 점령 지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된 사업은 인민군의 식량과 부식을 조달하기 위한 이른바 '애국미거출운동'이었다. 이 애국미거출운동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군량미 조달방법으로 파주에서도 인민위원회에 의하여 이 같은 식량갹출이 이루어졌다.

9월이 지나면서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북한당국은 원호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조국보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북한당국은 남한 지역에서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은 거의 모두 동원하였다. 파주에서도 조국보전위원회가 면과 리 단위까지 조직되었으며, 위원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4) 정치선전과 숙청

인민군이 남한 지역을 점령한 후 북한당국은 남한 주민에 대한 정치적 선전과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당국에 의해 반동으로 지목된 남한 주민에 대한 숙청작업을 전개하였다.

선전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에 따라 당 선전부가 주요 기구가 되어 경기도당 등 각 도당위원회, 각급 인민위원회 및 각종 언론매체와 사회단체에서 전개하였다. 정치적 선전은 호별 방문이나 좌담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크게 활용된 조직은 리 단위로 조직된 10호 단위 선전반인데, 이것은 한 선전원이 10호를 책임 맡아 각 단위에 소속된 주민에게 선전선동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파주의 경우 초기에는 북한에서 직접 파견된 요원에 의하여 선전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곧 파주에서 조직된 각종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서술한 민청이다. 민청은 각 마을에 파견되어 정치 · 선전활동을 펼쳤다. 선전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많을 때는 한 달에 27일 내지 28일이나 회의가 소집되었다. 선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하고, 제반 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특히 남한 주민들의 인적 · 물적 · 군사적 동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북한당국은 무력을 통한 남한의 공산혁명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친일 · 친미세력 그리고 우익세력 등 소위 반혁명세력의 제거를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숙청을 감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기구는 북한 내무성 산하의 정치보위국이었으며 실질적인 숙청작업은 각 도 및 시 · 군, 읍 · 면 단위에 설치된 내무서에서 실행하였다.

파주에서의 숙청작업도 다른 지역처럼 내무서 주도로 이루어졌다. 아동면 금촌리에 파주군 내무서가 설치되었으며, 면에는 분주소가 각각 설치되었다. 리

에는 자위대 또는 치안대로 불리는 주민자치기구가 구성되었다. 내무서 서장은 북한에서 파견된 당원 출신이 임명되었으며, 서원은 지역민으로 구성되었으나 지역을 바꾸어 근무하기도 하였다.

인민군의 파주 점령 초기에는 학살이 없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민군과 자위대 · 치안대의 청년들이 집을 수색하여 반공인사와 국군 낙오병 그리고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람들을 잡아 사살하였다.

파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파주에서의 민간인 학살 대부분은 이 시기, 즉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9 · 28서울수복을 전후하여 일어났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와 당시 학살을 겪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대표적인 학살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평면 두포리의 6·25 반공위령탑

1950년 8월 하순 파평면 두포리 산38번지에서 수백 명이 집단학살되었다. 패주하던 인민군이 이곳에 이르러 납치해 가던 사람들과 주민들을 대량 사살하였다는 내용이 이곳에 세워진 6 · 25 반공위령탑에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임진면 마정리 임진강의 갑바위(현 임진각)에서도 집단학살사건이 일어났다. 후퇴하던 인민군이 이곳에 이르러 강을 건너려 하였으나 유엔군의 폭격으로 다리가 파괴되어 나룻배로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인민군들은 귀찮은 존재가 된 납북인사 약 300~400명을 이곳에서 학살하였다. 같은 시기, 문산역 북방 8km 지점 장터(장사지내는 곳)에서도 약 600명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이와 같은 학살은 인민군 점령 지역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의 남한 점령 지역에서의 집단 피살자 수는 남한 정부의 공식 추계에 따르면 남자 9만 7,680명, 여자 3만 1,258명 등 12만 8,936명이나 된다.

3. 유엔군의 파주 수복

1) 미 해병대의 파주 수복

전쟁 발발 소식을 접한 미국은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였고, 유엔은 북한을 규탄하고 남한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결의하였다. 곧이어 미 지상군 파견을 요청한 맥아더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7월 7일 유엔은 맥아더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 파견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남한에서 군사지휘권은 맥아더에게 주어졌고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이양되었다.

이제 전열을 정비한 유엔군과 국군은 대반격작전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전세를 역전시켰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미 제1해병사단은 서울의 북쪽 변두리 밖으로 북한군을 몰아냈다.

약 3개월에 걸친 인민군의 파주 점령을 종식시킨 것은 미 해병대였다. 10월 1일 미 5해병연대의 일부 병력이 문산을 지나 임진강까지 진출하면서 파주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인민군의 저항은 문산 일대에서나 조직적이었을 뿐 그 밖의 곳에서는 산발적이었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전세는 역전되었으나 북진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10월 1일 국군이 이미 북진을 하고 있는 동안, 유엔은 전쟁 이전의 원상태 회복이라는 목표를 수정하여 10월 7일 한반도의 통일과 부흥에 관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의 북진이 허락되었으며, 맥아더는 계속 북한에게 항복을 권고하였다. 북진을 계속하던 국군 제1군단은 10월 10일 원산을 점령하였으며, 미 제8군단은 10월 20일에 평양을 점령하였다.

조리읍 장곡리에 있는 〈파주군 징집 제1차 6·25참전비〉를 참배하고 있는 9·2동지회 회원들. 이들은 1952년 10월 6·25 전쟁 당시 파주군에서 1차로 800명 가량의 청년들이 징집되어 제주도에서 1개월 가량 훈련받고 전장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모두 군번이 92××××× 로 시작되어 9·2동지회를 결성하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수복 후 부역자 처리 문제 및 민간인 학살

9 · 28서울수복 이후 남한 전역이 점차 수복되면서 이른바 '부역자 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부역자에 대한 처리 방침을 조속히 확립함으로써 민심의 불안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 일환으로 국회는 9월 중순 「부역행위 특별심사법」과 「사형금지법」을 상정하여 12월 1일에 통과시켰다. 정부는 같은 날 「사형금지법」을 공포하여 감정적인 사적 제재를 금지시키고, 동시에 「부역행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가보안법 ·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저촉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시켰다. 이는 불가피하게 부역을 하였거나 그 정도가 경미한 사람들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해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부역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복이 자행되었으며 파주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로 9 · 28서울수복 전후 파주의 산남리 · 문발리 등 고양시 인접 지역과 고양시 일대에서 주민학살이 있었다는 주장이 최근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금정굴 양민 희생자 합동위령제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9 · 28서울수복 직후 조직된 우익단체인 치안대와 경찰 그리고 인민군에 가족을 희생당한 일부 주민이 합세하여, 공산주의자 가족이나 인민군 점령기간 중 부역자와 그 가족들을 대량 학살했으며, 희생자의 수가 최소 500명에서 최대 2,000여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당시 순경으로 근무했던 고 모 씨에 따르면 학살은 경찰서장과 치안대장의 재량권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며, 유족회는 2개월간에 걸쳐 고양시 탄현동 금정굴과 덕이리 새벽구덩이, 구산리,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등 곳곳에서 학살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남리 · 문발리 등 고양시 인접 지역 사람들은 지금의 한강 하류 지역인 교하읍 신촌리(속칭 반석뿔)와 산남리 나루터 등지에서 학살됐으며, 또한 파주시 교하읍 사람 일부도 고양의 금정굴에 집단 매장되었다고 한다.

김○○는 "30세 전후로 갓 결혼해 백석리 이장을 맡고 있던 고모부 강○○가 인민군 점령 당시 강제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마

○○는 덕이리 안씨 집안에 시집온 후 시삼촌이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시할아버지를 비롯해 형님 2명(당시 학생 13세, 17세)이 끌려가 몰살을 당했으며 당시 어린 나이였던 남편은 항아리에 숨어서 무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이 당시 학살을 목격했던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고양시 탄현동)는 "수복 직후인 10월쯤 당시 지역경찰관 등이 50여 명의 주민을 묶은 채로 끌고 올라가 총살했고 이들은 파주 금촌까지 언제 가느냐면서 금정굴로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인민군의 강압에 못 이겨 부역 등에 동원됐던 사람과 가족 50여 명이 밧줄로 묶인 채 밤을 틈타 이곳 동굴 주변으로 끌려온 뒤 총과 죽창 등으로 학살당한 후 굴속에 버려진 주검들을 5차례나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4. 중공군 개입에 따른 공방전

1) 중공군의 파주 점령

1950년 11월 4일 20만 명이 넘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재역전되어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하여, 12월에는 평양이 중공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12월 24일에는 흥남철수작전이 이루어졌다.

38선을 넘어 후퇴하는 유엔군 차량들(1950. 12. 8. 금촌)

이러한 대철수작전 중에 중공군의 추격은 38도선에서 멈추었다. 후일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들이 진격을 멈춘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기보다는 군사적 한계 때문이었다. 즉 중공군은 원시적 보급체계 때문에 10일 이상 또는 아무리 길어도 20일 이상 공격을 지속할 능력이 없었다.

12월 8일 이후 유엔군은 임진강과 38도선에 걸쳐 'B선'이라 부르는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이것은 예성강-화천-양양

을 연결하는 기존 'A선'으로부터 화천 서쪽 지역을 20마일 후퇴시킨 것으로 보다 축소된 방어선이었다.

이때 미 제8군은 중공군과 인민군의 주공격로를 개전 때와 같은 의정부 지역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미 제24사단을 배치하였다. 이 사단은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투 경험을 가진 데다가 바로 전의 중공군의 공세에서 가장 피해가 적었으며, 당시 유일하게 완전 평정상태를 유지했던 부대였다.

한국군 8사단을 공격하는 중공군(1951. 2. 12)

유엔군은 이렇게 'B선'에 일차 저지선을 편성하였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C선'(한강둑에서부터 중앙의 홍천과 동해안 양양의 15마일 이남에 위치한 월포리로 연결되는 방어선)과 'D선'(평택-안성-장호원-원주-월포리로 이어지는 방어선)으로 철수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다.

38도선 이북을 장악하고 6 · 25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킨 중공군은 서울 점령과 38도선 이남 공격을 준비하면서 막강한 화력을 갖춘 미군보다는 장비와 방어가 허술한 국군 방어 지역을 주공 방향으로 정하여 31일 해가 지자 38도선을 일제히 돌파하였다.

유엔군이 예상한 대로 주공은 서부전선에 있었고 동부전선에서는 서울 측방으로 포위하는 작전을 전개해 왔다. 서부전선에서는 중공군 주력부대인 제39군과 제38군이 미군 지역을 피하여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 배치된 국군 제1사단과 동두천에 배치된 국군 제6사단을 정면에서 공격하였고, 두 부대의 전투지경선戰鬪地境線이며 동시에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의 접경지역인 율포리 동쪽 지점을 노려 집중공격을 해왔다. 결국 국군 제1사단은 중공군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고양리와 녹번리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파주는 중공군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2) 유엔군의 파주 재탈환

1951년 2월 유엔군은 킬러 작전(Operation Killer)이라고 명명된 대반격전을 준비하였다. 목표는 한강 동쪽에서부터 양평-횡성-원주-강릉 선 이남의 중공군과 북한군을 격퇴하는 것이었다. 이어 3월 7일 리퍼 작전(Operation Ripper)을 개시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중 · 동부전선에서는 킬러 작전의 연장선상에서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여 중공군과 인민군의 연결지점을 돌파하고, 그 후 서부전선에서 본격적인 공격을 실시하여 서울을 탈환하는 데 있었다. 미 제25사단은 3월 14일 북한강과 남한강 합류지점인 양수리 부근에서 신속하게 도하하여 서울 동측 방향을 포위하였다. 또한 국군 제1사단은 3월 15일 아침 여의도에서 마포 쪽으로 한강을 도하하였고, 유엔군은 중공군과 북한군의 저항이 경미한 가운데 마침내 서울을 재탈환하였다.

서울 탈환 후 미 제1군단은 국군 제1사단을 파주 방면으로 진격하도록 했고, 미 제3사단과 제25사단을 각각 의정부와 청평으로 진출케 함으로써 38도선 회복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유엔군은 인민군 제1군단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3월 23일 미 제187공정연대를 문산평야에 낙하시키는 토마호크 작전(Operation Tomahawk)을 실시하였고 육지에서는 국군 제1사단이 문산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이 공정작전은 중공군과 인민군의 주력을 포착한다는 본래 작전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중공군과 인민군의 주력은 이미 파주 지역에서 철수하여 임진강 북쪽으로 도주한 뒤였기 때문이다. 이에 파주는 다시 국군과 미군이 장악하게 되었다.

3) 중공군의 4월 공세와 파주 재점령

유엔군은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중공군과 북한군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호언장담하던 철의 삼각지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1951년 4월 21일 전 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이런 유엔군의 총공세는 중공군의 4월 공세와 맞물렸다.

즉 중공군도 유엔군을 완전히 격멸하고 서울을 재점령하려는 4월 공세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4월 공세에는 중공군 9~11개 군, 포병 7~8개 사단,

탱크 3~5개 대대와 북한군 2개 군단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6 · 25전쟁 개전 이후 공산군이 실시한 최대 규모의 공세였다. 중공군 4월 공세 당시 서울 북방 방어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전개된 곳은 적성 지역이었다. 중공군 공세가 개시되자 영국군 제29여단은 감악산 일대에서 진지를 구축하였다.

서부전선의 공격이 개시된 이후 중공군은 철수하는 미 제24, 25사단 병력과 23일 밤 최초로 접전을 가졌으나 그 규모는 매우 작았다. 거의 같은 시각에 임진강 연안에서는 영국군 제29여단이 대접전을 치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영국군 제29여단 소속의 글로스터셔 대대는 중공군 제63군 대병력의 집중공격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글로스터셔 대대는 인접부대들이 후퇴하게 되자 고립을 모면하기 위하여 24일 밤 적성 남쪽 설마리의 235고지로 후퇴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중공군과 인민군의 포위망에 갇히고 말았다. 이들은 돌격대를 편성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탈출을 위한 돌격을 감행해 보았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최후로 시도된 각개 탈출의 결과 699명의 대대병력 가운데 39명만이 탈출에 성공하였다.

적성면에 있는 설마리 전투 기념비

그러나 글로스터셔 대대의 희생과 제29여단의 혈전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전투가 중공군의 공세를 3일 이상 지연시킴으로써 미 제1군단의 좌익이 구출될 수 있었으며 유엔군 주력이 서울 북방 방어선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또한 중공군 1개 군이 영국군 1개 여단에 의해서 크게 손상됨으로써 중공군의 기세는 한풀 꺾였고 서울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공격력은 현저히 둔화되었다.

4) 1951년 5월 파주 공방전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약 일주일 만에 중단되자 유엔군은 태세를 방어에서 반격으로 전환할 것을 생각하였다. 4월 30일 밴플리트는 '무명의 선'을 요새화하

는 한편, 적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력수색을 실시하였다. 위력수색 과정에서 파주는 일시 국군의 장악 하에 들어왔다. 즉 국군 제1사단이 5월 7일 공격을 개시하여 이틀 만에 인민군을 퇴각시키고 파주를 상실한 지 약 보름 만인 9일 파주의 동남단 봉일천까지 진출하였던 것이다. 이날 유엔군은 봉일천만이 아니라 김포반도 · 의정부 · 가평 · 춘천까지 손쉽게 탈환하고 이곳에서 서울에 이르는 주요 도로들을 모두 장악하였다. 단 며칠간의 위력수색과 국군만의 제한된 공격으로 4월 공세 때 상실했던 땅의 약 절반을 회복한 것이다.

이쯤 되자 유엔군은 5월 9일 38도선을 향한 본격적인 반격작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미 제1 · 9 · 10군단 주력이 제1단계로 12일에 문산-춘천 선을 점령하여 파주 전역을 탈환한 후 북동쪽의 인제를 공격하고 그동안 국군 제3군단과 제1군단은 계속 공격하여 38도선 이북까지 도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2일을 D데이로 정하여 수립한 이 계획은 그 전날 취소되었다. 왜냐하면 중공군의 총공세가 임박한 징후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중공군의 주공격은 동부전선이었으며 공격은 5월 15~16일 밤 개시되었다. 동부전선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은 국군은 미처 싸울 겨를도 없이 삽시간에 붕괴되었다. 우측에 인접한 국군 제3군단도 한계리에서 격전을 벌였으나 노도와 같이 내습하는 대군을 막지 못하고 철수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돌파는 신속하였다. 18일에는 돌파구가 점차 확대되어 원주-강릉 간 도로가 차단되기 직전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국군 제3군단은 완전히 무너졌다. 와해된 국군 제3군단은 해체되어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에 편입되었고 공산군 돌출부의 남단에는 미 제3사단을 배치하였다.

한편 중부전선에서는 미군이 필사의 격전으로 중공군의 돌파를 저지하고 그 기세를 꺾었다. 그러자 5월 20일 전 전선에 걸친 중공군과 인민군의 공세는 중단되었다. 공세는 5일 만에 끝이 났다.

중공군의 5월 공세를 저지한 유엔군은 즉각적인 반격작전을 실시하였다. 작전의 목적은 38도선 너머 철의 삼각지대를 점령하고,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간성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앙을 횡단하는 최상의 방어선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미 제1군단은 5월 20일 반격을 개시, 빠른 속도로 진격하였고 국군 제1사단은 21일경 문산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인민군과 중공군은 신속하게 철수한 뒤였기 때문에 접전은 없었다. 이로써 국군 · 유엔군과 중공군 · 인민군 간에 파주를 뺏고 뺏기는 일은 종식되었다. 이후 파주 지역이 다시 중공군과 인민군의 점령 하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

5. 전선의 교착과 휴전

1) 전선의 교착

1951년 봄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고도 이전처럼 북진을 시도하지 않았다. 적절한 선에서 정전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미국 정부와 유엔 측의 소망 때문이었다. 계획된 방어선을 38도선 약간 북쪽에 이미 확보한 유엔군 측은 원만한 협상조건 아래 조속히 정전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휴전회담은 쌍방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951년 7월 이후 6 · 25전쟁은 대부대의 기동 없이 정지한 상태에서 진지를 강화하는 방어전이 전개되었다. 이제 상대편 방어선을 돌파하거나 그 일각을 점령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졌다.

1951년 11월 판문점 휴전회담에서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데 쌍방이 합의를 본 이후 전선은 당시의 접촉선으로 고정된 채 1952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전선은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의 남강 남쪽에 이르는 155마일의 전선으로 휴전 성립 1개월 전에 감행한 공산군의 최종공세에 의하여 북한강 상류 금성지역을 피탈당한 것 이외에는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2) 휴전

1953년 새해를 맞이한 전선의 겨울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피아간에 고수하고 있던 진지를 강화하고 있을 뿐 소강상태가 계속되었고 휴전회담도 포로처리 문제를 놓고 쌍방이 강경하게 대립하다가 결국 결렬되어 버린 상태였다. 이때의

전쟁은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정치적 · 선전적 의미가 더 큰 전쟁이었다. 자유송환이냐 강제송환이냐의 포로처리 방법은 양 진영의 체면과 관련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월 5일 스탈린의 사망은 중공군의 태도에 대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정부가 마침내 전쟁의 종식을 결심하게 된 요인은, 당시 미국정부로부터 만일 휴전에 서명하지 않으면 중국 본토에 원자탄을 사용하겠다는 위협, 스탈린 사망 이후 전개될 공산주의 세계의 정치적 해빙, 장기간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중공경제의 악화 등이었다.

이후 포로처리 문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던 휴전회담은 급속도로 진전되어 쌍방이 병상포로 교환에 합의하고 실제 4월 20일부터 일주일간 병상포로 교환이 진행되었다. 4월 26일부터 재개된 휴전회담은 결국 공산군 측이 유엔군 측의 비강제송환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1년 반 동안 끌어왔던 포로송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최종적으로 휴전선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휴전이 조인되는 순간 결정이 나게 되어 있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는 유엔군 측 협상대표 해리슨과 공산측 협상대표 남일이 정전협정문서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작업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전선에서는 포성이 계속 울렸으나, 드디어 오후 정각 10시가 되자 일제히 포성이 멎고 전쟁은 종료되었다.

6. 6 · 25전쟁의 피해상

6 · 25전쟁은 남북한에 인적 · 물적 · 정신적 모든 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다. 특히 민간인의 인적 손실은 전사상戰史上 유례가 드물 만큼 컸다. 사회경제적 기반도 철저히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내부에 불신감과 적대감마저 심어 놓았다.

1951년 9월 시점에 집계된 파주군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명 피해를 보면 민간인 남자 1,328명, 여자 674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사망자는 남자 776명, 여자 490명이고, 피랍자는 남자 128명, 여자 10명이며, 행방불명자는 남자 287명, 여자 82명, 부상자가 남자 137명, 여자 92명이었다.

6·25 전쟁 58주년 기념식 행사 모습

건축물도 다수 파괴되었다. 전쟁 전 파주에는 1만 5,828호의 주택이 있었는데, 연건평 7만 392평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군청사와 11개 읍·면사무소, 어업조합 건물이 전소全燒되었고, 금융조합 건물은 4동이 반소半燒되었다. 그리고 상가 건물 71평이 전소되었고, 214개 도정공장搗精工場 중 53개가 전소되고 5개가 반소되었으며, 종교단체 소속 건물 12동 중 4동이 전소되고 2동이 반소되었다. 피해 내용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약 170억 원에 달하였다. 이 외에도 어선 10척을 포함하여 많은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다.

한편 전쟁은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켜 그들을 기아와 질병에서 구하는 문제가 시급히 제기되었으며 파주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구호가 실시되었다.

전쟁으로 발생한 피난민들은 소개원칙疏開原則과 통로지시通路指示를 따라 남하하였다. 황해도지구의 피난민들은 인천-당진-서산-홍성을 통해 남하하거나, 인천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진을 통해 남하하는 두 통로를 이용하였다. 이북과 개성지구 피난민들은 수색-소사-발안-아산의 통로를 통해 남하하였다. 그리고 이들 피난민들에 대한 정착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는데, 귀향 불능 피난농민들을 정착시켜 개간 및 염전사업에 종사토록 하였다. 1952년 이후 경기도는 7,268세대 4만 2,760명을 안착시켰다.

파주에는 장단군 출신의 피난마을을 위해 집단거주지가 여러 곳 마련되었다. 1953년 7월 10일 교하면 상지석리에 360세대 2,212명을 정착시켜 임야 96.4정보를 밭으로 개간하도록 한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이곳 상지석리의 개미골이란 마을 이름은 이들이 정착한 이후 근면 절약을 신조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부유한

마을로 만들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1954년 10월 11일 교하면 야당리에도 70세대 470명이 정착하여 임야 70정보를 밭으로 개간하였다. 1954년 9월 7일에는 아동면 금릉리에 165세대 903명이 정착하여 80정보의 대지를 개간하였다. 1954년 12월 30일에는 조리면 장곡리에 130세대 750명, 1955년 10월 15일에는 아동면 금촌리에 178세대 835명이 각각 정착하여 도기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응급구호조치로서 피난민 집결지에 난민수용소가 설치 · 운영되었는데, 1952년 11월 현재 파주에는 1개소가 설치되어 2만 958명을 수용하였다. 수용소에는 정부와 외국의 원조로 천막이 분배 · 대여되었는데 파주에는 667개 천막에 1만 6,675명이, 장단에는 3개 천막에 82명이 혜택을 입었다. 그리고 유엔의 원조자재로 간이주택을 건축하여 피난민을 수용하였는데 파주군에도 200호의 간이주택이 축조되었다.

이와 같은 응급수용조치가 끝나고 전쟁 국면도 점차 안정되어가자 정부는 원주민의 주택재건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에 파주군은 1952년에만 125호를 축조하였다. 이러한 외부적인 원조 외에도 자력에 의한 주택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955년 7월 현재 파주군은 8,748호의 전재호수戰災戶數 중 4,121호가 복구되어 점차 삶의 보금자리를 회복하게 되었다.

* 이 글은 파주시지편찬실에서 1995년 발간 『파주군지』 상권, 제7장 현대편의 제1절 해방과 대한민국정부수립(집필자 김광운), 제2절 농지개혁(집필자 조석곤), 제3절 한국전쟁(집필자 강진갑) 글을 축약 재정리한 것이다.

산업화 · 정보화 시대의 파주

지호원_자유기고가

전후 한국경제 50년과 파주

1953년 6 · 25전쟁이 끝난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너진 건물이 즐비한 폐허와 잿더미였다. 월남해 온 피난민들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산등성이나 하천 주변 등 빈터만 있으면 무허가 판잣집이 들어섰다. 제아무리 시내 중심가에 있는 집이라도 재래식 화장실과 우물 내지는 펌프로 식수를 해결했고, 하수도 시설이 부족해서 길거리에는 오물이 가득했다. 빈곤과 식민지배 그리고 전쟁으로 찌든 뼈아픈 역사의 결과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고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1980년대에는 88서울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공업국이 되기도 했다.

정부와 온 국민의 바람처럼 우리의 국력은 1990년대 이후 세계 속의 한국으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꿈에나 그리던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 진입과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 조선 · 자동차산업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시장개방 압력과 더불어 외환위기라는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이것이 압축적인 전

후 한국경제 50년의 역사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파주는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적 이념 속에 소외되었다.

1960년대 파주의 '기지촌문화'

파주시는 서울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경기도의 서북단에 위치하여 북동쪽은 연천군, 동쪽은 양주시, 남쪽은 고양시와 접해 있으며 서북쪽은 장단군이었으나 지금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인접해 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파주시는 한국사회에서 분단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미치는 지역들 중의 하나이며 군사지역적 특성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다. 한때 파주시에는 많은 미군부대가 주둔했다. 6 · 25전쟁 직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대규모의 미군부대가 이 지역에 주둔함에 따라 미군부대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파주로 몰려들었다. 파주 사회에 소위 '기지촌문화'가 형성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홍성철의 『유곽의 역사』(2007)를 보면 비록 일부이지만 1960년대 파주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00번지 일대는 연풍이라는 마을 이름보다 용주골이라는 별칭으로 더욱 유명하다. 인근 의정부와 동두천이 그러하듯이 이 마을도 미군부대에 의존한 기지촌으로 급성장한 마을이다.
> 용주골에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들이 자리 잡은 것은 한국전쟁기인 1951년도 늦여름이었다. 당시 전쟁포화에서 온전하게 보전된 4~5채의 가옥을 중심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미군들은 적의 첩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미군들의 민가출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양색시들은 담요 한 장을 들고 큰길로 나가서 미군들과 흥정한 뒤 산속에서 영업을 하기도 했

다. 그러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주한미군 2사단이 파주읍에 주둔하면서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점과 클럽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하나의 공인된 업종처럼 유락업소들이 자리를 잡았다. 1956년에는 용주골 사과밭에 미군 종합휴양시설인 RC1이 들어서 서부전선 미군치고 용주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1960년대 파주군에는 관광업소가 74곳이었고, 그 중 20개가 용주골에 몰려 있었다. 연풍리 태생의 성주용 씨(84)의 말에 따르면 당시 연풍교를 건너 현재 상가 밀집지대에 색시촌이 있었는데, 지금과 달리 대부분 1층집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숫자는 1,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때문에 1960년대 용주골에서는 '용주골 사람치고 포커 못 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또한 파주 지역 주둔 미군뿐 아니라 서부전선의 모든 미군들이 주말이면 몰려들었다. 하룻밤을 위해 헬리콥터를 타고 용주골을 찾는 미군 장교도 있었다. 그래서 건전지가 떨어졌다고 라디오를 쓰레기통에 버릴 정도로 용주골은 흥청거렸다. 매일 아침마다 취객들이 흘린 달러를 줍기 위해 골목을 누비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1969년 발표된 닉슨독트린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시작되고, 1971년 문산 미 2사단이 동두천으로 옮기면서 용주골의 기지촌은 쇠락하기 시작했다. 유락업소들은 통닭집이나 호프집 등으로 바뀌었으나 성매매 여성들은 기지촌을 떠나지 않고 1980년대 초에도 300여 명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점차 미군이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일산 신도시가 건설되고, 서울 지역에서 성매매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등 단속이 심해지면서 용주골은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했다.

지금의 용주골

이 기록처럼 1960년대 대규모 미군병력의 주둔은 전통적인 농촌사회였던 파

주 사회에 기지촌 중심의 이질적인 문화를 유입시킨다. 그러나 산업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1960년대 이렇다 할 산업기반이 없던 파주로서는 용주골이라는 기지촌 형성으로 그에 필요한 인구가 유입되고, 주류 · 의류 · 화장품 · 가전제품 · 가구상 · 미장원 · 구멍가게 등등이 생겨나면서 상당 부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기도 했다.

미군 주둔과 관련하여 기지촌 경제에 영향이 컸던 또 하나는 미제 PX물품이다. 지금도 흔히 '도깨비시장'이라고 불리는 서울 남대문시장의 미제 물건 주 공급처가 1960년대는 바로 문산이었다. 파주에서만 2대째 살고 있는 파주시청 최영호 과장의 기억에 의하면 1968년까지 금촌역에는 3시간마다 1대 꼴로 서울과 문산을 오가는 경의선 증기기관차가 물을 공급받기 위해 십 여분 이상 정차했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은 문산 미군부대와 용주골을 통해 흘러나온 PX물품들이 객 · 화차 밑에 몰래 숨겨져 서울역까지 운반되는 시간으로, 금촌역에는 이 같은 수송방법을 차단하기 위해 미군헌병들이 날마다 상주해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빠져나온 PX물품들을 압수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PX물품 장사를 한 사람들은 주로 삼사십 대의 아주머니들로 그녀들이 실어 나른 PX물품들은 남대문 도깨비시장을 통해 서울과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모습도 1970년대로 넘어가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1971년 미 2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하고 서울의 도심개발과 함께 경기도 성남 등 서울 주변 지역이 새로 조성되면서 용주골을 구성하던 대부분의 기지촌 역시 새로 개발되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통일로와 자유로 개통

임진강과 한강 하구 평야지역에 위치한 파주는 예로부터 한반도의 주요 곡창지대 중의 하나이며 교통의 요지였다. 상고시대 이래로 대동강을 거쳐 중국 대

륙에 이르는 주요 간선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조선 초기에 확정된 9대로 혹은 10대로 중 서울에서 파주를 거쳐 의주로 연결되던 사행로使行路는 국내 간선도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외 교통로였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면서 파주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소망을 뒤로 한 채 대한민국의 북쪽 끝이 되었다. 파주가 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남·북의 대치상황이라는 정치적 현실이 파주를 지난 40년간 변방의 미개발지역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파주에 닦여진 도로다운 도로는 1972년 3월 개통된 통일로統一路가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은평구 진관내동津寬內洞을 지나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에 이르는 길이 68.5km의 이 도로는 기존 국도의 일부 구간을 고속화도로로 만든 것으로, 정확히 말해 개통이라는 표현보다는 확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그러나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파주는 조금씩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통일로 끝에 위치한 임진각과 판문점이 서울과 보다 가까워지면서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그로 인해 새로운 관광지와 유원지 등이 개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파주는 1980년대 초까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어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적십자 회담이 진행되면서 새마을운동과 함께 통일로 주변의 적가시지역敵可視地域에 대해 지붕개량 사업이 의무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외 지역은 대부분 초가집 그대로였죠. 산업 역시 전무해서 1970년대까지는 교하 삽다리나 동패리, 금촌에 있는 몇몇 양조장과 상지석리, 운정역 옆의 야당리, 조리의 죽원리(현 대원리)에 있는 벽돌공장이 가장 큰 규모였고 그 외는 가발이나 직물·카펫같이 노동집약적인 2차 산업이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기도 했지만 거의 다 가내수공업 형태였죠. 그나마 통일로 개통 이후 1980년대에는 정부의 세제 혜택 등 금융 지원에 힘입어 조리·장곡리·월롱의 위전리 등에 소규모 새마을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최영호 파주시청 과장)

그리고 통일로 개통 이후 다시 20년 뒤, 파주는 서울의 변방에서 벗어나 산업이 성장하는 미래도시로서 탈바꿈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된다. 1980년대 말 주택난으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990년대 초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라 경기도 성남의 분당과 고양의 일산 신도시가 탄생되었고, 파주의 산업동맥이 되는 자유로 또한 준공되었기 때문이다.

고양시 행주대교 북단에서 파주시 문산읍 자유의 다리까지 길이 46.6km, 너비 51m에 이르는 자유로는 1990년 10월에 착공해 1단계 구간인 행주대교에서 통일전망대(29km) 구간은 1992년 8월에 완공, 2단계 구간인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각(17.5km) 구간은 1994년 9월에 완공되었다. 이 도로의 개통으로 파주는 서울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 파주가 고향인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듯 나 역시 파주를 사랑하죠. 내 나이 지금 예순 여섯인데 젊은 시절에는 그런 시골생활이 싫어 서울에서 한 이십여 년 동안 사업을 했죠. 그러다 자유로가 개통되고 문발산업단지가 조성될 시점인 1992년에 사업체를 이곳으로 옮겨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죠. 파주에 있어 자유로 개통은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선적으로 교통이 편리해지고 물류수송이 용이해지면서 굳이 비싼 땅값의 서울에 공장을 두고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죠.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 이곳에 오면 더 넓은 공장을 짓게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윤주칠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자유로 준공식

연구실의 실험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주)신생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윤주칠 회장의 말처럼 자유로 개통은 파주의 산업발전에

하늘에서 본 자유로

있어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자유로 개통으로 1990년대 이후 파주 지역 여러 곳에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많은 기업들이 윤 회장과 같은 이유로 생산기지를 파주로 옮겨왔다.

흐르는 강물, 산업화 물결

흐르는 것 어이 강물뿐이랴/계곡의 굽이치는 억새꽃발 보노라면/ 꽃들도 강물임을 이제 알겠다/갈바람 불어/석양에 반짝이는 은빛/물결의 일렁임/ 억새꽃은 흘러흘러 어디를 가나/ 위로위로 거슬러 산등성 올라/어디를 가

나/ 물의 아름다움이 환생해 꽃이라면/억새꽃은 정녕/ 하늘로 흐르는 강물이다. (오세영의 「억새꽃」)

하늘로 흐르는 강물! 꽃들도 강물임을 이제야 알듯, 지난 반세기 남북분단이라는 바람에 흔들리다 석양에 반짝이는 은빛물결의 일렁임처럼 2000년대를 맞아 새롭게 주목받는 도시, 파주는 지금 그런 도시다.

그러나 불과 15~16년 전까지만 해도 파주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다. 파주에서 태어나 파주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최영호 과장(파주시청)이나 윤주칠 회장(파주상공회의소)의 기억처럼 1980년대 초반까지 파주에는 이렇다 할 산업시설도 개발계획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84년에는 「수도권 정비계획기본법」이 제정되고 파주군 전체가 개발유보지역으로 묶이면서 산업화를 선도하는 대규모 장치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수도권 정비계획기본법」 내에서는 1,000㎡, 약 330평 이상의 공장을 신설할 수 없다).

파주 지역에 도시화 · 산업화가 일어난 시기는 1980년대 중반부터였는데 본격적으로 공장이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조성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였다. 1960~70년대까지 파주의 주요산업은 농업과 광업으로, 광업의 경우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힘입어 석회를 중심으로 규석 · 금 · 은 등의 채취광업이 크게 발전했다고 한다. 때문에 활황기인 1968년 당시에는 적성의 형보탄광산을 비롯해 탄현의 익산 · 금석 · 석산 · 한흥광산, 교하의 장명 · 곡속광산 등 12개의 광산이 있었으며, 1974년에는 파주 지역의 석회 생산이 약 1만 869톤으로 경기도의 총 생산량인 3만 564톤의 51.9%를 생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파주의 광업은 서서히 쇠퇴해 현재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화의 주요 과정인 공업발전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소규모의 식료품(된장 · 고추장) · 제지 · 연탄제조업이 주를 이루다 1980년대에 이르러 섬유 · 화학 · 기계공장 등이 정부지원의 새마을공장 형태로 들어서면서 산업화 초기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1980년대 파주 지역의 공업 추세

(단위: 개소 · 명)

연도	공장수	공장증가수	종업원수	공장당 종업원수
1981	99	·	4,644	47
1982	105	6	3,711	35
1983	114	9	4,377	38
1984	96	-18	4,646	48
1985	113	17	4,874	43
1986	110	-3	5,125	47
1987	131	21	5,910	45
1988	152	21	7,117	47
1989	141	-11	6,561	47
1990	355	214	13,943	39
1991	470	115	13,127	28

*자료 : 파주군, 『파주군 통계연보』, 1985 · 1992

위의 표에서 보듯 1982년 파주군에 등록된 제조업(공장) 수는 105개소로, 당시 파주군 전체 인구가 16만 6,631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인구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가 2.3%도 안 되는 전형적인 농촌사회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1990년 이후 일산 신도시개발에 따라 고양시를 비롯해 수도권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대거 파주로 몰려들면서 1991년에는 470개소, 1996년에는 695개소로 늘어나는 대대적인 증가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파주의 산업발전은 걸음마 단계에 있었다. 비록 공장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들 공장이 파주 산업발전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미미했기 때문이다.

지역 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지역 주민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각종 사회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이상적인 기업 유치활동인 것이다. 그러나 당시 파주 지역에는 공장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고용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1997년 경기도에서 발간된 「도

내 지역 현황분석」이라는 자료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파주의 산업현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 파주시에는 식품 · 목재 · 조립금속 등을 중심으로 1,0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평균 종업원이 약 30명 내외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전된 업체들로 지역과는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으며, 또한 체계적으로 집단화되지 못하고 개별입지되어 있어 향후 산업단지조성을 통한 공단화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산업화(industrialization)란 공업화, 즉 기계사용과 공장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뜻한다. 지속적인 인구증가, 도시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변화, 상품생산 및 시장경제의 발전 등 인간 활동의 모든 측면이 시장관계에 포섭된다. 때문에 산업화가 되면 통상 농업 · 어업 · 임업 등 1차 산업 종사자가 줄어들고, 반대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2차 · 3차 산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파주의 산업발전이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전환시점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자유로 개통 이후 1994년에는 그동안 지역개발을 가로막았던 수도권정비계획이 개정되고, 김포와 함께 수도권에서 마지막 남은 개발공간으로 인식되면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또한 1995년 7월에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1996년 3월 1일에는 도농복합시로 개편되면서 파주 역시 경기도와 연관해 자체적인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8년 초에 발간된 『파주시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파주시의 인구증가 추이와 사업체 수의 변화가 잘 나타나 있는데, 파주시의 인구는 1990년대 말까지 17만 명 내외이다가 2000년 이후 20만 명을 넘어서 2006년에는 마침내 3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런 급속한 인구 확대는 그동안 성장개발의 발을 묶었던 여러 가지 법령개정과 함께 파주가 서울과 인천 등 주요 도시를 향한 도로 · 교통체계 등이 양호하며, 남북교류의 경제적인 중심지로서 급부상하면서 한국모토롤라 · 거평시그넥

티스 등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1996년 695개소에서 2001년에는 1,069개소, 2006년에는 2,408개소로, 5년 단위로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인다.

1995년 이후 파주시 인구 변화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구	168,803	172,037	178,367	179,958	182,970	193,719	226,858	237,341	243,757	252,700	267,607	300,059

*자료 : 파주시, 『파주시 통계연보』(2007년 기준)

2001년 이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업체(수)	12,220	13,189	13,736	14,026	14,418	15,453
종사자(명)	58,736	60,708	64,613	68,450	74,886	81,348

*자료 : 파주시, 『파주시 통계연보』(2007년 기준)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개발

6 · 25전쟁 이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군사보호구역이라는 분단의 아픔을 잉태하였다. 주로 경기 · 강원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사보호구역은 분단의 아픔과 함께 토지 이용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저발전이라는 또 다른 고통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의 면적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넓은 지역(서울과 안양을 합한 규모)인 데다 서울과의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많아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다. 특히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아 전체 면적의 20% 정도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안에서는 제한적인 농사만 가능할 뿐이었다.

파주가 지난 50년간 한국의 산업화 속에서도 조용히 숨을 죽여 왔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분단' 그리고 '군사보호지역'이라는 주홍글씨 속에서 수려한 경관도, 임진강 일대의 곡창지대라는 사실도, 고려 명장 윤관 장군, 율곡 이이, 황희 정승 등과 같이 선조의 넋이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의 고장이라는 사실도 묻혀 있었다. 그런 파주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난 것은 자유로 개통 이후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모색되고, 수도권 광역화로 개발수요가 따라주는 전략적 지역으로 부각되면서부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유도사업이 이루어진다.

1997년 12월에 발행된 「제1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을 살펴보면 경기도내 31개 시 · 군을 동북내륙권 · 서북해안권 · 동남내륙권 · 남부임해권 · 서울인접도시권 등 5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파주시는 서북해안권의 중심도시로서 향후 남북교류 중심지와 반도체 · 통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 구축 지역으로 성장시킨다는 발전전망이 담겨져 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해 남북물류기지를 파주에 건설하고, 향후 통일관광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로를 기본축으로 하는 통일관광벨트를 형성하는 한편, 통일동산 · 판문점 · 임진각 관광지는 세계에서 유일한 이데올로기의 대치점이라는 점을 활용해 국제적인 안보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수립되기도 한다.

이 같은 발전방향은 지방자치제 이후 파주시가 수립한 미래지향적인 도시 모델과도 같은 것이었다. 당시 파주시가 구상한 21세기 도시 이미지는 환경친화의 전원 · 문화 · 관광도시로서, 도시기능을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물류거점기능,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청정도시기능,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대표적 관광 · 문화중심기능,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또 이를 위해 파주 지역 전체를 파주중심도시권역(금촌 · 조리 · 광탄 · 월롱), 남북교역중심권역(문산 · 파주), 첨단산업단지권역(탄현 · 문산), 관광농원권역(법원 · 파평 · 적성), 임진강유역개발권역(탄현 · 문산 · 파평 · 적성) 등과 같이 5대 권역으로 구분해 균형 개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계획은 2000년을 전후해 구체화된다. 1994년 '문발지방산업단지' 조성

교하신도시 전경

이후, 1997년과 1998년에는 각각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와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단지'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1999년에는 '오산'과 '금파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되면서, 2003년 이후에는 파주의 미래를 짊어질 디스플레이단지와 문산과 파주 월롱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구체화된다. 특히 디스플레이단지 조성에 관한 노력은 빠르게 진행돼 2003년 2월 경기도와 파주시, LPL(엘지필립스엘시디)사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5개월 만에 공배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제한 법규를 이겨내고 월롱 지역에 약 51만 평 규모의 LCD산업단지가 지정되기도 했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파주에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온 건 신도시개발이다. 산업화의 주요 과정 중 하나가 도시화이듯, 1998년과 1999년에는 파주시의 중심지인 금촌 지역에 약 1만 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2000년에는 산업단지가 있는 문발과 동패리를 중심으로 1만 세

대 이상의 교하지구 아파트단지 건설이 시작되면서 파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작에 불과하다. 신도시건설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시작된 교하신도시가 건설되면 약 8만 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그 규모는 분당과 일산에 버금가게 된다. 동화 속의 미운 오리새끼가 우아한 백조가 되어 창공으로 날아가듯 파주 또한 그렇게 새로운 도시가 되어 날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2008년 오늘, 파주시의 비전은 대한민국 대표도시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전략 2010' 이라는 시정운영 기본계획 아래 '최첨단 · 친환경 · 고품격 도시건설 · 시민주의 행정' 이라는 4대 지표를 설정하고, 14대 주요 과제와 100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산업사 측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역시 최첨단도시이다. 최첨단도시의 기본요소는 도시환경과 산업 그리고 이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이다. 파주시의 경우 지난 1996년 3월 도농복합시로 개편된 이래 이런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금촌과 교하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현재는 U-CITY라는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파주시가 짧은 시간 이렇게 성장한 비결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남북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염두에 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접경지역이면서 정치 · 경제 ·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과 가깝다는 점, 도로교통의 개선으로 수도권 인접이면서 주요 물류거점인 인천 · 김포 등과 가깝다는 점 그리고 LCD와 출판정보단지 등 특화된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파주시의 산업화와 정보

화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60년대 이후 미래학자들은 산업화 이후의 시대를 정보화시대로 예견해 왔다. 향후 경제발전 과정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체제의 산업화를 지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정보화시대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1990년대 IT산업(Information Technology; 컴퓨터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통신장비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통칭)의 눈에 띄는 발전과 함께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이 됐다. 불과 10여 전에 출시된 휴대폰은 이제는 초등학생 누구나 가지는 필수품이 되었으며,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킨 인터넷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생활화됐다. 이른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세계화)이 된 것이다. 자본 · 노동 · 상품 · 서비스 · 기술 ·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세계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한 것이다.

그 속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세계화를 부르짖었다. 서둘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는 한편 은행자금을 끌어들여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공장을 짓는 데 분주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인 듯, 국내 산업은 반도체 · 조선 · 철강산업 등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면서 산업화의 정점에 서는 듯했다.

정점頂點! 그러나 그것은 때로 추락을 의미한다. 전후戰後 산업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던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부도 직전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맞게 된다. 국민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고, 알지 않아도 좋을 IMF체제를 만난 것도 그 시절이다. 거짓말처럼 모든 산업이 한순간에 정지된 듯 크고 작은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고, 가정이 파괴되면서 거리에는 실업자와 노숙자가 넘쳐났다. 1996년 선진국의 상징이라는 OECD에 가입한 지 1년 만의 일이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중산층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면서 이혼율이 증가했고, 이런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죽음을 앞두고도 가족을 걱정하는 어느 가장의 이야기를 그린 『아버지』라는 소설이 유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시절, 이 소설을 유행시킨 것은 다름 아닌 인터넷이었다. 산업화가 채 시들기도 전에 정보화가 온 것이다.

산 넘어 산인가. 자본주의 중심에서 2008년 어느 날 불어닥친 '경제 위기'라는 충격의 급물살이 세계 모든 나라를 강타할 기세로 번져오고 있다. 1997년에 닥쳤던, 그래도 간신히 극복했던 외환위기와도 성격이 다르다. 이 도전의 파장

을 파주시라고 해서 앉아서 피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응전해야 한다. 한국경제라는 큰 울타리에서, 나아가 세계라는 큰 호흡으로 모든 것을 점검하고 다시 다져야 할 것이다.

미래의 지식기반형 도시, 파주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새로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수초 안에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또 국가 간과 기업 간의 교역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지구 반대편의 경제상황이 다음날 아침이면 곧 우리의 경제상황으로 나타난다. 지난 200년간 영위해온 산업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화사회로 새로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시대에는 생산 자체보다는 생산기술의 보유,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식과 정보,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된다. 때문에 정보화시대에는 지적재산권, 컨텐츠(contents; 내용물) 분야 등이 발전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무형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체제와 인력확보, 기술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보화시대의 파주에 있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산업화는 조금 늦어졌지만, 정보화에 있어서는 여타 도시보다 빠르고 풍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파주시에서 발행한 브로셔를 보면 '파주는…꿈을 꾼다' 라는 카피가 나온다. 무엇을? 물론 대한민국 대표도시다. 최첨단 · 친환경 · 고품격 도시를 만들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가능한 일이다. 왜? 파주에는 정보화시대를 리드하는 첨단 생산기지와 기술이 있고, 교육이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신도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50년간 개발의 뒤편으로 밀려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환경이 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때론

느림이 가장 앞서가는 경우가 된 것이다.

현재 파주시의 대표적인 첨단산업단지로는 디스플레이단지와 출판문화정보단지가 있다. 디스플레이단지는 파주시는 물론 경기도 내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산업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약 156만㎡(약 47만 평)에 27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출판문화정보단지는 단일 출판단지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LCD산업은 현재 국가적으로도 5대 핵심산업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LCD산업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GDP 성장에 5.2%를 기여했으며 직 · 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만 해도 15.4조 원에 이른다(2008년도 수출액 225억 달러 예정). 이는 과거 10년 동안 국내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를 2배 이상 능가하는 것으로, LCD산업이 향후 10년간 한국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산업

LCD단지 전경

임을 말해준다.

파주에 LCD를 중심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산업단지가 들어선 것은 2006년 4월부터다. 2003년 2월 경기도와 파주시, LPL(엘지필립스엘시디)사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같은 해 7월 월롱면 덕은리 일원에 171만㎡(약 51만 평) 규모의 LCD산업단지가 지정되었다. 이후 2006년 4월 LCD의 제7세대(1,950mm×2,250mm) 공장이 준공되고, 2007년 12월 단지가 준공되면서 LG디스플레이 · 대성가스 · 한국SMT · 희성전자 등 TFT-LCD 제조 및 관련기업들이 입주하게 되었다. 모토로라 이후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첨단 대기업들이 집단으로 들어선 것이다.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은 42인치 LCD판을 월 72만 장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공장이다. 노트북 · TV · 모니터 · 첨단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LCD는 생산해내는 유리판의 크기에 따라 각각의 세대별로 구분하는데, 파주공장은 그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42인치의 대형 LCD판을 생산해 내는 곳이다.

LG디스플레이는 2015년까지 이곳에 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0년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가 완성되면 그룹 내 주력기업인 LG전자 · LG화학 · LG이노텍 · LG마이크론 등도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정부와 파주시는 디스플레이단지 이후 2005년과 2006년에는 문산 당동과 선유, 파주 월롱 지역에 LCD와 관련된 3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이들 단지가 완성되면 파주는 약 450만㎡(136만 평) 규모의 세계적인 LCD클러스터(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한 곳에 모인 집적단지)가 된다.

LCD클러스터가 향후 파주시에 미칠 영향은 첨단기업들을 유치해 도시화에 성공한 네덜란드 에인트호번과 일본 아이치[愛知]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에겐 박지성 · 이영표 · 거스 히딩크 감독이 활약하던 명문 축구클럽 PSV 에인트호번의 연고지로 잘 알려진 에인트호번은 120년 전만 해도 인구 5,000명도 안 되는 시골의 한 작은 도시였다. 그러나 조명기구 회사인 필립스(Philips)가 둥지를 틀면서 필립스는 세계적 다국적기업으로, 에인트호번은 네덜란드 5대 산업도시로 성장했다. 또 서울시 면적 1.5배 넓이에 약 42만 명이 살고 있는 아이치현은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1950년대에 도요타

파주출판도시 전경

자동차 생산공장을 유치하고 나서부터 일본 최고의 부자도시로 변모했다. 아이치현은 현재 도요타자동차 본사와 12개 공장, 400여 개의 협력업체가 모여 있는 자동차 클러스터로, 주민 절반 이상이 도요타자동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생활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 파주시의 또 하나의 경쟁력은 출판문화정보단지다. 교하읍 문발리 일대 약 47만여 평 규모에 조성되고 있는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도시다. 1997년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해 2004년에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출판사 · 인쇄소 · 출판유통업 등 272개의 출판관련 회사들이 입주해 있다. 또 2005년부터 시작된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2011년 예정) 영상산업 · 소프트웨어산업 등이 추가로 입주해 세계 최대의 출판영상산업단지가 된다.

흔히 출판도시라고 불리는 이곳은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적인 문화공간이자

아름다움을 세계에 내보일 수 있는 건축미 넘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출판사들이 지은 건축물 하나하나가 각각의 스토리와 개성이 있어 단지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건축전시장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 지역은 한강과 임진강·예성강이 합류하여 서해에 이르는 거대한 강 하류의 저습지로, 철새 도래지이며 갈대군락 등 전형적인 강변습지 식생이 나타나는 천혜의 자연생태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새로운 교육도시로 성장

정보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는 교육이다. 지역 내 우수한 교육시설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따라 도시의 미래가 달라진다. 파주시가 한국의 보스턴시를 표방하고 반환되는 미군공여지의 활용방안으로 명문대학들을 유치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적한 농촌지역이었던 파주시에는 그동안 교육의 상징인 대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연속 국내 명문대를 유치함으로써 그동안 가장 취약했던 교육 갈증을 해소하게 됐다. 이러한 대학 유치는 미군주둔지역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파주시의 반환 미군 주둔지는 6개 기지 약 185만㎡(56만 평)에 달한다. 전국 반환 예정지의 38.6%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들 지역은 특별법 적용을 받게 돼 각종 규제를 배제시킬 수 있으며, 특히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는 종합대학 등의 신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파주시는 이 같은 장점을 활용해 대학 유치에 힘써왔으며, 2006년부터 시 주변 미군기지에 이화여대·국민대 등을 차례로 유치하였고, 두원공과대·신흥대·한서울관광대 등 3개의 제2캠퍼스와 본교도 차례로 개교를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유치가 확정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는 지난 2006년 10월 파주시

와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유치를 확정했다. 월롱면 영태리의 미군기지(캠프 에드워드)와 주변 땅을 합한 총 84만 5354㎡(25.6만 평) 부지로, 지도상으로 파주시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파주시가 반환되는 미군기지 활용 대책으로 대학유치를 추진해 온 첫 번째 결과였다. 이화여대는 이곳에 파주캠퍼스를 설립, 인성 및 교양 교육, 리더십, 외국어 집중교육 시설을 비롯해 IT관련 산학연구 복합단지, 외국인 교수들을 위한 숙소, 동문 재교육 시설 등 교육 · 연구 복합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이화여대 부속병원도 함께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 1월 유치가 확정된 국민대 파주캠퍼스는 2013년 개교를 목표로 제2캠퍼스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광탄면 신산리에 위치한 캠프 스탠톤과 주변 지역에 최대 100만㎡ 규모로 구상중인 국민대는 교양과정, 자연과학계열, 국제화특성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교내에 특성화 부속고등학교 설립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초 · 중 · 고 과정의 외국인학교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두원공대 파주캠퍼스(봉암리), 한서울관광대(금산리), 신흥대 파주캠퍼스(삼방리) 등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교 예정이다. 특히 두원공대(입학정원 760명)는 디스플레이공학계열 등의 과정을 운영하며 파주LCD단지에 인력을 공급, 지역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는 데 공헌할 전망이다.

파주시의 대학 유치는 천혜의 조건에 시市의 노력이 함께 맞아 들어간 결과다. 포화 상태인 서울의 각 대학들이 수도권 입지를 물색하는 시점에 맞춰 적극적인 '미군기지 개발 세일즈'를 펼친 게 주효했다.

특히 시의 적극적인 대학 유치 노력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는데, 류화선 파주시장이 직접 대학 유치 전담반을 만들어 각 대학과

이화여대 파주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인 월롱면의 캠프 에드워드 전경

'빅 딜(big deal)'을 성사시키고 인 · 허가 절차부터 중앙부처와 협의까지 직접 챙겼다고 한다.

미래 사회로 다가가는 교하 U-City

지금까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정보화란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핸드폰 · 네비게이션 · 교통카드 사용 정도였다. 이들 기기들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됐고, 그 장단점을 배제하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회발전과 통합을 이루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이 과거 공상만화나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래사회를 현실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시대의 파주에 있어 그런 공상이 현실화되는 곳이 있다. 바로 교하신도시다.

파주시는 서울-고양-파주를 연결하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성장축으로,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화해무드 및 통일 이후 남북을 잇는 관문으로서의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도시이다. 때문에 2000년 이후 수도권 서북부지역에서 인구성장이 빠른 도시 중의 하나다. 현재 추진 중인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2025년의 목표인구를 87만 명으로 하고 있다. 과거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던 파주가 첨단산업도시 · 친환경도시 · 교육과 문화 · 관광자원이 많은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해가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교하신도시는 그런 변화를 이끄는 또 하나의 성장축이다.

2005년 11월부터 파주시 교하읍 일원 약 289만 평(1, 2지구)에 본격적으로 착수된 교하신도시는 과거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됐던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와는 그 개념부터 다르다. 도시 전체가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Ubiquitous;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크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기반으로 U-City로 건설되기 때문이다.

유비파크 전경(위)과 내부(아래)

U-City란 기존의 강력한 유선통신망에 광대역 무선통신망을 결합해 그물처럼 촘촘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도시 안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IT 기반의 첨단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 망網은 전기 · 수도 · 가스 등 각종 파이프나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유비쿼터스 도시는 여기에 더해 첨단 유 · 무선망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유비쿼터스 도시 안에서는 운전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도 서로 잘못을 가리기 위해 언성을 높이고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도시

전체를 중앙관제센터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과실 여부가 개인에게 자동 통보되기 때문이다. SF영화에서나 나왔던 장면들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서울을 비롯해 7개 특별 · 광역시, 강원도 등 8개도, 파주 교하 등 9개 신도시가 U-City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교하 U-City는 가장 처음 건설되는 최첨단 도시 모델로 2007년 파주시에 오픈한 유비쿼터스 체험관 '유비파크' 는 많은 지방자치단체, IT 관련기관,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이 유비파크가 바로 교하신도시에 그대로 구현될 예정이다.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유비쿼터스 기술이 구현되도록 설계된 파주 U-City는 '토털 라이프 케어 시티' · '스마트교통 시티' · '따뜻한 복지 시티' 의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총 10개 부문에 48개 서비스가 구축되는데, 이 속에서 첨단 IT 인프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다양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IT 복지도시, 도시통합관리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사업 준공시기인 2013년 즈음에는 현재 구축되는 U-서비스들이 지리적으로는 신도시에서 파주시 전역으로, 기능적으로는 단순서비스에서 융합형서비스로, 기술적으로는 자동화에서 스마트 인텔리전트 제공을 위한 기반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파주 교하신도시 U-City는 현재 1단계 구축단계에 있다. 2008년 테스트 작업을 거쳐 2009년 하반기 중에 일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여지며, 3단계 최종 입주 시기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구축완료, 최종 오픈할 계획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군사보호지역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U-City 개발 모델로서 파주 U-City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최첨단 도시 · 친환경 도시 · 고품격 도시로서의 파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 보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로 거듭날 것이다.

부록

파주연표

찾아보기

여 백

파주연표坡州年表

선사시대

● 구석기시대

- 파평면 금파리金坡里에서 주먹도끼 · 자르개 · 찍개 · 대형 몸돌, 석기제작에 이용된 모룻돌 · 찍개 · 긁개 등 모두 2,477점의 유물이 발견됨
- 파평면 장파리에서 격지, 긁개 등 자갈돌을 가공하여 만든 유물 10점이 발견됨
- 적성면 주월리 · 가월리에서 주먹도끼 · 가로날도끼 · 찍개 · 대형긁개 · 홈날석기 · 몸돌 등의 대형석기와 박편으로 제작된 소형 석기 등 모두 416점이 발견됨
- 적성면 주월리의 육계토성六溪土城에서 주거지 16기, 부뚜막 유구 2기, 수혈유구 14기 등의 유구가 확인됨
- 교하읍 야당리 · 와동리 · 동패리에서 몸돌 · 격지 · 망치돌 · 주먹도끼 · 주먹찌르개 · 가로날도끼 · 찍개 · 긁개 · 밀개 등이 출토됨
- 문산읍에서 몸돌, 찍개, 여러 면 석기 등이 출토됨
- 진동면 동파리에서 주먹도끼, 긁개 등의 뗀석기가 발견됨

신석기시대

- 적성면 주월리 육계토성에서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다량 발견됨
- 적성면 율포리에서 빗살무늬 토기 조각, 간석기, 화살촉 등이 발견됨
- 교하읍 교하리 고인돌 밑에서 빗살무늬토기와 민무늬토기 등 9개의 유물이 발견됨
- 월롱면 덕은리 옥석마을에서 다수의 빗살무늬토기와 간화살촉이 발견됨
- 문산읍 당동리에서 신석기시대 집터와 야외 화덕자리,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발견됨
- 문산읍 선유리, 파주읍 백석리, 교하읍 다율리, 조리읍 봉일천리에서 빗살무늬토기와 간화살촉 등이 발견됨

청동기시대

- 문산읍 당동리에서 50여 기의 집터가 발굴되었으며 이곳에서 화덕자리와 기둥구멍, 저장 구덩이와 민무늬토기 · 구멍무늬토기 · 돌칼 · 달도끼 · 돌화살 · 돌끌 등의 유물이 발견됨
- 문산읍 선유리에서 다수의 민무늬토기 조각이 발견됨
- 교하읍 교하리에서 구멍무늬토기 · 민무늬토기 조각 · 돌도끼 · 대팻날도끼 · 돌화살촉 · 반달돌칼 등이 발견됨
- 교하읍 당하리에서 깊은 바리모양 토기 · 단지모양 토기 · 구멍무늬 토기 · 골아가리무늬 토기 · 돌창 · 돌화살촉 · 간돌검 조각 · 숫돌 · 돌끌 · 반달돌칼 · 돌도끼 · 바퀴날도끼 · 가락바퀴 · 돌끌 · 숫돌 · 화살촉 등이 발견되고 화덕자리, 기둥구멍, 저장구덩이 등이 발견됨
- 교하읍 다율리에서 8기의 고인돌이 확인되고 이곳에서 반달돌칼 · 돌화살촉 · 돌끌 등의 유물이 발견됨
- 교하읍 심학산에 고인돌 약 30여 기가 발견됨
- 월롱면 덕은리 옥석마을에서 간돌검, 화살촉 20여 점, 별도끼 · 돌도끼 · 돌가락바퀴 · 숫돌 · 갈판 등의 석기와 구멍무늬토기, 바리모양 민무늬토기 등이 발견됨. 이곳 고인돌에서 민무늬토기 조각, 외날과 안팎날의 돌도끼, 돌칼, 숫돌 등이 발견됨
- 적성면 식현리에서 구멍무늬가 있는 바리와 민무늬토기 · 간돌검 조각 · 반달돌칼 · 가락바퀴 · 돌도끼 · 돌화살촉 등이 발견됨
- 진동면 초리에서 수십 기의 고인돌 덮개돌이 발견됨

– 진동면 하포리 유적에서 고인돌이 발견되고 자기조각과 뼈 항아리가 함께 발견됨
– 문산읍 장산리 · 운천리 · 문산리 · 사목리, 파주읍 백석리, 탄현면 금승리 · 능산리 · 영태리, 두문동 · 아동동 · 금촌동, 조리읍 뇌조리 · 봉일천리, 교하읍 상지석리 · 목동리 등지에서 수십 기의 고인돌이 발견되고, 민무늬토기 · 간돌칼 · 반달돌칼 · 돌도끼 등이 출토됨

삼국시대

1년(백제 온조왕 19) 10월	말갈이 적성 칠중하七重河를 공격하자 백제가 이를 격퇴하고, 말갈추장 소모素牟를 사로잡다
216년(백제 구수왕 3) 8월	말갈이 적현성赤峴城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퇴각함. 퇴각하는 말갈을 사도성沙道城 밖에서 격파하다
371년(백제 근초고왕 26) 10월	파주坡州는 대방군에서 백제에 소속되다
387년(고구려 고국양왕 4)	고구려가 말갈로 하여금 관미령關彌嶺을 공격하게 하다
391년(백제 진사왕 7)	고구려의 공격으로 관미성關彌城(오두성烏頭城)이 함락되다
392년(백제 아신왕 1) 7월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이 군사 4만을 거느리고 백제 북쪽 변경을 공격하여 관미성 · 석현성石峴城 등 19성이 함락되다
475년(고구려 장수왕 63)	파주는 고구려에 소속되어 처음으로 술이홀述爾忽현이라 칭하다
551년(신라 진흥왕 12)	신라新羅가 한강유역 500리 땅을 점유, 파주는 신라에 소속되다
603년(신라 진평왕 25)	고구려가 말갈족과 함께 칠중성七重城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다
629년(신라 진평왕 51)	신라가 고구려의 낭비성娘臂城을 공격하여 점령하다
636년(신라 선덕여왕 5)	고구려가 칠중성七重城을 공격하다
638년(신라 선덕여왕 7) 3월	칠중성 남쪽에서 큰 돌이 스스로 35보를 옮겨가는 일이 발생하다
638년(신라 선덕여왕 7) 10월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해 오자 주민들은 산곡山谷으로 피신하다. 선덕여왕은 대장군 알천閼川을 파견하여 주민들을 안집시키고, 칠중성 바깥에서 고구려 군대와 전투를 벌여 크게 승리하다
646년(신라 선덕여왕 15)	파주지역의 5개 현縣이 한산주漢山州에 소속되다
660년(신라 태종무열왕 7)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여 적성積城 현감 필부匹夫가 전사하다

662년(신라 문무왕 2)	김유신 등이 평양 인근에 고립되어 있던 당군唐軍을 구조하기 위해 칠중하七重河를 건너가다
672년(신라 문무왕 12)	당나라 장군 고간高侃이 적성을 침범하다
673년(신라 문무왕 13)	신라가 장단 해전海戰에서 당唐과 거란 · 말갈의 연합군을 격파하다
674년(신라 문무왕 14)	당唐 · 거란 · 말갈이 합심하여 칠중성을 공격하였으나, 전사하면서까지 성을 지킨 유동儒冬의 용맹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
675년(신라 문무왕 15) 2월	신라가 칠중성에서 당唐 유인궤에게 패배하다. 당나라가 거란 · 말갈과 더불어 신라 칠중성을 침입, 유동이 전사하다
675년(신라 문무왕 15) 9월	당나라군이 아달성阿達城 · 칠중성七重城 · 석현성石峴城을 공격하다 신라군이 18회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6,000여 명의 당나라군을 죽이다

통일신라시대

685년(신문왕 5)	9주州 5소경小京 제도 완비, 파해평사현을 파평현坡平縣으로, 술이홀현을 봉성현峰城縣으로, 낭비성을 칠중성七重城으로, 천정구현을 교하군交河郡으로, 장천성현을 장단군長湍郡으로 그 명칭을 바꿈. 파평현과 칠중현이 내소군來蘇郡에, 봉성현이 교하군交河郡에, 장단현은 우봉군牛峰郡에 소속되다
757년(경덕왕 16) 12월	신라 주州 · 군郡 · 현縣의 명칭을 변경하다. 파주는 봉성현으로 개칭하다
898년(효공왕 2)	궁예가 한주漢州 소속의 양주 등 30여 성을 탈취하다
901년(효공왕 5)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움, 파주는 후고구려에 소속되다

고려시대

940년(태조 23)	파주지역이 속한 주州는 광주廣州였는데, 그 관하의 중성현이 적성현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995년(성종 14)	개주開州가 개성부開城府로 바뀌어 적현赤縣과 기현畿縣을 관할하게 되고 이때 장단 · 적성 · 파평 등은 기현畿縣에 속하게 되다
1001년(목종 4)	왕이 세제稅制 등의 개편에 공이 많은 문하시중 한언공의 본관인 장단현을 단주湍州로 승격시키다
1009년(목종 12)	강조가 적성에서 목종을 시해하다
1010년(현종 1)	거란의 침입으로 현종이 단조역丹棗驛까지 피신하다
1018년(현종 9)	파주지역이 장단현령의 관할에 들어가다. 승격되었던 단주가 다시 장단현으로 강등되다
1062년(문종 16)	파주지역이 개성부에 속하다
1106년(예종 1)	파평현, 적성현 등에 감무監務를 두다
1170년(의종 24)	무신들이 장단의 보현원普賢院에서 반란을 일으키다
1171년(명종 1)	봉성현에 감무를 두다
1174년(명종 4)	장단지역에 궁궐조성관을 두어 새 궁궐을 지을 준비를 하다
1174년(명종 4)	봉성현을 서원현으로 개칭하고 감무를 파견하다
1177년(명종 7)	봉성현峯城縣에 있는 염신약廉信若의 구업전口業田에서 수확을 둘러싸고 염신약의 노奴와 정중부鄭仲夫의 가노家奴가 서로 싸우다
1289년(충렬왕 15)	큰 비가 내려서 마전현, 적성현과 흥의역에서 많은 민가가 물에 잠기고 떠내려 가다
1361년(공민왕 10)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하여 분수원, 용상사로 피신하다
1366년(공민왕 15) 5월	왜구가 교하交河의 심악현을 침범하다
1371년(공민왕 20) 3월	공민왕이 임진강 두지리에서 기락을 즐기다
1377년(우왕 3)	이성계가 원수가 되어 지리산의 왜구 토벌을 위하여 두지리에서 출발하다
1390년(공양왕 2)	파주지역이 양광도에 속하다

조선시대

1393년(태조 2)	11월 6일	봉성현을 서원군으로 승격시키다
1394년(태조 3)	6월 23일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고 장단, 파평, 교하 등지를 좌도에 소속시키다
1397년(태조 6)	8월 9일	파주지역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다
1398년(태조 7)		파평현을 원평군으로 개칭하다
1412년(태종 12)	4월 20일	파주지역에 비가 내리고 우레와 번개가 치다
1413년(태종 13)	2월 5일	임금이 임진강 나루에서 거북선과 왜선으로 꾸민 배가 해전 연습하는 것을 보다
1414년(태종 14)		교하현을 원평군에 병합시키다
1415년(태종 15)		원평군이 도호부로 승격되다
	9월 24일	태조가 교하에 행차하다
	9월 25일	파주지역에 번개가 치고 우박과 유성이 떨어지다
1416년(태종 16)	5월 7일	진휼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 교하의 노인들이 대궐로 가다
	11월 9일	이방간과 내통한 청원군 심종을 교하에 안치하다
1417년(태종 17)	5월 26일	전라도 조운선이 교하의 오도성 아래에서 침몰되다
1418년(태종 18)		교하현이 원평군으로 격하, 주민 진정으로 도호부로 재승격되다
1418년(태종 18)	5월 11일	황희가 교하로 돌아가다
	5월 28일	황희를 남원부에 안치하다
	10월 19일	임금의 어가가 임진강에 이르렀는데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리다
1425년(세종 7)	2월 2일	교하의 서원이 이름을 숨기고 교하수령을 고발하다
1426년(세종 8)	1월 17일	박도朴禱가 교하현감에 부임하다
1431년(세종 13)	4월 21일	교하현감이 황희에게 땅을 주다
	5월 22일	교하현감이 명화적 금음마를 의금부에 가두다
	10월 28일	예조에서 교하의 효자 · 절부에 대한 포상을 주청하다
	12월 19일	허눌許訥이 교하현감에 부임하다
1435년(세종 17)	10월 1일	이평李枰이 교하현감에 부임하다
	12월 17일	교하현을 원평에 소속시키다

1441년(세종 23)	7월 17일	허완許琓이 교하현감에 부임하다
	8월 20일	황보신의 속공 과전을 황희의 과전으로 바꾸어주다
1446년(세종 28)	4월 19일	교하현감 이연손이 환곡미를 착복하다
1451년(문종 1)	4월 1일	악병이 성행하는 교하에 의원과 약재를 보내다
	9월 15일	원평 · 교하 등지의 전염병 치료를 위해 수륙제를 지내다
	9월 20일	교하 등지의 악병이 전염된 곳에서 제를 올리다
1452년(단종 즉위년)	6월 28일	원평 · 교하에 전염병이 퍼지다
1454년(단종 2)	3월 9일	교하현감 이계기를 3등等 높여 가자加資하다
1457년(세조 3)	10월 20일	교하가 양주진에 속하다
1459년(세조 5)	10월 2일	자성왕비의 고향인 원평부를 승격, 파주목으로 삼다
1460년(세조 6)	11월 2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1462년(세조 8)	2월 21일	장순왕세자빈을 파주 보시동에 장사지내고 공릉이라 하다
1471년(성종 2)	6월 27일	박근이 현감의 근무성적이 나빠 파출되자 읍인들이 반대하다
1474년(성종 5)	4월 14일	교하의 관노로 정속된 박석산朴石山을 방면하다
	6월 7일	공혜왕후를 파주에 장사지내고 순릉이라 하다
1475년(성종 6)	2월 14일	파주에 충군된 최산장崔山長 등을 방면하다
1476년(성종 7)	1월 21일	파주에 정역된 노계산盧戒山 등을 방면하다
	11월 24일	파주에 정속된 자화동者火同 등을 놓아주다
1477년(성종 8)	4월 17일	송선충宋善忠이 교하현감에 부임하다
1478년(성종 9)	9월 24일	두 번 도둑질한 파주 죄인 김효동을 교수형에 처하다
1479년(성종 10)	10월 6일	임금이 파주에 거동하였는데 날씨가 나빠 군대가 길을 잃고 대오를 이탈하다
1480년(성종 11)	1월 24일	교하의 노비가 양인을 살해하다
1481년(성종 12)	1월 16일	역적에 연좌된 이계량의 가솔들을 교하에 안치하다
1486년(성종 17)	1월 20일	파주목사 이윤의 불법에 대해 국문하다
1488년(성종 19)	6월 29일	정문창鄭文昌이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1499년(연산군 5)	8월 19일	우박 피해를 입은 파주 등지에 강무 중단을 청하다 파주지역에 밤톨만 한 우박으로 벼 등이 손상되다
1500년(연산군 6)	5월 5일	파주지역에 우박이 내리다
1503년(연산군 9)	8월 23일	파주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다

1504년(연산군 10)	8월 29일	금표 안에 들어간 고양의 군곡을 파주로 옮기다
1505년(연산군 11)	5월 29일	파주의 금표 밖으로 남은 땅과 백성을 이웃 고을에 붙이다
1509년(중종 4)	4월 12일	전 파주목사 여윤철이 죽자 파주백성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영구 앞에서 제사지내다
1509년(중종 4)	10월 5일	임금이 파주 등지의 도적을 잡으라고 명하다
1510년(중종 5)	8월 14일	김양균이 나이가 많아 파주목사로 부임하지 못하다
1515년(중종 10)	9월 21일	파주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다
	10월 1일	파주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다
	10월11일	파주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다
1521년(중종 16)	3월 15일	파주지역에 우박이 내리다
	8월 4일	파주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다
1524년(중종 19)	5월 13일	파주지역이 충해를 입다
1525년(중종 20)	12월 10일	입거한 사람이 도망쳐 파주목사 양계벽을 파출하다
1526년(중종 21)	8월 27일	파주지역에 우박이 내리다
1529년(중종 24)	5월 17일	파주지역의 밀 · 보리 · 조밭에 해충이 발생하다
1530년(중종 25)	4월 24일	파주목사 채세걸에게 향표리 한 벌을 하사하다
1534년(중종 29)	8월 1일	파주 지나는 길에 있는 윤은로의 묘에 치제하도록 전교하다
1535년(중종 30)	9월 19일	임금이 파주에 이르러 노인과 효자에게 음식을 내리다
1542년(중종 37)	5월 6일	경창의 곡식으로 파주 백성을 구휼하다
	5월 9일	파주사람 김섬金銛이 불법으로 수행원을 두다
	7월 21일	파주지역이 우박과 큰 바람으로 곡식 피해를 입다
1543년(중종 38)	11월 23일	조의량과 김욱이 파주 장부포의 일을 쟁송하다가 양쪽 모두 부당하여 속공되다
1544년(중종 39)	7월 6일	동궁의 나인 사랑금을 파주에 유배보내다
1546년(명종 1)	5월 23일	파주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다
1547년(명종 2)	6월 7일	치민과 구황을 잘못한 파주목사 안위를 파직하다
	6월 20일	이지가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7월 5일	유숙이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1548년(명종 3)	2월 4일	백성들이 파주목사가 돌아가는데 행장을 빼앗다
	3월 28일	파주지역에 우박이 내리다

1555년(명종 10)	11월 10일	파주지역에 비가 오고 우박과 천둥이 치다
1556년(명종 11)	8월 12일	파주지역에 우박이 내리다
	9월 13일	파주지역에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리다
1565년(명종 20)	4월 19일	파주지역에 지진이 일어나 지붕의 기와가 흔들리다
1567년(명종 22)	4월 12일	비가 오지 않아 파주지역의 우물이 바짝 마르다
1567년(선조 즉위년)	10월 15일	파주에 유배된 윤강원을 풀어주다
1568년(선조 1)	7월 1일	백인걸이 병을 이유로 파주로 귀향하다
1571년(선조 4)	7월 1일	백인걸이 벼슬을 그만두고 파주로 돌아가다
1574년(선조 7)	4월 1일	이이가 6개월간 벼슬하고 파주로 낙향하다
1575년(선조 8)	10월 16일	임금이 파주로 돌아간 백인걸에게 식물食物을 내리라고 명하다
	10월 25일	이이가 파주에서 학문과 성혼의 등용에 관해 아뢰다
1578년(선조 11)	2월 29일	파주에 사는 백인걸에게 식물을 내려주다
	4월 15일	백인걸이 식료를 내려준 일을 감사하고 조광조의 문묘 종사를 청하다
	5월 28일	이이가 파주에서 시폐 상소를 올리다
1579년(선조 12)	7월 1일	백인걸의 상소를 이이가 윤문하다
1583년(선조 16)	6월 1일	이이가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7월 29일	파주지역에 눈·귀가 넷, 코와 입이 둘, 손과 발이 넷, 성기가 둘인 아이가 태어나다
	9월 5일	이이가 파주에서 올린 상소에 대해 임금이 답하다
1584년(선조 17)	3월 1일	선조가 이이의 장례와 유가족들을 챙기다
1587년(선조 20)	9월 1일	파주에 머물렀던 전 청양군 심의겸이 졸하다
	10월 27일	황정식이 파주목사에서 의차되다
1587년(선조 20)	10일 29일	파주목사 노준이 파직되다
1589년(선조 22)	10월 1일	정여립의 문하에 드나들었다는 죄로 성혼이 해직되다
	11월 1일	성혼이 소명을 두 번이나 사양하다
1592년(선조 25)	4월 1일	날씨가 나빠 임금의 행차가 파주에 늦게 도착하자 준비한 수라를 하인들이 먹는 일이 발생하다
	5월 1일	이산보와 이항복을 임진에 나아가 주둔하게 하였다
	5월 17일	임진강 방어선이 붕괴되고 조방장 유극량이 전사하다

1593년(선조 26)	1월 11일	홍가신이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1월 1일	이여송이 파주에 진군하여 벽제역에서 싸우다가 불리해지자 개성으로 후퇴하다
	1월 30일	파주에 주둔해 있던 적이 경성으로 떠나다
	2월 1일	파주 대흥산성에서 싸우지도 않고 왜군이 물러가다
	2월 6일	명군이 벽제에서 패하여 파주로 퇴진하다
	2월 10일	명군이 혜음령에서 패하여 동파로 퇴진하다
	2월 25일	권율이 파주로 진을 옮기다
	3월 4일	황정조가 굶주린 파주백성들을 먹이다
	6월 5일	파주가 왜노에게 침탈당하다
1594년(선조 27)	12월 22일	홍치경이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1600년(선조 33)	10월 5일	희릉의 후보지로 교하현이 결정되다
	10월 17일	교하현 저현을 보토하는데 9,000명이 소요되다
1601년(선조 34)	6월 16일	황서가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12월 29일	권순이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1602년(선조 35)	2월 12일	공정성의 시비가 많은 파주목사 이성록을 파직하다
	2월 13일	유공신이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2월 15일	사헌부가 전란의 소식을 듣고도 나오지 않은 성혼의 처벌을 청하다
1603년(선조 36)	10월 17일	폐기된 파주산성을 되살리다
	10월 23일	목사를 교체하여 파주의 군기를 강화하다
1604년(선조 37)	6월 19일	허상이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9월 26일	김공휘가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1605년(선조 38)	7월 24일	파주지역이 풍수해를 입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4월 8일	관학 유생 이목 등이 성혼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상소하다
	4월 10일	이목이 성혼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재상소하다
	11월 22일	광주목사 신응구가 성혼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상소하다
	11월 25일	전서부 참봉 배홍중이 성혼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상소하다
	12월 20일	최기남이 성혼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상소하다
1611년(광해군 3)	3월 29일	부사용 한교가 성혼의 억울함을 상소하다

1612년(광해군 4)	11월 15일	이의신의 교하 천도에 대해 예조에서 회계하다
1615년(광해군 7)	7월 3일	전 파주목사 한백겸이 졸하다
1618년(광해군 10)	6월 14일	파주의 상번 군사에게 번을 서는 일을 면제하다
	6월 16일	경기 · 강원 군사에게 파주산성을 지키게 하다
1620년(광해군 12)	4월 25일	사헌부에서 파주산성의 군량을 훔친 김희를 사판에서 깎아내라고 보고하다
1623년(인조 1)	3월 25일	성혼이 관작을 회복하다
	11월 10일	파주산성의 수비 상태를 점검하다
1624년(인조 2)	2월 12일	적의 도강을 방비하지 못한 목사의 파직을 청하다
	2월 14일	임진의 하탄을 방수하다가 달아난 파주목사 박효립을 군율에 따라 처리하다
1625년(인조 3)	10월 4일	선혜청의 부족한 쌀을 파주 등지에서 충당하다
1627년(인조 5)	1월 17일	별장 한 사람을 정해 파주산성을 수비하게 하다
	7월 14일	파주지역에 비바람이 불어 곡식이 모두 쓰러지다
	7월 17일	파주 장관 이순온 · 안신도 등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도망칠 것을 맨 먼저 주창하다
	11월 4일	병자호란 때 도망간 안신도를 잡았으나 단단히 가두지 않아 온 집안이 도망하다
1628년(인조 6)	1월 7일	역변 소식을 듣고 파주 등지의 군병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다
	9월 29일	파주산성의 병력을 줄이다
	10월 12일	파주산성에 우물이 부족하다
1632년(인조 10)	8월 3일	정지경이 파주목사에서 파직되다
	11월 2일	박노가 파주목사에서 판결사로 바뀌다
1633년(인조 11)	12월 18일	심기성이 파주목사로 감죄되다
1635년(인조 13)	5월 13일	유생 송시형이 성혼을 문묘종사하라고 상소하다
1635년(인조 13)	6월 19일	파주유생 유응태가 성혼을 문묘종사하라고 상소하다
1636년(인조 14)	3월 27일	장단의 한 면을 파주에 소속시키다
1644년(인조 22)	1월 18일	세자가 장릉을 참배하다
1647년(인조 25)	11월 10일	파주의 승려 3명이 명나라의 국세회복을 빌다가 사형을 당하다
	12월 21일	형벌을 남용한 파주목사 윤형각을 파직하다

1649년(효종 즉위년)	11월 16일	송준길이 궁실의 농장으로 파주백성들이 시달린다고 상소하다
1651년(효종 2)	7월 10일	장릉에 은 광맥이 있다고 파주에 사는 이원의가 보고하다
1653년(효종 4)	2월 20일	파주 등에 전염병이 돌자 제를 올리고 약물을 보내다
1657년(효종 8)	11월 12일	임금이 송준길에게 성혼에 관하여 묻다
1659년(현종 즉위년)	12월 1일	관학유생 윤항 등이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1660년(현종 1)	2월 29일	국상 중에 술과 고기를 먹은 파주목사를 파직하다
1663년(현종 4)	6월 20일	이민적 등이 이이와 성혼을 신원해 달라고 청하다
1664년(현종 5)	1월 12일	차임 규정에 어긋나게 제수한 파주목사를 보고하다
	2월 12일	파주의 노비 충헌이 양반 처녀를 납치하여 며느리로 삼으려 하다
	6월 29일	전 파주목사가 관용 물품을 함부로 쓰다
1665년(현종 6)	2월 2일	파주지역에 도적이 날뛰다
	4월 23일	파주지역에 밤톨만 한 우박이 내려 보리 · 밀 · 목화가 손상을 입다
1666년(현종 7)	2월 13일	민폐를 끼친 파주목사 유정을 파직하다
1667년(현종 8)	11월 8일	청렴치 못한 파주목사 박유동을 파직하다
1669년(현종 10)	5월 11일	파주지역에 비둘기 알만 한 크기의 우박이 내리다
1675년(숙종 1)	5월 25일	파주산성의 지도를 그려 올리다
1680년(숙종 6)	9월 21일	대신들이 파주에 와 있는 청 사신을 청대하다
1682년(숙종 8)	5월 20일	파주로 예관을 보내 성혼의 제사를 지내다
	8월 20일	파주 등지에 방출했던 군량미를 강화도로 수송하다
1686년(숙종 12)	12월 7일	홍산의 유학 방숙제가 장릉을 옮겨야 한다는 뜻을 상소하다
	11월 1일	경기도어사가 파주목사 이보의 선정을 보고하다
1687년(숙종 13)	10월 9일	장릉에 행행하다
1693년(숙종 19)	8월 28일	임금이 파주 행궁에 머물 때 행사 진행을 잘못한 죄로 목사가 곤장을 맞다
1694년(숙종 20)	10월 19일	공릉의 행행을 치른 파주백성의 적곡을 감해주다
	11월 25일	좌의정 박세채가 파주에 가서 나오지 않다
1695년(숙종 21)	2월 5일	좌의정 박세채가 졸하다
	7월 28일	파주에 밤마다 서리가 내리다

1697년(숙종 23)	7월 12일	파주에 살고 있는 고 장준일의 첩 유씨가 적자인 장위와 서로 소송하다
1701년(숙종 27)	7월 14일	파주지역에 병충해가 생겨 곡식이 피해를 입다
	12월 20일	능역에 사역한 파주의 대동미를 탕감하다
1708년(숙종 34)	5월 26일	파주의 유학 이중영 등이 채명윤과 임수간이 선현을 모욕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다
1712년(숙종 38)	11월 10일	치적도 없이 승진한 파주목사에 대해 논하다
1713년(숙종 39)	9월 2일	북한산성의 환곡을 파주 · 교하 등에 나누어 주다
1725년(영조 1)	4월 25일	파주 유생 이의천이 송시열을 비난하다
	5월 11일	임금이 파주목사 정내주의 치적을 칭찬하여 상 주다
1728년(영조 4)	12월 19일	파주의 환곡을 탕감하다
	3월 19일	임금이 파주목사에게 임진별장도 함께 맡으라고 하다
1729년(영조 5)	1월 26일	파주에 효장세자를 장사지내다
	7월 3일	땔나무를 파주와 금천에서 교대로 바치게 하다
1731년(영조 7)	8월 17일	어가가 장릉에 이르다
	3월 16일	장릉에 뱀이 나타나다
	5월 17일	영릉 때문에 고생한 교하 백성들에게 돈을 내리다
	8월 4일	새 능을 정한 교하현을 군으로 승격하다
	9월 19일	산릉 조성에 애쓴 파주목사 이굉에게 상을 내리다
	9월 27일	왕이 파주행궁에서 유숙하고 제사를 행하다
	12월 9일	늙어서 송사를 못 보는 파주목사 홍응몽을 파직하다
1734년(영조 10)	11월 13일	파주지역에 화적과 호환이 극성을 부리다
1740년(영조 16)	8월 1일	능행 준비를 잘못한 파주목사 이사윤을 감처하다
	8월 29일	후릉에 나아가기 위해 임금이 파주에 이르다
	8월 30일	임금이 파주에서 출발하여 도중에 성혼의 묘를 보다
	9월 5일	파주의 환곡과 모곡을 감면하다
	9월 26일	성수침과 성수종을 파산서원에 배향하다
1746년(영조 22)	12월 27일	파주에 묻힌 황보인의 관작을 추복하다
1749년(영조 25)	2월 11일	영조가 화평옹주의 묘를 둘러보고 소령묘에 이르다
1752년(영조 28)	1월 21일	효순왕후가 37세로 세상을 떠나다

1754년(영조 30)	2월 1일	파주목사는 포상 받고 교하군수는 승직되다
	11월 28일	파주 관내인 장산에 별장을 두다
1755년(영조 31)	8월 14일	병조판서 홍봉한이 방어를 위해 파주목사를 방어사로 승격시키라고 보고하다
1756년(영조 32)	10월 15일	사헌부에서 심한 형벌을 가한 파주목사 이언소의 파직을 청하다
1759년(영조 35)	1월 6일	김이형이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1760년(영조 36)	8월 15일	소령원 수봉관을 파면하다
	10월 1일	임금이 소령원의 사초를 다시 입히다
1761년(영조 37)	4월 16일	파주시장이 혁파되다
1763년(영조 39)	2월 29일	파주 열부 문씨를 정려하다
1764년(영조 40)	5월 14일	파주의 1개 면을 군대로 편성하다
	5월 20일	장단의 임진강 상류 절벽에 돈대를 설치하다
	10월 13일	홍봉한이 파주 등지의 수비책을 올리다
	10월 19일	원중회가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11월 9일	구 장릉의 토지를 개간하게 하다
1765년(영조 41)	2월 23일	파주의 심씨와 윤씨네가 산송을 벌이다
1766년(영조 42)	4월 29일	파주 방어사를 의정부에서 추천하게 하다
1767년(영조 43)	7월 17일	임금이 직접 소령원의 향을 전하다
1769년(영조 45)	9월 22일	파주목사 이윤덕이 파직되다
1770년(영조 46)	1월 12일	파주목사 장지풍이 파직되다
	9월 2일	임금이 소령원에 제사를 지내고 능원관을 승진시키다
1774년(영조 50)	1월 22일	영남의 상민이 소령원을 능으로 봉하기를 청하다
	3월 27일	사헌부에서 파주목사 권식 등을 죄줄 것을 청하다
	8월 12일	유생 남궁옥 등이 상소하여 소령원의 추숭을 청하다
1775년(영조 51)	2월 11일	홍화보가 파주목사에서 승지로 부임하다
1778년(정조 2)	1월 24일	남기명을 적성현감으로 삼다
	7월 20일	윤면동이 서울 방어를 위해 파주고을을 혜음령 위로 옮기라고 상소하다
	8월 20일	정조가 소령원을 참배하다
	11월 2일	두산이 소령원의 요를 훔쳐가다

1780년(정조 4)	9월 3일	임금이 영릉에 친히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파주에 머무르다
	9월 4일	파주부의 환곡 이자를 특별 탕감하다
1781년(정조 5)	3월 7일	공물을 횡령한 전 파주목사 이장한을 추문하다
1783년(정조 7)	1월 7일	파주에 있는 정치달의 처를 멀리 귀양 보내라고 조시위 등이 아뢰다
	5월 23일	진휼청을 설치하여 파주 등지를 진휼하다
	9월 22일	임금이 파주의 대동미를 전미로 대신하게 하다
1784년(정조 8)	4월 21일	진휼에 공이 큰 파주목사 이윤빈에게 말을 내리다
	8월 16일	임금이 영릉에 제사 지내러 가다
	8월 19일	파주의 묵은 환곡 등을 정지시키고, 교하의 묵은 환곡도 기일을 물려주도록 하다
	10월 24일	파주에 안치된 정치달의 처를 엄격히 경비하지 못하여 무뢰배들과 교통하다
		파주의 죄인 이규명, 정달원, 이동빈, 이지형 등을 신문하여 벌주다
1785년(정조 9)	2월 25일	파주 유학 조중길 등이 상소하여 성수종을 파산서원에 다시 배향할 것을 청하였다
	7월 26일	유학 조익이 파주를 서울의 4보 중 하나로 삼으라고 상소하다
	11월 6일	파주목사 오재휘를 승진시키다
1786년(정조 10)	11월 11일	파주의 열녀에게 정문을 하사하다
	2월 23일	파주에 안치된 정치달 처를 문병하게 하였다
	4월 26일	비변사에서 파주 삼릉 능군의 폐단을 아뢰다
1787년(정조 11)	5월 23일	파주목사에 홍인묵을 등용하다
1789년(정조 13)	2월 13일	장릉에서 작헌례를 행하다
		파주 행전에서 장관들에게 활과 총 쏘기를 시험하고 시상하다
1789년(정조 13)	2월 14일	파주에 군량미 지원과 함께 묵은 환곡을 탕감하다
1790년(정조 14)	2월 13일	파주의 유생 정재간이 백인걸 · 이이 · 성혼 등의 사당 문제를 상소하다
	9월 2일	경기관찰사 김사목이 가마를 가지고 파주에 가 정치달의 처를

		싣고 서울로 올라가다
	9월 4일	이의봉이 파주목을 이탈한 정치달의 처를 처벌하라고 상소를 올리다
	9월 7일	파주목사의 파직을 청한 경기관찰사를 파직하다
	9월 10일	박종악이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9월 29일	회시에 응시한 파주 서민을 특별히 용서해 주다
	12월 24일	임진나룻배 관리를 금위영에서 맡아하게 하다
1791년(정조 15)	9월 2일	이민보가 파주목사에 부임하다
1792년(정조 16)	2월 24일	임금이 영릉으로 가는 길에 파주의 민폐를 살피다
	12월 15일	파주의 우영을 총융청의 중영으로 개칭하다
1793년(정조 17)	1월 12일	장용청의 후초가 파주에 설치되다
	9월 18일	직무를 기피한 파주목사 이백연을 석방하다
1794년(정조 18)	3월 28일	파주 아전이 왕명을 받드는 관원에게 행패를 부리다
1795년(정조 19)	3월 11일	속량과 귀양자의 소재 불명으로 파주목사 홍용진을 거제부에 충군하다
	3월 11일	왕명을 받은 일행을 교란한 파주목사를 충군시키다
	3월 14일	의금부가 정치달의 처를 파주목 배소로 돌려보낼 것을 아뢰다
	3월 28일	정치달의 처를 다시 파주목의 배소로 보내다
	8월 5일	파주목사 서영보가 유임되다
1797년(정조 21)	8월 8일	총융청의 파주 능행 담당을 면제하다
1800년(순조 즉위년)	9월 21일	파주목사 김점운이 감죄되다
1802년(순조 2)	2월 7일	파주의 초군을 수어영으로 이속시키다
	9월 12일	파주의 둔토를 군역청에 소속시키다
1805년(순조 5)	12월 16일	파주목사 심공엽이 감죄되다
1806년(순조 6)	7월 13일	임진왜란 때 전사한 전 파주군수를 표절사에 제향하다
1808년(순조 8)	8월 9일	임금이 영릉 · 순릉 · 공릉에 제사 지내다
	12월 17일	파주목사 이인식이 감죄되다
1812년(순조 12)	3월 13일	예조에서 파주의 충 · 효 · 열의 문서를 보고하다
1842년(헌종 8)	3월 10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1847년(헌종 13)	2월 21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2월 22일	왕이 장릉을 참배하다
	2월 22일	임금이 장릉에 들러 참배하고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1850년(철종 1)	3월 10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1854년(철종 5)	3월 10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1855년(철종 6)	8월 4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1863년(철종 14)	7월 7일	태풍에 무너진 파주목의 가호에 휼전을 베풀었다
1866년(고종 3)	10월 15일	이양선 출몰에 대비해 파주에도 진을 치다
1867년(고종 4)	1월 25일	파주목의 전세를 대납하도록 하다
1872년(고종 9)	3월 1일	임금이 제릉과 후릉에 행차한 후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3월 7일	임금이 파주목 행궁에서 유숙하다
1876년(고종 13)	3월 11일	동학농민운동 가담자 박재식朴在植이 파주에서 효수되다
	12월 2일	파주읍에서 명화적이 상납전을 약탈하다
1882년(고종 19)	9월 10일	파주의 전결 납부기한을 연기하다
1885년(고종 22)	12월31일	교하농상사交河農桑社가 설립되다
1891년(고종 28)	8월	파주에 진을 설치하다
	8월 30일	혜음령에 도적의 출몰이 잦다
1892년(고종 29)	3월 18일	경기 파주, 고양 등지에 도둑이 횡행하여 체포를 지시하다
1894년(고종 31)	7월 5일	교하에 주둔한 일본군이 촌락을 습격, 약탈행위를 자행하다
1895년(고종 32)	1월 14일	경기의 교하를 파주에 속하게 하다
1895년(고종 32)		파주목이 파주군으로 되다

대한제국

1907년	9월	파주 등에서 의병이 봉기하다
	9월 9일	의병 300여 명, 적성을 습격해 일본인을 살해하다
	10월	의병 신경삼 · 신의삼이 교하군 지석면 박춘옥의 투서로 체포되다
	12월	적성 등에서 의병이 봉기하다

1908년	1월 1일	20여 명이 교하군에서 재물을 탈취하다
	1월 15일	의병 80여 명이 적성 남방에서 교전하다
	1월 24일	의병 약 50명이 관기(적성 남방 10리)에서 일본군 적성수비대와 교전하다
	2월 1일	의병 20여 명이 교하군 갈현에서 토벌대와 교전하다
	2월 27일	의병 약 60명이 하원리 서방에서 적성수비대와 교전하다
	2월	적성 등지에서 의병이 봉기하다
	3월 9일	의병 100여 명이 둔방리에서 일본헌병순사와 교전하다
	3월 9일	의병 80여 명이 천현면 둔방리에서 토벌대와 교전하다
	3월 18일	허위가 이끄는 의병부대 30여 명이 파주에서 일본군 적성수비대를 공격하다
	3월 22일	의병 50여 명이 적성에서 일본군 적성수비대를 공격하다
	4월 17일	의병들이 광탄면 구룡리에 집결하다
	4월 18일	의병 40여 명이 죽원리를 습격, 민가에 방화하다
	4월 23일	의병 18명이 파주군 동곡에서 유숙중인 일본군을 기습하다
	4월 28일	북부수비관구사령관이 한국내부경부국장에게 삭녕 및 적성수비대의 의병 토벌 계획을 통보하다
	5월 14일	경시청에서 파주 · 장단지역의 의병토벌을 위해 순사를 파견하다
	6월 10일	의병 20명이 갈현리 부근에서 교하분견소 일본병과 교전하다
	6월 15일	의병 20여 명이 교하군 갈현리 부근에서 교하파견소원과 교전하다
	6월 16일	황재호 인솔 의병 약 30명이 산내리에서 일본군 적성수비대와 교전하다
	7월 4일	의병장 이헌찬 등 80명이 소학리에서 일본군 적성수비대와 교전하다
	7월 16일	의병 40여 명이 교하 북방 임진강에서 문산분견소원과 교전하여 의병 8명이 전사하다
	8월 14일	군용철도조사국장 박의병이 파주로 출장나와 철도부지 1만 2,000여 환을 분급하다
	8월 20일	의병 40여 명이 갈현리를 습격하다
	9월 19일	의병 이인순 등 30여 명이 적성군 식현리를 습격하다
	10월 2일	윤인순 의병대 30여 명이 파평면 천천리를 습격하다
	10월 3일	의병 20여 명이 파평면 장포리를 습격하여 일진회원 3명을 사살하다
	10월 17일	의병 10명이 파주군내에서 파주 주재 순사와 교전하다
	11월 1일	의병들이 적성군을 공격하여 일본군수비대 및 경찰과 교전하다

	11월 14일	윤인순 의병부대 30여 명이 천현면 오리동에서 문산분견소 헌병과 교전하여 의병 3명이 전사하다
	12월 4일	의병 30여 명이 적성헌병분견소원 5명과 교전하여 의병 3명이 전사하다
	12월 16일	의병 30여 명이 경기 포천군 내에서 적성헌병분견대와 교전하여 의병 5명이 전사하다
1909년	1월 9일	의병 100여 명이 파주 · 문산 주재소원 7명을 공격하다
	1월 9일	이은찬 · 윤인순 의병부대 100여 명이 천현면에서 일본군 파주분견대를 공격하다
	1월 12일	의병 36명이 문산포에서 헌병분견대와 교전하다
	1월 23일	헌병보조원 김성배, 염재현이 조리면에서 중국 행상인 5명의 장전을 압수하다
	1월 26일	이은찬 의병부대가 적성군 남면에서 적성헌병대와 교전하다
	3월 2일	의병 20여 명이 적성에서 일본군 헌병수비대와 교전하다
	3월 9일	의병 80여 명이 적성에서 일본군 적성헌병분견대 10명을 공격하다
	3월 12일	의병 10여 명이 적성 화산리에서 일본군 적성헌병분견대와 교전하다. 윤인순 의병부대원 12명이 천현면에서 일본군 적성수비대의 기습을 받아 1명이 전사하다
	3월 13일	의병 고순명이 파주군에서 일본군정찰대에 체포되다
	3월 16일	윤인순 의병대 16명이 적성군 문암리에서 삭녕수비대와 충돌하여 교전하다
	3월 20일	의병 11명이 적성 파평산에서 일본군 적성헌병분견대와 교전하다
	3월 20일	의병들이 파평산 북단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다
	4월 5일	의병 약 40명이 파평산에서 문산헌병분견소원과 충돌하여 의병 5명이 전사하다
	4월 28일	의병 8명이 적성 동면 객현리 이장 임병화의 집을 내습하다
	6월 28일	의병장 이한경 등 13명이 파주군 백석면 오라리에 가서 이민 · 이원하 등 4명에게 군용금 400원을 요구하다
	6월 29일	의병 약 15명이 봉일천시장에서 교하헌병대 8명과 2시간 동안 교전하다
	6월 29일	의병 15명이 경기도 교하 동방에서 헌병분견대와 교전하다
	7월 2일	의병장 정용대 외 12명이 천현면 오릉동에 나타나 전 주사 김의순을 납치하다

	7월 27일	의병 약 20명이 교하군 아동면 등원리 소학교를 내습하다
	8월	이근칠 의병부대, 파주 · 적성에서 기병하다
	8월	정용대 의병부대, 양주 · 적성 · 파주 · 통진 등지에서 기병하다
	8월	이한경 의병부대, 파주 · 풍덕 · 교하에서 기병하다
	8월 22일	의병 8명이 광탄면 양지리 박여홍을 납치하다. 이한경 의병부대 8명이 광탄면 양지리를 내습하다
	9월 9일	의병장 정용대가 적성군 남면 덕도리에서 적성헌병에게 체포되다. 의병 6명이 와석면 교하에서 교하헌병분견대와 접전을 벌여 3명이 전사하다
	9월 27일	의병 12명이 광탄면 발랑리에서 주재 순사 3명과 교전하다
	9월 29일	양주군 광석면 효가리에서 의병에게 납치된 전궁대부대신 이윤용의 일족 이성구가 이윤용에게 보내는 신서 및 격문 3통이 적성군수 안영원 집에 도착하다
	11월 18일	의병 12명이 광탄면에서 국유지 조사중인 서기 이석주 납치를 기도하다
1910년	1월 25일	의병 12명이 광탄면 사창리에서 문산헌병분견소원과 교전하다
	2월 7일	의병장 홍원유 등 12명이 적성군 동면 어유리를 내습하여 군용금을 요청하다
	3월 7일	의병 12명이 조리면 기곡리에서 교하헌병분견대와 교전하다
	3월 13일	의병장 권중설 · 고재식이 적성헌병분견대원에게 체포되다
	4월 10일	의병 36명이 경기도 포천 남방 약 30리에서 적성 · 마전 헌병분견대와 교전하다
	4월 14일	의병장 홍원유 · 전성서 외 36명이 포천군 내정면 신기리에서 적성 · 마전 헌병분 견소원과 교전하다
	4월 15일	의병 5명이 교하군 석관면 교발리를 내습하다
	4월 21일	의병장 전성서 외 6명이 적성군 남면 상수리를 내습하다
	5월 11일	의병 10명이 교하 동방 약 25리 지점에서 교하헌병분견대와 교전하다. 의병 10명이 조리면 기곡리에서 교하헌병분견대와 교전하다. 홍재호 의병대원 9명이 광탄면 북창리를 내습하다
	5월 14일	의병장 홍원유 외 6명이 적성군 남면 매곡리를 내습하다
	6월 12일	홍원유 의병부대 13명이 적성군 남면 매곡리를 내습하다. 의병장 홍원유 외 9명이 교하군 현내면 검산리를 내습하다

일제강점기

1911년	5월 31일	의병장 연기우 부대의 이경칠, 윤치성, 이순양, 성신업 4명이 교하에서 체포되다
1914년	3월 1일	교하군을 파주군에 편입시키다
1919년	3월 28일	조리면민 2,000여 명이 면사무소를 습격하다가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다
	4월 1일	천현면과 광탄면민 2,000여 명이 시위하다
1920년	9월 23일	박영대 등 지역유지가 예배당을 신축하고 전도사업에 진력하다
1921년	5월 14일	파주군내의 통신시설 개량을 청원하다
	7월 24일	이풍직은 유숙자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유숙자의 아버지에게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사기를 치다
	11월 8일	임진수리조합 설립되다
1922년	4월 9일	조선소작인상조회 파주지회 발회식이 열리다
	6월 22일	파주축산동업조합이 인가되다
1924년	7월 24일	큰 비로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1,000여 호가 침수되다
	11월 17일	서울 강화, 파주지역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던 안치명安致命 · 정운선鄭雲先 · 안용균安容均이 일본경찰에 체포되다
1925년	1월 15일	임시정부를 파는 악한들이 파주경찰서에 잡히다
	11월 4일	부호들을 소란하게 한 파주의 수상청년 이진팔 외 1명 시내에서 자취를 감추다
1926년	1월 24일	발진티푸스 환자 20여 명이 발생하다
	2월 15일	파주에 야학이 신설되다
	2월 28일	금촌파산학교가 공립보통학교 승격운동을 벌이다
	5월 3일	임진면 마정리 토공土工 300명이 임금미불과 혹사에 항의하여 2일간 파업하다
	5월 9일	청석면에서 심상청년단尋常青年團이 조직되다
	5월 15일	파주권업강연이 열리다(주제 : 산미증식과 우사 기타 비토 이용법)
	5월 23일	금촌청년단 임시총회 개최하다
	5월 25일	파주군농회 견직물 취급장이 신축되다

	5월 28일	소작쟁의가 일어나다
	6월 5일	조선 · 동아 · 시대일보 파주지국 기자들 참석하에 파주기우회가 창립되다
	6월 15일	탄현면 낙하리 퇴비제조조합이 창립되다
	6월 24일	금촌청년회가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문고설치 · 강연회개최 · 교양반 설치 · 일본 상애회사건 · 파주군 청년연맹 조직 등에 대해 결의하다
	6월	적성수리조합 설립문제를 둘러싸고 지주간 분규가 발생하다
	7월 13일	삼방리에서 물싸움으로 친척을 구타하다
	7월 25일	홍수로 가옥이 무너지고 다리가 떠내려가다
	8월	농무청년회農務青年會가 문산에서 창립되다
	8월 8일	수해로 큰 피해를 입다
	8월 26일	파주지역에 병충해 · 동물해가 기승을 부리다
	10월 5일	김환인金煥仁 등이 파주면에서 농민의 지식계발과 부업장려를 목적으로 파주남부농무청년단坡州南部農務青年團을 창립하다
	10월 11일	사립 금촌학교가 인가되고 개교식운동이 벌어지다
	11월 23일	영일운수합명회사가 설립되다
1928년	7월 10일	기우제를 지내다
	7월 13일	고양 벽제면에서 군자금 200원을 강탈해간 범인이 파주경찰서에 붙잡히다
	11월 6일	박인희 · 최봉현 씨가 용수료 수익 절반을 금촌학교에 주어 매년 약 100석의 수입을 올리게 하다
1929년	1월 22일	파주지역에 전염병 유행성 감기가 유행하여 민심이 매우 흉흉하다
	1월 23일	광탄사립강습소가 공립보통학교로 변경 인가되다
	2월 7일	고려시대 분묘 전문 도굴범 9명이 파주에서 체포되다
	4월 12일	개성 · 장단 · 파주 3군 기자대회가 열리다
	4월 24일	방종익 씨가 종자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다
	5월 17일	파주에 독감이 유행하여 무당이 굿을 하다
	5월 29일	문산우편소 근무자 강진선이 위체횡령범으로 파주경찰서에 검거되다
	6월 1일	임진수리조합이 고율 수세를 부과하여 분규가 발생하다
	6월 16일	신임 광탄면장 배척운동으로 서기, 구장 등 2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다
	7월 30일	파주군 일대에 병충해와 동물해가 만연하다
	8월 8일	장산리 주민 일동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서형원회西亨原會(회장 김윤배金

		允培)를 조직하다
	8월 17일	파주의 농작수확량이 4만 석으로 감소하다
	9월 6일	황무지를 매도한다고 가계약으로 두 사람이 공모하고 사기를 친 사건이 일어나다
	10월 1일	소 전염병이 창궐하다
	10월 21일	갑자기 우박이 내려서 곡식 · 채소가 피해를 입다
	11월 7일	문산지국 주최로 엽총경기대회가 열리다
	12월 26일	파주에 눈이 내려서 교통이 두절되다
1930년	1월 9일	굶는 노모를 살리고자 아들은 도적질을 하고, 홀어미는 화로불을 쬐다가 타서 죽는 일이 장산리에서 발생하다
	3월 1일	파주에서 축산 소 검역을 실시하다
	3월 7일	홍삼 밀수조직을 파주경찰서에서 검거하다
	9월 21일	금촌학교가 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되다
	11월 26일	파주군의 긴축 방침으로 2개 면을 폐지하고 9,000원을 절약하다
1931년	2월 10일	보통학교 퇴학생 수가 60명을 넘어서다
	2월 25일	7개 공립보통학교 수업료 2할 5분 감하되다
	3월 7일	파주군 일대에 괴상한 기후로 보리작물 대부분이 동사하다
	3월 13일	임진수리조합 구역에 일본 복강현에서 이민 온 12명이 도착하다
	4월 12일	염병(장티푸스)이 유행하다
	6월	ML당 책임비서 김세연이 국내에 잠입하여 유기원의 주선으로 고향인 파주에서 잠복 활동을 하다
	10월 8일	파주농회에서 콩 공판이 시작되다
1932년	1월 30일	때 아닌 진달래가 만발하는 등 파주에서 이상 기후가 발생하다
	2월 5일	경기도연합 퇴비품평회에서 파주군이 특등에 입선되다
	2월 12일	파주 수의강습회가 창립되다
	3월 24일	홍역과 독감으로 파주 인심이 불안해지다
	3월 28일	파주 바람으로 피해를 입다
	3월 22일	파주 공립보통학교 졸업식이 거행되다
	4월 1일	파주교장협의회에서 퇴학생 방지책으로 학자금 자력 취득할 수 있도록 부업과 실습을 지도하도록 하다

	5월 7일	파주축산조합에서 소 품평회를 개최하다
	5월 19일	파주에서 궁술대회가 열리다
	7월 18일	유망민 속출로 파주의 호구가 감소되다
	8월 31일	문산에 비가 순조롭게 오지 않아 농업에 지장을 주다
	10월 7일	파주에 첫 서리가 내리다
	10월 9일	파주에서 기아에 못 이긴 80대 노인이 자살하다
	10월 25일	파주 담배 "파이프"가 만주에 진출하다
	10월 25일	파주축산조합에서 전력 부화장치를 지원하며 양계를 장려하다
	11월 17일	월롱면에서 사회교화 강연회를 열다
	11월 21일	파주 · 장단 · 개풍의 3군 교육연구회 모임이 풍덕공보에서 개최되다
	12월 7일	주내면 부곡리 부업(양계업)이 본업 수입을 압도하다
1933년	1월 31일	혹한으로 곡물이 얼어 죽다
	2월 2일	3군(파주 · 장단 · 개풍) 보통학교 교장회가 장단농실에서 개최되다
	2월 12일	금릉리에서 소농생산조합이 거동일치 노력하다
	2월 18일	천연두와 독감이 기승을 부리다
	2월 18일	파주에서 도회 선거에 6명이 출마하다
	2월 19일	퇴비, 뽕나무, 보리 다수확의 품평회가 파주에서 개최되다
	3월 1일	천연두가 점점 만연되어 4명이 사망하다
	3월 15일	천연두 기승으로 발병자 44명 중 7명 이미 사망하다
	3월 17일	파주향교 장의 6명이 임명되다
	3월 25일	천현면 대릉리에서 매장한 죽은 소를 파서 가난한 농민들이 나누어 먹다
	3월 26일	학교평의회가 개최되다
	3월 29일	계란출하품평회가 개최되다
	4월 18일	탄현면 이광응 씨 딸이 어머니를 위해 손가락을 절단하는 효성을 보이다
	4월 27일	파주 납세조합 표창식이 거행되다
	4월 27일	파주 수예강습 수업식이 열리다
	4월 28일	파주 · 장단 · 개풍 인접 주민들이 늘노리시장 복구를 요구하며 시위하다
	4월 29일	파주군농회에서 비료를 가난한 농민에게 제공하다
	5월 4일	파주에서 감자 재배를 장려하다
	5월 9일	닭 전문도적 이종득이 파주경찰서에 체포되다

	6월 22일	8개 보통학교에서 수업을 중지하고 농사에 힘을 보태다
	7월 12일	부녀의 힘으로 40호 촌 소생시킨 청석면 오도리가 모범촌이 되다
	8월 3일	조병학 씨가 봉일천 수재민들에게 쌀 30가마를 기부하다
	8월 12일	분수리에서 행상을 따라나간 처녀가 행방이 묘연해지다
	8월 17일	봉서산에 사나운 범이 출몰하여 개와 돼지 3마리에 피해를 주다
	8월 18일	파주의 수해 피해액이 10만 원을 돌파하다
	8월 20일	면장회의가 열리다
	9월 5일	민영 사방공사를 실시하여 재해를 방비하다
	9월 15일	개성도립의원에서 가난한 파주 환자에게 무료 순회 진료를 하다
	9월 15일	파주중견청년 일야강습회가 열리다
	9월 20일	파주 문묘제가 거행되다
	9월 20일	기술원회의가 개최되다
	9월 28일	교육총회가 개최되다
	11월 3일	각 학교 농작물품평회가 열리다
	11월 14일	17년간 계속 노력한 파주 삼악농원이 만주 · 프랑스까지 수출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다
	11월 19일	부정 도량형을 사용하여 지주를 속인 소작관리가 파주경찰서에 체포되다
	12월 7일	교육총회가 열리다
	12월 30일	도박단 5명이 월롱면 영태리에서 검거되다
1934년	1월	문맹퇴치운동 실시로 파주지역에 260여 개 야학이 개설되어 3,400명의 아동이 취학하다
	2월 15일	오도리 방화범이 법정에 서다
	3월 10일	청석면과 와석면을 교하면으로 통합하다
	3월 15일	파주에 농업창고를 건설하다
	3월 23일	가짜 한의사가 파주에 출몰하여 많은 피해를 입히다
	4월 6일	두포리 산중에서 강아지 모양의 귀여운 어린 늑대 5마리를 생포하다
	4월 10일	조리면 봉일천리에서 수은중독 참사가 발생하다
	5월 20일	파주군 일대에 페장디스토마가 만연하다
	11월 10일	오현리에서 병사한 남편의 장례일에 부인이 자살하다
	12월 16일	이인섭 씨가 유치원을 설립하다

1935년	5월 24일	파주경찰서를 문산에 신축하기로 결정하다
	5월 29일	의생야유회가 열리다
	6월 8일	분수영당을 신축하여 문숙공 윤관 영정을 봉안하다
	6월 21일	위생영화회가 열리다
	7월 23일	한강 연안에 대홍수로 파주가 혼란에 빠지다
	8월 20일	개풍 · 파주 · 장단 등 대항정구대회에서 파주군이 우승하다
	10월 16일	파주 계 · 가재잡이가 대풍어를 이루다
	10월 15일	개성도립의원 순회의료반에서 파주 극빈자를 위해 진료를 하다
	12월 3일	파주에 산적이 출몰하여 90원을 탈취해가다
1936년	1월 21일	지역 강수 부족으로 식수 소동이 일어나다
	2월 14일	파주제탄조합이 신설되다
	3월 2일	파주 도박단을 일망타진하다
	3월 4일	탄현공립보통학교와 봉일천공립보통학교 졸업식이 열리다
	3월 10일	부인지도자강습회가 개최되다
	3월 18일	전염병이 돌아 2명이 사망하다
	4월 8일	백윤기 씨가 파주명륜회에 2,600원을 기부하다
	5월 20일	월롱면에 보통학교가 신설되다
	5월 27일	파주경찰서 청사 신축 기공식이 열리다
	5월 30일	파주군에 복면강도가 나타나 10원을 강탈해가다
	7월 4일	6세 소녀를 능욕한 살인범이 개성검국으로 송치되다
	7월 18일	독나방이 출현하다
1937년	8월 14일	파주 방호단이 결성되다
1938년	6월 18일	임진면에 청년훈련소가 설립되다
	7월 10일	각 면, 각 리에 근로보국단을 조직하다
	8월 17일	음식점업자들이 시간제한을 결의하다
	9월 16일	문산 마정리에 경찰관 출장소가 신설되다
1939년	11월 1일	파주군 정신총동원 조선연맹지도자협의회가 결성되다
	11월 15일	파주군에서 경로회 효자표창을 받다
1940년	4월 15일	파주서 300만 근 목표로 면화증산을 계획하다
	5월 26일	파주에 2인조 강도 나타나서 금비녀를 강탈해가다

해방 이후

1945년	11월 3일	연천군 적성면, 남면을 편입하다
1946년	2월 5일	남면을 양주군으로 이관하다
	4월 22일	파주의 여학교 신설을 의결하다
1947년	4월 25일	경기도서 광주 · 파주의 무의촌에 의료반을 파견하다
	8월 14일	효자 · 열부를 표창하다
	10월 21일	생산일로로 비약하는 파주 탄광 · 종유석굴 개발, 연간 75만 톤을 채굴하다
1948년	8월	개성세무서 관할 하에 파주군 관내 세무업무가 진행되다
1949년	3월 4일	파주기자회에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다
	6월 2일	문산에 공립국민학교를 증설하다
	6월 4일	임진강에 인도교를 가설하다
	6월 9일	아동 송구送球대회를 열다
	10월 28일	파주군의 남로당 계열 일당 40여 명을 송청送廳하다
	11월 28일	교하국민학교에 화재가 발생하다
	12월 28일	광탄면 신산교 초도식初渡式을 개최하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 · 25전쟁이 발발하다. 국군 1사단 및 2개 연대가 개성 · 문산 · 파평산 · 봉일천 일대에서 북한군 2개 사단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작전을 개시하다
	12월 31일	미군 제1사단이 적성과 문산 동쪽에서 격전을 벌이다
1951년	1월 8일	용미국민학교가 광탄 용미리에서 개교하다
	4월 22일	중공군의 제5차 공세가 시작되자, 영국연방 제29여단과 동 여단에 배속된 벨기에 대대가 임진강 연안(적성-도감포)에서 중공군 제65군을 맞아 방어 전투를 벌이다
1952년	9월 6일	임진강 북안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국군 제1사단이 고양 일대 전초진지에서 중공 제47군을 맞아 접전을 벌여 방어선을 확보하다
	11월 2일	석인石人 정태진 선생이 사망하다
1953년	1월 23일	대남 공작원을 검거하다
	3월 28일	판문점 동북방의 네바다 전방 초소지역을 방어 중이던 미 해병대 제1사단

		제5해병연대가 진지로 침공한 중공 제120사단을 격퇴하다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전쟁이 휴전하다
1954년	10월 30일	광탄 미륵불 제막식을 거행하다
	11월 25일	화재로 건물 48동이 소실되다
1955년	6월 1일	간첩 3명을 체포하다
	8월 1일	장마로 파주의 토막집이 침수되다
	9월 25일	군용물자 절도사건이 발생하다
	10월 6일	광탄면사무소 공사가 완료되다
	12월 4일	신산시장 개시하다
	12월 15일	해병대원들이 노인에게 흙벽돌집을 지어주는 구호사업이 실시되다
1956년	11월 2일	큰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106호가 피해를 입다
1957년	3월 1일	관내 최초 유치원인 딩동댕유치원이 설립되다
	3월 24일	8인조 무장강도단이 검거되다
	4월 22일	미헌병대가 일부 민가를 불법수색하여 물품 2,300여 점을 압수하다
	4월 25일	'파주 미헌병사건'에 대해 국회서 논란, 행정협정체결을 촉구. 의원들은 민족적 굴욕이라고 지적하다
	4월 28일	미군헌병이 상점을 파괴하다
	5월 1일	파주의 위안부 살해사건 발생하다
	5월 1일	미군부대 소속 우리 군인이 경찰관의 권총을 빼고 폭행을 가하다
	5월 10일	파주사건에 대한 한미회담 및 공동성명을 발표하다
	5월 27일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0동이 전소되다
	9월 22일	괴뢰군복을 입은 3인의 무장괴한이 파주에 나타났다가 달아나다
1958년	5월 31일	군인으로 위장한 무장간첩 2명이 검거되다
	8월 20일	월북하려던 두 남녀가 파주 검문소에서 검거되다
	8월 23일	두 명의 권총괴한이 나타나 의류 등을 강탈하여 도주하다
1959년	3월 14일	군복을 입은 2인조 총기 강도범이 출현하다
	4월 20일	장명광산에서 작업중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다
	4월 28일	소풍 따라 간 부인이 유탄에 부상당하다
	4월 28일	문산농고생 장행회, 해병대에 집단 입대하다
	6월 1일	새극장이 개관하다

	6월 23일	지뢰폭발로 사람이 즉사하다
	6월 27일	6 · 25기념 웅변대회가 개최되다
	9월 22일	대한여자청년단이 결성되다
	11월 10일	미군부대서 검찰에 깡패 재단속을 요청하다
1960년	1월 7일	파주경찰서 시무식 열고 우수경찰관을 표창하다
	1월 19일	카투사 대장이 잠자는 부하를 폭행하다
	4월 5일	강변에서 변사체가 발견되다
	4월 9일	화천 · 파주 두 곳에서 산불로 3명 죽고 8명이 부상당하다
	7월 5일	양공주들이 데모를 하다
	7월 5일	파주에서 네 차례나 범행한 전화기 절취범을 체포하다
	8월 6일	경기도지사가 파주 미군소령에 감사장을 전달하다
	8월 6일	문산극장 개관하다
	8월 11일	미군부대에서 종업원을 무료치료 해주기로 하다
	8월 19일	양공주가 신세를 비관하고 자살하다
	8월 25일	미군헌병대가 파주경찰서장에 감사장을 전달하다
	8월 27일	한미친선회의가 미군 4기갑연대에서 열리다
	9월 20일	군복 입은 괴한이 현금 강탈 후 도주하다
	12월 14일	파주복지관 개관 1주년을 맞이하다
1961년	1월 12일	문산농고 3개 교실 증축 낙성식을 거행하다
	3월 15일	파주에서 주사 맞고 사망자 발생하다
	3월 30일	수용소 난민들에 밀가루를 전달하다
	10월 15일	스턴 일등병이 위독한 노인에게 자신의 피를 헌혈하다
1962년	1월 5일	화재로 판잣집 6가구가 불에 타다
	1월 13일	최덕신 외무장관, 파주 린치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다
	2월 8일	인권위가 파주 미군 발포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다
	2월 13일	외무부가 파주 미군 발포사건을 항의하다
	5월 23일	만년풍작을 위한 수로공사를 마을민의 힘으로 해내다
	5월 27일	인권협에서 파주사건을 미국 요로要路에 진정하다
	5월 27일	미군이 사나운 개를 풀어 배달 소년에게 중상을 입히다
	6월 2일	외무부장관, 파주 린치 사건에 대하여 대미對美 엄중항의하고 행정협정行

		政協定의 조속 체결을 촉구하다
	6월 3일	가해미군이 군사재판에 회부되다
	6월 4일	또다시 미군美軍의 린치 사건 발생하다
	6월 7일	미군이 또 여인을 폭행하다
	6월 8일	파주 린치 사건으로 미군 중위 2명이 군법에 회부되다
	12월 11일	'자유의 마을' 대성동을 파주 임진면에 편입하다
1963년	11월 21일	군청 직원 윤태원尹泰元이 부정선거不正選擧 공작을 폭로하다
	11월 22일	파주군수가 선거 관여 혐의로 구속되다
1964년	1월 25일	문산고등학교 제1회 졸업식이 열리다
1965년	10월 16일	폭발물 사고로 14명이 폭사하고 17명이 부상당하다
1966년	2월 5일	외기노조外機勞組 파주지부에서 근로자들의 쟁의를 둘러싸고 미군과 유혈 충돌, 3일간 파업하다
	3월 22일	월롱면 덕은리 지석묘가 사적 148호로 지정되다
	12월 4일	파주읍 봉서리에 6 · 25전쟁 영웅인 고 김만술 소위 흉상이 건립되다
1967년	12월	파주문화원坡州文化院이 설립되다
1968년	1월 19일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남하한 북한의 무장게릴라 31명이 법원리 삼봉산에서 숙영하다. 산에 나무를 하러 온 우씨 3형제가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다
	1월 22일	1.21사태로 파주와 의정부지역 통금시간이 오후 7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연장되다(서울지역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월 31일	통금시간이 다시 환원되다
	2월 25일	2,700년 전의 마제석검磨製石劍이 발견되다
	5월 1일	미군 트럭에 실렸던 고사포탄高射砲彈 48발이 휘발유에 인화引火 폭발하여 카투사와 미군 4명이 중상을 입다
	8월 26일	도민증 40장을 팔아먹은 파주경찰서 김경희金敬姬 여순경 등 2명을 구속하다
	10월 5일	마이크로 버스가 굴러 귀성객歸省客 5명이 불에 타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다
1969년		문산동초등학교, 문산여중학교가 개교하다
1970년	4월 6일	쉬엄령 고개에서 버스가 전복되어 성묘객 48명이 부상을 입다
	5월 26일	공릉 · 순릉 · 영릉이 사적 205호로 지정되고, 장릉은 203호로 지정되다

	7월 15일	집단 장티푸스가 발생하다
1971년		탄현 의용소방대가 결성되다
	3월 1일	법원초등학교, 마지국민학교가 개교하다
1972년	1월 1일	실향민 300여 명 합동망향제合同望鄕祭를 자유의 다리 앞 망향공원에서 거행하다
	2월 21일	민통선 너머 소나무 3만여 그루를 몰래 베어 판 강한구 등 7명을 구속하다
	12월 28일	장단군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이 파주군에 편입되다
1973년	4월 8일	도난당했던 통일로 비문碑文 동판을 고물상의 신고로 회수하고 범인 4명을 구속하다
	6월 3일	주워 갖고 놀던 3.5인치 로켓 포탄이 터져 중학생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다
	7월 1일	아동면이 금촌읍, 임진면이 문산읍으로 승격되다
	7월 10일	율곡 이이 묘를 지방문화재 15호, 신사임당 묘를 14호, 윤관 묘를 12호로 지정하다
1974년		화석정을 지방문화재 61호로 지정하다
1975년	2월 27일	교하 재두루미도래지를 천연기념물 205호로 지정하다
1976년		파주향교가 중수되다
1977년	4월 27일	통일공원에서 참전외국기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 순직종군기자 추념비 제막식을 거행하다
	9월 3일	경현단이 재건립되다
1978년		자운서원 묘정비가 지방문화재 77호, 자운서원이 45호로 각각 지정되다
1979년	5월 1일	군내면에 출장소가 개설되다
1980년	12월 1일	주내면이 주내읍으로 승격되다
1981년	4월 22일	이세화 묘가 지방문화재 60호, 성혼 묘가 59호로 지정되다
1982년	6월 10일	문산교 확장 기공식을 거행하다
	6월 17일	창만 협동교 준공식을 거행하다
	6월 18일	천현면 삼방리 애룡교 준공식을 거행하다
	7월 24일	교하면 교하리 곡릉천교 준공식을 거행하다
	11월 30일	적성면 마지1리에서 군 · 관 · 민 합동 대간첩작전 합동훈련을 실시하다
1983년	1월 6일	서민생활안정 · 지역경기부양을 위해 178건의 사업착공 및 영세민 취로사

		업을 실시하다
	1월 10일	생활보호대상자 556가구 960명에게 양곡부식비 · 연료대 등을 지급하다
	2월 15일	주내읍을 파주읍으로 명칭변경하고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영장리를 광탄면에 편입하며 영장출장소를 개설하다
1983년	2월 26일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통일로변에 무궁화 꽃동산 조성 등 특수조림사업 실시하다
	6월 9일	금촌읍~문산읍간 9.2km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기공식을 거행하다
	8월 8일	금촌 상수도 통수식을 개최하다
	9월 17일	문산읍 파주지구 근로자복지주택 기공식을 거행하다
	9월 27일	IPU · ASTA 등 국제회의에 대비하여 통일로변 정비사업을 완료하다
	11월 21일	섬유공장 등 112개소 공장 대상 폐수배출실태를 점검하고 10개 공해업체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다
	12월 17일	지방공사 경기도 금촌의료원이 개원하다
1984년	1월 9일	농촌지도소에서 겨울영농교육을 실시하다
	1월 10일	문산읍 선유리, 파주읍 연풍리, 광탄면 신산리 등 5개 기지촌 지구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다. 문산읍 내포3리, 군내면 백연리 등 관내 13개 마을 대상 민통선 북방개발사업 전개 계획을 발표하다
	1월 11일	군내면 백연리 통일촌정비사업이 전개되다
	1월 12일	통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다
	1월 13일	대성동 정비사업이 추진되다
	2월 3일	파주군, 식량증산시책 추진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다
	3월 12일	조리면사무소 청사 준공식을 거행하다
	5월 30일	통일공원에서 청년회의소 회장배 제1회 통일마라톤대회가 열리다
	6월 8일	파주경찰서, 민원실 및 전투경찰 내무반을 준공하다
	7월 6일	파주군 징병검사장 개서식이 열리다
	9월 17일	19일을 쥐 잡는 날로 정하고, 일제 투약시행을 계획하다
	9월 19일	광탄면 문산천상류에서 2~3년생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다
	10월 7일	군민회관에서 제12회 파주예술제가 개최되다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순국사절 위령탑 제막식 및 추도식이 임진각에서 거행되다
	10월 19일	공릉 주변 27만 6,300㎡를 국민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다

	10월 24일	경의선 문산역 청사가 준공되다
	11월 16일	봉일천중학교가 개교하다. 유행성출혈열이 극성을 부리다
	12월 3일	천현면 법원리~웅담 간 도로포장공사 기공식을 거행하다
	12월 21일	내촌면사무소가 완공되다. 과학교육관 준공식이 거행되다
1985년	1월 19일	탄현면 성동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전개하다
	1월 25일	파주군, 축산진흥시책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다
	2월 1일	향토사적지 조사작업이 시작되다
	2월 9일	문산~전곡 간 도로포장 기공식을 실시하다
	2월 12일	관내 읍 · 면 · 리 단위로 애향의 날을 정하고, 각종 행사 계획을 세우다
	2월 14일	금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금촌읍 시가지조성 계획을 세우다
	2월 26일	17만 전 군민의 신고 요원화를 위해 775개소의 신고소를 설치하고 주민신고태세 강화계획을 마련하다
	4월 22일	천현면 의용소방대 청사를 준공하다
	5월 23일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등 각종 행사를 대비하여 관내 통일로 주변 화단조성 계획을 세우다
	7월 27일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에 망배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다
	8월 6일	광탄면 영장리에 영장출장소 청사가 문을 열다
	9월 3일	파주경찰서 광탄면 영장지서 준공식이 개최되다
	9월 16일	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주변정비사업이 전개되다
	9월 25일	군수 · 경찰서장 · 군내 유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운서원에서 추향제가 열리다
	10월 19일	문산읍 노인회관 준공식이 열리다
	10월 30일	파주읍 봉암리에서 축산업협동조합 냉동창고 준공식이 거행되다
1986년		월롱면 위전리에 궁도장 월곡정月谷亭이 문을 열다
	1월 1일	문산전화국이 개국되다
	3월 2일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이 '새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다
	4월 17일	용주서원, 파주향교, 적성향교, 김석몽처 남평문씨열녀문, 봉서리 충신 열녀문, 이이선생 신도비, 청풍김씨 열녀비, 감악산비가 차례대로 향토유적 제1~8호로 지정되다
	6월 11일	내무부와 자연보호중앙협의회가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자연자원 첫 현지

		조사를 실시하다
	11월 19일	율곡교원교육원이 준공 · 개원하다
1987년	1월 1일	광탄면 기산리 일부(기산1리)가 양주군 백석면에 편입되다
	6월 25일	파주읍 봉서리에 개마고원반공유격대 위령탑을 세우다
	12월 20일	문산읍 마정리에 김포국제공항 폭발사고 희생자추모비가 세워지다
1988년		파주학생회관에서 파주윈드오케스트라 5회 정기연주회가 열리다. 출판도시의 터를 확보하자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하다
	1월 18일	율곡교원교육원이 율곡교원연수원으로 명칭 변경하다
	2월 27일	윤관장군 묘가 사적 제323호로 지정되다
	3월 21일	윤곤선생 묘가 경기도기념물 제106호로 지정되다
	6월 1일	한국전력공사 문산지점이 한국전력공사 파주지점으로 명칭 변경하다
	7월 27일	용상사龍床寺가 전통사찰 제88호로 지정되다
	8월	율곡문화제 백일장 수상자들이 모여 여성문학회를 발족하다
	10월 25일	용암사龍岩寺가 전통사찰 제87호로 지정되다
1989년	4월 1일	천현면이 법원읍으로 승격되다
1990년	3월 5일	문산읍 임진리 임진나루터 복원계획을 세우다
	4월 5일	'문산포 도당굿' 공연이 열리다
	5월 29일	금촌읍 금촌리 소재 통일동산 직할사업소 현판식 거행하다
	8월 16일	파평면 금파리에서 구석기유적 발굴조사를 실시하다
	10월 27일	자유로 1단계 공사 행주대교~파주 탄현면 오두산 기공식이 거행되다
	12월 18일	파평면 금파2리 화훼단지 준공식 거행하다
	12월 28일	통일동산 및 자유로 개설에 따른 개발지구내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실시되다
1991년	2월 13일	임진강 수질이 4급수로 판정나다
	3월 14일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기공식이 거행되다
	4월 27일	진동면 서곡리 청주 한씨 문중 묘역에서 고려 인물벽화고분이 발견되다
	6월 4일	탄현면 오두산의 통일전망대 기공식이 거행되다
	8월 23일	탄현농협 화훼직판장 개장식이 열리다
	8월 24일	탄현면 성동리 오두산성이 사적 351호로 지정되다
1992년	2월 26일	탄현면 성동리에서 신라시대로 추정되는 금동관과 고려 · 조선 시대의 토광묘 등이 발굴되다

	5월 13일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학술조사 결과 선사유적지, 성터, 마애사면석불 등 47건의 유적 · 유물이 확인되다
	5월 29일	진동면 하포리 허준선생 묘 등 4점이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되고, 파주향교 대성전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되다
	9월 8일	탄현면 성동리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개관하다. 행주대교~성동리 오두산 자유로 1단계 구간이 개통되다
	9월 23일	법원읍 삼방리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골프장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다
	10월 30일	광탄면 분수리 윤관장군 묘 정화사업이 완료되다
	11월 26일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 수립되다
1993년	4월 28일	적성면 일대에서 백자가마터 · 칠중성 · 아미성 · 방추차 등 유적, 유물이 발견되다
	5월 20일	탄현면 법흥리 정연 묘가 기념물로 지정되다
	10월 8일	주한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해왔던 토지들에 대한 반환이 합의되다
	11월 9일	관내 3개 읍, 8개 리, 군사협의위임지역으로 지정되다
	12월 10일	탄현면 금승리와 금촌읍 아동리 주민들이 레미콘공장 설치 반대 궐기대회를 열다
1994년	1월 21일	교하면 당하리 지석묘 발굴현장 야산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굴되다
	7월 2일	교하면 문발리 일대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되다
	9월 16일	통일전망대~문산읍 자유의 다리 제2단계 건설 준공식이 거행되다
	11월 9일	관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 대비 관급규격봉투 판매수수료안을 입법예고하다
1995년	2월 3일	금촌읍 금능리에 파주공설운동장이 건립되다
	2월 22일	교하면 일대 문발 제2지구 공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다
	4월 5일	자유로 무궁화 백리길 행사를 개최하다
	4월 15일	군의회 4주년 개원기념식이 개최되다
	4월 19일	안보교육관광지 조성 방침이 발표되다
	4월 26일	파주군, 쓰레기종량제 추진 100일 평가 결과 하루 배출량이 42% 감소되다
	4월 28일	기업인협의회 창립총회를 하다

	6월 14일	자매결연 방문단 중국 요녕성 금주시를 방문하다(이규승 부군수 외 7명)
	7월 1일	송달용 초대 민선군수 취임하다
	10월 20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명명식을 거행하다
	11월 8일	해외시장 개척단(진용관 부군수 외 12명)을 미국 · 캐나다 · 일본에 파견하다
	11월 15일	제1회 으뜸 파주농업인대회가 개최되다
	12월 14일	파평면 장파1리 파평낙농단지 준공식이 거행되다
1996년	3월 1일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되다. 금촌읍이 금촌1동, 금촌2동으로 분리되다
	7월 26일	임진강 유역에 대홍수가 발생하다
	7월 26일	문산 시가지 저지대 일부 침수되다. 파평면 이재민 발생하다. 적성 설마천 제방이 유실되다. 임진강 마정제가 유실되다
	7월 27일	홍수로 문산천이 범람하고 파주시 전역에 1,750가구 4,87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다
	7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해피해복구 일일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다
	7월 30일	문산 시가지 전면 교통통제를 하다. 대통령, 문산읍 수해지역 방문하다
	7월 31일	KBS 및 MBC 수해극복 특별 생방송 진행하다
	8월 11일	수해 종합상황실 해제, 상황 종료되다
1997년	1월 6일	신년인사회 개최하다
	1월 9일	새해영농설계 시범교육 실시하다
	1월 23일	12읍면동, 군내출장소 대상으로 시정설명회 실시되다
	2월 22일	통일기원 제1회 전통민속놀이 개최되다
	2월 24일	일본 아쯔기시 체육교류단이 파주를 방문하다
	2월 28일	시승격 1주년 기념행사 진행되다
	3월 31일	서울~문산 간 시내버스 개통식을 거행하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 「남북한 장애인 마라톤대회」가 열리다
	4월 22일	시민합동결혼식이 시민회관에서 열리다
	5월 9일	시정정보센터가 문을 열다
	6월 20일	움직이는 안보현장순례 대행진이 적성 장좌리에서 열리다
	6월 21일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식이 위생처리장에서 거행되다
	6월 28일	평화대행진 및 열린음악회가 임진각에서 진행되다
	7월 19일	「북녘어린이 살리기 어깨동무대행진」 행사가 진행되다

	8월 16일	통일공원에서 「한여름 밤의 음악회」가 열리다
	9월 6일	조리읍 장곡리에서 하나로클럽 개장식이 열리다
	9월 23일	향양리 패키지마을 착공식을 거행하다
	10월 2일	제2회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가 문산종고에서 실시되다
	10월 9일	율곡문화제가 개최되다
	10월 10일	시정정보센터에서 중소기업 우수상품 박람회 개장식을 하다
	10월 15일	시민회관에서 경기종합예술제 행사를 열다
	10월 28일	주요업무 보고회가 개최되다
	10월 30일	4-H 경진대회 및 농경유물관이 문을 열다
	11월 9일	통일촌에서 「장단콩축제」가 개최되다
	11월 25일	시의회 의사당 준공식을 거행하다
	12월 23일	시민회관에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다
1998년	1월 5일	신년인사회를 열다
	1월 8일	새해 영농설계교육 실시하다
	2월 3일	연두순시 및 시정설명회가 시작되다
	2월 11일	축산농가 IMF 대책설명회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다
	2월 21일	폐자원(고철류 등) 모으기 경진대회를 열다
	2월 23일	여성회관에서 상설알뜰매장이 개장하다
	2월 27일	인허가 세외수입 전산처리 시연회를 열다
	3월 29일	파주출판단지에서 갈대샛강 환경보전운동을 벌이다
	3월 31일	『파주 체육50년사』 편집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열다
	4월 3일	실직자 종합대책상황실 현판식 실시하다
	4월 30일	교하 한우축산단지 준공식이 열리다
	6월 15일	통일대교 개통식이 거행되다
	6월 18일	「파주 취업박람회」가 시민회관에서 열리다
	7월 1일	제2대 송달용 파주시장이 취임하다
	8월 5일	사상초유의 집중폭우가 내리다
	8월 6일	파주 전역이 물난리를 겪다. 임창열 경기도지사,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 김성훈 농림부 장관 등이 수해지역을 방문하다
	8월 7일	광탄면 인명피해가 사망 8명, 실종 6명으로 집계되다. 파주읍 봉서리 산사

		태로 가옥 1채가 매몰되다
	10월 13일	제11회 율곡문화제가 개최되다
	10월 24일	중국 금주시 방문단이 파주에 오다
	10월 30일	수해대책추진 유공자 표창을 하다
	11월 7일	「장단콩축제」가 군내면에서 개최되다
	11월 14일	문산 장산1리 농촌환경 개선사업 준공식을 거행하다
	11월 19일	일본투자환경조사단이 파주를 방문하다
	11월 20일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기공식을 거행하다
	12월 23일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시민회관에서 열리다
	12월 24일	연풍 우회도로 개통식이 진행되다
1999년	1월 4일	신년인사회가 열리다
	1월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다
	2월 27일	오페라 갈라콘서트가 시민회관에서 열리다
	3월 24일	파주발전 기획위원회가 개최되다
	3월 29일	쌀생산 다짐대회가 열리다
	4월 1일	제2의 건국 설명회가 시민회관에서 열리다
	4월 7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착공식을 거행하다
	4월 19일	파주사랑 자원봉사단발대식이 열리다
	4월 29일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문을 열다
	4월 29일	통일정세보고회가 시민회관에서 열리다
	5월 1일	하니랜드에서 어린이날 보육시설 큰잔치가 시작되다
	5월 25일	교하~조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기공식이 거행되다
	6월 17일	채용박람회가 시작되다
	7월 1일	시설관리공단 개소식 및 보건소, 여성회관 준공식이 거행되다
	7월 7일	파주소방서가 문을 열다
	8월 26일	제3회 한국 남 · 여 고교축구연맹전 개최되다
	10월 19일	파주취업광장이 시민회관에서 열리다
	10월 29일	2000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다
	11월 13일	「장단콩축제」가 개최되다
	12월 9일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시민회관에서 진행되다

	12월 28일	자유의 다리 복원준공식이 임진각에서 열리다
	12월 31일	새천년 통일기원제가 임진각에서 열리다
2000년	1월 4일	신년인사회를 열다
	1월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9001 ISO인증수여식 및 축하연을 열다
	1월 7일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다
	1월 15일	새천년 새다짐 등산대회가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다
	1월 26일	2000년 시정설명회가 열리다
	2월 16일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가 문산 내포2리 벌판에서 진행되다
	3월 3일	경로큰잔치가 시민회관에서 열리다
	3월 7일	2000년 쌀생산 다짐대회를 열다
	3월 20일	농촌지도자 새천년풍년기원제를 열다
	4월 4일	파주축산살리기 범시민대책회의가 열리다
	4월 13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 한나라당 이재창 국회의원이 당선되다
	4월 23일	영국군 임진강격전 제49주년 기념식이 적성 설마리에서 거행되다
	5월 8일	도정시책 설명회를 시민회관에서 진행하다
	6월 6일	도지사가 수해복구현장에 방문하다
	6월 16일	제11회 고부나들이 행사가 파평 율곡농원에서 열리다
	6월 24일	6 · 25 50주년 기념조형물 준공식이 임진각에서 거행되다
	6월 25일	6 · 25 자유수호전쟁 제50주년 행사가 시민회관에서 거행되다
	6월 29일	2000년 긴급구조훈련을 공릉저수지에서 실시하다
	7월 4일	1군단 창설 50주년 기념 군악공연이 시민회관에서 열리다
	7월 20일	파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개최되다
	7월 21일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건설사업광역화 협약 체결 행사가 탄현 낙하리에서 진행되다
	8월 11일	임진각에서 『경기환경선언』 기념행사가 열리다
	9월 18일	경의선 철도 · 도로 연결기공식이 임진각에서 열리다
	10월 2일	제5회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가 열리다
	10월 15일	제1회 나라사랑 파주시 웅변대회가 시민회관에서 열리다
	10월 27일	정보화기본계획수립 공청회가 열리다
	11월 11일	「장단콩축제」 개막식이 통일촌초교에서 열리다

	11월 14일	평화통일기원 시민걷기대회가 문산 당동리에서 시작되다
	11월 22일	금능~아동 간 도로개설공사 개통식이 거행되다
	12월 4일	국가대표축구팀 전용트레이닝 센터 기공식이 진행되다
	12월 31일	임진각에서 평화의 종 타종행사가 열리다
2001년	1월 4일	신년인사회가 개최되다
	1월 6일	새천년 새다짐 등산대회가 월롱산에서 진행되다
	1월 10일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천현농협에서 열리다
	1월 27일	제28회 파주학생회예술제 개최되다
	2월 6일	2001년도 시정설명회가 시민회관에서 열리다
	2월 11일	제1회 임진강 통일연날리기 축제가 시작되다
	3월 1일	시 승격 기념 단축마라톤 대회와 평화의 종 타종행사가 진행되다
	3월 6일	스페인 투자유치단이 파주에 오다
	3월 9일	파주시가 신흥대학과 관학협동 체결하다
	3월 13일	2001쌀증산 다짐대회를 가지다
	3월 14일	농촌지도자 풍년기원제가 월롱산에서 열리다
	3월 16일	안보정세설명회가 여성회관에서 열리다
	4월 30일	민 · 관 · 군 5대 전염병 퇴치 방역단 발대식이 열리다
	5월 4일	육탄 10용사 제52주기 추도식이 개최되다
	6월 1일	2001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마장저수지에서 실시되다
	6월 12일	신흥대학 파주교육관이 문을 열다
	6월 15일	출판단지 착공식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이 거행되다
	6월 18일	중국 금주시(자매도시) 투자설명회가 열리다
	6월 30일	헤이리아트밸리단지 조성 기공식이 통일동산에서 열리다
	7월 7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동문천 수해복구현장 방문하다
	7월 29일	이산가족 재회 및 남북화해협력 촉구대회가 진행되다
	8월 16일	접경지역계획 수립 주민공청회가 진행되다
	8월 22일	호주 퀸즈랜드주 장관 일행이 파주를 방문하다
	9월 7일	파주시 대표단이 중국 금주시(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다
	10월 7일	자유로 통일마라톤 대회가 통일동산에서 시작되다
	11월 9일	국가대표팀 축구트레이닝 센터 준공식이 실시되다

	11월 10일	「장단콩축제」가 개최되다
	11월 16일	평화통일 기원 파주시민걷기대회가 임진각에서 시작되다
	11월 22일	파주시 개척단이 베트남을 방문하다
	12월 8일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열다
	12월 29일	율곡 시비제막 행사가 화석정에서 열리다
	12월 31일	평화의 종 타종행사가 임진각에서 진행되다
2002년	1월 4일	시민회관에서 신년인사회가 열리다
	1월 5일	박달산에서 공직자 한마음등산대회가 열리다
	1월 24일	임진각에서 겨울철새 먹이주기 행사가 개최되다
	2월 12일	도라산역에서 망향 경모제가 거행되다
	3월 26일	2002 고품질 쌀생산 다짐대회가 열리다
	3월 28일	해비타트 기공식이 거행되다
	4월 1일	교하면이 교하읍으로, 조리면이 조리읍으로 승격되다
	4월 28일	월드컵 16강 기원 자전거 이어달리기와 도라산역 평화 음악회가 열리다
	5월 30일	군내면에서 제3땅굴 관광사업 준공식이 거행되다
	6월 8일	세계 평화축제 개막식이 임진각에서 열리다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다
	7월 1일	제3대 이준원 시장이 취임하다
	7월 23일	제2공설운동장에서 파주 · 고양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가 열리다
	9월 7일	도라산역에서 부산아시안게임 성화 합화행사가 거행되다
	9월 18일	도라산역에서 경의선 2단계 착공식 행사가 열리다
	9월 21일	임진각에서 재이북부 합동경모대회가 열리다
	9월 29일	임진각에서 문화일보 통일마라톤대회가 열리다
	10월 4일	자운서원에서 율곡문화제가 개막되다
	11월 1일	임진각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가 진행되다
	11월 8일	통일촌에서 「장단콩축제」가 개막되다
	11월 13일	임진각에서 세계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리다
	12월 7일	탄현면에서 파주쌀연구회 쌀가공센터 준공식이 거행되다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다
	12월 20일	문산읍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열다

	12월 28일	통일전망대에서 통일기원 미술제가 열리다
	12월 31일	임진각에서 평화의 종 타종행사가 거행되다
2003년	1월 3일	파주소방서 관할 광탄파출소가 문을 열다
	1월 4일	시민회관에서 신년인사회가 열리다
	1월 5일	박달산에서 공직자 한마음등산대회가 실시되다
	1월 28일	2003년도 시정설명회가 거행되다
	2월 4일	LG필립스사 유치 MOU가 체결되다
	2월 9일	「제3회 임진강 통일연날리기축제」가 시작되다
	2월 27일	웅지세무대학 기공식이 열리다
	3월 1일	시승격 7주년 단축마라톤 대회가 열리다
	4월 17일	파주 야생꽃 봄꽃전시회가 열리다
	4월 28일	곡릉천 생태복원 워크샵을 실시하다
	5월 12일	파주시 스포츠센터가 문을 열다
	5월 17일	제5회 파주예술제가 개막되다
	6월 1일	봉일천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다
	6월 4일	파주출판도시 운영방안 세미나가 열리다
	7월 1일	문산읍 승격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다
	7월 4일	월롱면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열다
	7월 12일	한라비발디아파트 도서관이 개관하다
	7월 18일	어촌계 직판장이 개장하다
	8월 1일	임진강 뿌리찾기 투어 행사가 진행되다
	9월 5일	노인복지회관 기공식이 거행되다
	9월 20일	「임진강가요제」가 열리다
	9월 27일	심학산 삼림욕장을 준공하다
	10월 22일	무궁화장학회 창립되다
	10월 31일	제4대 류화선 시장이 취임하다
	11월 1일	보육정보센터가 문을 열다
	11월 7일	「제7회 장단콩축제」가 개막되다
	11월 7일	한 · 미 친선 길벗모임 파주지회가 창립되다
	11월 8일	통일염원 조각전이 개최되다

	12월 16일	금산리민요전승기념관이 개관하다
	12월 17일	파주농수산물센터가 개관하다
2004년	1월 7일	파주영어마을 건축설계 현상공모 최종 당선이 선정되다
	3월 18일	파주 월롱면에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과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국내외 경제관련 인사 및 파주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최대규모의 LG 필립스 LCD 사社의 공장 착공식 및 산업단지 기공식이 개최되다
2005년	7월	공공자치연구원에서 「행정혁신대상」 수상하다
	8월	언론인포럼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 수상하다
	10월	모든 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하는 클로징10(Closing by October)을 실시하다
	11월 11일	파주시청 민원행정이 「혁신상」을 받다
	12월	행정자치부에서 「민원행정 대통령상」을 수상하다
2006년	2월	류화선 시장, 『중부일보』에서 「율곡대상」을 수상하다
	3월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상」을 수상하다
	4월 27일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LG필립스 LCD가 총 5조 3,000억 원을 투자한 경기 파주시 7세대 액정표시장치 생산공장 준공식을 거행하다
	7월 1일	제5대 류화선 시장이 취임하다
	7월 18일	문산읍, 폭우에도 피해 없도록 제방 3m 높이고 배수펌프 확장하여 96년 대홍수 때의 참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다
	11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옥외광고대상전 금상」을 수상하다
	12월	류화선 시장, 한국언론인협회에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다
	12월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종합평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다
	12월	행정자치부에서 「도시미관 대통령상」을 수상하다
2007년	1월 5일	파주시가 인큐베이터 제도(옮길 부서의 일을 시켜보고 성과를 내야만 과장에 임명하는 제도)를 시행하다
	1월 31일	당직실을 민원센터로 전환해 야간과 휴일에도 민원 처리를 시행하다
	3월 2일	세무증명서를 토요일에도 발급하다
	3월 21일	식목일 행사를 3월 21일로 바꾸다
	4월 13일	국무조정실에서 「파주시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처리 모범사례로 선정하다

	7월	공공자치연구원에서 「한국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을 수상하다. 『경인일보』에서 「깨끗한 파주 경인히트상품 종합대상」을 수상하다
	7월 18일	민원인을 담당 공무원과 한번에 연결시켜 주는 원콜(one-call) 전화서비스를 시작하다
	8월 2일	파주의 주요 산에 낙뢰사고를 막기 위해 피뢰침을 설치하고, 쇠시설물을 나무 등의 절연체로 교체하다
	10월	한국언론인포럼에서 「2007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하다
	11월	류화선 시장, 『한겨레 이코노미21』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을 받다
	12월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 대통령상」을 수상하다
	12월 14일	파주시가 경기도의 '1억 그루 나무심기' 시 · 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다
2008년	1월 1일	각 읍면동별로 풍년기원제 및 해맞이행사 실시하다
	1월 3일	파주 JC주관의 신년인사회가 열리다
	1월 6일	감악산에서 파주시민의 안전과 재난 · 재해 없는 한해를 기원하는 「2008년도 안전기원제 행사」를 거행하다
	1월 8일	2008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다
	1월 15일	국민대와 글로벌캠퍼스 유치 MOU를 체결하다
	1월 22일	교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하다
	1월 25일	류화선 시장,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특별공로상」을 수상하다
	2월 1일	파주시 행정정보,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가 시행되다
	2월 17일	「2008 통일기원 임진강 민속축제」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되다
	2월 29일	파주시합창단의 기획공연 "사운드 오브 뮤직"이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다
	3월 4일	군부대 장병, 문화유적지, Ubi-Park 등 파주투어 실시하다
	3월 5일	파주시 G&G 원콜 전화서비스 실시하다
	3월 7일	파주시가 「2007년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다
	3월 8일	적성향교 제향 거행되다
	3월 17일	방촌영당 제향 거행되다
	3월 18일	파산서원 제향 거행되다

3월 18일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가 착공되다
3월 20일 보름 앞당긴 파주 식목일 행사 진행하다
3월 26일 이대 파주캠퍼스 사업신청서가 신청 당일 전격 승인되다
4월 6일 자운서원에서 덕수이씨종중 주관으로 제향이 거행되다
4월 9일 제18대 총선 실시, 황진하(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다
4월 15일 상반기 채용박람회가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다
4월 16일 G&G(Good & Great)봉사단 출범식이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다
4월 16일 칠레 랑카과시와 자매결연을 맺다
4월 17일 2008파주개벽목요강좌 첫강의인 「웰빙시대, 신바람 건강법」(황수관)이 시작되다
4월 19일 「금촌1동 주민한마당 축제」가 청곡농원에서 개막되다
4월 20일 청송 심씨 묘역에서 이장발굴 고유제가 치러지다
4월 23일 소령원 제향 거행되다
4월 24일 파주개벽목요강좌 「매력이 경쟁력이다」(윤은기)가 진행되다
4월 28일 리 · 통장연합회 창립총회가 개최되다
4월 30일 장애우들을 위해 마련한 「아기공룡 봄나들이 행사」가 임진각에서 개최되다
4월 30일 파주시 규제개혁, 이명박 정부 최초로 대통령상 수상하다
5월 2일 파주출판도시에서 「어린이 책잔치」가 시작되다
5월 5일 월계단 제향이 법원읍 동문리에서 거행되다
5월 6일 민관군 합동방역봉사대 발대식이 개최되다
5월 8일 파주개벽목요강좌 「부자가족의 미래설계」(이영권)가 진행되다
5월 9일 순릉 제향 거행되다
5월 9일 문산 빗물펌프장에서 시험운전을 실시하다
5월 11일 파주향교 제향 거행되다
5월 14일 신흥대학이 법원읍 삼방리 일원에 37만㎡ 규모의 바이오 테크놀러지(BT) 글로벌캠퍼스와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농 · 특산물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하다
5월 15일 파주개벽목요강좌 「대화의 기술」(한근태)이 진행되다
5월 17일 「제8회 금촌거리문화 축제」가 문화로 및 명동로 일대에서 개막되다
5월 22일 파주개벽목요강좌 「청년 세종의 리더십」(신봉승)가 진행되다

5월 22일 파주상공회의소가 문을 열다

5월 26일 2008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SKX: safe korea exercise)」이 3일간 실시되다

5월 27일 류화선 시장, 수도권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위촉되다

5월 28일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08년도 공중화장실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다

5월 31일 「2008 심학산돌곶이꽃마을축제」가 개최되다. KBS특집 평화콘서트가 열리다

6월 3일 심학산 꽃밭에서 시민합동결혼식이 열리다

6월 12일 파주개벽강좌 「중국의 중화주의와 동북공정」(이이화)이 진행되다

6월 13일 장단면 도라산역 근처 민통선내에 도라산평화공원이 완공되다

6월 15일 「곡릉천 보리축제」가 금촌2동 칠간다리 아래서 열리다

6월 19일 파주개벽목요강좌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야기」(홍혜걸)가 진행되다

6월 20일 광탄주민들이 「국민대학교 유치희망 주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다

6월 26일 파주개벽목요강좌 「성공적인 이미지메이킹」(고희경)이 진행되다

6월 26일 임진강에 어린 물고기 240만 마리를 방류하다

7월 3일 파주개벽강좌 「인터넷 세상, 변하는 자녀교육」(황상민)이 진행되다

7월 4일 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여성주간행사가 열리다

7월 8일 일본 사세보시와 국제친선도시 의향서를 교환하다

7월 10일 파주개벽강좌 「행복한 인생설계와 자산관리」(강창희)가 진행되다

7월 12일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 창립총회가 개최되다

7월 15일 심학산돌곶이꽃마을축제가 「2008대한민국대표축제 대상」을 수상하다. 교하도서관 개관되다

7월 17일 파주개벽목요강좌 「내 몸에 맞는 먹거리」(이미숙)가 진행되다

7월 18일 심학산돌곶이꽃마을축제가 2008상반기 경인히트상품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다

7월 22일 파평면 장파리 임진강에서 고기를 잡던 김영오 씨가 길이 120cm, 무게 10kg이 넘는 초대형 토종메기 2마리를 잡다

8월 7일 자유로 등 주요도로변에 메밀꽃 도로를 조성하다
8월 8일 LG디스플레이 8세대 장비반입식이 열리다
8월12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건국60주년 기념 「KBS교향악단 연주회」가 개최되다
8월 20일 경기도 주관으로 자운서원 문화재 소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다
8월 22일 다문화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문화제」가 개최되다
8월 28일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평가,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다
8월 30일 심학산 정상에서 「노을음악회」가 열리다
9월 9일 하이트맥주(주)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협약식을 체결하다
9월 15일 파주시 청소년복지 홈페이지 오픈하다
9월 17일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소장(김영선), 우수 자원봉사 관리자로 대통령상 수상하다
9월 20일 헤이리예술마을에서 「판페스티벌」이 개최되다
9월 24일 하반기 채용박람회가 열리다
10월 1일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창립총회를 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노인문화 거리예술제」가 개최되다
10월 5일 임진각 광장에서 「메뚜기와 함께 자란 파주농산물축제」가 개최되다
10월 10일 자운서원에서 「율곡문화제」가 열리다
10월 12일 임진각에서 문화일보 파주마라톤대회가 열리다
10월17일 스페인 쿠엥카시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지다
10월 18일 「2008북쇼」가 파주출판도시에서 개최되다. 「2008파주개성인삼축제」가 임진각 광장에서 개최되다
10월 25일 통일대교에서 평화통일기원 걷기행사가 개최되다
10월 25일 「문산거리축제」가 문산읍 문향로에서 개최되다
10월 25일 「삼도품축제」가 탄현 통일동산 공원에서 개최되다
10월 31일 LG디스플레이 연구개발(R&D)센터가 파주로 들어오다
11월 1일 금촌청소년문화의 집과 임진각에서 2008청소년문화엑스포가 열리다
11월 2일 전국청소년영어경연대회가 파주영어마을에서 열리다
11월 6일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이 마무리되어 준공식을 가지다
11월 6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창구를 개설하다
11월 6일 일본 사세보시와 국제친선도시 제휴를 맺다

11월 12일 러시아 크라스나다르시와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하다

11월 13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IAPMC(세계평화사절도시연합) 총회에서 파주시가 정식회원도시로 승인을 받다

11월 1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개점하다

11월 19일 파주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열리다

11월 21일 임진각에서 「파주장단콩축제」가 개최되다

11월 27일 2008 파주개벽강좌가 야구해설가 하일성 씨의 강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다

11월 30일 파주읍 신청사 개청식과 「파주목 봉황축제」가 열리다

12월 19일 파주시민들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가 시민회관에서 열리다

12월 31일 심학산에서 파주해넘이축제가 열리고, 임진각에서 제야의 종이 타종되다

찾아보기

ㄱ

가여울 · 65
가월리 유적 · 9
『가재연행록』 · 181
『간양록』 · 216
갈현평 · 212
감무관 · 87
감악사 · 55, 62
감악산 · 55
감악산 춘향제 · 62
감악산보루 · 46
갑술환국 · 236
강규수 · 300
강기동 · 277
강서지법 · 160
강석덕 · 134
강우규 · 304
강적 · 136
강항 · 216
강희계 · 139
강희백 · 134
강흥문 · 301
강희맹 · 134
강희안 · 134
개경 · 86
건국준비위원회 · 315
『격몽요결』 · 217
견주 · 44
견훤 · 125
겸악 · 46
『경국대전』 · 124
경규현 · 301
경선궁주 · 134
경성구세군 · 272
『경성일보』 · 291
경안공주 · 139
경유근 · 140, 245
경의선 증기기관차 · 340
경임 · 244
경장론 · 217
경저 · 240
경평군 · 188, 192

경현수 · 297
경혼 · 245
경화궁주 · 139
계양군 · 146
계유정난 · 246
계축옥사 · 224
고국원왕 · 70
고랑포 · 72
『고려사절요』 · 56
『고려사』 · 56, 86
고봉현 · 45
고양 · 102
고이왕 · 70
고인돌 유적 · 23
곡속광산 · 344
공릉 · 133, 204
공민왕 · 108
공신옹주 · 150
공양왕비 · 139
공혜왕후 · 151, 204
곽박 · 159
관공립학교 규칙 · 290
관광농원권역 · 348
관동 대학살 · 304
관동창의대 · 268
관동창의원수부 · 268
광복군 · 305
광탄교 · 182
광탄원 · 99
광해군 · 162
교육령 · 290
교육문화운동 · 297
교하 노씨 · 139
교하군 · 45
교하리 유적 · 16, 19, 24
교하신도시 · 350, 358
교하천도론 · 160, 175
9 · 2동지회 · 326
9 · 28서울수복 · 327
국가총동원법 · 311
국궁사배 · 202
국무당 · 60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 311
국민징용령 · 312
군대 해산 · 265
군사분계선 · 333
군사시설 보호구역 · 347
군자소인론 · 232
궁예 · 116
궁장토 · 295
궁토 · 258
권규 · 139
권근 · 108, 139, 144
권담 · 138
권람 · 58, 144
권적 · 127
권준 · 127, 266
권중환 · 301
귀속농지 · 317
근초고왕 · 70
글로스터셔 대대 · 331
금석광산 · 344
금파리 유적 · 6
금파지방산업단지 · 349
기로춘 · 316
기양제 · 60
기정지 · 249
기지촌문화 · 338

기패관 · 202
기패꾼 · 257
기호학파 · 218
길인수 · 212
김가진 · 305
김간 · 216
김경선 · 181
김경숙 · 165
김경장 · 158
김광찬 · 227
김굉 · 241
김교승 · 270
김귀손 · 274
김규식 · 316
김기 · 153
김남산 · 301
김남중 · 187
김당 · 135
김문기 · 148
김병두 · 274
김부식 · 43, 107
김서지 · 56
김선명 · 299
김성리 · 154
김수덕 · 299
김수민 · 266
김수증 · 231
김수항 · 231
김약항 · 154
김연지 · 134
김웅권 · 301, 317
김원묵 · 266
김위제 · 93
김유신 · 51, 76
김윤남 · 241
김윤종 · 293, 297
김은중 · 293, 297
김인성 · 271
김인수 · 281
김장생 · 225
김종서 · 146
김종운 · 270
김종직 · 135
김좌명 · 188
김준덕 · 153
김중렴 · 138
김진묵 · 266
김창실 · 300
김창업 · 180
김창집 · 193
김체건 · 190
김추 · 241
김춘수 · 274
김행 · 241, 254

ㄴ

나학천 · 172
낙남 · 240
낙랑 · 69
낙하평 · 212

난민수용소 · 336
남경 · 102
『남계선생집』 · 233
남구만 · 236
남궁명 · 156
남동민 · 301
남북교역중심권역 · 348
남북물류기지 · 348
남사고 · 160
남일 · 334
남한 대토벌 작전 · 273
남효온 · 146
내소군 · 44
노강필 · 115, 123
노공필 · 140
노균 · 139, 142
노동식 · 301
노문준 · 160
노물재 · 135, 140, 244
노사신 · 124, 135, 140, 244, 249
노선 · 139
노숙 · 139, 142
노승서 · 142, 245
노영순 · 123
노유신 · 135, 145
노진 · 139
노책 · 124
노한 · 124, 135, 140, 249
노호신 · 135, 141, 244, 244
노회신 · 135
노효돈 · 123
「농지개혁법」 · 317
농촌위원회 · 321
농촌진흥운동 · 309
능위토 · 202
능행 · 201

ㄷ

다율리 유적 · 27
단발령 · 263
단일 세금제도 · 320
달을성현 · 45
『담헌서』 · 179
『담헌연기』 · 181
「답설인귀서」 · 77
당동리 유적 · 14, 22
당동산업단지 · 354
당초문기와 · 67
당포성 · 47, 72
당하리 유적 · 20, 25
대동단 · 305
대동신문 · 305
『대동야승』 · 171
대모산성 · 79
대방군 · 69
대성가스 · 354
대전리산성 · 74
『대한매일신보』 · 291
대한민국 임시정부 · 305
덕수 이씨 · 156

덕원군 · 137
덕진산성 · 46, 72
데라우치 마사타케 · 290
도감포 · 72
도농복합시 · 346
『도로고』 · 203
『동국여지승람』 · 83
『동문선』 · 100
『동아일보』 · 304
동양척식회사 · 295
동파리 유적 · 13
동파역 · 182
두사충 · 172
『두사충비결』 · 169
두원공과대 · 356
두지나루 · 70
둔전 · 258
둔토 · 202
디스플레이단지 · 353
따뜻한 복지 시티 · 360

ㄹ

리부락 연맹근로보국대 · 313
리퍼 작전 · 330

ㅁ

마산역 · 182
만세시위운동 · 298
만수산 · 163
만월대 · 109
말갈 · 69
매성현 · 44
『매일신문』 · 291
매초성 · 79
맥아더 · 326
메모리반도체 · 353
명성황후 · 263
명의궁주 · 138
모스크바 삼상회의 · 316
모지 · 49
목종 · 92
몰자비 · 59
묘청의 난 · 118
무건리보루 · 46
무단통치 · 289
무라야마 지준 · 160
무상몰수 · 무상분배 · 320
무학 · 171
문무왕 · 51
문발산업단지 · 342
문정왕후 · 142, 149
미군주둔지역지원특별법 · 356
미소공동위원회 · 316
미제 · 49
미타사 · 253

민간인 통제구역 · 347
민긍호 · 266
민대생 · 150
민무구 · 143
민무늬토기 · 20
민무질 · 143, 149
민무휼 · 134
민사도 · 156
민영달 · 258
민유 · 56
민전 · 89
민정중 · 231
민제 · 135, 140, 149
민족해방운동 · 283
민종식 · 278
민주청년동맹 · 321
민진량 · 189
민청 · 105
밀산군 · 188

ㅂ

박강생 · 142, 147
박상의 · 164
박석고개 · 194
박세채 · 227, 254
박수 · 145
박수문 · 120
박습 · 138
박승선 · 172
박승환 · 265
박영준 · 305
박우용 · 300
박원선 · 301
박원종 · 135, 145
박자우 · 170
박종우 · 146
박종익 · 198
박종지 · 146
박종한 · 271
박중림 · 145
박중선 · 145, 148
박지원 · 181
박찬익 · 305
박창훈 · 212
박태준 · 273
박팽년 · 145
박필훈 · 259
박희립 · 183
반학영 · 291
방곡령 · 271
배위 · 202
배현보 · 137
백기수 · 300
『백사별집』 · 165
백수성 · 74
백영현 · 297
백운동서원 · 235
백유함 · 254
백인걸 · 214, 245, 254
백태산 · 300

벽제관 · 99, 180
변상동 · 147
변석봉 · 301
변협 · 219
변효순 · 147
별무반 · 118
보수세 · 259
복녕군 · 191
본숙 · 49
봉서당 · 182
봉서산성 · 74
봉성현 · 45
『봉안비결』 · 172
「부역행위 특별심사법」 · 327
부황 · 237
분수원 · 99
비밀결사운동 · 296
비삽 · 48
빗살무늬토기 · 15, 32

ㅅ

사대부 · 209
사림파 · 239
사립학교규칙 · 290
사립학교령 · 290
사육신 · 246
사이토 마코토 · 291
사족 · 209
「사창계약속」 · 218
사창제 · 222
사패지 · 133
「사형금지법」 · 327
산미증식계획 · 308
『산행록』 · 187
『삼국사기』 · 43
『삼국사절요』 · 124
『삼국유사』 · 97
3 · 1운동 · 298
3 · 1운동발상비 · 301
38도선 · 328
삽교시장 · 293
상서도성 · 86
서경덕 · 223
서경보 · 199
서곡리 고분벽화 · 127
서교 · 211
서선계 · 171
서선술 · 171
「서실의」 · 218
서원 · 83
서원금령 · 237
서원폐단소 · 228
서원합향론 · 222
서필원 · 228
석산광산 · 344
선유산업단지 · 354
설마리 전투 기념비 · 331
설인귀 · 51
설인귀사당 · 60
섭정국 · 161

성괘 · 159
성급 · 154
성녕대군 · 139, 155
성달생 · 154, 213
성담수 · 245
성득식 · 155
성문잠 · 156
성문준 · 156
성봉조 · 154
성삼문 · 154, 243
성석린 · 147, 153, 244
성석번 · 154
성석연 · 147, 154
성석용 · 154, 243
성세순 · 155
『성소부부고』 · 253
성수근 · 155
성수영 · 156
성수종 · 156, 219
성수침 · 154, 214
성승 · 154
성억 · 139, 147, 154
성엄 · 154, 244
성여완 · 147, 153
성염조 · 154, 244
성임 · 155
성재암 · 253
성지 · 168
성충달 · 155
『성학집요』 · 217
성해응 · 240
성현 · 154, 244
성혼 · 154, 215, 254
성화학교 · 300
세일제 · 254
『세종실록지리지』 · 247
소령원 · 133, 205
소모 · 69
소선옹주 · 147
소작료 납세 거부 · 282
소헌왕후 · 134, 140
소혜왕후 · 137, 144, 146
『송계집』 · 187
송금종 · 293, 297
송시열 · 171, 227
송익필 · 248
『송자대전』 · 171
송준길 · 229
송추지향 · 240
송한필 · 247
수곡성 · 70
수길원 · 133, 205
수도권정비계획 · 346
수세 · 259
수양대군 · 155
수조권 · 89
수파설 · 161
수파장생설 · 162
숙경옹주 · 147
숙녕옹주 · 147
숙정옹주 · 137
순릉 · 133, 204
순흥 안씨 · 134, 244
술이홀현 · 45
술탄 · 65
숫돌재 · 194
스마트교통 시티 · 360
승전색 · 291

『승정원일기』 · 205
『시대일보』 · 304
시문룡 · 168
식현리 유적 · 22
신경준 · 203
신곡서원 · 238
신량 · 156
신명화 · 158
신민일 · 241
신민회 · 305
신사임당 · 158
신사참배 · 312
신숙주 · 138, 150, 245
신숭겸 · 241
신영석 · 135
신유한 · 61
신의왕후 · 203
신제현 · 254
신종옥 · 150
신종호 · 151
신종흡 · 150
신주 · 150
신중주 · 138
『신증동국여지승람』 · 57, 100
신탁통치 · 316
신항 · 151
신흠 · 166
신흥대 · 356
심강 · 136
심결 · 134
심덕부 · 134
심상각 · 301, 306
심선 · 137
심순경 · 136
심순로 · 135
심순문 · 135, 244
심안의 · 137
심안지 · 137, 244
심연원 · 135, 244
심온 · 134, 140, 244
심원 · 135, 244
심의겸 · 136, 244, 246
심의봉 · 301
심인 · 135
심종 · 134, 244
심준 · 134
심지원 · 254
심학산 유적 · 28
심한 · 136
심홍 · 136, 244
심회 · 134
심희원 · 136
13도 창의 대진소 · 268
13도연합의병부대 · 267
13도창의군 · 267
10호 단위 선전반 · 324

ㅇ

아미성 · 46
IT산업 · 351

안동도호부 · 77
안목 · 211
안보관광단지 · 348
안원규 · 301
안원숭 · 154, 244
안재홍 · 316
안중로 · 154
안평대군 · 137
안호문 · 137
알천 · 47
애국미거출운동 · 323
양균송 · 160
양세환 · 300
양안 · 258
양전 · 89
양천진 · 153
LCD산업 · 353
LCD산업단지 · 349
LCD클러스터 · 354
LG디스플레이 · 354
여우길 · 161
여운형 · 316
『여지도서』 · 100
연경 · 181
연기우 · 265
『연도기행』 · 180
『연려실기술』 · 168
『연원직지』 · 181
연일 정씨 · 136, 244
연행 · 179
『연행기사』 · 180
『연행록』 · 187
『열하일기』 · 181
염가칭 · 88, 121
염규호 · 300
염상 · 120
염신약 · 90, 119
염제신 · 249
염형명 · 88, 119
예성강 · 70
오두산성 · 74
오목관 · 182
오산지방산업단지 · 349
오승 · 137
오정일 · 192
『오주연문장전산고』 · 172
오중화 · 137
오치훈 · 200
오행론 · 173
옥석리 유적 · 16, 18, 24
『옥수경』 · 171
『옥수진경』 · 160
온사문 · 58
온조왕 · 47
왕건 · 83, 117
왕규 · 120
왕급 · 159
왕수 · 139
왕회종 · 266
『용재총화』 · 213
용주골 · 338
우계 · 215
우봉근 · 45
우성범 · 138, 244
우성전 · 243
우수 · 243
우연 · 242
우왕 · 84

우율학파 · 211
우인열 · 242
우잠군 · 45
우현보 · 138
운정지구 유적 · 11
웅진도독부 · 77
원경왕후 · 134, 140
원술랑 · 80
원용팔 · 265
원평도호부 · 83
월롱첨단산업단지 · 354
유계 · 229
유동량 · 249
유명규 · 265
유비쿼터스 · 358
유비파크 · 359, 360
유순정 · 135
U-CITY · 350
유실 · 154
유엔군 · 330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326
유오 · 145
유용 · 294
유원외 · 161
유인궤 · 53
유자해 · 135
유종선 · 185
유진부 · 274
유청신 · 143
유탁 · 143
유포련 · 274
유후성 · 189
육계토성 · 46, 69
6 · 25 반공위령탑 · 325
6 · 25전쟁 · 318
윤경 · 145
윤계겸 · 149
윤계동 · 142, 146
윤곤 · 142, 213, 242
윤관 · 96, 141, 242
윤규 · 142, 147
윤근수 · 161
윤기영 · 297
윤내 · 142
윤당 · 146
윤돈 · 156
윤두영 · 301
윤민신 · 118
윤반 · 145, 245
윤배 · 146
윤번 · 142, 213, 244
윤보 · 141, 148
윤보로 · 142, 147
윤사로 · 142, 145, 245
윤사분 · 148
윤사원 · 155
윤사윤 · 148
윤사은 · 146
윤사흔 · 148
윤삼산 · 144
윤삼원 · 147
윤선거 · 228, 254
윤섭 · 142
윤세기 · 196
윤소종 · 158
윤수미 · 147
윤승경 · 142
윤승례 · 142, 245

윤승순 · 142
윤신달 · 115, 242
윤안비 · 141
윤안숙 · 141, 245
윤안적 · 141
윤암 · 141, 147
윤양 · 161
윤언민 · 117
윤언식 · 141
윤언이 · 117, 141
윤언인 · 141
윤여필 · 148
윤영 · 145
윤우 · 142, 147
윤욱 · 149
윤원형 · 149
윤은 · 145
윤이 · 141
윤인 · 145
윤인순 · 270
윤인첨 · 118
윤임 · 148
윤중조 · 141
윤증 · 156, 229
윤지임 · 149
윤창세 · 156
윤척 · 141
윤치대 · 293
윤탁 · 146
윤태산 · 147
윤평 · 141
윤필상 · 145
윤학수 · 301
윤해 · 155
윤향 · 142
윤혁 · 141
윤호 · 146
윤홍섭 · 300
윤황 · 156
윤회 · 158
윤훈 · 146
윤희이 · 144
윤희제 · 144, 245
율곡 · 216
율우 · 216
율포리 유적 · 17
은대리성 · 47
을사조약 · 263
응덕정 · 85
응제 · 105
의병운동 · 263
의병항쟁 · 264
의용군 · 322
의인왕후 · 161
의종 · 84
의주로 · 181
의친왕 · 305
이갑 · 180, 197
이거경 · 143
이건칠 · 274
이계녕 · 137
이공 · 137
이공조 · 150
이광 · 197
이근영 · 301
이근행 · 79
이기하 · 301
이담 · 90

이대 · 136
이대유 · 293
이덕숭 · 149
이돈수 · 156
이명신 · 134, 157, 213
이무 · 143
이문섭 · 301
이문통 · 161
이문화 · 148
이보 · 148
이분 · 151
이사순 · 137
이사후 · 137
이상옥 · 301, 307
이색 · 90
이성 · 141, 244
이성구 · 300
이소천 · 102
이수 · 155
이수광 · 166
이순몽 · 138
이순진 · 301
이순풍 · 161
이숭녕 · 307
이숭지 · 135
이승만 · 316
이시애 · 135
이식 · 166
이신애 · 305
이암 · 144
이양 · 157
이영진 · 300
이용 · 136
이용현 · 293
이욱영 · 300
이웅 · 249
이원 · 138
이원수 · 158
이유 · 145
이유태 · 229
이은명 · 274
이은우 · 156
이은찬 · 266
이의구 · 135
이의석 · 158, 213
이의신 · 162
이이 · 158, 213, 254
이이첨 · 171
이인 · 146
이인영 · 267
이인옥 · 301
이잔미성 · 46
이적 · 58, 149
이전 · 135
이정 · 148
이정구 · 166
이제신 · 220
이종구 · 301
이주부 · 274
이중혁 · 301
이중환 · 210
이증 · 137
이지광 · 198
이직 · 137
이차녕 · 301
이천 · 158
이추 · 158
이충원 · 185

이학로 · 300
이한경 · 273
이항 · 138
이항복 · 165
이헌국 · 164
이현 · 135
이현일 · 172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 356
이황 · 223
이후백 · 184
이훈 · 150
이회검 · 184
이회준 · 200
익산광산 · 344
인민위원회 · 320
인성대군 · 151
인순왕후 · 135
『인자수지』 · 171
인조 · 204
인조반정 · 225
인천상륙작전 · 326
인터넷 · 352
인평대군 · 180
1읍1원 · 225
일산 신도시 · 342
일행 · 160
임강현 · 45
임단관 · 180
임단현 · 45
임명애 · 299
임정주화대표단 · 306
임진각 · 341
임진강 · 69
임진강유역개발권역 · 348
임진나루 · 99
임진성 · 148
임진현 · 89

ㅈ

자운서원 · 223
자운서원 묘정비 · 227
자운서원원규 · 233
자유로 · 340
자작농지 설정사업 · 309
장경왕후 · 142, 148
장단나루 · 84
장단현 · 45
장릉 · 204
장명광산 · 344
장명산 사건 · 294
장산리 유적 · 13
장생설 · 161
장수 황씨 · 153, 213
장순왕후 · 151, 204
장의궁주 · 142, 147
장자미 · 160
장파리 유적 · 14
적성 · 81
적성현 · 44
전곡리토성 · 79

전국농민조합총연맹 · 315
전략 2010 · 350
전성서 · 273
전협 · 305
『정감록』 · 172
정갑석 · 301
정구 · 161
정보 · 149
정보화시대 · 352
정봉화 · 301
정부 · 141
정사도 · 136
정수하 · 236
정신궁주 · 138
정신옹주 · 146
정안왕후 · 204
정연 · 136, 244
정엽 · 225
정용대 · 270, 297
정유침 · 138
정윤규 · 274
정인홍 · 167
정자숙 · 138
정자양 · 138
정자원 · 138
정자제 · 138
정전협상 · 333
정제 · 149
정종락 · 300
정종석 · 320
정종성 · 150
정주 · 128
정중부 · 90
정진 · 137
정천화 · 301
정철 · 138
정치화 · 188
정태진 · 306
정포 · 137
정학균 · 320
정현옹주 · 145
정현왕후 · 142, 145, 146
정혜옹주 · 146, 149
정홍 · 137
정홍준 · 293, 297
정효강 · 137
정효손 · 137
정효전 · 137
정희왕후 · 83, 141
제릉 · 203
제위보 · 88
조감 · 241, 254
조광조 · 214
조대림 · 138
조묘꾼 · 257
조무쇠 · 301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 315
조선농지령 · 309
조선소작조정령 · 309
조선어학회 · 306
조선어학회사건 · 306
『조선왕조실록』 · 83
『조선일보』 · 304
조선총독부 · 289
조식 · 223
조온 · 144
조위총 · 118
조익주 · 216

조인환 · 266, 297
조제론 · 222
조주행 · 300
조준 · 137
조천 · 180
『조천기』 · 180
조헌 · 183
종계변무 · 183
종묘지법 · 159
종족군거 · 240
주군현제도 · 86
주먹도끼 · 10
주월리 유적 · 9
주장성 · 78
죽우당 · 215
중공군 개입 · 328
중성산 · 55
중성현 · 44
증문천 · 160
증여 · 103
지개성부사 · 86
『지리신서』 · 160, 174
지적재산권 · 352
지홍윤 · 265
진희이 · 160

ㅊ

창녕 성씨 · 153, 213, 244
창원군 · 137
채응언 · 282, 297
천도론 · 159
천성 · 74
천수산 · 163
천정구현 · 45
철마는 달리고 싶다 · 341
첨단산업단지권역 · 348
청각루 · 182
청교도 · 86
청송 심씨 · 134, 214, 244
『청암동계』 · 257
청주 한씨 · 149
『청천집』 · 62
초리 유적 · 27
초평도 · 72
최만리 · 158
최사의 · 138
최안 · 153
최익현 · 269
최익환 · 305
최창섭 · 301
최충 · 158
최홍주 · 300
최후 · 138
추로지향 · 215
추포 · 91
출판도시 · 355
출판문화정보단지 · 353
치안유지회 · 315
치양성 · 70
친일 매판 세력 · 282
7 · 4남북공동성명 · 341

칠중성 · 46, 65
칠중하 · 46
칠중현 · 44

ㅋ

캠프 스탠톤 · 357
캠프 에드워드 · 357
컨텐츠 · 352
킬러 작전 · 330

ㅌ

탁지부 · 295
탑골공원 · 298
태평관 · 180
태평양전쟁 · 311
『택리지』 · 210
토마호크 작전 · 330
토지조사사업 · 294
토털 라이프 케어 시티 · 360
통감부 · 263, 289
통일관광벨트 · 348
통일로 · 340

ㅍ

파산4현 · 224
파산서원 · 224
파주목 · 83
파주중심도시권역 · 348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 · 349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단지 · 349
파주향선생안 · 215
파주향약 · 250
「파주향약서」 · 250
파평 · 83
파평 윤씨 · 141, 213
파평관 · 180
파평산 · 81
파평현 · 44
파해평리(사)현 · 44
판문점 · 181, 341
판문점 휴전회담 · 333
판위 · 202
판적천교 · 181
8시간 노동제 · 320

8 · 15해방 · 315
88서울올림픽 · 337
패두 · 202
패하 · 70
포로송환 문제 · 334
표하 · 46
풍계사우 · 238
『풍수록』 · 172
풍수지리설 · 85, 159
풍훈 · 79
필부 · 48

ㅎ

『하곡집』 · 183
하륜 · 160
하성묵 · 271
하세가와 요시미치 · 291
하포리 유적 · 28
한경기 · 150
한경침 · 150
한계미 · 149
한공의 · 245
한국SMT · 354
한국광복군 · 306
한글학회 · 306
한기 · 149
한기동 · 300
한란 · 125
한명회 · 144, 149, 245
한보 · 150
한상경 · 144
한상질 · 127, 143, 149
한상환 · 144
한서울관광대 · 356
「한성부완문」 · 255
한세보 · 136
한수 · 127
한언공 · 91, 125
한우량 · 125
한윤원 · 136, 244
한일병합 · 282
한준겸 · 164
한총례 · 91
한치형 · 244
한탄강 · 69
한확 · 136, 144
한홍광산 · 344
해리슨 · 334
「해주일향약속」 · 218
향규 · 222
향사당 · 251
향안 · 222, 250
향약 · 222
허공 · 186
허균 · 183, 253
허난설헌 · 183
허목 · 60
허봉 · 180
허엽 · 183
허위 · 266

허추 · 186
헌병경찰통치 · 289
현물세제 · 322
형보탄광산 · 344
혜관 · 103
혜숙옹주 · 151
혜음령 · 98
혜음사 · 104
「혜음사신창기」 · 100
혜음석불 · 181
혜음원 · 98
『호구총수』 · 247
호로고루 · 46
호로하 · 46
호로하 전투 · 78
호순신 · 160
홍귀손 · 158
홍길민 · 144
홍대용 · 179, 181
홍여강 · 153
홍여방 · 144
홍여한 · 188
홍영방 · 137
홍옥 · 200
홍원용 · 146
홍원유 · 270
홍유손 · 150
홍잠 · 144
홍제원 · 179
홍지 · 154
홍탁 · 145
「홍학계」 · 256
화석정 · 182
화유현 · 301
화평옹주 · 205
황국신민화 정책 · 312
황군서 · 153
황균비 · 153
황극탕평설 · 232
황병주 · 301
황보신 · 153
황보인 · 146
황상 · 153
황수신 · 153
황승원 · 252
황유경 · 247
황인수 · 301
황장연 · 301
황재호 · 270
황정욱 · 243
황치신 · 153, 243
황학주 · 300
황희 · 153, 213, 243
회니 시비 · 230
회사령 · 290
후릉 · 204
훈구파 · 239
휴전선 · 334
희성전자 · 354

제2권 파주역사 집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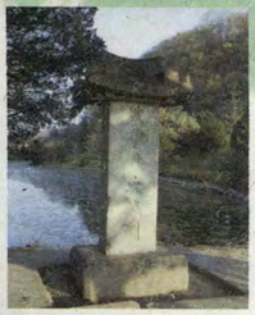
박경안 중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원 부원장
심광주 토지박물관 기획운영팀장
염상균 역사탐방연구회 연구위원
오석민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관장
이현희 성신여대 명예교수
정만조 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정승모 지역문화연구소 소장
지두환 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지호원 자유기고가
하문식 세종대 사학과 교수

파주시지 제2권

파주역사

발 행 일 2009년 1월
발 행 처 파주시
편　　찬 파주문화원
편집제작 (주)역사만들기

© 파주시, 200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



파주는 한반도 역사의 중심지이다. 임진강변에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강변을 따라 축조된 삼국시대의 산성에서는 아직도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파주는 고려의 불교문화와 조선의 유교문화를 모두 품에 안고 있다.

표지사진 : 옛 의주로, 우리나라 최고의 쌍미륵 석불인 보물 제93호 용미리석불이 그 위용을 드러낸다.